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하

블랙아웃 — 새봄

아내의 침대 — 이희수

먹고 낳아서 살 어리랏다 — 전하영

오우거 — 채우

모두 그곳에 있다 — 손호영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 김주후

굿바이, 마드무아젤 — 윤인영

청춘실격 — 박은하

삼촌은 오드리 헵번 — 심보영

금주의 가계부 — 오주영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하

블랙아웃 — 새봄

아내의 침대 — 이희수

먹고 낳아서 살 어리랏다 — 전하영

오우거 — 채우

모두 그곳에 있다 — 손호영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 김주후

굿바이, 마드무아젤 — 윤인영

청춘실격 — 박은하

삼촌은 오드리 헵번 — 심보영

금주의 가계부 — 오주영

차례

4 6 7	금주의 가계부 — 오주영
4 1 9	삼촌은 오드리 헵번 — 심보영
3 6 5	청춘실격 — 박은하
3 1 1	굿바이, 마드무아젤 — 윤인영
2 5 9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 김주후
2 0 5	모두 그곳에 있다 — 손호영
1 5 5	오우거 — 채우
1 0 5	먹고 낳아서 살 어리랏다 — 전하영
5 7	아내의 침대 — 이희수
7	블랙아웃 — 새봄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블랙아웃 — 새봄

작의

더 이상 편도체가 자극받지 못할 만큼
극단적 피로와 극단적 불안에 노출되는 사람들.
술과 각성음료로 버티내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
한 남자가 겪은 블랙아웃의 전말을 추적한다.

등장인물

양익승(38세, 남) 택시기사 3년차

혈혈단신 부산에서 올라와 장사 두 번 말아먹고 보증 한번 서고 나니,
불알 두 쪽 말고는 남은 게 없다. 고향선배 덕분에 회사택시 겨우 3년 채웠고,
올해는 개인으로 옮겨 타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10억의
현금다발. 눈이 뒤집히는 게 정상이겠지만, 순간의 탐욕이 인생 최대 참사로
이어질 줄이야.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기고, 먹고살기 위해 밥 먹듯 과로다.
그나마 술이라도 있으니 버텼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몸뚱이 하나로
버티며 닳치는 대로 가보는 놈.

대리운전(28세, 남) 강남클럽 콜카[†] 대리기사

강남클럽 포주MD^{††}가 되면 월수 1억 원 이상 된다는 소리에 강남으로 왔는데,
MD 근처도 못 가보고 밑바닥에서 줄서기 중이다. 치밀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사이코패스 기질이 다분한 겁 없는 양아치. VIP 손님인 빨간여자가 10억짜리
현금가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릉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어야 할 돈가방은 온데간데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스텝이 꼬여버렸다. 순진해 보이는 보호색으로 광기어린 눈빛을 감추고
사는 놈.

빨간여자(30세, 여) 강남클럽 투자자 현금 배달부

화류계 10년차. 돈 많은 스폰서를 만나서 팔자가 바뀌었다. 강릉
세컨드하우스에 기거하며, 한 달에 두어 번 강남클럽 지분을 가진 스폰서의

현금 배달을 도맡아 한다. 여자가 떠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강릉집.
클럽에서 배달비로 받는 마약에 중독돼 도망도 못 가는 신세지만, 콜 받으며
살던 시절에 비하면 더 욕심 부릴 것도 없었다. 오랜만에 현금 배달을 나가서
콜카 대리기사가 붙었는데, 그의 시선이 탐탁지 않아 택시를 탔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여자.

김 씨(63세, 남)
강릉아파트 경비로 경비실 뒤에 텃밭을 가꾸는 남자. 종종 술을 먹고 사라진다.

경비(68세, 남)
강릉아파트 경비로 김 씨보다 먼저 경비를 시작한 남자. 김 씨의 텃밭이 싫다.

경찰복(36세, 남)
강릉아파트 주민. 문제해결 능력이 좋은 경찰은 아니지만, 동네 하소연 창구다.

아랫집여자(36세, 남)
강릉아파트 주민. 혼자 사는 위층의 빨간여자가 팬스레 꼴 보기 싫은 1층 여자.

옆집여자(32세, 여)
강릉아파트 주민. 빨간여자 옆집에 사는 여자. 둔해서 그 난리통에 들은 게 없다.

동네사람(42세, 여)
강릉아파트 주민. 아파트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여자.

알바직원(30세, 남)
익승의 집 앞 편의점에서 일하는 야간알바. 익승과 형, 동생 하는 사이.

배차과장(46세, 남)
익승의 고향선배. 괜히 발목잡혀 익승을 자르지도 못하고 처치곤란이다.

김 양(27세, 여)
익승이 다니는 택시회사의 경리. 겁 없이 할 말 다하는 배짱.

그 외
형사로 위장한 남자·2, 경비실 주위에 모여든 동네주민 등.

줄거리

새벽 6시, 평소처럼 눈을 뜬 익승.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어제 먹은 술 때문에 밤새 기억을 잃었지만, 뭐 큰일 있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사이에 사람이 죽은 거 같다.
마지막 장거리 손님을 태운 시각부터 대리운전을 부른 시각까지, 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젯밤 익승의 택시를 대리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남자와
함께 강릉으로 넘어가 기억의 파편을 모아본다.

피해를 맞출수록 살인범이 되어가는 익승. 결정적인 돈가방을 기억해내고 10억
가량의 현금이 든 돈가방을 찾기 시작하는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기억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다. 하룻밤 사이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더니...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리운전의 실체를 알게 되고 벼랑 끝에 몰리면서,
익승은 숙취제와 에너지음료에 의지한 채 24시간을 꼬박 달려 기억의 진실에
도달하는데... 결국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영혼의 블랙아웃을 맞이하게 된다.

† 클럽에서 제공하는 흰색밴드에 롤걸(혹은 VIP)을 태우고 지령 받은 성매매 장소로 이송시키는 차량.
†† 클럽 MD(merchandise·영업관리자)들 가운데 VIP를 유치하고 성관계 할 여성을 연결해주는
0.1% MD들을 칭하며, '술, 여자, 마약'으로 검은 거래를 세팅하는 주도적 인물들.

블랙아웃 새봄

스윽- 침을 뉘고, 터질 것 같은 머리를 흔들어본다.

양익승 아우, 골이야.

다시 벌러덩 눕는다.

#1. 타이틀 몽타주

- 퇴근시간. 짝 막힌 대로.
- 택시기사 양익승(38세, 남)이 목을 빼고 손님 레이더를 켜 채 운전 중이다. 운전대 옆에는 콜 받는 핸드폰 서너 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뒷좌석에 정신없이 떠드는 여고생들이 탔다가, 신경쓰이게 소곤대며 이야기하는 부부커플도 탔다가, 전화기에 쌍욕을 던지며 싸우는 직장인도 탔다가, 손님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익승의 얼굴에는 점점 피곤이 쌓인다.
- 빈 차를 운전하며 삼각김밥을 우걱우걱 삼키는 익승. 손님이 타면 또 “네~ 어서옵쇼~” 하고 두 눈을 부릅 떠보는데… 음료홀더에는 에너지드링크 빈 캔이 서너 개 구겨져 있다.
-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 후방 등이 붉게 도시를 가로지른다.

타이틀. “블랙아웃”

#2. 양익승의 집/방(낮)

AM 06:00
날카롭게 울리는 알람시계.
더듬더듬 시계를 찾는 손.
손에 잡힌 시계를 벽으로 툭- 던지면, 알람이 꺼진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익승.
얼빠진 사람처럼 침이 주룩… 흐른다.

#3. 양익승의 집/화장실(낮)

거울을 보며 분노의 칫솔질을 하는 익승.
크악! 거품을 뱉고 거울을 보는데, 낫설다.
목을 긁으면서 허공에 시선을 던져보지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다시 거울로 시선을 돌리는데,
화장실 한쪽 모서리에 피를 흘리고 축 늘어져 있는 빨간여자!
헉!! 해서 모서리 쪽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다.

양익승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어우씨.

눈을 비비고 양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익승.
으아- 소리 내며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는데,
아직도 골이 흔들린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좌바바박 세수를 한다.

#4. 편의점(낮)

문에 달린 종소리. 편의점 문이 열렸다가 닫힌다.
계산대 위에 숙취제와 컵라면을 올려놓는 익승.

알바직원 (코를 막으며) 어이쿠, 얼마나 마신 거야?

바코드를 찍는 알바직원.

익승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꺼내려는데,
숙취제 빈 병이 나온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

알바직원 (바코드 찍은 숙취제를 빈 병 옆에 놓으며) 일병 하셨구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익승이 빈 병을 하나 더 꺼낸다.
다른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익승. 숙취제 빈 병이 또 나온다.
나란히 서 있는 숙취제 빈 병 3개.

알바직원 올~ 역대급인데? 어제 술 많이 마셨나 보네.

익승이 낮설게 쳐다본다. 저게 뭐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알바직원 기억 안 나지? 그렇게 필름 끊어 먹다 치매 온다.
가뜩이나 상태도 안 좋은 양반이...

익승이 알바직원을 쳐다보자, 반사적으로 획- 얼굴을 가리는
알바직원. 익승이 가만 있다. 평상시라면 이미 손이
날아왔어야 할 상황. 알바직원은 익승의 눈치를 살피며 봉투에
숙취제와 컵라면을 담는다.

알바직원 왜 그래~ 진짜 어디 이상한 거야? 몸 안 좋으면 병원 가봐.

숙취제 빈 병만 쳐다보던 익승.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없다.

#5. 택시회사/사무실(낮)

택시회사 차고지 사무실이다.

익승은 메스거리는 배를 만지며, 컵라면 익기만 기다리고 있다.
신경도 쓰지 않고 열심히 화장 중인 경리 김 양.
배차과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배차과장 왜 기어나와? 일차 한다며?

양익승 (입에 넣으려던 라면 뺄으며) 내가 언제-

배차과장 이런 미친 새끼, 지가 교대시간에 전화해서 박박거리놓고,
(주차구역 내다보며) 차는?

(쿵쿵 냄새를 맡으며) 너... 차 맡겨놓고 술 처먹었니? 또라이 새끼.
(경리에게) 야 김 양아, 재 차 넣으면 열쇠부터 뺏어.

배차과장이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익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핸드폰 통화목록을 확인한다.

김 양 어제 일곱 시 다 돼서 전화 주셨어요. 야간 오면 다른 차 내주라고.

통화목록에는 '야간교대', '배차과장'과 '회사' 번호가
번갈아 이어져 있는데
그 끝에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다. 010-XXXX-7787

양익승 칠칠팔팔?

익승이 우웩- 헛구역질을 한다.

김 양 과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사장 아들도 아니고 뺨도 없는 게 맨날 지 꼴리는 대로 한다고.
고향후배고 뭐고 없다면서,

입을 막고 화장실로 튀어 나가는 익승.

김 양 이번엔 진짜 키 압수예요-

익승이 나간 문을 향해 외치는 공허한 소리.

#6. 택시회사/화장실(낮)

양익승 껍- 꾸엑-

변기통에 신물만 게워내는 익승.
현기증이 나서 돌아왔는데 전화가 걸려온다.

양익승 여보세요?

대리운전(E) 저... 어제 대리운전한 사람인데요.

익승이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010-xxxx-7787
번호 아래 마지막 통화시간이 02:58로 찍혀 있다.

#7. 공터 일각(낮)

주차해놓은 익승의 택시 앞에 어리숙해 보이는
대리운전(28세, 남)이 서 있다.
익승이 대리운전을 보는데 헛구역질부터 나온다.
경계하며 다가오는 대리운전.

양익승 이 차를 당신이 왜 들고 있어?

대리운전 저 아직, 대리비 못 받았는데요.

기막혀 헛웃음을 짓는 익승.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만 원짜리 열댓 장을 헤아린다.

대리운전 그계... 그런 돈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뒷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건넨다.
종이를 펼쳐보면 '대리비 10,000,000원을 지급하겠음.
2월 22일. 양익승' 익승은 숫자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게슴츠레 실눈을 뜨며

양익승 이게... 동그라미가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 천... (기가 막힌다)

헛웃음을 지으며 지갑에서 다시 만 원짜리를 헤아린다.

양익승 씨발. 아침 댓바람부터, 너 좀 웃겼다.

대리운전 저기... 여기 손도장도 찍으셨거든요.

꾸뚝하게 종이를 들이미는 대리운전.

양익승 이름 뒤에 지장이 찍혀 있는데... 피얼룩이다.

양익승 이거 뭐야,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피야?

화들짝 놀라 대리운전에게 종이를 던져버리는 익승.
다시 헛구역질이 나는데,

대리운전 어제... 기억 안 나세요?

피, 막... 이렇게 묻히고... 저한테 서울에만 데려다달라고...

순간, 고개를 돌리는데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장면.

인서트.

한밤중에 피범벅이 된 익승이 좀비처럼 택시를 향해 걸어간다.

혼란스러운 익승, 복잡해지는 표정.

만 원짜리 지폐 15장을 대리운전에게 던지듯이 쥐어주고
차에 올라탄다.

양익승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을...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삼시다. 상식적으로.

익승의 택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뺀다.

백미러로 대리운전을 결눈질해 보는 익승.

우웻, 헛구역질이 멈추질 않는다.

#8. 양익승의 집 앞(낮)

허름한 주택가 좁은 골목에 세워진 택시.
익승이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꺼낸다.

#9. 양익승의 집/방(낮)

컴퓨터로 블랙박스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는 익승.
갖은 인상을 쓰며 관자놀이를 지압한다.
빈 차에 손님이 타는 지점을 발견하고, 뒤로 돌려
정상속도로 재생한다.

블랙박스 1.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커다란 가방을 가지고 차에
올라탄다. 익승이 돌아보며 손을 내젓는데,
여자가 몇 마디 건네자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출발하는 익승.
2018. 02. 21. 18:42

다시 빠르게 돌리는 익승. 한참 동안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한다.
차가 멈추는 데서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2배속으로 돌리면,

블랙박스 2.
차가 멈추고 익승이 뒷좌석의 빨간 원피스의 여자를
부축해 내린다.
2018. 02. 21. 21:07

블랙박스 3.
운전석에 돌아온 익승이 뒷좌석의 가방을 발견하고 다시 내린다.
2018. 02. 21. 21:31

그리고 한참 동안 영상에 움직임이 없다.
다시 빠르게 돌리는 익승. 마른세수를 하며 초조하게 보는데,
차에 누군가 탑승한다. 멈추고 다시 되돌려 보면!

블랙박스 4.
뒷좌석에 태워지는 익승. 만취상태인 듯 축 늘어진다.
곧이어 운전석에 올라타는 대리운전. #7의 남자다.
차가 출발한다.
2018. 02. 22. 03:01

양익승 새벽 세 시?

익승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려 보는데,
땅에 뒹군 듯 흙과 오물이 묻어 옷과 머리가 형클어져 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다. 눈살 찌푸리며 화면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인서트.
#7. 한밤중에 피범벅이 된 익승이 좀비처럼 택시를 향해
걸어간다.
#7. “피, 막... 이렇게 묻히시고... 저한테 서울에만 데려다
달라고...”

#10. 양익승의 집/베란다(낮)

세탁기를 뒤지는 익승. 피가 흥건히 묻은 옷이 나오자,
어어- 귀신이라도 본 듯 엉덩방아를 찧는다.
흙과 오물로 엉망이 된 옷.

점프.
돌아가는 세탁기 앞에 쪼그리고 앉은 익승. 머리를 쥐어뜯다.

양익승 미친놈. 무슨 짓을 한 거야.
(명상하듯 눈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기억할 수 있다.
기억이 난다.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다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는데,

(E) 평똥.

초인종 소리에 놀라 다시 엉덩방아를 찧는 익승.

#11. 양익승의 집 앞(낮)

검정색 점퍼를 입은 남자 두 명이 대문 앞에 서 있다.

남자1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2 벌써 텃나?

남자1 문 딸까요?

남자2 에이~ 영장 갖고 와야지.

#12. 양익승의 집 앞(낮)

현관문 안쪽에서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듣던 익승이 사색이 된다.

신발을 들고 베란다로 가는 익승.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2층 높다.

인서트.

한밤중, 2층 높이 베란다에서 묵직한 가방을 떨어뜨린다.

뭐지? 잠시 망설이는 사이, 현관문을 “꽁꽁”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뛰어내리는 익승.

영성한 자세로 뛰어내려 다리를 빼끗한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며,

질뚱거리고 달아나는 익승.

#13. 택시 안(낮)

대리운전이 옆 좌석 눈치를 살피며 운전 중이다.
조수석에 익승이 앉아 있다.

대리운전 진짜... 따블 주시는 거예요?

양익승 어린놈의 새끼가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일이천이 뉘집 개 이름이냐?

대리운전 위험수당... 뭐 그런 것도 있고.

양익승 확-!

움츠리며 울상을 짓는 대리운전.

양익승 가보면 기억이 나겠지, 니놈 대리비가 왜 천만 원인지.

익승은 속이 뒤틀리는지 배를 움켜쥐었다.

양익승 아우, 배야.

#14. 휴게소 화장실(낮)

화장실에 앉아 있는 익승. 멍하니 뒤통을 놓았다.

점프.

세면대에 손을 대고 물을 트는데, 쇠아- 물소리와 함께

인서트.

샤워실 배수구로 콧물- 다량의 핏물이 빠져나간다.

파편처럼 떠오르는 기억.

다시 아파오는 머리 통증을 잊기 위해 거칠게 세수를 한다.

양익승 진짜 미치겠네.

#15. 택시 안(낮)

고속도로 위. 탈진한 익승이 조수석에 힘들게 앉아 있다.

대리운전 그게 신경성 대장염일 수도 있어요.
운전대 잡으면 그렇죠. 소화기 계통 다 망가진다고.
만성 위장병에 위궤양도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양익승 그리고 살기 싫으면, 똑바로 살아.

대리운전 (피식) 똑바로 사는 게 어떤 건데요?

익승이 말을 꺼내려다가 대거리할 힘도 없어 손가락만 까딱한다.

대리운전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바로 몇 시간 전인데?

양익승 하루 열두 시간씩 뺑이 쳐봐라, 몸뚱이 남아나는 게 있는지.

익승이 달리는 창밖을 내다본다.

#16. 과거. 익승의 기억. 택시 안(밤)

서울 도심 번화가를 달리는 차 안.
익승이 이어폰을 끼고 통화 중이다.

양익승 헤이, 야간~ 잠은 좀 잤냐?

익승이 시계를 보면 18:42를 가리키고 있다.

양익승 일곱 시 맞추기 어렵겠는데... 회사로 와라.
(사이) 사정 좀 봐주라. 내가 올해는 개인 타야지.

신호에 걸려 차가 멈춘 사이 뒷좌석에 여자승객이 탑승한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다. (#9. 블랙박스 1 상황)

양익승 어, 어, 손님. 죄송하지만, 교대 들어가야 돼요.

빨간여자 (취해서 힘이 없다. 뒷좌석에 축 늘어지며) 강릉이요.

양익승 (힐끗힐끗 백미러를 보며) 강릉이요? 어휴~ 요금 많이 나올 텐데.

빨간여자 왕복 쳐서 사십 드릴게요.

야간교대(E)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야, 무슨 소리야, 나 교대 와야지.

양익승 (이어폰) 야, 야, 일단 사무실로 가. 내가 배차과장한테 전화
넣을게. (전화 끊고 백미러 보며) 그럼, 강릉 손님~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셔보겠습니다아~

기분 좋게 출발하는 익승의 차.

#17. 과거. 익승의 기억. 몽타주. 강릉으로 가는 길(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익승의 택시.
- 휴게소에서 각성음료를 마시며 나오는 익승.
빈 캔을 휴지통에 넣고 요란하게 스트레칭을 한다.
- 컴컴해진 고속도로 위. 졸린 눈을 비비며 백미러를 보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도 뿔아떨어졌다.

#18. 과거. 익승의 기억. 강릉아파트 입구(밤)

낡은 복도식 판상형 아파트 입구에 택시가 선다.
익승이 뒷좌석을 보면, 여자가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다.

양익승 손님~ 다 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여는 익승. (#9. 블랙박스 2 상황)
여자의 팔을 잡고 흔들어보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힘없이 툭 떨어지는 여자의 팔뚝에 피멍이 보인다.

주삿바늘 자국이다. 못마땅하게 보는 익승.

양익승 서울까지 가서 약 드시고 오셨나 보네.
우리 손님, 차비는 갖고 계시나?

여자의 핸드백을 뒤지는 익승. 열쇠고리가 툭 떨어진다.
열쇠고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101동 203호.
익승이 한숨을 쉬며 아파트를 돌아본다.

#19. 과거. 익승의 기억. 빨간여자의 집 현관(밤)

여자를 업고 현관에 들어서는 익승.
불 꺼진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다.
현관에 여자를 그대로 눕혀놓고, 핸드백을 연다.
지갑에서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는 익승.

양익승 택시비 40만 원 받아가겠습니다~ (지폐를 하나 둘, 아무지게
헤아리고) 그런데 손님~ 여기까지 업어드린 비용은 별도라...
저의 도가니 상태가 그렇게 나이스한 상황도 아니고 해서, 좀
비싸다~ 싶어도 양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지폐를 하나 둘, 10장
더 꺼낸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히 받겠습니다아~

어두운 집 안을 스윽 훑쳐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익승.
문이 닫힌다.

#20. 현재. 택시 안(낮)

고속도로로 위를 달리는 차 안.

대리운전 그리고 그냥 나왔다고요?
내가 아저씨 태운 게 새벽 세 신데?

#21. 과거. 대리운전의 증언. 강릉아파트 입구(밤)

대리운전(E)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밤중에 피범벅이 된 익승이 좀비처럼 택시를 향해
걸어온다.(#7) 익승의 택시 앞에서 대기 중이던 대리운전은
익승을 보고 다가갔다가,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익승이 피 묻은 손으로 대리운전을 잡는다.
익승이 내미는 종이. #7에서 본 '대리비 1천만 원 각서장'이다.

#22. 현재. 택시 안(낮)

대리운전 일단 가자고 해서 출발은 했는데... 오는 길에 계속 그랬어요.
가방? 무슨 가방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거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익승의 표정이 복잡하다.

인서트.

#12. 2층 높이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떨어지는 목직함 가방.

마른세수를 하는 익승.

양익승 (혼잣말)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23. 강릉아파트 입구(낮)

오가는 사람 없이 한적한 아파트 단지.
익승의 택시가 아파트 입구 한편에 주차를 한다.
익승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대리운전이 잡는다.

대리운전 직접 가지게요? 어제 피... (고개를 저으며) 딱 범죠헌장 각인테?
양익승 일단 그 여자를 만나서...

대리운전 술을 마셨는지, 가방을 훔쳤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일단 물어나 보자는 거죠?

양익승 (마른침을 삼키면)

대리운전이 차에서 내린다.
익승이 앉아 있는 조수석 창가에 와서

대리운전 따따블이요.

양익승 이게 확.

대리운전이 익승을 대신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간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몸을 낮추며 두리번거리는 익승.
차 안에 앉아서 경비실을 지켜보는데, 익승의 눈꺼풀이 무겁다.

(E) (캐리어 끄는 소리)

인서트.
한밤중,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대형캐리어.

깜빡 졸았다가 눈을 뜨는 익승. 대리운전이 운전석에 탄다.

대리운전 아무도 없어요. 문은 열려 있고... 깨끗하던데요?

#24.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익승과 대리운전이 203호 현관에 들어선다.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는 대리운전.
익승은 기억을 더듬듯 찬찬히 집 안을 살핀다.
액자 속에 웃고 있는 빨간여자.

#25. 빨간여자의 집 내부(낮)

익승이 거실을 훑고 안방 문을 연다.
사용한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돌아서 나가려다가, 안방 화장실 쪽으로 발을 돌린다.
식은땀이 난다. 다시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하는 익승.

인서트.

빨간 원피스의 여자가 샤워실에 축 늘어져 앉아 있다. (#3)
여자에게서 흘러나온 핏물이 샤워실 배수구로 빠져나간다.
(#14 연결)

뭐지? 익승이 별경계 충혈된 눈을 손바닥으로 누르는데,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 커진다.
침을 꿀꺽 삼키며 화장실 문을 조금씩 열어보는 익승. “끼이익-”
샤워실은 말끔하다. 안도의 한숨.

#26. 빨간여자의 집/거실+문 앞(낮)

안방 문을 열고 나오는데, 대리운전이 현관문 안쪽에
귀를 대고 있다. 익승을 보고 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뒤꿈치를 들고 걷는 익승.
대리운전이 조심스럽게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본다.
문 앞에 아줌마 두 명이 서 있다.

아랫집여자 어젯밤에 화당당등당 하미 췌일 꿰매개.
(어젯밤에 쿵꿍꿍 하면서 종일 뛰어다녔어)

옆집여자 세사 나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니.
(세상에 나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아랫집여자 야야라~ 그 여자 맞대니. 밤새 몸땡이를 울매나 문대 췌대는지.
(있잖아~ 그 여자 맞는 거 같아. 밤사이 샤워를 얼마나 해대는지)
밤새도록 물 내려가는 소리에 한숨도 못 잤잖소.

인서트.
#14. 샤워실 배수구로 쿵쿵- 다량의 핏물이 빠져나간다.
익승의 눈이 커지고,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진다.

옆집여자 아이래요, 그게. 물 내려가는 소리는 위층인지, 그 모탱이 위층인지, 범인을 못 잡는다잖소.
아랫집여자 아이 몰라. 낮반대기 함 볼라 해도 뭘 귀신처럼 왔다간 자리가 없어. 나중에 CCTV라도 돌려보든가.

현관문 렌즈에 눈을 갖다 대는 아랫집 여자.
놀라서 물러서는 대리운전과 익승의 눈이 마주친다. CCTV?!!

#27. 강릉아파트/경비실(낮)

경비실이 비어 있다. 경비실 앞을 서성이는 두 사람.
슬쩍 안을 들여다보면 CCTV 모니터가 있다.
주변을 살피며 경비실에 들어가는 두 사람.
곧이어 곡괭이를 든 경비가 들어서더니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원래 있던 사람처럼 무심하게 혼자 말을 이어간다.

경비 멧돼지 놈을 잡든가 해야지. 텃밭을 마카 밟아놓고 갔어.

경비가 흙을 툭툭 털고 장화를 슬리퍼로 갈아 신고,
수건을 옷걸이에 건다.
그제야 두 사람을 멀뚱하니 쳐다보는 경비.

대리운전 아, 어제 경비 보시던 분을 찾는데요.
경비 왜서요.
양익승 물어볼게 있어서...
경비 그러게 뭘 물어볼라구요.
양익승 (눈알을 돌리며) 아... 여기 집값이...

대리운전은 익승이 둘러대는 모양이 맘에 안 드는지
인상을 찌푸린다.

경비 마카 낚아빠진 아파트, 집값은 말라고... 서울서 왔드래요?
양익승 네. 낙향을 해보려고.
경비 여가 고향이요?
대리운전 (한숨을 뱉는다)
양익승 (고개만 끄덕)
경비 어데 살았는데?
대리운전 (답답해서 몸을 배배 꼰다)
양익승 ...바다 쪽에
경비 천지 바다구만.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아이나.
양익승 하하하.
경비 서울사람 다 됐소. 말끝이 하나도 안 남았네.
(대리운전 보며) 자는 똥매려운 깡아지처럼 와 저러고 있나.
대리운전 어제 경비 보시던 분이요!
경비 김 씨는 올 즈녁 쉬고, 널 즈녁이나 나오잖소.
멧돼지 오는 것도 모르고, 예잇.
온 새벽에도 술 먹고 날랐지 뭐이나.

인서트.
맥주잔 가득 소주를 붓는 손. 술잔이 오간다.

불쭙 떠오르는 기억을 지우려는 듯 머리를 흔드는 익승.

경비 내한테 물어봐요. 김 씨 가는 아무것도 몰라. 여 터줏대감은 나지.
대리운전 (모니터 가리키며) CCTV, 이런 건 잘 되죠?
외진 데라 방범시스템이 중요하니까,
경비 에이~ 말이라고. 저거 망가진 지가 언젠데. 녹화해도 사무 같은 거니. 우리 아파트는 방범시스템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눈이 CCTV거든.

경비가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을 본다.

양익승 아~ 하하 정말 안심이 됩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28. 식당(낮)

밥상 앞에 쨍한 눈으로 앉아 있는 익승. 다크서클이 한참 내려왔다. 힘없이 겨우 손가락을 드는데 미세하게 올라오는 구역질. 그런 익승 앞에 대리운전이 소주 한 병 톱 내려놓으니, 익승은 휘청하고 구역질이 올라온다. 몸을 획 피하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몸은 뒤로 젖히고 소주잔만 익승 앞으로 밀어주며) 해장술 한잔 하면 기억이 날지도 몰라요.

양익승 내가 개냐?

대리운전 술은 판거 없어요. 먹어서 밑으로 똥 두어 번 밀어내야 정신이 들지. 한술이라도 떠봐요. (인상 쓰며) 위로 자꾸 올리지 말고.

숙은 메슥거리는데, 이제는 게워낼 힘도 없다.

양익승 그냥 가자.

대리운전 ?

양익승 서울 가자고.

대리운전 가방은...

양익승 나 기억하는 사람 하나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뭘 일 있어봤자, 누구 붙잡고 밤새 술이나 췌겠지.

대리운전 분명히 가방 찾아야 한다고.

양익승 없어, 그런 거 없어. 술주정이야.

대리운전 (목소리를 죽이며) 일확천금 돈가방일지도 모르잖아요. 분명히 뭘 일 있었어요.

온몸은 엉망인데, 얼굴은 황재한 표정이었거든요.

애써 무시하는 익승, 억지로 밥을 밀어넣는다.

#29. 식당 주차장(낮)

주차해놓은 택시를 향해 가는 두 사람.

양익승 서울 가서 왕복 택시비 쳐줄 테니까 운전 잘해. 하아- 한숨 자야겠다. 이러다 죽지.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려는데, 혁! 익승의 눈에 가방이 보인다.

양익승(E) 어우, 미치겠네.

#30. 과거. 익승의 기억. 강릉아파트 입구(밤)

(#9. 블랙박스 3 상황) 익승이 뒷좌석에서 가방을 발견한다. 귀찮은 표정으로 여자의 가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다가 블랙박스를 본다. 목직한 가방을 들고 끄끅대며,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는 익승.

#31. 과거. 익승의 기억. 빨간여자의 집/현관(밤)

익승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데, 눅혀났던 여자가 없다.

양익승 (안방을 향해) 손님~ 손님~

반응이 없자, 신발을 벗고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서는 익승.

양익승 손님 가방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요금 정산은 해주셔야 하는데~

#32. 과거. 익승의 기억. 빨간여자의 집 내부(밤)

안방 문을 삐뚤 여는데, 인기척이 없다.

여자를 찾는 척 방 안을 슬쩍 구경하다가 파우더룸을 지나는데
베란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다가 가방이 모서리에 걸려 좌악-!
찢어진다. 가방에서 투두둑- 떨어지는 내용물. 5만 원권
몽칫돈이다. 공중에 흩날리는 지폐들.

익승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황급히 주워 담으며 화장실 앞까지
가는데, 지폐 한 장이 화장실 문틈에 끼었다.
손등으로 화장실 문을 툭 치면, 끼익- 문이 열리고,
피 문은 흥기와 함께 축 늘어져 있는 빨간 원피스의 여자.
샤워실 벽으로 피가 낭자하다. 귀신을 본 것처럼 나자빠져
바닥을 기는 익승, 그대로 줄행랑을 친다.

#33. 현재. 식당 주차장/택시 안(낮)

뒷좌석 문을 닫고 조수석으로 올라타는 익승.

양익승 내가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냐.
 (대리운전을 보며) 여자가 죽어 있었어.
대리운전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양익승 내가 죽인 게 아니라, 가방을 들고 올라갔는데, 죽어 있었다고!!
대리운전 그 가방엔 뭐가 들었는데요?
양익승 돈!! (헤놓고 대리운전을 본다. 이 녀석 믿어도 되나?)
대리운전 (입에 지퍼 채우는 모양) 글썽 돈가방이라 했잖아요, 제가.
 그럼 그 가방은 어디 간 거예요?
양익승 야!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데 너는, 돈가방 타령이냐?
대리운전 안 죽었다면서요. (눈만 꺾꺾꺾) 서울로 가요?
양익승 가자, 여자 집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대리운전 (이번엔 진짜지? 눈을 반짝이면)
양익승 너 천만 원에 따블이니까, 이천만 먹고 딱 떨어지는 거야.
대리운전 뵤에~ 어우~ 이천만 원이면 감지덕지지요~

시동을 거는 대리운전. 익승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다.

#34. 과거. 익승의 기억. 빨간여자의 집/안방(밤)

여자의 방에 웅크리고 앉아 돈을 줌는 남자, 익승이다.
줄행랑을 쳤던 익승이 주방용 비닐장갑 끼고, 샤워용 비닐캡
쓰고, 방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담고 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익승의 눈빛이 변했다. 독하고 탐욕스럽게.

양익승 요즘 과학수사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는 건, 어떻게든 밝혀질 거야. 나는 안 죽었으니까!
 가방은 내가 애초에 가져온 적도 없고, 뒷좌석에 있는 줄도
 몰랐다~ 잡아떼면... 아! 블랙박스!! ...고장 내면 되지,
 원래 고장이 잘 나니까.
 (시체가 있는 화장실 문을 보며) 침착해, 양익승. 인생 한 방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야. 똑바로. 이 돈만 주워서 나가면...

(E) 멍뚱-

 초인종 소리에 눈알이 벌게진 익승이 고개를 돌린다.

#35.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문 앞(낮)

가방을 찾기 위해 거실을 뒤지고 있던 두 사람이
현관을 바라본다.

(E) 멍뚱- 멍뚱-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걸어가는 대리운전.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면, #26에 왔던 아랫집여자와
 옆집여자다.

아랫집여자 소리가 났다니까.
옆집여자 말이 안 되잖소, 이 집 빈 지가 얼마나 됐는데 소리가 나우야.

이번엔 옆집여자가 렌즈 쪽을 들여다본다.
한번 당하고도 또 놀라서 헉! 하고 물러서는 대리운전.

옆집여자 (렌즈에 눈을 갖다 댄 채) 경찰에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아랫집여자 경찰은 말라고.

아랫집여자가 얇은 꼬챙이를 손잡이에 넣고 거침없이 쑤셔댄다.
달그락거리며 돌아가는 손잡이.
안쪽에서 지켜보던 대리운전과 익승이 기겁해 허둥지둥 숨을 자리를 찾는다.

옆집여자 이렇게 들어가면 가택침입... 이런 거 아이가?
아랫집여자 그것도 낫 반대기를 봐야 따져볼 꺼 아이가.
옆집여자 아, 그게 성님, 소리는 대각선으로도 오고, 밑에서도 올라오고,
벽을 타고 다닌다니까요.
아랫집여자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야.

손잡이를 아무렇게나 쑤셔대던 아랫집여자가 안 되겠는지
한숨을 쉬며 꼬챙이를 빼고 물러선다.

옆집여자 그냥 경찰한테 말하래요.

씩씩거리는 아랫집여자가 다시 렌즈 쪽으로 눈을 갖다 대면,
옆집여자가 덩달아 얼굴을 바짝 붙이고 들여다본다.
거실에 위태롭게 몸을 숨기고 있는 두 사람.

#36. 과거. 익승의 꿈. 몽타주.

- 익승이 안방 화장실 샤워실에 있는 시체를 만지고 있다.
-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익승. (#23)
- 캐리어가 흠에 파묻혀 모퉁이만 삐죽 튀어나와 있다.

#37. 현재. 빨간여자의 집/안방(낮)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는 익승.
빨간여자의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자마자 헛구역질하며, 안방 화장실로 달려가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거실로 뛰어나간다.

#38. 강릉아파트/경비실 일각(낮)

#23의 캐리어 끌고 지나간 자리를 쫓아 바쁘게 걸어가는 익승.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뒤따르는 대리운전.

양익승 (혼잣말처럼) 미쳤나 봐. 내가 그 여자를 죽인 걸까?
대리운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양익승 (마른세수를 하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기억이지? 내가 왜?
진짜 내가 죽였으면 어째?
대리운전 무슨 상관이에요. (여자 집 쪽을 가리키며) 저렇게 깔끔한데.
양익승 시체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분명히 저쪽으로...

아파트 입구 쪽을 보는데,
경비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익승과 대리운전이 시선을 교환하더니 가까이 다가간다.
사람들 사이에 경찰복을 입은 남자가 있다.
두 사람은 경찰복을 보고 반사적으로 가던 방향을 바꾸는데,
경찰복이 두 사람을 발견했다.

경찰복 저기요~

익승과 대리운전이 낭패라는 표정으로 시선을 맞추고는 돌아선다. 사람들과 경찰에게 둘러싸인 두 사람. 그래도 안면이 있는 경비에게 무슨 일이냐고 눈을 맞추면,

경비 김 씨가 연락이 안 돼. 어제 경비 했던 김 씨.
동네사람 김 씨 술 먹고 사라지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나.
옆집아줌마 이 사람들이 김 씨를 알아요?

경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본다.

경찰복 여 사람 아인 거 같은데.
경비 (소근) 서울에서 왔다.

경찰이 뭔가 생각난 듯, 무리에서 떨어져나가 무전기를 켜다.
경찰의 눈빛이 신경쓰이는 익승.

옆집여자 서울서는 여까지 왜요.
경비 아파트 보러 왔다.
옆집여자 왜요, 여 재개발한대요?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한다.

대리운전 아뇨, 우리는 그냥... 여기... 공기가 좋아서.

옆집여자가 요령~게 실눈을 뜨고 본다.

대리운전 (익승을 가리키며) 이분 고향이 여기 어디...
옆집여자 (다 알고 있다는 듯) 다 그래 얘기하지.
집 보러 온 사람이 여기 집값 오른다 하겠어요.

다시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을 보며 다가오는 경찰. 익승이 대리운전을 쿡쿡 찌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린다.

경찰복 저기, 저기요~

긴장한 익승이 돌아본다.
사람들이 모두 경찰과 익승을 주시한다.

경찰복 혹시... 33바2178 택시 기사 되십니까?

익승이 침을 꼴딱 삼킨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익승.

경찰복 거기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무전 들어왔거든요.
입구에 통행 방해된다고. 요기 안쪽에 대놓으세요. 자리 많은데.

익승이 휘청한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부축하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아예, 죄송합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하며, 익승을 부축해서 가는데,
경찰이 그래도 미심쩍은 눈빛이다.

경찰복 저기요~

두 사람, 돌아보면

경찰복 진짜 어제 김 씨 아저씨 보셨어요?
양익승 (짜증) 김 씨인지 박 씨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젯밤에 도착해서.

경찰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김 씨 사진을 꺼내 내민다.

김 씨의 사진을 보는 익승. 뭔가 스치는 것이 있다.
 인서트.
 - 김 씨가 손전등 비추며, “거 누구시오” 묻는다.
 - 죽은 김 씨의 시체를 땅에 묻는다.
 - 김 씨의 시체 옆에 캐리어 모퉁이가 삐죽 나와 있다. (#36)

#39. 택시 안(낮)

운전대를 잡고 앉은 익승.
 실성한 사람처럼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눈알이 시뻘겋게
 터질 것 같다. 조수석에는 대리운전이 앉아 있다.

양익승 경비도 죽었나 봐... 내가 다 죽었나 봐...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건다. 헛손질하느라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열쇠를 빼드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뭐 하시는 거예요.

열쇠를 빼들고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익승을 조수석으로
 밀어낸다. 조수석으로 넘어가 문을 열고 그대로 구토하는 익승.

대리운전 겁이 그렇게 많아서 가방 훔칠 생각은 어떻게 했데?

시동을 걸어 경비실 주변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리.
 익승은 조수석에 몸을 바짝 웅크리고 앉아 차문에 머리를 쿵쿵-
 박는다. 불쑥대고 떠오르는 조각난 기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쿵쿵-

양익승 (눈을 꼭 감고) 기억할 수 있다. 기억이 난다.

양익승(E) 내가 알코올성 치매라, 다음날엔 기억도 못 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익승.

#40.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식탁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대리운전 여기서 누구랑 술을 먹었다고요? 죽은 여자가 저 안에 누워
 있는데? 착각이겠죠.

양익승 아니야, 술을 먹고... 남자랑... 누구지?

(E) 멍뚱.

#41. 과거. 익승의 모호한 기억. 몽타주. 빨간여자의 집(밤)

전체적으로 어둡고 선명하지 않으며,
 상대 남자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다.

- 문을 열면 경비라고 인식되는 남자가 서 있다. 익승이
 너스레를 떨며 남자의 손을 덩석 잡는다. 남자가 손을 저으며
 사양하는데, 익승은 “내가 알코올성 치매라, 다음날엔 기억도
 못 해요”라며 잡아끈다.

- 맥주잔에 가득 채워지는 소주. 휘청이는 화면.
 빠르게 오가는 술잔. 오버해서 취한 척하는 익승.

상대 남자의 얼굴은 잘 안 보인다.

얼핏, #38에서 경찰이 내밀었던 사진 속 김 씨의 얼굴이 비쳐도
 상관없다. 왜곡된 기억이다. (정확한 기억은 #47에 재연된다)

#42.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대리운전 그래서, 가방은, 가방은요?!

양익승 (울상이다) 그건 아직...

대리운전 아이씨!!! 왜 그것만 빼고 다 기억나!!!

절망적인 익승. 낭떠러지다.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43. 강릉아파트/1층 화단(낮)

경찰이 어슬렁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돌고 있다.
1층 화단의 꽃들이 다 꺾여 있다.

경찰복 (꽃대를 만져보며) 다 죽었네. 멧돼지 놈이 여기까지 들어왔나?

1층 집 베란다의 문이 열린다. 아랫집여자다.

아랫집여자 어찌 댕기나?

경찰복 어... 저짜 뭘 신고가 있었대.

아랫집여자 저짜도 좀 봐주면 안되나?

아랫집여자가 2층을 가리킨다.

경찰복 저짠 왜?

아랫집여자 어젯밤에 한숨 못 잤잖어. 층간소음 때문에.
젊은 여자가 좀 번잡스러워야지, 한번씩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네.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만 해주고 가.

경찰복 에이, 그건 월권 아이나~

요즘 어떤 세상인데, 경찰이라고 막 그러고 다니면
갑질 소리 들어야.

아랫집여자 아 그럼 나는 어찌하나!!

창문을 쿵-! 닫고 들어가는 여자.
경찰이 위층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44. 빨간여자의 집(낮)

거실 커튼 사이로 밑을 내려다보던 대리운전. 다급하다.
식탁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익승에게 낮게 소리친다.

대리운전 제발 서둘러요. 이리다가 우리 다 잡혀가!!
가방! 딱, 가방에 집중해서 (손으로 어림잡으며) 이만한 크기에,
갈색무늬 박혀 있는 여행가방, 얼른 기억해내라고!!

익승이 대리를 쳐다본다.

양익승 니가 어떻게 알아? 그만한 크기에 갈색무늬까지?

인서트.

- #30. 택시 뒷좌석에 있는 가방.

- #32. 모서리에 걸려 최악-! 찢어지는 가방.

- #34. 돈을 주워 담는 가방.

대리운전의 표정이 바뀐다. 익승을 쳐다보는 날카로운 시선.

#45. 과거. 대리의 기억. 강남클럽 내부(낮)

오픈 전이다. 음악 소리 요란한데, 오픈을 준비하는 스태프들만
간간이 오간다. 대리운전(강남클럽 콜카)은 VIP룸이 있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룸에서 가드가 나오자 몸을 돌려
길을 터준다. 룸의 문이 살짝 덜 닫혔다. 가드가 멀어지자
대리운전은 문틈으로 슬쩍 룸 안을 들여다본다.
갈색무늬가 박혀 있는 가방. 그 가방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돈뭉치. 대리운전의 눈이 커지면서 고개를 스윙 앞으로
내미는데, 룸 안에 있던 빨간여자가 문틈으로 대리운전을 본다.
여자의 시선이 몽롱하다. 두 사람 시선 마주치고, 빨간여자
걸어오더니 문을 쿵 닫는다.

#46.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대리운전의 날카로운 시선엔 광기가 비친다.
익승에게 다가오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가방이 별거 있어요? 이 모양 아니면 저 모양이겠지.
하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가방'이라구요, 가방.
너무 간단하잖아. 가방을 찾아라!
나는 도대체 돈다발이 든 그 가방을 어떻게 한 걸까!!

대리운전이 익승의 코앞까지 다가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형클어뜨린다.

양익승 (술술 뒷걸음질을 치며) 아니, 너는...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데, 자꾸 가방 타령이나 하고...

대리운전 닥치고 가방-!! 돈 들었다면서요!! 집중하세요, 집중 줘!!
가방이 이만하면 못 잡아도 10억은 들었겠지, 그거 찾으면 내
인생도 바뀌겠지. 머리가 나빠요? 계산이 안 서? 나는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위협적으로 바짝 밀어붙이는 대리운전의 얼굴.
익승, 기억이 난다!!!

(E) 멍뚱-

#47. 과거. 익승의 기억. 빨간여자의 집/거실(밤)

(#41 모호한 기억의 실체)

익승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현관에 남자가
서 있다. 놀라서 얼어붙는 익승. 어둠 속에 남자 얼굴이
드러나는데, 경비복을 걸치고 있는 대리운전이다.

양익승 누구...세요?
대리운전 경비니다, 방범 돌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양익승 경비... 경비? (당황해서 뻘뻘 들여다보면)
대리운전 (모자를 눌러쓰며) 아... 야간입니다. 야간에만 일하는.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여자분 혼자 사는데.
양익승 아, 여기 사는 손(님)... 아니 사촌오빠입니다.
대리운전 (고개를 가웃하며) 사촌오빠?
(안방을 넘겨보며) 여자분은 안에 계시나?
양익승 없어요. 아직 안 들어와서.

익승이 현관에 서 있는 대리운전의 손을 덥석 잡는다.

양익승 제가 혼자 적적하게 술을 한잔 하려던 참인데.
대리운전 ...경비가 술 먹으면 찢려요.
양익승 내가 알코올성 치매라, 다음날엔 기억도 못 해요. (#39)

괜찮다고 손을 휘저으며 대리운전을 식탁으로 잡아끌어 앉힌다.
냉장고에, 수납장에 있는 술병들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익승.

#48.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헉! 코앞에 선 대리의 얼굴. 익승의 혼란스러운 시선.
일단 빠져나가야 하니 눈치를 살피며. 침착하게.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

양익승 여기서 술을 마셨는데...
대리운전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랑 술을 퍼마시고, 그래서 가방은...
제발 가방은!!
양익승 가방은... 글썸... 내가 어딘가에...

가방을 찾는 척 싱크대 하단을 여기저기 열어보며, 칼을 찾는다.

칼이 보인다. 스우 손에 쥐는데,
대리운전이 익승의 등 뒤에 섬뜩한 표정으로 선다.

대리운전 기억이 좀 났어요? (피식)

바닥에 툭 떨어지는 칼.
떨리는 손으로 다시 칼을 잡으려는데, 대리가 발로 밟는다.

대리운전 그 가방에 내가 꼭 찾아야 할 물건이 있거든.

후다닥. 짹째게 몸을 빼서 달아나는 익승과 잡아채는 대리.
우당탕탕. 익승은 주방 그릇이며 의자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얼치락뒤치락 대리에게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내 목덜미가 잡히더니 벽에 쿵쿵 쥐여 박힌다.
푹 쓰러지는 익승. 대리가 쓰러진 익승을 툭툭 건드리며,

대리운전 나한테 술은 왜 먹인 거야?
양익승 경비라니까...

#49. 과거. 사건의 실체. 몽타주. 빨간여자의 집(밤)

양익승(E) 경비를 재워야 CCTV를 훔치지.

- 맥주잔 가득 채워지는 소주. 휘청이는 화면. 빠르게 오가는 술잔. (#41) 대리운전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익승이 휘청거리며 집을 나선다.
- 빈 경비실. 주머니에 넣어온 숙취제를 세 병째 통째로 들이마시는 익승. 어질어질, 핑- 도는 머리를 흔들며대며 경비실의 CCTV를 뒤진다.
- 식탁에서 졸던 대리운전은 스우- 일어나 익승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집 안을 뒤진다. 가방을 찾는 중이다.

#50.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가방을 찾느라 온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지만,
가방은 없다. 구석에 구겨져 있는 익승. 처참하다.

양익승 그럼 넌 누구야? 경비는 아까 실종됐다고...

#51. 과거. 사건의 실체. 강남클럽 안(낮)

(#45 연결) VIP룸의 문이 쿵 닫힌다. 훔쳐 물러서는 대리운전.
돌아서 나오는데, #45의 가드가 다시 룸으로 들어가다가
대리운전을 본다.

가드 헤이, 콜뜨기!
대리운전 (멀뚱히 돌아보면)
가드 처음 보네? 콜카 맞지?
대리운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드 장거리 좀 뛰어라.

가드가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고, 메모할 것을 찾다가
대리운전의 손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손을 내미는 대리운전.
가드가 대리의 손바닥에 빨간여자의 주소를 쓴다.
○○○로 ○○, 101동 203호.

가드 강릉이니까, 왕복 다섯 시간은 나오겠네.
대리운전 (멀뚱히 보면)
가드 하고 퇴근해.
대리운전 (고개 까딱한다)

가드 돌아서 룸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리운전에게 속삭인다.

가드 VIP (새끼손가락 내밀어 보인다)
성질 좀 부러도, 잘 모셔다 드려. 중간에 흘리지 말고.

#52. 과거. 사건의 실체. 몽타주. 강남클럽+빨간여자의 집(낮)

- 가방을 들고 클럽 문을 나서는 빨간여자.
가드가 앞장서 입구에 서 있는 흰색벤츠의 문을 여는데,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대리운전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대로 대로변으로 발길을 돌린다. 가드가 막아서자 밀치고
가는 여자. 다급히 무전을 치는 가드. 위쪽에서 그냥 보내라
했는지 헐- 하는 표정이다. 가드는 대리운전에게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클럽 안으로 들어간다.
- 대로변에서 택시를 세워 올라타는 빨간여자 (#16)
빨간여자가 흰색벤츠의 대리운전을 향해 퍼크유를 날린다.
여자를 태우고 떠나는 택시를 가만히 보다가 표정이 변하는
대리운전.

대리운전(E) 세상에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지?
천지에 그런 돈만 뵈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한번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걸 봤거든.

- 빨간여자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익승이 빨간여자를 현관에
놓는다. (#19) 그때, 거실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대리운전.
- 익승이 나간 뒤, 정신 차리는 여자. 휘청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데, 대리운전이 비릿하게 웃으며 여자에게 다가간다.
여자가 기겁을 하며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닫아보지만,
대리운전의 힘에 밀린다. 화장실 쪽으로 뒷걸음치는 여자.
여자를 화장실 쪽으로 밀어넣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화장실 벽면에 피가 최악- 흩뿌려진다.
- 현관에서 “손님~ 손님~” 부르는 익승의 목소리가 들린다.
(#31) 안방 베란다로 몸을 숨기는 대리운전. 익승이 안방으로

들어온다. 익승이 안방을 기웃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발을
돌리자, 대리운전이 피 묻은 자신의 옷을 보며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다. 쿵-! (#32)
-1층 화단에 떨어진 대리운전이 상의와 모자를 벗고 얼굴의
피를 닦으며, 여자의 집을 올려다본다.

대리운전(E) 상 다 차려놓고 혼자 드시게 할 순 없잖아.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 빈 병이 가득한 식탁. 가물가물 시야가 흐려지며
엎어지는 익승.
- 대리운전이 반수면 상태인 익승을 샤워부스 안에 던져 넣는다.
익승이 버둥거리며 피 묻은 여자의 시체를 더듬더듬 만진다.
시체에 익승의 DNA가 묻는다. (#36 연결)
- 피 묻은 익승을 옆에 얹혀놓고 여자의 피를 빼는 대리운전.
샤워실 배수구로 콧물~ 다량의 핏물이 빠져나간다.
(#14, #25, #26 연결)

대리운전(E) 재수 없이 들켜도 당신이 덮어써야 하니까, 한밤중에 쇼를 했어요.

- 대형캐리어에서 빠져나온 여자의 손을 밀어넣는 대리운전.
옆에서 익승은 잠꼬대인 듯, 술주정인 듯,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린다.
- 대리운전이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선다.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과 화장실.

#53. 과거. 사건의 실체. 강릉아파트/경비실 일각(밤)

좁비처럼 걸어가고 있는 익승의 손에 캐리어 들려 있다.
(#23, #36 연결)
뒤에서 익승을 주시하며 좀 떨어진 채 따라가는 대리운전.
경비실 뒤 텃밭에서 김 씨가 곡괭이를 들고 나온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익승에게 손전등을 비추는 김 씨. (#38)

김 씨 거 누구시오.

캐리어가 과속 방지턱에 탁- 걸린다.
무의식중에 당겨보지만,
캐리어 무게를 못 이기고 휘청 넘어가는 익승.
반사적으로 달려온 김 씨가 익승을 부축한다.

김 씨 아휴! 무슨 술을 이렇게 드셨나.

넘어진 캐리어를 세워주는데,
캐리어 열린 틈으로 여자의 손이 툭 튀어나온다.

김 씨 히익!! 어어어... 어어...

놀라서 나동그라지는 김 씨.
뒤에서 김 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

(E) 퍽!

대리운전이 김 씨의 목덜미를 쥔 채 경비실 뒤로 질질 끌고
간다. 캐리어를 세우려고 헛손질을 하고 있는 익승.
대리운전이 익승과 캐리어까지 끌고 텃밭으로 간다.

점프.
대리운전이 텃밭에 구덩이를 파서 죽은 김 씨를 묻는다. (#38)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지켜보는 익승, 김 씨의 시체 옆에
빠죽 튀어나온 캐리어를 발견한다. (#36, #38 연결) 익승이
무의식중에 캐리어를 꺼내려고 버둥거리자, 대리운전이
성큼성큼 걸어와 익승의 뺨을 퍽! 때려 잠재운다.

#54.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양익승 우웁- 우우웁-

싱크대에 얼굴을 처박는 익승. 신물도 나오지 않는 헛구역질을
하느라 눈물, 콧물, 다 쏟아진다.
대리운전이 익승의 얼굴을 짓누른다.

대리운전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끼우자고~

양익승 (말도 나오지 않는다. 신음소리로 사정하며) 으... 으... 으...

대리운전 집중하세요, 집중. 가방만 찾으면 다 끝나.
그거 못 찾으면, 아저씨만 좇 되는 거야.

#55. 과거. 사건의 실체. 몽타주. 강릉아파트/경비실 일각(밤)

경비실에서 종이를 들고 나오는 대리운전.
텃밭에 잠든 양익승의 엄지손가락으로 돌덩이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종이에 지장을 찍는다. 대리운전이 김 씨를
가격했던 돌덩이다.

인서트.

#7. 대리비 각서. 피를 보고 화들짝 놀라 종이를 던지는 익승.

대리운전이 익승의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건다.
대리운전의 핸드폰에 벨이 울린다. 010-xxxx-7787.
수신시각 02:58

인서트.

#6. “저... 어제 대리운전한 사람인데요.” 통화시간 02:58
#9. 블랙박스 4. 익승을 태우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대리운전.

집에 들어온 익승이 습관처럼 세탁기에 옷을 벗어 넣고,

침대에 들어간다.

#56. 현재. 빨간여자의 집/거실(낮)

대리운전 이제 아저씨가 옴팡 뒤집어쓰게 생겼네.
그러니 목숨이라도 붙여 가려면 기억해내세요~
아님 술에 췌은 니 꼴을 반 갈라서라도 찾아낼 테니까.
아저씨 구제할 사람, 나밖에 없어. 똑바로 하자고.

대리운전의 눈빛에 살기가 넘친다.
숨이 막혀 허공에 손을 짓는 익승.
대리운전이 짓누르던 손을 떼면 익승이 주르륵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양익승 킁킁...

익승이 바닥에 떨어진 칼(#48)을 뒤춤에 숨기고 기어가듯
현관 쪽으로 간다. 익승 앞에 쭈그리고 앉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숙취제라도 사다줘요?
똑바로 살자며. (익승의 머리를 툭툭 치며) 어? 그놈의 술을 좀
작작 처먹든가, 제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녜요.
그러다 훅- 가.

뒤춤의 칼을 손에 꼭 쥐는 익승. 있는 힘을 다해 대리운전을
썰른다. 배에 칼이 꽂히는 대리운전. 뒤로 주춤하는 사이
익승이 달아나려는데, 대리운전에게 발목이 잡힌다. 사생결단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익승. 대리운전의 힘이 점점 빠지고,
발목을 잡았던 손이 느릿하게 풀린다.

#57. 강릉아파트/경비실 일각(낮)

단지 안을 뛰듯이 넘어지듯이 달린다. 힘 빠진 다리에 스텝이
꼬여 뒹굴어도, 다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뛴다.
불 켜진 경비실로 가서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는 익승.
창문엔 '방범中' 표지판만 걸려 있고, 경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익승이 입구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로 발을 돌린다.

#58. 택시 안(낮)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익승. 온몸에 힘이 빠져 헛손질만
한다. 턱- 차문이 열리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대리운전.
헉! 기겁한 익승이 달아나려고 하고, 대리운전은 붙잡는다.
좁은 택시 안에서 이리저리 몸싸움을 하며 뒤엉켜 달라붙는 두
사람. 일순간 툭- 두 사람 모두 실신한다.
정적이 흐른다. 눈을 뜨는 익승. 대리운전이 죽었다.
무겁게 누르고 있던 대리운전을 조수석으로 밀어낸다.
대리운전의 배에 피가 흥건하다.
좌아- 비가 쏟아진다.

#59. 강릉아파트/경비실 일각(낮)

바닥에 떨어졌던 대리운전의 피가 씻겨 내려간다.
경비실 텃밭에도 비가 내린다.
단지 안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다.

#60. 택시 안(밤)

탈진한 익승이 그대로 앉아 있다.
핸드폰이 울린다. '교대'다.
시계를 보면 18:42를 가리키고 있다.
연이어 '회사' 전화도 오고.

‘배차과정’ 전화도 오는데… 받을 수가 없다.

시간이 흐른다. 힘없이 핸드폰을 들고 전화 목록을 스크롤하는 익승. 오랜만에 찾는 번호다. 통화 연결음 들리고, 상대가 전화를 받는다.

양익승 …
 엄마(E) 와. (왜)
 양익승 …
 엄마(E) 와 말을 안 하노.
 양익승 … (주룩- 눈물이 흐른다)
 엄마(E) 아프나.
 양익승 … (스욱, 눈물을 훔친다)
 엄마(E) (한숨) 몸 축내지 말고, 대충 살아라.
 지 그릇대로 사는 거다.
 양익승 … 예.

뚝! 끊어지는 전화.
그제야 울컥,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이 올라온다.
억울하고, 겁나고, 막막한 마음이 눈물로 쏟아진다.

#61. 강릉아파트/텃밭(밤)

빗줄기가 굵어졌다.
비를 맞으며 좀비처럼 텃밭의 흙을 밟고 있는 익승.

#62. 강릉아파트/경비실(밤)

익승이 훌쩍 젖은 몸으로 경비실에 들어선다.
경비가 의자에 기대 코를 골고 있다.
책상 위에 빈 막걸리 병이 가득이다. 갈증이 난 익승이 잔을 채워 한잔 꿀꺽 마시고, 의자에 걸터앉는다.

지나가던 동네사람이 익승을 알아보고 경비실 창문을 연다.

동네사람 아직 안 갔네요
 양익승 …
 동네사람 근데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양익승 (쳐다보면)
 동네사람 저도 그거 같코주문 안 돼요? (소곤) 재개발계획.
 양익승 …
 동네사람 (애교 부리며) 저만 알고 있을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양익승 …
 동네사람 나뉘요 그냥, 이문 남는 건 지들끼리 마카 해먹지.

동네사람이 쾅! 창문을 닫고 간다. 익승의 얼굴에 표정이 없다.

#63. 택시 안(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눈이 시뻘건 익승이 에너지음료를 들이부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다. 좀비처럼 무표정한 익승이 액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인다.

#64. 강릉경찰서(낮)

머칠 후. 경찰서 게시판에 김 씨의 실종공고가 붙는다.
게시판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65. 강릉아파트/텃밭(낮)

경비가 땀을 닦아가며 텃밭에 퇴비를 주고 있다.
경찰이 앉아서 구경 중이다.

경찰복 김 씨 아저씨 있을 때는 냄새 난다고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뭘 그렇게 빠지게 해요. 그냥 마카 줘다 잊지.

경비는 대꾸도 없이 퇴비그릇을 탁탁 툐다.

경찰복 없어지고 나니 보고 싶은가 보네.

경찰은 애꿎은 흙바닥만 꺾꺾 눌러 밟는다.

#66. 강릉아파트/경비실(낮)

경비실 책상 밑에 가방이 놓여 있다.
빨간여자의 갈색무늬 돈가방이다. 가방 안에 돈은 보이지 않고,
잡다한 텃밭 기구들로 채워져 있다.

#67. 과거. 마지막 퍼즐. 가방의 몽타주(밤)

- 방범 돌던 김 씨가 쿵-! 소리(#52. 대리운전이 뛰어내린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 안방 화장실 앞에서 돈을 줬던 익승이 (대리운전의) 초인종 소리를 듣고 베란다로 가서 1층 화단으로 가방을 던진다. (#12, #22)
- 소리를 듣고 온 김 씨가 1층 화단에 꺾인 꽃을 보며 속상해하다가 가방을 발견한다. 돈가방인 걸 보고 주변을 살피는 김 씨.
- 김 씨가 텃밭을 파서 돈가방을 묻는다. 돈가방 묻은 자리에 꽃을 심는다.
- 대리운전이 텃밭으로 김 씨의 시신을 끌고 와 구덩이를 판다. (#53) 김 씨의 시신과 여자 캐리어를 묻고 흙을 밟는 대리운전. 꽃과 떨어진 곳이다.
- 다음날 아침, 사라진 김 씨에게 화가 난 경비가 곡괭이로 김 씨의 꽃무더기를 갈아엎다가 돈가방을 발견한다. 여기저기 파보다가 시체 2구까지 발견하는 경비. 시체는 그대로 다시 묻어놓고 돈가방만 꺼내온다.

#68. 현재. 강릉아파트/텃밭(낮)

경비가 새로 꼴을 내고 퇴비까지 준 텃밭에 씨앗을 뿌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린다.

#69. 병원/진료실(낮)

익승이 진료상담실에 앉아 있다.
의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익승의 얼굴만 정면을 보고 있다.
감정이 읽히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다.

의사(E) 여기가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여기가 감정을 읽어내는 편도체, 바로 붙어 있죠? 환자분이 계속 술 먹고 필름 끊어 먹는 동안 여기 환자분 편도체가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감정기능이 막히면, 억눌린 게 표현이 안 되니까 구토하고, 설사하고, 두통에 불면증... 신체화 반응이 생겨서... (환승) 나 뭐 하나, 알아먹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의사의 목소리에 의욕이 떨어진다. 이어지는 의례적인 멘트.

의사(E)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술담배 하지 마시구요, 운동하세요, 운동.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라구요~

익승, #2의 얼빠진 사람처럼 침이 주룩... 흐른다.
스읍- 침을 닦는 익승. 녀이 나간 얼굴로 카메라를 깊숙이 쳐다보는데,

화면 블랙아웃된다.

끝.

대본은 언제나 수정 중이다. 촬영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럴 것 같다.
아직은 몇 신 바뀌지 않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마침표 하나가 또 위치를 바꿀 것이다.
대본은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읽히고, 다양하게 디렉션 되며, 다양한 상황에서 노출된다.
그래서 혼자 글 쓸 때와는 전혀 다른 협업의 긴장감이 있다.
내가 쓰는 대로 오롯이 의미전달 될 것이라는 오만함이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떻게 읽히는가.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인가. 그 자리바꿈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드라마가 협업의 산물임을 큰 상처 없이 첫 경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님과
PD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오펜. 어떻게 이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펜은 진심으로 작가를 원한다. 공모접수 마감일에는 오류로 누락되는 파일이
있을까 꼬박 1박 2일 밤을 새우며 전체 파일을 다시 확인하는데, 혹시나 좋은 작가를
놓칠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라나다. 이들은 진심인 듯하다. 부디 오랫동안
신인 작가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시길. 센터장님 이하 오펜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의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당신,
웃어도 돼요. 밥 먹어도 돼요. 평평 울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지인 사망 이후 남겨진 이들. 그들의 이별 대처법을 블랙코미디로 담았습니다.
죽은 이를 너무 오래 그리워하고 슬퍼하면 그 영혼이 허공을 떠돈다는데,
그래서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주기 위해 딱 3일만 슬퍼하라고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른다던데, 진짜 사흘만 슬퍼해도 되나요?
남은 이들에게 남겨진 무거운 숙제. 가족의, 친구의, 사랑하는 이의 예고조차
없었던 죽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얼마나 지난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조심스럽고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기조차 힘겨운 ‘남은 이’들은 언제쯤 편안해지면 되는 걸까요?
가족 사망의 상처, 덮고 묻어야 할까요, 아니면 끄집어내어 소리쳐야 할까요?
남겨진 이들의 이 힘겨운 질문을 한번 ‘대놓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등장인물

심정우(29세, 남)

“아내 떠난 빈 아파트가 무서워요. 저 좀 재워주세요.”

이이나의 남편. 직장인. 가만히 있으면 흰칠하다.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란 막내로
선하고 애교 많으면서도 잘 빠치고 또 금방 헤हे거리는 성격. 신혼여행 길에
첫사랑 이나를 잃은 후 1년을 좀비처럼 살다가 처가로 쳐들어가 부모님 속
굽어놓는 캐릭터.

이진섭(57세, 남)

“아픈 상처 굽지 말고 제발 좀 나가줄래?”

이이나의 아버지. 중소기업 부장. 딸을 먼저 보낸 뒤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전 사위’ 정우가 평평 울며 찾아왔다. 다정다감하고 유머 넘치는
애처가에 딸바보지만 사위 정우 때문에 폭력 아버지로 변하는 인물.

이희수

vinooe@hanmail.net

2018 · 제15회 부천신인문학상 극일반 부문 당선.
· 2017 경북스토리콘텐츠공모전 장려상 수상.

한체리(21세, 여)

“전 아직도 선배님이 너무 좋습니다”

정우 바라기. 중학생 때 만난 과외선생 정우에게 홀딱 빠졌다. “이제는 제가 선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로 정우를 정신없게 하는 딸똥하고 당찬 4차원 아이.

양지현(29세, 여)

“친구 하나는 죽고 하나는 미쳐가는데, 난들 제정신이겠어?”

심정우와 이이나를 연결해준 대학 동기. 정우의 형과 결혼한 정우 형수이기도 하다. 중간자로서 갈등 부추기거나 해결하는 역할.

이이나(29세, 여)

심정우 아내. 이진섭의 외동딸. 화사한 미인형. 대학 동기이자 연인인 정우와 스물여덟에 결혼했고, 결혼식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영진(54세, 여)

이진섭의 아내. 이이나의 어머니. 조용하고 선한 성품. 딸아이가 세상을 떠던 날 살아갈 이유를 잃었고, ‘전 사위’가 쳐들어온 날부터는 하루라도 조용히 사는 것이 소원이다.

정우 부(68세, 남)

심정우 아버지. 소리부터 내지르는 다혈질이지만 바르고 선한 성품. 아픈 손가락이 된 막내아들 정우를, 이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그 외

정우 모, 정우 친구1, 친구2, 정우 형님, 정우 직장 동료 등.

줄거리

아내가 사망하고 홀로 남은 집이 싫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떠나기 직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심정우.

그리고 같은 날 딸을 잃은 이진섭.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앞두고 연인이자 아내를 잃은 정우는 1년여를 불면증에 폐인처럼 살다가 돌연 짐을 싸들고 아내의 부모님인 진섭네 집으로 쳐들어간다. 이나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정우.

당황스러운 진섭 부부는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저럴까 싶어 며칠만이라도 그냥 지내게 두자며 정우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하지만 아들 한번 키워본 적 없는 진섭에게 정우는 그 존재만으로도 첫날부터 낯설고 버겁기만 하다. 정우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철없는 아들을 데려가려 해보지만 이나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힘들어하는 정우를 어른들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다.

‘애투’에서 ‘짜증’으로, 철없는 ‘전 사위’의 처가살이

이나 집으로 온 후 불면증에서 벗어난 정우는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나 아버지 진섭은 처음의 잔함은 잠시,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먹고 자고 출근하며 특하면 딸 이름을 불러대고 대성통곡하는 정우가 점점 못마땅하다.

술만 마시면 주사에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피질러 자고 반찬 투정에 카드값 연체를 빌미로 진섭에게 용돈까지 뜯어가는 정우. 이나네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정우는 마치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들처럼, 아예 살던 집까지 내놓고는 눌러앉을 태세다. 점점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 진섭. 전형적인 딸바보였던 진섭은 어느새 주먹과 욕설이 일상인 폭군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앞에 까마득히 어린 후배 체리가 나타난다. 정우에게는 그저 꼬맹이 과외 학생이었을 뿐이지만 체리는 아니다. 이나의 미모에 압도되어 빛의 속도로 포기해서 그렇지, 대학까지 쫓아갈 정도의 일편단심 첫사랑이다. 그랬던 정우가 사고로 이나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언니 대신 선배님을 지켜드리겠다’며 나타난 체리. 체리의 등장이 정우는 난감하기만 하다. 게다가 진섭까지 체리의 존재를 알게 되자 정우는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

“사위에게 드디어 여친이 생겼다!”

체리의 등장은 정우에게는 약점이 되었지만, 정우 내쫓을 궁리만 하던 진섭에게는 희소식이 됐다. 정우를 어떻게든 결혼시켜서 빨리 이 집에서 치워버려야겠다고 마음먹는 진섭. 체리 때문에 지은 죄도 없이 궁지에 몰리는

정우와 절호의 찬스를 잡으려는 진섭의 신경전. 이나와 정우의 친구이자 현재는 정우의 형수이기도 한 지현까지 적극적으로 체리와의 관계를 응원하지만, 정우는 요지부동이다. 정우의 갖은 구박에도 끄떡없이 줄줄 쫓아다니는 체리와 질색하며 피해 다니는 정우.

골치투성이 정우와의 기묘한 동거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진섭은 그동안 귀찮고 성가시기만 했던 정우에게서 마치 아들 같은 묘한 감정을 느낀다. 딸이 가장 사랑했던 정우를 체리와 뺏아주려는 자신의 행동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딸을 위한 일이고 정우를 위한 일인가.

상처의 회복과 이별... '가족'의 새로운 이름

싸우고 울고 웃으며 열결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는 진섭과 정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조금씩 편안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 사망한 가족의 영혼 그 끝자락을 놓지 못해 초췌한 모습으로 폐인이 되어가는 가족이 아니라, 그 빈자리까지도 끌어안은 채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별은 아프고 힘들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어야 한다. 이별은 버리고 잊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까지 보듬는 것이다. 그렇게 진섭과 정우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통해 또 씩씩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아내의 침대 이희수

#1. 성당 앞(낮)

멍한 정우의 얼굴,
초점 잃은 시선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정우 시선에 보이는 사고 현장, 느리게 보인다.
트럭 한 대가 이나 향해 달리는데
넓은 책모자 쓰고 환하게 웃는 이나.
끼이이익!!!
브레이크 소리.
날아가는 부케, 그 아래로 보이는 사고 현장.
넋 나간 진섭의 표정
영진의 절규하는 모습이 슬로로 보이고
정우가 이나에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뒷모습 위로

(E) (사이렌 소리)

#2. 도로 일각(밤)

자막. "1년 후"

사이렌 울리며 내달리는 구급차.
구급차 멀어져가는 방향 도로변,
초췌한 모습으로 걷는 정우(29세)의 뒷모습.
흐트러진 양복 차림에 큰 가방 하나 메고
여행용 트렁크 끌고 걷는 정우.

#3. 진섭 아파트/복도(밤)

컴컴한 아파트 복도.
 어둠 속 터벅, 터벅, 천천히, 묵직하게 끌리는 발소리.
 크르릉... 여행용 트렁크 끄는 소리 스산하게 들린다.
 마치 좀비 같은 정우 실루엣, 몸에는 엑스 자로 가방 두르고
 손에는 트렁크 끌고 힘없이 천천히 무거운 발길로 걷는 모습,
 터벅, 터벅...
 크르릉...
 어느 현관 바라보며 멈추는 발걸음. 어둠 속 비상구 불빛에
 비친 현관, 스산하다.
 정우, 벨 누르러 천천히 다가가는데 갑자기 확 켜지는 현관
 앞 복도 등.
 밝아진 복도에 놀란 정우. 음산하게 주변 살핀다.
 정우, 다시 한 번 천천히 벨 위에 손가락 갖다 대는데...
 뽀로롱 뽀로롱.

#4. 진섭 아파트/거실(밤)

아파트 주방, 저녁 식사 중인 진섭(57세)과 영진(54세) 부부.
 집 안에는 음악이나 TV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하다.
 영진이 젓가락질하는 반찬 접시, 무표정의 진섭이 묵묵히 영진
 앞으로 옮겨주는데

(E) (현관 벨소리)

두 사람 시선 거실 쪽 향하고,
 거실 가까이 앉은 진섭이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으로 향한다.
 화면 앞에 선 진섭, 다가서기가 무섭게 화들짝 놀라는 모습.
 영진, 의아해하며 일어나서 진섭 옆으로 다가오는데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치는 영진.
 인터폰 화면 가득 메운 것은 쾅한 정우 얼굴이다.

누군가 싶어 들여다보다가 점점 눈 커지는 진섭,
 황급히 현관으로 간다.
 현관문 여는 진섭, 놀라 입 벌여지고...
 어깨에 큰 가방 메고 여행용 트렁크 끌고 선 정우,
 흐트러진 양복에 머리는 부스스, 초췌하고 스산한 물골이다.
 뒤따라 나온 영진도 놀라기는 마찬가지. 마주 보는 진섭과 영진.

#5. 진섭 아파트/주방(밤)

푸짐한 식탁, 정우와 진섭 마주 앉아 있다.
 힘없이 고개 떨구고 있는 정우.
 거실 한쪽에는 정우의 여행용 트렁크와 짐가방 보이고...
 영진이 밥공기 들고 오면 진섭이 받아서 정우 앞에 놓는다.
 진섭 옆자리에 앉은 영진, 지친 표정의 정우 따뜻하게 바라본다.

영진

밥 먹어. 천천히. 응?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바라보는 정우,
 울컥하는 표정으로 손가락 든다.
 밥 크게 떠서 입에 넣다가 설핏 고개 들면
 정우 뻘뻘 보던 진섭과 영진, 매우 어색한 미소.
 다시 식사에 열중하는 정우. 조용히 밥만 먹는 세 사람.
 깍두기, 오이소박이 씹는 소리, 국물 후루룩 넘기는 소리,
 콩나물무침 씹는 소리 등.
 정우, 배가 고팠는지 꽤 열심히 먹는다.
 접시에 마지막 남은 오이소박이 집어 아작아작 씹어먹다가
 갑자기 울먹이는 정우.

정우

맛있어요, 오이소박이... (울컥) 이나가 좋아하던 건데...
 더 없나요?

#6. 진섭 아파트/주방(밤)

쌌… 쏟아지는 수돗물,
주방 개수대에서 설거지하는 진섭과 그릇 등 정리 돕는 영진.
설거지 마친 진섭, 손 탈탈 털며 이나 방 향해 고개 빼죽 내밀고
진섭의 시선 느낀 영진도 이나 방 쪽 쳐다본다.

진섭 왜 이리 조용해?
영진 굶고 지냈나 봐… 한 공기 싹 비웠던데.
진섭 장염에 설사똥 싸던 날에도 세 끼 꼬박 챙겨 먹던 놈인데 뭘.

이나 방문 쪽 계속 쳐다보던 진섭,
안 되겠다는 듯 바지에 손 쓱쓱 닦고 이나 방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열리는 이나 방 문, 멈춰서는 진섭.
정우 조용히 나오더니, 거실에 놓인 자기 가방과 트렁크 챙긴다.
쳐다보는 진섭의 시선에 툭, 고개 인사하는 정우,
집 끌고는 다시 이나 방으로 들어간다.
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선 진섭과
가만히 뒤에서 바라보는 영진.
조용히 툭, 닫기는 방문.

#7. 진섭 아파트/안방(밤)

수면등 켜진 어두운 안방,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진섭과 영진,
각자 편안하게 다른 방향으로 누웠는데 둘 다 눈은 말뚱말뚱,
거실 쪽은 개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하다.
눈동자 굴리던 진섭, 벌떡 일어난다.

진섭 이상해. 너무 조용해.

진섭 방문 열고 나가고
고개 든 영진도 일어나 따라 나간다.

#8. 진섭 아파트/이나 방(밤)

불 꺼진 방 안.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여행용 트렁크.
이나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뻗어 잠든 정우,
코까지 골며 숙면 중이다.
방문 앞에 선 진섭, 한심하다는 표정이고.
영진은 슬며시 짙은 미소 짓는다.
진섭 끌어당기며 나가는 영진.
방문 닫히고 거실 불빛 사라지면 다시 어둠에 잠기는 방.
드르렁 드르렁… 정우 코 고는 소리.

타이틀. “아내의 침대”

#9. 진섭 아파트 외경(아침)

진섭 아파트 외경.
이따금 날리는 낙엽에 스산한 가을 공기 느껴진다.

#10. 진섭 아파트/거실(아침)

놀란 표정의 진섭과 영진.
반찬통 챙기는 등 아침 식탁 정리하던 두 사람의 시선
향한 곳은, 거실의 정우다.
셔츠 차림으로 출근 준비하던 정우, 슬며시 동작 멈추고
허둥지둥 거실로 나와 정우 앞에 서는 진섭.

진섭 다시 말해봐. 뭐라고?
정우 당분간 여기서… 지낸다구요.

정적.
치이익, 주방 한쪽에서 커피메이커 물 끓어오르는 소리,
커피 추출되는 소리와 함께 푹, 푹… 커피 내려오고.

진섭 …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가만히 쳐다보는 진섭.
진섭과 정우를 번갈아 살피는 영진.

#11. 진섭 아파트/주차장(아침)

양복 차림으로 공동현관 나서는 진섭.
뒤이어 정우도 양복 차림으로 따라 나온다.
자동차에 원격 시동 거는 진섭, 돌아보면 정우 쭈뼛쭈뼛
다가온다.

진섭 왜.
정우 저 좀 가는 길에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섭 …
정우 요 며칠 잠도 통 못 자고…

괜한 표정의 정우.
가만히 쳐다보던 진섭. 잠시 망설이다가.

진섭 타.
정우 감사합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쪼르르 조수석으로 돌아가 냉큼 올라타더니
문 탁! 닫는 정우.
진섭, 한숨 쉬며 운전석에 오른다.
출발하는 자동차.

정우(E) 운전 제가 할까요?

진섭(E) …안전벨트.

딸깍, 안전벨트 매는 소리 들린다.

#12. 진섭 아파트(아침)

정우가 출근하고 나간 이나 방.
문 앞에 선 영진, 이나 침대 물끄러미 바라본다.
원목 느낌의 목직함 헤드,
싱글 사이즈에 다리 기둥 보이는 구형 침대,
이나가 덮고 자던 체크무늬 시트와 이불…
그 위, 정우가 어질러놓은 남자 옷가지가 낯설다.
영진, 주섬주섬 정우 옷 챙겨서 딸 옷장 여는데…
어느새 걸린 정우 옷 몇 벌.
아직 처분하지 않은 딸 옷과 함께 나란히 보인다.
영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정우 옷 옷걸이에 걸고 옷장 문 닫고 돌아서는데
이나 책상 위에서 시선 멈추는 영진.
이나 액자뿐이던 뺨한 책상 위,
정우의 로션과 휴대전화 충전기 등 소소한 남자 살림 놓여 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영진.

#13. 정우 회사(낮)

평범한 회사 사무실.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
정우,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통화 중이다.

정우 네, 주소만 변경하려고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옆자리 동료, 흘끗 정우 쳐다보고는 다시 자기 노트북에 시선.
통화 마무리하고 전화 끊는 정우. 노트북으로 하던 일 계속한다.

옆자리 동료 이사해?

정우 응, 했어.

옆자리 동료 어디로?
정우 처가로.

멈칫, 옆자리 동료, 천천히 정우 바라본다.
무표정하게 자기 노트북에만 집중하는 정우.
옆자리 동료, 맞은편 또 다른 동료와 눈 마주치고는
'뭐래?' 표정. 어깨 으쓱하는 앞자리 동료.
그러거나 말거나 모니터만 보는 정우.

(E) 쟁! (사기 찻잔 뚜껑 떨어지는 소리)

#14. 정우 본가/거실(밤)

정우 본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소박한 단독주택이다.
거실에서 찻잔에 찻물 따르던 정우 부(60대), 뚜껑 떨어진 채
머느리 지현(29세) 쳐다본다. 정우 모(60대)도 놀란 표정.
퇴근길에 들른 듯 정장에 가방 멘 그대로 앉아 있던 지현,
쨍쨍맨다.

정우 부 어딜 가 있다고?
지현 사돈어른, 아니 이나네, 저기, 이나 부모님 댁이요. 짐 다 싸들구요.
정우 모 (입 짝)
지현 문자 받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사실 정우, 아니 서방님
요즘 상태가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나 부모님 한참 안
봤으니까 한번 뵙고 오려나 보다 했는데.
정우 부 했는데.
지현 좀 아까 전화해봤더니... 아예 거기서 지내겠다고.
정우 부 왜?!
지현 자기 짐이 무섭대요...
정우 부 뭐?
지현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불면증에 잠도 못 자겠고...
정우 부 (버럭) 이런 미친놈이!

#15. 진섭 아파트/거실(밤)

퇴근길의 정우, 현관 들어와 어정쩡하게 선 채 트악한 표정.
지현이 애매한 표정으로 정우 향해 슬쩍 손 흔들고 있고
지현 뒤로는 거실의 진섭과 영진, 그리고 정우 모도 보인다.
어리둥절한 정우, 뭐지 하는 표정인데
이때 이나 방에서 불쑥 나오는 정우 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등장에 놀란 정우.

정우 여긴 어떤 일이세요?
정우 부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CUT TO.

식어가는 찻잔들.
거실에 정상회담하듯 둘러앉은 부모들과 지현,
그 앞에 빼딱하게 앉은 정우. 화 눌러 참는 표정의 정우 부.

정우 부 그래서?
정우 그러니까 이나 방에서 이나랑 같이, (진섭 눈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잠을 못 자서, 무섭고, (정우 부 눈치) 여긴 이나가
평생 살던 집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나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정우 부 (버럭) 말 똑바로 못 해?

갑작스러운 정우 부의 고성에 진섭과 영진 기겁한다.

정우 부 왜 그렇게 철이 없어. 사리 분별이 안 돼? (한숨. 기가 막힌다)
니가 왜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지, 설명이 더 필요하나?
진섭 저... 어르신.
정우 부 (꾸벅)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우 아니 제가 뭘.
정우 부 (O.L) 시끄러!

일동 또 놀라는. 크게 놀란 영진, 가슴 쓸어내린다.
정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툭툭 부어서 구시렁.

정우 젤 시끄러운 건 아버지구만...

이때 정우 주머니 속 휴대전화 벨소리 경박스럽게 울리고,
정우 슬쩍 꺼내보면 모르는 번호다. 끄고 주머니에 넣는 정우.
정우, 부모에게 뭐라 항변하려는데 또 울려대는 정우 전화.
휴대전화 쥐고 가족들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이나 방으로
들어가는 정우.

정우(OFF) 여보세요? ...네. 전데요. ...아, 제가 이사를 했는데...

얼핏 '이사' 소리에 험악해지는 정우 부의 표정.
정우 모는 정우 걱정과 진심네 향한 미안함 섞인 표정인데

정우(OFF) 근데 뭘 배달인데요? ...네?!

조용해진 정우.
뭘 일인가, 가족들 시선 모두 이나 방으로 향한다.

이벤트직원(E) 두 분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CUT TO.
현관 앞. 한 손엔 꽃바구니, 한 손엔 샴페인 든 이벤트업체 직원,
환한 미소 한껏 지어 보이는데... 현관 안쪽에 빼곡 모여
서서 내다보는 정우 부, 진섭, 정우 모, 영진, 그 뒤로 정우.
한마디도 없는 가족들, 서늘한 적막감.
잘못 왔나 싶은 표정의 업체 직원.

CUT TO.
거실 한가운데 놓인 꽃바구니와 샴페인.

꽃바구니 리본 클로즈업 되면.
'심정우 님과 이이나 님의 결혼 일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해피 웨딩컨설팅'
샴페인 병에도 '심정우♡이이나' 라벨 붙어 있다.

CUT TO.
거실의 가족들, 말없이 샴페인과 꽃다발만 바라보는 가운데
이나 방의 정우, 끄끄 오열하는 소리 들려온다.

정우 부 (지현에게 슬쩍) 아가야, 플랜비로 가야겠다.

#16. 술집(밤)

정우, 지현, 친구1(남), 친구2(남) 네 사람.
정우는 꽤 취했다. 말없이 소주 따라주는 지현.
정우, 텅 빈 시선으로 술잔 바라보다가
조용히 들어 입에 털어 넣는다.
빈 술잔 탁... 내려놓는 정우.
친구2, 조용히 소주병 들고 정우 잔 채워준다.
정우, 술잔 바라보다가 입에 털어 넣는다.
괴로운 표정으로 빈 잔 내려놓으면, 다시 지현,
말없이 소주병 드는데
친구1, 지현의 팔뚝 잡는다.

친구1 야, 그만 맥여.

친구2, 친구1 보며 말리지 말라는, 고개 저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 거두는 친구1.
지현이 술 따르면, 정우 괴롭게 들이켠다.

시간 경과.
인사불성 된 정우.

테이블 위에 걸친 팔뚝 특, 미끄러지고.
넘어질 듯 안 넘어지며 흔들흔들.

정우 내가 오늘... 선물을 받아꺼든? 심.정.우와... 이.이.나의... 결혼
일주년 축하함미다... (딸꾹) 곧 결혼기념일이란다.

지현 ...

정우 근데 결혼기념일이... 그날이 이나 기일인데? 축하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어?

말 없는 친구들, 어두운 시선 오가고.
급기야 울먹이는 정우.

정우 이나야... (쉴룩, 터지는) 이나야아아-!

#17. 술집 앞 주차장(밤)

몸 못 가누는 정우를 지현 차 뒷자리에 구겨 넣는 친구들.

친구2 너 진짜 한 잔도 안 마셨어?

지현 척만 했지. 두 집의 평화가 달린 일이다.

친구2 (피식) 운전 조심하고. (정우 힐끗) 이 새끼 묶어주라?

뒷좌석에 뺨어 찹찹거리는 정우.

지현 어따 갖다 팔아먹어도 모르게 생겼다.

#18. 도로 달리는 자동차(밤)

비장한 표정으로 운전하는 지현. 룸미러로 뒷자리 살핀다.
입 벌린 채 잠든 정우.

지현 (비장) 정우는 내 손으로 거둬간다 이나야.

어딘가 슬픈 표정의 지현, 붓- 액셀 밟는다.

#19. 정우 본가 앞(밤)

비몽사몽 겨우 눈 뜨는 정우.

지현 자동차 안이다. 비어 있는 운전석.

술 덜 깬 정우, 두리번거리다가

자동차 문 열고 슬금슬금 나온다.

비틀거리다가 화들짝 놀라는 정우.

시선 따라가면 정우 부모와 형, 지현.

정우 왜... 죄다 모여 있데?

정우 부 (한심) 얼른 들어.

정우 형 네.

지현 (남편에게 속닥) 정우 짐은?

정우 형, 손으로 슬쩍 OK 사인.

#20. 진섭 아파트/이나 방(밤)

같은 시각, 정우 짐 싹 빠진 이나 방.

진섭, 옷장 열어 확인해보고는 다시 닫고

텅 빈 책상 위 액자도 반듯하게 제자리,

의자도 책상에 바짝 밀어넣는다.

침대 위 이불 탁탁 당겨 정리하고 걸터앉는 진섭,

휴가분해 보이는 표정.

가만히 앉아서 책상 위 이나 액자 바라보는데

얼굴에 다정한 미소 피어오른다.

진섭 오랜만에 아빠랑 한잔할까?

베짱, 침대와 벽 사이 들여다보다가 손 더듬더듬 넣으면

진섭 손에 딸려 나오는 양주병과
거꾸로 달린 스트레이트잔 하나.
양주병 막 열려다가, 1/3 정도 남은 양주병 의아하게
들어보는데...

정우(E) 이나야아!

획 고개 돌리는 진섭. 불안한 표정.

#21. 정우 본가 앞(밤)

조용한 동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동 피우는 정우.
가족들 달라붙어 정우 팔다리 붙잡고 말리느라 찢찢맨다.

정우 이나야아!

정우 형 조용히 안 해?

정우 이 썬, 난 우리 집으로 간다고!

지현 그렇게 취해도 자기 집 아닌 건 귀신같이 알아보네.
아니지, 여기가 자기 집이지. 아니, 아우 몰라 몰라.

온 식구가 진땀 빼며 정우 난동 제압하는데,
정우 형이 집 쪽으로 이끌자 냅다 뿌리치는 정우,

정우 그쪽이 아니라고오!

정우, 갑자기 휘청거리며 집 반대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한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한 대, 차 앞으로 달리는 정우 향해 번쩍!
상향등과 급정거.

정우 모 (쫓는) 정우야아!

정우 형 엄마!

가족들, 우르르 몰려가 정우를 차 옆으로 끌어내면
다시 양팔 휘둘러 뿌리치고는 다른 한쪽으로 허우적 뛰는 정우.
가족들 시선 따라가면, 남의 집 외벽 향해 돌진 중이다,
기겁한 가족들, 우르르 몰려가 부딪히기 직전 끌고 오고,
정우야! 엄마! 위험해요! 한밤의 소란에
동네 사람들 여기저기서 내다보고 나와보는데 어느 집에선가
터져 나오는 외마디 외침,

동네이웃 아 시끄러! 대체 언놈의 집구석이야!

황급히 둘러보던 정우 형 눈에 지현 차 들어온다.

정우 형 안 되겠다. 일단 차로 다시 넣어.

다들 힘 합쳐 지현 차로 정우 끌고 간다.

끌려가며 껍뻑거리는 정우.

정우 입 막으랴 끌고 가라 정신없는 식구들.

뒷자리에 정우 다시 구겨 넣고는 문 쿵 닫아버리는 정우 형.
지친 기색의 정우 부.

정우 부 저거, 저거 잠가버려라!

얼른 주머니에 손 넣는 지현.

주머니 더듬던 지현, 얼굴 하얗게 질린다.

정우 형 왜.

시동키 꽂힌 운전석 클로즈업.

사색이 된 가족들.

거꾸로 처박히며 결국 운전석으로 넘어간 정우,

“이나한테 간다고!” 껍뻑거리며 시동 걸려고 키에 손댄다.

기겁하며 우르르 차로 달려드는 사람들.

#22. 진섭 아파트/이나 방(밤)

히죽대는 표정 그대로... 이나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잠든 정우.
몰골이 말이 아닌 정우 부모와 정우 형, 지현.
진 빠진 표정으로 정우 내려다보고 있다.
다시 돌아온 정우 모습에 넋을 잃은 진섭.

정우 부 죄송합니다...

드르렁... 코 골기 시작하는 정우.

#23. 진섭 아파트 단지 외경(아침)

쾌청한 날씨, 진섭 아파트 아침 외경 위로

진섭(E) 심정우!

#24. 진섭 아파트/이나 방(아침)

침대에서 눈 번쩍 뜨는 정우, 품에 이나 액자 안겨 있다.
눈동자 이리저리 굴리다가 다시 스프르 감기는 눈.
방문 벨컥 열리고 진섭 들어온다.
쫓, 하며 손바닥으로 정우 엉덩이 냅다 내리치는 진섭.

정우 악! (벌떡) 왜요?

진섭 차렸을 때 먹어. 내 마누라 귀찮게 하지 말고.

정우 ...네.

진섭 (액자 획 뺏어서 책상 위에 탁 놓으며) 어제는 어른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내 아들이었으면 넌 진작에 죽었어.

진섭 획 나가면, 정우 머리 굽적굽적.

#25. 진섭 아파트/거실(아침)

거실에서 TV 보며 차 마시는 영진.
진섭, 운동복 차림으로 안방에서 나온다.
영진은 조금 놀라는 표정.

진섭 오는 길에 식빵 사 올까? 내일 일요일인데 브런치 하자.

영진 나야 좋지... (가만히 보다가) 오랜만인데, 당신 운동 가는 거.

진섭 ...그런가. (미소) 어젯밤에 잠도 못 잤을 텐데 좀 더 자요.

영진, 진섭 향해 따뜻한 미소 지어주고,

담살 똑똑, 화기에애한 분위기인데,

(E) 짹짹, 후루룩, 밥 먹는 소리.

급 협박해진 표정의 진섭, 식탁 향해 천천히 고개 돌리면
어느새 나온 정우, 까치집 머리에 추리닝 차림으로 앉아
국에 밥 말아 떠먹고 있다.

진섭 대충 먹고 따라와.

정우 (우걱우걱) 저요?

말없이 현관 쪽 향하는 진섭.

정우 (우걱우걱) 저 밥 먹는데...

우뚱 멈춰 서서 정우 노려보는 진섭.

정우, 숟가락 든 채 밥 씹던 것 슬슬 멈추고...

진섭이 다시 현관 쪽 향하면 남은 밥 입에 밀어넣으며 구시렁.

정우 ...주말인데...

이때, 정우 머리채 휘감는 진섭 손.

어어어, 숟가락 놓치고 진섭 손아귀에 팔려가는 정우.

#26. 인근 공원(아침)

묵묵히 걷는 진섭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 궁색한 품으로 따라가는 정우, 입 찹 벌리며 하품하려다가 진섭 뒤돌아보면 하품 쪽 들어간다. 정우, 슬슬 걸어서 진섭과의 거리 좁히면 진섭 다시 묵묵히 걷는다. 조용히 쫓아가는 정우.

진섭 사내놈이 특하면 통곡에.
정우 제가 무슨 통곡을 했다고 그러세요.
진섭 니가 쏟아낸 눈물만 아주 한강이야.
정우 얼마 전에 무슨 케이블 채널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평생 흘리는 눈물이 대략 칠십 리터래요.
진섭 그래서?
정우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양팔로 70리터 물통 크기 대충 가늠해보면 그닥 크지 않다) 한강은 무슨. 치.
진섭 (어이없는) 똥 싸고 똥 닦은 휴지도 한번 세보지?
정우 아, 그것도 있었어요. 사람이 평생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는 총 사천이백...

퍽. 손바닥으로 냅다 정우 뒤통수 갈기는 진섭.
갑작스러운 진섭의 행동에 놀라 눈 동그해진 정우.
진섭도 놀라긴 마찬가지다. 정우 때린 손 슬그머니 내리는 진섭.

#27. 동네 중소형 마트 계산대(아침)

마트 계산대, 진섭이 바구니에서 식빵, 계란, 우유 등 올리면 계산된 물건들 열심히 봉투에 주워 담는 정우.
진섭이 계산 위해 지갑 꺼내는데,
정우는 계산 마친 빵 하나 뜯어먹는다.
진섭, 정우 못마땅하게 쳐다보고는 직원에게 카드 내민다.

진섭 사람 하나 늘었는데 식비가 두 배로 든다.
정우 한창 먹을 때라 그래요.
진섭 있는 동안이라도 생활비 분담 좀 하지?
정우 (빵 우걱우걱) 나중예요. 아파트 전세나 빠져야... (멈칫)
진섭 ...뭐?
정우 (빵 입에 문 채 얼음)

놀란 얼굴로 정우 바라보는 진섭.
빵 입에 한가득 문 채 굳어버린 정우,
섬지도 못하고 빨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시선 피한다.

(E) 빠직! (뭔가 깨지는 소리)

#28. 정우 본가 거실(낮)

정우 부, 손질 중이던 고급 난 허리 뚝 꺾은 채 움켜쥐고 부들부들.
놀란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뜬 정우 모.
두 사람 시선 향한 곳은 지현이다.

정우 부 집을... 내놔...?
지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우 모 (불안) 또 뭐니.

인서트.
- 진섭네 집, 식탁에서 밥 먹는 정우. "반찬이 너무 싱거운데요."
- 이나 방, 진섭 서 있고, 침대에 이불 돌돌 말고 누운 정우.
"주말엔 저 깨우지 마세요."
- 셔츠 들고 거실로 나오는 정우. "이건 드라이해야 하는데 세탁기 돌리셨어요?"

지현 이야기에 심각해진 정우 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표정이다.

#29. 진섭 아파트/거실(밤)

거실에 다시 모인 진섭 부부와 정우 부모. 그리고 지현.
모두 한편이 되어 정우와 살벌하게 대치 중이다.

정우 부 짐 싸.
정우 ...
정우 부 여기가 니 집이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아? 오이소박이가
어떻고 뭐 드라이가 어째?
정우 (지현 짜려본다)
정우 부 (버럭) 어딜 형수를 노려봐!

감작스러운 호통에 놀라는 사람들.
지현, 고소하다는 듯 정우 향해 빼죽.

정우 부 짐 싸.
정우 전 여기, 이나 방이 더 편한데. (진섭에게 구원 요청) 아버지, 저...
진섭 (정우 외면하고 정우 부에게) 불면증이 문제라면 우리 이나가
쓰던 침대를 맥으로 같이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정우가 이나
침대에서는 아주 코까지 끌고 자던데요.
정우 부 좋은 생각입니다!

놀란 표정으로 진섭 향해 가만히 고개 짓는 영진.
영진 표정에 정신 차린 진섭.
정우 부도 아차 하는 표정이다.

진섭 딸아이 유품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우 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봅니다.
저놈 자식 때문에.
정우 그래도 아들인데 말끝마다 이 자식 저 자식.

정우 부 (동시에) 시끄러워!
진섭 (동시에) 조용히 해!

늘 조용조용하던 진섭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소리 지른 정우 부는 물론 영진, 정우 모, 지현, 정우까지
놀란 표정의 시선들이 진섭에게로 모인다.
참아왔던 짜증과 분노 폭발한 진섭, 정우 향한 살벌한 표정.

#30. 아파트 인근 공원(밤)

인적 드문 공원, 가로등 드문드문 불 밝힌 가운데
정우 앞에 선 진섭.

진섭 말해봐.
정우 뭘...요.
진섭 이나도 없는 집에 놀러왔겠다는 진짜 이유가 뭔지.
정우 (눈치보는)
진섭 안 때릴 테니까 말해.
정우 진짜죠.
진섭 (주먹 쥐었다가 푸는) ...그래.

진지해지는 표정의 정우, 고민하다가 어렵게 입 연다.

정우 아버지. 사실 제가 불면증이 심한 것도 맞긴 한데요. 진짜 이유는...
진섭 (끄덕)
정우 제가 나가면... 다시 저 혼자 살거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요. (눈치)
진섭 (끄덕. 말하라는)
정우 (한숨)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이 제 결혼...을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제가 막내라, (고개 푹) 막둥이
짜지어줬으니 남은 생애 여한이 없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좀 구식이라, 유난히 제 결혼에 좀, 이런 얘기,

진섭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섭 당연하지.
 정우 네... (하다가 퍼뜩) 예?
 진섭 결혼해야지. 너 이제 겨우 스물아홉이야.
 정우 결혼을 또 해요? 싫은데요?
 진섭 (버럭) 뭐?!!
 정우 (흠칫) 왜, 왜요?
 진섭 왜! 왜 결혼을 안 해!
 정우 그게... (퍼뜩) 아니 그런데 그게 장인이 사위한테 할 소리예요?
 진섭 언더 대고 장인이래!
 정우 그럼 장인을 장인이라 부르지 장인을... (잠깐 생각하다가 혼잣말)
 결혼한 와이프의 아버지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않나?
 진섭 (빠직) 집어치우고, 너 너 솔직히 말해. 도대체 우리 집에 들어온
 저의가 뭐야?
 정우 저의라뇨? 무슨 재벌 집도 아니고, 뭐 뜯어먹을 게 있어야.

눈 부릅뜬 진섭 기세에
 어어, 하며 도망가는 정우. “안 때린다며 씨...”

#31. 정우 회사 앞(낮)

유난히 화창하고 짙한 날씨.
 점심시간. 회사 정문으로 직원들 삼삼오오 쏟아져 나온다.
 그 무리에 끼어 옆자리 동료와 함께 나오는 정우.
 이때 숨어서 회사 정문 살피던 체리(21세),
 정우 발견하고는 반색하며 튀어 나간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딱 대학생 옷차림에
 분위기 순식간에 화사해진다.

체리 선배님!

놀란 정우와 옆자리 동료. 누구? 서로 마주 보며 고개 젓는.

체리 저 체립니다! 한체리요!
 예쁘고 상큼 발랄한 체리 모습에 지나가는 직장인들 힐끗거린다.
 옆자리 동료, 체리와 정우 번갈아 쳐다본다.
 정우 체리?
 인서트.
 - 대학생 정우, 감쪽한 중학생 체리 과외 중이고. 노트에 적으며
 열심히 체리.
 정우 아...
 체리 우와, 기억하시네요! 저랑 점심 먹어요!
 당황한 정우 “일행이...” 손가락으로 옆 가리키는데,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옆자리 동료.
 어리둥절한 정우가 두리번거리는 사이
 체리는 냉큼 정우 팔짱 낀다.
 “음 뭐 먹지?” 신난다는 표정으로 정우 끌고 가는 체리.
 얼굴에 질질 끌려가는 정우.

#32. 정우 회사 인근 칼국수집(낮)

체리, 칼국수와 왕만두 맛있게 먹는다.
 뚝하게 쳐다보는 정우.

정우 여긴 웬일이야?
 체리 점심 먹으러요.
 정우 그러니까, 왜.
 체리 ...밥을 왜 먹냐구요?
 정우 (꽂) 먹어.

다시 열심히 먹는 체리.
체리 뺨히 쳐다보며 물 마시는 정우.
열심히 밥 먹던 체리, 정우 시선 느끼고는 젓가락질 멈춘다.

체리 제가 선배님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놀라서 뺨을 뺨한 정우, 황당한 표정으로 체리 쳐다보고.

체리 침부터 말씀드렸는데?

인서트.

- 과외받는 중학생 체리, 눈에 하트 뽕뽕... 설명하는 정우

입만 쳐다보고.

- 정우 회사 앞의 대학생 체리, 반감게 가려다가 정우와 이나
다정한 뒷모습에 멈칫.

체리 선배님이 제 과외 선생님일 때부터 제 첫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선배님 덕질을 얼마나 해냈으면 지현 선배님이랑 이나 언니가.
(멈칫)

정우 ...

체리 이나 언니가... (차분) 저 결혼식에도 초대해주셨잖아요. 혹시
자기가 도망가면 얼른 선배님 채가라고.

정우 그래, 기억나는 것 같다.

체리 전 이나 언니가 너무 좋아서, 그땐 진심으로 깨끗이 포기하고 정말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눈물 그렁하는 체리.

갑작스러운 사태 변화에 당황하는 정우.

체리 그날 식만 보고 일찍 나와서, 전혀 몰랐습니다.

정우 ...

체리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이...

정우 ...뭐가?

체리 (울먹)

정우 (당황) ...야.

체리 그래도... 인간의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는 건데...

정우 도대체 뭘 소리야?

체리 선배님 좋아하는 마음, 다시 가져도 되는 건가...

정우 (황당)

체리 며칠 전에 지현 선배님이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우 선배님
아직도 맘 못 잡고 힘들어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정우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선배님이 너무
좋습니다.

멍한 표정의 정우. 눈만 깜박거린다.

#33. 진섭 아파트/복도(밤)

퇴근길의 정우. 현관 앞에서 복잡한 표정이다.

이윽고 표정 가다듬고는 번호키 누르고 현관문 연다.

#34. 진섭 아파트/거실(밤)

밝은 표정으로 들어서는 정우.

정우 어머니! 아들 왔어요요- 배고파요...

멈춰 서는 정우.

거실에 진섭과 영진, 그리고 체리가 떡하니 앉아 있다.

정우 보고는 엉거주춤 일어나는 체리.

시간 경과.

네 사람, 말없이 둘러앉아 있다.

퇴근길 옷차림 그대로인 정우, 불어터진 표정이고

체리는 정우 눈치 살핀다.
진섭, 덩덤한 표정으로 정우와 체리 번갈아 보다가
정우 향해 쫓쫓.

진섭 우리가 불렀다! 거 똥 씹은 표정 줘.

영진이 눈치 주자 입 닫는 진섭.
영진, 정우 향해 다정한 표정.

영진 체리 양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체리 아닙니다. 저는 진심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황하는 진섭과 영진. 이미 적응된 정우는 헛웃음.

체리 (또박또박) 제 부탁으로 지현 선배님이 어렵게 만들어준
자리니까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이 악물며 혼잣말) 양지현...

진섭 그래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이렇게 정우 여자친구도
보고.

정우 아버지!

슬쩍 시선 피하는 진섭.
정우, 벌떡 일어나 체리 내려다본다.

정우 일어나.
진섭 체리 양 온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정우 일어나 얼른.

벌떡 일어나는 체리. 진섭과 이나에게 꾸벅 인사한다.

체리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체리의 깎듯한 인사에 엉거주춤 인사받는 진섭과 영진.

#35. 진섭 집 앞 도로(밤)

도로변에 서서 택시 잡는 정우. 정우 눈치 보는 체리.
정우는 체리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택시 한 대 다가와 멈춰 서면 정우 뒷문 열고 체리 밀어넣는다.
거칠게 문 닫고는 조수석 쪽 향하는 정우, 지갑 꺼내며 기사에게
뭔가 말하려다가 뒷자리로 가서 창문 두드리려 하면,
창문 내려가고 체리 머리 쪽 나온다. 질색하는 정우.

정우 집이 어디야.
체리 목동입니다.
정우 (기사에게 돈 적당히 내밀며) 여기요. 남는 건 재 주세요.

체리가 뭐라 하려는데 그대로 뒤돌아 자리 뜨는 정우.
체리 아쉬운 표정.

#36. 다음날 도심 뒷골목(낮)

빌딩숲 어느 건물 뒤, 눈 부릅뜬 정우가 지현을 벽 향하도록
밀어붙이고 한쪽 팔 뻗어 지현 뒷덜미 쪽 누르고 있다.
정우 손에 뒷덜미 눌린 채 벽에 붙어 바둥거리는 지현.

지현 야야, 일단 내 말 줘. (큭)
정우 전화했냐고.
지현 아니거든!
정우 죽을래?
지현 문자! 문자! 전화 아니고 문자.
정우 이게... (지현 뒷덜미 누른 손에 힘준다)
지현 (큭) 야! 이나 어머니하고 내가 통화 한두 번 해?
정우 장난해? 어머니한테 체린지 방울인지 개 얘기 했냐고!

지현 (큭큭) 이걸 봐야 말을 하지!

노려보던 정우, 팔 거둔다.
우웩. 양손으로 자기 목 앞쪽 감싸며 헛구역질,
주저앉을 듯 비틀거리는 지현.

정우 거긴 건들지도 않았다.

지현 (눈치, 멀쩡하게 벌떡 일어서며) 그래, 내가 말씀드렸다. 왜!
정우 되게 당당하다?
지현 지금 니가 연감생심 스물한 살짜리 여친이 가당키나 하나?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게.

정우 (어이없는) 연감생, 사극 찍냐?

지현 만났다니 다 들었을 거 아냐! 니 사정 다 알고도 아직도 니가 좋아
죽겠다고! 나는 그 기쁜 소식을 이나 어머니한테. (눈치)

정우 그게 왜 어머니까지 알아야 할 만큼 기쁜 소식인데?
지현 …솔직히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다들 알면서도 그냥 기다리는
거라구. 그래 뭐 너랑 이나, 서로 오랜 친구니까 그냥 절친네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긴. (멈칫)

정우 거긴 뭐.

지현 …단 하루도 함께 못 살아본 니 와이프의 집, 한때 니 처가였던
집이라구. 와이프는 존재하지도 않는 처가살이가 말이 돼?

정우 너 오지랖이 심하다.

지현 나잖아! 너희 두 사람 만나게 한 거.

정우 !!

지현 오티 때 어쩌다 니들 사이에 앉아서, 진짜, 무슨 연예인 커플마냥
그림같이 잘 어울려서. (울컥) 그렇게 우리 셋이 밥 먹고 술 먹고
한 세월이 얼마야 대체. 그런 친구 하나가 새파란 나이에… 결혼식
메이크업 지우기도 전에… 죽었다. 이걸 말 돼?

정우 그만해라.

지현 하나는 사라졌고, 남은 하나는 일 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고! (사이) 이나 보기, 쪽팔리지도 않냐?

정우 …비약하지 마. 나 멀쩡해.

지현 아니, 니가 제일 안 멀쩡해.

옷 탁탁 정리하는 지현. 돌아서다가…

지현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건 이나를 빨리 지우라는 건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난들 제정신이겠냐? 그럴 여력까진 없겠지만
말이다, 내 마음도 어쩌다 한번은 헤아려주라… 친구야.

가만히 선 정우.
뚜벅뚜벅, 멀어져가는 지현.

#37. 진섭 아파트/주방(밤)

같은 날, 퇴근한 정우와 진섭, 영진 세 사람 말없이 식사 중이다.
늘 두 사람 살피던 영진도 묵묵히 밥만 먹고
마치 정우 들이닥친 첫날처럼 김치 씹는 소리,
국물 후루룩 소리 등 밥 먹는 소리만.
정우가 손 뻗어 진섭 가까이 있는 반찬 집으려는데,
진섭이 획 접시 빼어서 자기 앞으로 옮긴다.
정우, 다른 반찬 쪽으로 젓가락 대면,
획 빼어서 영진 앞으로 옮기는 진섭.
정우는 멍하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진섭 바라보고,
영진은 묵묵히 밥만 먹는다.
젓가락 탁 내려놓은 정우,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가서
캔맥주 하나 꺼내온다.

정우 맥주 없어요 어머니…
진섭 아주 편의점 나셨네.

자리로 돌아온 정우, 푸슈! 캔맥주 요란하게 따고,
진섭은 못마땅한 표정.
정우, 맥주 쪽 들이켜고는 탕… 놓는다.

진섭 체리가 싫은 거냐, 결혼이 싫은 거냐?
 정우 둘 다요.
 진섭 왜 싫은데?
 정우 좋으면 아버지가 하시든가요.
 진섭 뭘. 결혼을?
 정우 (간죽거리는 끄덕임)

진섭, 혈압 오르는 표정으로 영진 쳐다보는데
 식탁에만 시선 둔 채 묵묵히 밥만 먹는 영진.
 오늘 좀 이상하다 싶은 진섭, 영진 살피면
 조용히 젓가락 놓는 영진, 천천히 손 뺀어...
 정우 앞 캔맥주 들더니, 한 모금 마신다.
 가만히 쳐다보는 진섭과, 조금 놀란 정우.
 영진, 맥주 맛 음미하듯 천천히, 한 모금 더 꿀꺽 마시고는
 캔 내려놓는다.

영진 이러면 잠이 좀 올라나...
 진섭 !
 영진 (정우에게 미소) 내가 잠이나 들어야 이이한테 자유가 생겼는데
 정우 ...
 영진 요즘은 갈 데가 없어졌거든. 이나 방 가서 몰래 울지도 못하고.
 정우 (놀라는 표정)
 영진 나 때문에. 내가 잠이 안 드니까 못 나가잖아. (진섭에게 미소)
 마누라 잘못 만나 고생이 많아.

허한 표정의 진섭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의 정우,
 영진 바라보고...
 영진은 젓가락 들더니 오이소박이 하나 집어서 입에 문다.
 아작아작, 영진이 오이소박이 씹는 소리만 크게 들리는 식탁.

#38. 진섭 아파트/이나 방(밤)

진섭이 이나 침대와 벽 사이에 손 넣고 휘적이고 있다.
 진섭 손에 딸려 나오는 양주병, 텅 비었다.
 빈 양주병 들어서 쳐다보는 진섭, 점점 커지는 분노의 시선.

진섭 하! 이 새끼 이거. 온 집 안 술은 귀신같이 씨를 말리네.

이때 문 열리며 목에 수건 걸친 정우 들어오다가
 빈 양주병 든 진섭과 눈 마주치자 곧바로 휙 뒤돌아 나간다.

CUT TO.

침대 위에 적당히 떨어져 벽에 기대앉은 정우와 진섭.
 과학계 커다랗고 둥근 와인잔으로 샴페인 흘쩍이는 두 사람.
 두 사람 사이에 2/3쯤 비워진 결혼기념일 샴페인 보인다.
 진섭은 이미 살짝 취했고, 정우는 샴페인 담긴 와인잔 빙빙
 돌린다.

정우 이거 와인잔 아니에요?
 진섭 대충 처마셔.
 정우 결혼기념일 샴페인을 어떻게 대충 처마셔요.
 진섭 그렇게 딱딱딱딱 경우가 바른 분이니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봐라.
 대체 우리 집엔 왜 왔니, 어? 내가 그렇게 좋아?
 정우 (질색) 저 아버지 별루예요.
 진섭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가. (사이) 대체 왜 여기 와 있냐 너?
 정우 (땀칭)

“당최 모르겠어”, “나랑 살러 왔나”... 중얼거리며
 자기 잔에 샴페인 따르는 진섭,
 정우는 책상 위 이나 사진 액자 던지시 바라보고...
 진섭도 술 마시며 딸 사진에 시선 준다. 환하게 웃는 이나 사진.

인서트.
 정우와 이나, 한적한 한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
 앞서 달리는 이나, 바람에 날리는 머리,
 큰 챙모자 쓰고 신나는 표정이고
 이나 뒤에서 웃으며 달리던 정우,
 갑자기 속도 올려 이나 앞지른다.
 환하게 웃는 두 사람, 반짝이는 강물, 초록 나무들…

현재의 정우, 물끄러미 이나 액자에 시선 고정.

정우 이나 되게 이쁘죠.
 진섭 당연하지. 누구 딸인데.
 정우 이나 어머니 닮았거든요?
 진섭 (정색) 개 어릴 때 사진 보면 나랑 완전 빼다 박았어 무슨 소리야!

피식 웃는 정우.
 술잔 입에 대려던 진섭, 정우 빨리 보다가

진섭 왜.
 정우 네?
 진섭 왜 암말도 안 하나고. ‘아버질 닮았을 리 없잖아요!’ 따박따박
 해야지.
 정우 …닮았어요.
 진섭 …
 정우 아버지 닮았다구요, 이나.

진섭, 다시 책상 위 이나 액자 물끄러미 쳐다본다.

진섭 너는 이나 침대가 아니면 잠이 안 오고…
 정우 …
 진섭 나는 이나 침대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한참을 말없이 이나 사진만 바라보는 두 사람.

CUT TO.

바닥에 뒹구는 빈 양주병, 빈 샴페인 병과 빈 잔.
 클로즈업된 이나 사진 위로, 드르릉… 정우 코 고는 소리 들리고
 침대 위에는 서로 팔, 다리 등 툭 걸친 채
 깊은 잠에 빠진 정우와 진섭.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두 사람이다.

#39. 추모공원 외경(낮)

큰 규모의 분당추모공원 전경. 완연한 가을 분위기.

#40. 추모공원 입구(낮)

정우가 평상복 차림으로 캔커피 두어 개 든 비닐봉지 들고
 터덜터덜 들어선다.
 갑자기 뒤쪽에서 탁탁탁탁 뛰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정우 흘끗 고개 돌리면 체리가 우다다 달려오고 있다.
 기겁하는 정우, 그리고 정우 앞에 멈춰서 환하게 웃는 체리.

체리 선배님!
 정우 뭐야 너! 여긴 어떻게 알았어?
 체리 지현 선배님이…
 정우 (분노) 양지현…

그러다가 퍼뜩, 이상하다 싶은 정우.

정우 오늘 나 여기 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체리 선배님 오시는 거 몰랐어요. 그냥 이나 언니 보고 싶어서 지현
 선배님께 이나 언니 계신 장소만 여쭙봤습니다. 진짱니다.

정우 한숨 내쉬고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추모공원 들어간다.
졸졸 따라가는 체리. 정우 손의 비닐봉투 보고는
“제가 들어드릴까요?”, “됐어!” 더 빨리 걸어가는 정우.

#41. 진섭 아파트/이나 방(낮)

이나 침대 위, 홀로 우두커니 앉은 진섭.
무표정한 진섭, 환한 미소의 이나 액자 바라본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 앉아 있는 진섭.

#42. 추모공원/봉안묘(낮)

이나의 봉안묘 앞에 우두커니 앉은 정우.
화사하게 웃는 이나의 사진 앞에 정우가 놓아둔 캔커피 하나.
물끄러미 이나 사진 바라보는 정우 뒤에
체리 두 손 모으고 서 있다.
눈 깊어진 정우. 쓸쓸한 표정으로 이나 사진 바라보는데...

체리(E) 이나 언니...

정우 돌아보면, 체리 시선이 이나 사진에 고정되어 있다.

체리 여전히 예쁘십니다.

정우 ...

체리 그래서 두 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정우 그래. 고맙다.

체리 이나 언니...

정우 응, 뭐.

체리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정우 (이상한 애다... 골치 지끈)

체리 언니. 저 정우 선배님 좋아해도 되는지 허락 받으려 왔습니다.

놀란 정우, 체리 쳐다보는데.

체리 언니...

정우 야!

정우, 정말 화난 표정이다.

그러나 입 꼭 닫은 채 이나 사진만 바라보던 체리, 다시 입 연다.

체리 언니. 저 이제 스물한 살입니다. 이 나이에 덜컥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구요, 전 지금 지상 최대의 목표가 남친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졸업해서 초봉 최소 사천 이상 받는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힘이 생기니까요.

정우 ...

체리 그래서 뭐든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당장 제 남친이 되어달라고 선배님을 조르는 게 아니라 제가 선배님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선배님을 제가 열심히 좋아해도 되는지 언니 허락을 먼저 받고 싶습니다. 결혼 문제는 일단 그 후에.

정우 그만해라.

체리 제가... 잘해주겠습니다. 술도 그만 마시게 하고, 선배님이 언니 부모님 자꾸 속 썩이지 않게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언니를 잊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정우 ...

체리 제가 좀 자세히 들은 게 있는데요, 언니가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건 기본이구요. 전에 한 번은 선배님이 자기 카드값 연체됐다고 언니 아버님께...

벌떡 일어나 체리 팔 질질 끌고 봉안묘 앞 뜨는 정우.

환하게 미소 짓는 이나의 사진.

#43. 진섭 아파트 앞(늦은 오후)

추모공원에서 돌아오는 정우, 진섭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이삿짐용 사다리차가 진섭네 동 앞 도로에 서 있다.
무심히 올려다보는데, 서서히 표정 변하는 정우.
사다리차의 끝이 향한 곳은… 진섭네 집 베란다.
사다리차 타고 천천히 내려오는 짐은, 끈으로 뽕뽕 잘 묶인 이나
침대다!

정우 잠깐만… 잠깐만요!!

사다리차 옆에서 사다리 하강 작동하던 기사와
그 옆에서 위 올려다보던 진섭, 정우 소리에 돌아보는데
사색이 된 정우가 달려든다.

정우 뭐예요 아버지?
진섭 …가지고 가, 니 집으로.

이어서 진섭, 뭐라 말하려는데,
정우, 무턱대고 사다리차로 뛰어오르고
놀란 진섭과 사다리차 기사, 정우 붙잡는다. 뿌리치는 정우.

정우 올려요! 다시 올려요!

그러는 와중에도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침대.
작동 중인 사다리 부여잡고 위아래 바빠 살피던 정우 눈에
사다리차 기사가 손에 쥐고 있는 리모컨 보인다.
'상승', '하강', '비상정지' 등의 버튼이 얼핏 보이고…
리모컨으로 달려드는 정우, 기겁하는 사다리차 기사.
“고장나요!”

진섭 심정우!

리모컨 뺏으려는 정우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사,
사다리차 위에서 벌이는 소동에 차 조금씩 흔들리고,

진섭도 달려들어 정우 말린다.
드디어 리모컨 손에 쥔 정우, 버튼 하나 콕 누르자 덜컥,
작동 중단되는 사다리차.
이윽고 정우의 리모컨 조작으로 다시 올라가는 침대.
정우가 침대에 시선 빼앗긴 사이, 찻싸게 리모컨 빼앗는 기사.

기사 미쳤어요?
정우 그러니까 내리지 말라구요!

다시 리모컨 빼앗으려는 정우, 안 빼앗기려는 기사,
난리통에 얼굴에 눌러는 버튼, 또다시 덜컥, 멈추는 사다리차.
급정지 충격에 짐칸에 실린 침대 한쪽이 툭, 미끄러진다.
세 사람 시선 다시 침대로 향하면… 덜컥, 덜컥,
조금씩 기우는 침대.
이때 덜컥, 하더니 갑자기 하강하는 사다리.
기사가 본능적으로 정우와 진섭 등 옆으로 밀쳐내는데
지이이잉… 내려오던 짐칸이 3, 4층 정도 높이에서 덜컥,
멈추자 급정지 충격으로 튀어나와 뚝… 떨어지는 침대.
놀란 정우, 떨어지는 침대를 받으려는 듯
양팔을 벌리고 달려든다.
놀란 진섭이 말릴 틈도 없이 정우는
침대의 낙하 방향으로 향하고,
팔 벌린 채 머리 위로 떨어지는 침대 바라보던 정우,
공포로 일렁이는 눈동자에서

인서트.
성당 앞, 막 결혼식 마치고 웨딩카 앞에서
환하게 웃는 새신랑 정우,
넓은 챙모자에 원피스, 한 손에 부케 쥔 아름다운 신부, 이나.
정우 손 꼭 잡고 웨딩카에 오르려는데,
문득 이나 시선이 도로 건너편 향하고
도로 건너, 이나 뛰는 방향 쫓는 정우의 시선.

이나가 영진에게 외락 달려드는 모습.
 옆에는 서운한 표정의 진섭,
 엄마 등 토닥이던 이나, 웃으며 진섭에게 향하고
 이나를 품에 안는 진섭.
 화사한 미소로 손 흔들고는 다시 정우 쪽으로 향하는 이나,
 도로로 뛰어들면서 엄마 아빠 돌아보는 이나,
 과속으로 달려오는 트럭 한 대 나타나고, 놀라 돌아보는 정우,
 그리고 친구들, 부모들 얼굴 위로... 끼이익!!!
 급브레이크 소리 이어 쿵! 둔탁한 충격음.

다시 현재, 떨어지는 침대 향한 정우의 시선,
 정우, 아슬아슬하게 몸 피하며 넘어지고...
 떨어져 와장창 박살 나는 침대,
 낮 나간 표정의 정우와 진섭.
 놀란 얼굴로 두 사람 번갈아 쳐다보는 사다리차 기사,
 웅성웅성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44. 진섭 아파트/이나 방(늦은 오후)

같은 시각, 텅 빈 이나 방에 선 영진.
 침대 빠진 자리 바라보고 있다.
 고개 돌려 이나 액자 가만히 응시하는 영진.

CUT TO.
 이나 방, 침대 빠진 자리... 우두커니 서서 웅한 방 바라보는
 정우.

CUT TO.
 어깨에 가방 메고 트렁크 끌고 방에서 나오는 정우.
 진섭과 영진, 정우 배웅하러 서 있고
 정우가 두 사람 향해 꾸벅, 인사하면
 다가가 정우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영진.

이어서 정우가 진섭도 안으려 하면,
 진섭 움찔 뒤로 물러났다...
 다시 다가서서 어색하게 포옹 흉내만.
 어정쩡하게 팔 두른 진섭,
 굳은 표정으로 슬쩍 정우 어깨 툭툭... 두드려준다.

CUT TO.
 가방 메고, 캐리어 끌고, 아파트 복도 힘없이 걸어가는 정우의
 뒷모습.

CUT TO.
 아파트 거실에 선 진섭과 영진 실루엣 뒤로
 거실 유리창 밖, 타는 듯한 붉은 노을 저문다.

F.O.
 자막. "1년 후"

#45. 교차. 정우 회사 인근+진섭 아파트(낮)

- 출근하는 정우, 건물 입구에서 아이디카드 찍고 들어가다가
 동료 만나 인사하고.
 - 진섭과 영진, 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 회사 앞, 정우 휴대폰 통화하며 나오는데 갑자기 뽕 나타난
 체리, 정우는 그러려니...
 - 진섭네 아파트, '심정우♡이이나' 라벨의 결혼기념일 샴페인
 빈 병에 알록달록한 꽃 꽂는 진섭. 웃으며 바라보는 영진 위로

(E) 뽕로퐁. 진섭네 집 벨소리.

#46. 진섭 아파트/거실(낮)

벨소리에 진섭이 현관문 열면,
샴페인과 해바라기 들고 선 잘생긴 정우. 눈에 띄게 흰칠한
모습이다.

CUT TO.

‘심정우♡이이나’ 빈 샴페인 병에 꽂힌 해바라기, 클로즈업.

끝.

작가 후기 (아내의 침대)

원본과 많이 다르고 한편으론 그대로인 <아내의 침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톤과 구성, 감정선 등이 달라졌으며 메인 스토리와 등장인물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부분이 훨씬 더 많네요. 작품집 대본은 '최종 수정본과 촬영고의 그 중간 어디쯤'인 버전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감사의 인사만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작업을 통해 그분들을 이해했습니다. 4년 넘게 노트북 안에서 자기복제만 거듭하던 <아내의 침대>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새로 태어난 2019년에, 제 인생의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언제 또 이런 과분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아내의 침대>에 새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오랜 3기 작가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김지일 센터장님, 임고는 피디님, 최예빈 대리님, 이수정 팀장님, 태원 님, 수민 님, 광지훈 피디님, 손자영 피디님, 김나경 피디님 감사합니다. 친구라는 뜻에 걸려 고민의 시간 함께해준 백은자 감독님, 김서영 작가님, 정희경 작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시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주신 이남규 작가님께 고개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연출을 맡아주신 민두식 감독님, '정우'와 '진섭'을 대신해 90도 폴터인사를 드립니다.

먹고 낳아서 살어리랏다 (live long & prosper) — 전하영

작의

‘한국 출산율 OECD 국가 중 최하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의 출산만이 축복받을 수 있고, 미혼의 출산은 비도덕적이고 있을 수 없는 금기시된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한 이상 한국의 출산율은 나아지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또한 사상 최저 수준인 현실이다.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살고 싶다. 그것도 제대로, 나답게 살고 싶다’

열렬하게 단순히 살고만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무의미한 것들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가장 중요한 산다는 것, 숨 쉬며 산다는 너무나 고귀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등바등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가까운 일인가를 깨닫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

등장인물

양정(33세, 여) 명문 사립 영백고등학교 영어교사

스무 살 때 고통스러운 암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혼자서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세계 일주를 완수하는 등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로부터 새삼 암 병력을 이유로 헤어짐을 통보받고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다.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생각했으나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병력에 대한 반발심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보리라!라는 정말 단순한 오기를 가지고 출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차성빈(35세, 남) 영백고등학교 수학 교사

양정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13년 전 교내 동아리 신입생인 양정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하려는 순간 양정의 영문도 모를 휴학 소식을 듣게 되고,

10년 후 같은 직장(영백고)에서 해후하게 된다. 여성적이면서 도도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체육 교사보다 더 땀 냄새를 꼴꼴 풍기는 그녀의 터프한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마치 새로운 사람에게 반한 것처럼 다시 양정을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그녀의 파혼 이유가 13년 전 갑자기 휴학한 이유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에게 결혼을 염두에 둔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이호민(33세, 남) 양정의 전 남친, 회계사
강 선생(34세, 여) 영백고등학교 수학 교사
송다래(18세, 여) 영백고 2학년생
박찬성(18세, 남) 영백고 2학년생

그 외
양정의 아버지, 영백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들, 의사 등.

줄거리

암환자였던 이유로 약혼자한테 파혼당한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아버렸다.
아! 글썄 나 암 완치 판정받았다니깐! 약혼자와 날 아는 모든 사람한테 완치된 날 보여주기 위해 아기 한번 낳아볼까나? 교사로서 경제적 능력도 되겠다, 저출산 시대에 내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멋지게 낳아볼까나.

근데 학교 측에서 미혼 교사가 아기를 낳으려면 학교를 그만두라네~
멋진 선배 교사가 아기는 낳지 말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네~
찌질한 약혼자 놈은 핏줄이 땡긴다며 재결합하자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뭐였더라?

먹고 낳아서 살어리랏다 전하영

#1. 한강 남단 자전거 도로(오후)

일렬로 사이클 라이딩 하는 무리들. 사이클 복장과 헬멧을 제대로 갖추어 입었다. 맨 앞줄에서 주먹 쥔 오른손을 위로 올렸다 내리며 뒷줄에 신호를 보내는 양정(33세, 여). 프로다운 리더의 모습이다.
저녁노을과 함께 달리는 그들의 모습, 평화롭다.
행복한 얼굴로 라이딩 하는 양정. 그러다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커플을 지나친 뒤, 무리에서 혼자 조용히 이탈하여 라이딩을 멈춘다. 살짝 굳은 얼굴로 거친 숨을 고르는 양정. 곧 방향을 뒤로 틀어 벤치에 앉아 있는 커플을 향해 돌진한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던 커플,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양정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양정은 더욱더 돌진하고 그 둘은 서로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질끈 눈을 감아버린다.
그들 앞에 멈춰 선 양정. 껴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기가 찬 듯 코웃음을 치고 쿨하게 그냥 앞으로 가버린다.
그때 한쪽 눈을 빼꼼히 뜨는 남자, 눈앞에 아무도 없음에 당황하다가 저 멀리 사이클 타고 가는 양정의 뒷모습을 발견한다. 속상한 얼굴의 남자.
양정, 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 도로 가장자리로 달려가 쭈그리고 앉아 오바이트를 한다.

양정 (소매로 입을 닦으며 스스로 어이없어하는) 오바 욱마 한다. 진짜.

#2. 양정의 원룸 건물 앞(저녁)

차 안에서 핸들에 머리를 쿵쿵 박고 있는 #1의 그 남자,
양정의 약혼자 이호민(33세, 남)이다.
근심 가득한 얼굴로 골목의 끝을 쳐다보고 있다가 힘없이
사이클을 끌고 오는 양정의 모습을 발견한다.
차 밖으로 얼른 나가는 호민, 막상 양정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주춤거린다. 그런 호민을 보는 헬썩한 얼굴의 양정,
호민 앞으로 걸어가 선다.

양정 (대수롭지 않게) 놀랬겠다. 상암동으로 라이딩 간다고 했는데
한강에서 씨 유 어겐 할 줄이야. (지친 얼굴)
호민 (그런 양정의 얼굴 보며) 무리하지… 말라니깐.
양정 (호민 뻘뻘 보며) 뭘? 사이클 타는 거? 아님 바람피운 약혼자랑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말 섞는 거?
호민 (할 말 없는)… 아까… 왜 그냥 갔어?
양정 그냥 가지 그럼. 그대로 들이박을 걸 그랬나? (점점 열 받는) 그
여자 니 사수 아니었냐? 성격 진짜 별루라며? 일도 못하고 맨날
징징댄다며? 근데 너.
호민 (O.L) 정아!
양정 (열 받은)
호민 (뭔가 할 말 있는) …
양정 (계속 열받은)
호민 (한숨 쉬며 손을 이마에 갖다 댄다)
양정 (순간 느낌 안 좋다) …모?
(긴장한) 잘못했다고? 죽을죄를 졌다고?
호민 (작게) 응.
양정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민 (작게) 응.
양정 (살짝 안심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호민 …

양정, 순간 당황하다가 점점 분노가 치민다.

양정 (헬멧을 벗어서 호민을 때리며) 너… 어제도 나랑 잔 놈이야. 너…
너…
호민 (그대로 맞으면서 가만히 있는)
양정 (헬멧으로 계속 때리며)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진짜
너무…
호민 (그대로 계속 맞고 있는)
양정 너무… (서서히 멈추며) 구려서… (울 것 같은 얼굴로 호민 보며)
눈물도 안 나온다 야.

호민, 죄책감이 밀려오고,
미안한 마음에 양정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호민의 손목을 뒤로 꺾어버리는 양정.

호민 아악!
양정 (호민의 손목 비틀며) 재밌냐? 응? 약혼이 장난이냐?
호민 (비튼 손목 풀지도 못하고 버둥거린다) 아! 야! 야!
양정 (곧바로 팔을 풀어 호민 뒤에서 한 팔로 헤드록 걸고, 한 손으로
초크 건다) 죽었어. 험! (힘주는)

호민, 손으로 양정의 팔을 미친듯이 두들기며 발버둥친다.
그러다 서서히 힘이 빠질 것 같은 몽롱한 순간,
귓가에 뭔가 축축한 게 느껴진다.
호민, 뭔가 싶어 만져보니 시빨진 피다.

호민 (놀라며 잘 안 나오는 목소리로) 야, 피, 피.

그래도 양정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후~ 할 수 없이 내가
힘을 써야겠군. 하는 얼굴로 헤드록과 초크를 걸던 양정의
양팔을 확 잡아 뺨 뒤 뒤를 돌아보자 거의 기절 직전의 양정.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놀라서 손으로 얼른 코피를 닦아주는 호민.
그 와중에도 호민을 죽이겠다고 기를 쓰는 양정의
처절한 무의식 동작들.

호민 (그런 양정을 안으며) 정아! 괜찮아? 정아! 정신 좀 차려봐!
양정 (점점 힘주던 동작을 멈추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더럽게…
운도 좋은 놈. (눈 감는다)
호민 (놀라며) 정아!

양정, 완전히 기절한 상태.
초크 걸던 손가락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다.

#3. 병원 응급실(저녁)

응급실 풍경.
링거 맞으며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양정.
잠에서 깨자 바로 머리를 일으키려는 순간 어지러워서 다시
눅는 양정. 그때 커튼 너머 들리는 호민의 목소리.

호민(E) 그냥 좀 피곤해서 코피 난 거래요.

커튼 밖에서 통화하는 호민.

호민 (사이) 암 재발한 거 아니라니깐요. (사이) 암 재발은 아니래요.
의사가. (사이) 네. (사이)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엄마.

하는 순간, 커튼이 확 찢혀지자 엄마야! 하고 놀라는 호민.
그런 호민을 침대에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양정.

호민 (당황하며) 일어났어?
양정 (그냥 쳐다본다)
호민 좀 어때 괜찮아?

양정 (고개 살짝 끄덕인다)
호민 그럼… 내가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호민, 어색하게 나가고 그런 호민의 뒷모습을
슬픈 얼굴로 보는 양정.

#4. 양정의 원룸 가는 골목길(저녁)

조용한 골목길.
앞서서 걸어가는 양정.
뒤에 조용히 따라가는 호민.

호민 (못 참고) 엄마가 너 걱정 많이 하셔.

양정 …

호민 너가 니 몸 생각 안 하고 레슬링이니 사이클이니 암벽등반이니 뭐
이런 힘든 운동 자꾸 하니깐 걱정…

양정 (O.L) (걸음 멈추고) 걱정! 하시는데 내 전화는 왜 안 받으셔?
(뒤돌아 호민 본다)

호민 (당황) 어? 안 받았어? 바쁘셨나?

양정 (어이없는) 내 걱정을 왜 이제야 하셔? 내가 백수인 널 3년 동안
입혀주고 맥여줄 때는 우리 똑똑한 교사 며느리 슈퍼우먼이네,
기운 넘치네, 한번 아팠던 사람이 더 건강하대! 더 오래 살 거다!
하시더니, 니가 취직하고 나니깐 갑자기 내 건강이 걱정되시는
거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완전 어벤저스 급이잖아.

호민 (복잡한 심정) 정아… (한숨)

양정 (역시 복잡한) …끝내더라도 너한테 질려서 끝낼 줄 알았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울컥했으나 참는) 진짜 이렇게 끝내게 될
줄은 몰랐다.

호민, 미안한 마음에 또 손잡으려고 하자
양정, 또 호민의 손목 살짝 비틀어버린다.

호민 아악!
 양정 (한심한) 넌 학습이 안 되지?
 호민 (고통스러워하며) 아, 아, 아파!
 양정 (비웃는) 아파?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힘 팍 주는)
 호민 (고통에 순간) 엄마!
 양정 (욱하는) 엄마? (발로 호민의 다리를 차려고 하면서) 엄마가 똥을
 꿀이라고 해도 먹을 놈아. (발로 차려 하고 호민은 피한다) 너가
 더 나빠. (차고 피하고) 넌 너가 없어 너가. 자기 생각이 없는 놈.
 (차고 피하고)

호민, 견디다 못해 완력으로 양정에게 벗어나
 그대로 앞으로 뛰어간다.
 양정, 썩썩거리며 쳐다보다가 갑자기 답답한 듯
 가슴에 손을 갖다 댄다.

#5. 양정의 원룸 안(아침)

양정의 원룸 안.
 한쪽 벽에 암벽 등반하고, 사이클 타고, 레슬링하는 양정의
 사진들이 쭉 붙어 있다. 한쪽 벽 책장에는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
 및 교과서 관련 서적들이 가득하다. 2인용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양정과 양정의 아빠. 양정, 아빠가 싸운 전복죽을 열심히
 먹는다. 그런 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빠.

아빠 왜 이렇게 잘 먹는 건데?
 양정 (피 먹으며) 잘 먹으면 좋지, 왜요?
 아빠 니가 언제 전복죽을 먹는 애야?
 양정 (어이없어서) 나 먹으라고 해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빠 기운이 펄펄할 때는 입에도 안 대잖아. 뭔가 속이 좀 안 좋을 때
 돼야 입에 한 숟갈 겨우 넣을까 하면서. (살짝 근심스러운 얼굴로
 양정 보는)
 양정 (열심히 먹으면서 뭔가 생각하는)

아빠 (컵에 물 따라주면서) 호민이, 요즘 많이 바빠가?
 양정 (아무렇지 않은 척)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빠 아니 난 회사 일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려고 걸었더니 안
 받길래... 뭐 그런 줄은 알았지.
 양정 (순간 욕한) 전환 안 받아? 아빠 전화했?
 아빠 (손 휘휘 저으며) 바쁘다며.
 양정 (열받은) 나중에라도 해야지.
 아빠 됐어. 괜찮아.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 니 엄마 기일에 만나는데 뭘
 자꾸 일하는 사람 귀찮게 해.
 양정 (순간 할 말 없는)..
 아빠 (일어나서 양정의 밥그릇 싱크대로 갖고 가며) 이번에 호민이가
 환장하는 간장게장 해줄 테니깐 기대하라고 해.
 양정 (설거지하는 아빠 뒷모습 본다)
 아빠 사위 사랑은 장모가 아니라 장인이란 걸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양정 ... (아빠 뒷모습에 대고) 아빠.
 아빠 (빈 그릇 보며) 다 먹으니깐 좋긴 좋다.
 양정 (진지) 나 살려줘서 고마워.
 아빠 (담담하게) 썩썩하게 살아나서 고마워. 우리 딸.

양정, 아빠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벽차오른다.
 그러다 무언가 드디어 각오한 얼굴이 되는데.

#6. 종합병원/진료 대기실(오전)

진료 대기실 풍경.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양정, 긴장한 얼굴이다.
 긴장감 풀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보는 양정.
 사진들을 훑히 대충 보다가 어느 사진에 멈춘다.
 그 사진 화면의 어느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양정.

(화면 - 양정E)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란 문구가

보이는 사진)

양정 (혼잣말) 사는 것.

진료실에서 나오는 간호사, “양정 님” 부르자,
가방에 스마트폰 넣고 일어난다.

#7. 종합병원/진료실(오전)

황당하고 놀란 얼굴의 양정.

의사 그니깐 안정을 취하시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양정 (계속 놀란)

의사 몸에서 계속 신호가 있었을 텐데 너무 간과하셔서.
(진료 화면에 이것저것 입력한다)

양정 (간신히 정신 차리며) 얼마 전 응급실 왔었을 땐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의사 (진료 화면 찾아보며) 어디 보자. 아, 그때는 다리 엑스레이밖에
안 찍었네요.

양정 아...

의사 재발하셨을까 봐 거기부터 찍으셨던 것 같은데.

양정 네. 근데 재발은 안 했다고.

의사 증상이 재발하고 비슷해서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양정 (갑자기 울컥) 네.

의사 (짙한 얼굴로 양정 보며) 아이고~ 마음고생은 이제 끝입니다.

양정 (눈물 흘리며) 네.

의사 (방긋) 축하합니다.

양정 (계속 눈물 흘리며) 네.

의사 임신 11주입니다.

양정 네... (하다가 정신이 번쩍! 곧 현실 상황 인정 못 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핫.

#8. 종합병원/대기실(오전)

복잡한 얼굴로 진료실 나오는 양정.

긴장이 풀리자 다리 힘이 풀리면서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는다.
대기실 건너편에서 통화하면서 병원 입구로 걸어가던 호민,
그런 양정을 발견한다.

양정, 식은땀이 나는 듯 손으로 얼굴을 훑는다.

그런 양정을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는 호민. 무슨 일 났나?

겉먹은 채 병원 입구를 통과한다.

#9. 영백고등학교/운동장(오후)

영백고등학교 외경 보이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남학생들.

운동장 벤치에 앉아서 깔깔 웃고 문자하며 떠드는 여학생들.

그때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는 양정, 심상치 않은 얼굴이다.

그런 양정을 향해 축구공을 거칠게 날리는 박찬성(고2, 남).
양정의 근처에 떨어진 축구공.

찬성 (큰소리로 건방지게) 영백고의 양 봄! 킴 온!

그러나 제정신 아닌 양정은 그런 찬성과 축구공을 외면하고

그대로 건물 현관으로 들어간다.

그런 양정의 반응이 의아한 찬성.

찬성 (공 쪽으로 걸어가며 친구들 향해) 지금 양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남학생1 양 맞아. 양 멘붕 온 것 같은데.

찬성 (발로 공 굴리며 양정이 들어간 현관 바라본다)

#10. 영백고등학교/교무실(오후)

교무실 안 풍경.

양정, 체육복 차림으로 냉장고에서 생수병 한 개 꺼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호쾌하게 원샷한다.
그런 양정을 쳐다보는 맞은편 책상의 강 선생(33세, 여).

강 선생 양, 아침에 검사받느라 물도 안 마셨어?
양정 (헝한 눈에 힘주며) 아니 지금 정신 좀 차리려고.

그때 교무실로 들어오는 차성빈(35세, 남)
살짝 긴장된 모습으로 지나가는 동료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양정을 발견한다.

양정, 다 마신 생수병을 입 안에 마저 털더니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찌그러뜨리고
쓰레기통을 향해 슛~! 골인하자 작게 아싸~ 하는 양정.
그런 양정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성빈.

강 선생 (그런 성빈을 보고 양정에게) 자기 오전에 반차 내서 모르지?
오늘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이~

성빈, 놀란 얼굴로 양정을 향해 걸어온다.

강 선생(E) 이쪽으로 오시네.

양정, 고개 돌려 성빈을 본다.

성빈 (놀라움과 반가움) 혹시... 양?

양정 (바로 알아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난다)

성빈 (환하게 웃으며) 맞구나. 양~

#11. 영백고등학교/운동장 벤치(오후)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는 양정과 성빈.
살짝 어색하지만 반가운 분위기이다.

성빈 이렇게 다시 만나는 일도 생기네. 진짜.

양정 (평상시랑 다르게 수줍은 듯) 생기네요. 진짜.

성빈 (그런 양정 보며) 정말 반갑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우리 13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양정 (놀란) 어! 그렇게 오래됐어요 선배? ...13년...

성빈 (양정 얼굴 보며) 이렇게 보니까 옛그제 같네. 너 스무 살 때.

양정 (민망한) 아유~ 꽃다운 스무 살 때(몇 초 멍뚱하다가 원래대로)랑 지금이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르죠. 전 지금이 더 좋구요.
(미소)

성빈 지금도 좋고 그때도 좋고.

둘이 마주 보고 웃는다.

그때 두 사람 앞으로 거칠게 날아온 축구공.
따뜻하게 웃던 두 사람, 순간 놀라서 그쪽을 쳐다보면, 찬성이 서 있다.

찬성 (웬지 신경질적인) 양 똘! 패스!

양정 (?)

성빈, 양정 대신 본인이 일어나서 공을 차려고 하는 순간

뽕! 시원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멀리 날아가는 축구공.

성빈, 놀라 옆을 보니 양정이 공 찬 후의 포즈 그대로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여전히 체육복 차림이다)

양정 (환한 미소로) 스무 살 때랑 다르죠?

성빈 (역시 환하게 웃는다)

#12. 영백고/2학년 교실(오후)

체육복 차림으로 영어 수업하는 양정. 칠판에 영어가 빼곡히 써어 있고, 헤드셋을 하고 영어로 역동적으로 수업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축구공으로 드리블 쇼를 하는데 자꾸만 앞문 쪽으로 슬금슬금 가더니 결국 문 밖으로 나가면서 드리블 쇼를 하고, 아이들 폭소 터뜨린다. 그중에서 송다래(고2, 여) 제일 크게 웃고, 창가 맨 뒤쪽에 앉은 찬성, 시큰둥하게 코웃음 치다가 결국 피식 피식 웃는다. 건물 복도를 지나가던 성빈, 양정의 복도 드리블 쇼를 우연히 보다가 국어 교과서에서 지금과 많이 다른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양정의 스무 살 때 필름 사진을 꺼내 본다. (단체 사진임) 그 사진을 따뜻하게 보다가 고개 들어 복도에서 드리블 쇼 하는 양정을 역시 따뜻하게 바라보는 성빈.

#13. 영백고 정문 앞(오전)

등교하는 학생들 틈으로 사이클 타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양정.

#14. 영백고/교무실(오전)

교무실 풍경.
성빈, 양정의 자리 쪽으로 간다.

성빈 양, 아니 양 선생님. (민망한)
강 선생 양이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대학교 선배님이신데.
성빈 그게 학교에서는 좀... (양정 보며) 은행일은 잘 봤어?
양정 네. 1교시 수업 시간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선생님.
강 선생 (양정 보며 손사래 친다) 또 그런다 또. 차 선배님~이라고 편하게 부르라니깐 양~
양정 (강 선생 보며) 강 선생님. 제발 우리 호칭 문제에 신경 써주실래요?

강 선생 (안 듣고) 선배님도 칠벽 치는 것 같다. 오빠 어때? 오빠.
다래(E) (불쑥) 헐. 선생님들 사이에서 오빠라고 불리요?

돌아보니 다래(고2, 여)가 영어 공책 잔뜩 들고 있다.

양정 (말 돌리며) 수학 선생님이 남편분한테 오빠라고 부르신덴데. 오빠.

양정, 공책들 받아서 비좁은 책상 끝에 간신히 올려놓는다.

다래 (오글거리는) 오빠래... 아, 맞다. 수학 선생님 임신하셨다면서요?

순간, 놀래서 공책 우르르 떨어뜨리는 양정.
강 선생, 성빈, 다래 모두 이상하게 양정을 본다.
당황하는 양정.

강 선생 (또냐? 하는 얼굴) 내가 임신해서 곧 휴직한다는 즐거운 뉴스가 또 나도나 본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다래 (살짝 실망한 듯) 임신 안 하실 거예요?

강 선생 (강경하게) 어.

다래 (웬지 억울한) 왜요?

강 선생 (당연하게) 덩크니깐.

다래 (실망해서 혼잣말) 덩크 또 모야...

강 선생 (갑자기 뭔가 떠오른) 다래야 나 덩크 선언했으니깐 소문 좀 내주라. 위대한 수학 선생님은 덩크라서 아기 안 낳을 거고 영원히 휴직할 일 없다고. 오키?

다래 (실망한) 헐. (손가락 동그라미 만들며 힘없이) 도키요... (그러다가 양정을 확 껴안으며) 양정 선생님은 절대 임신하지 마세요! 휴직하시면 안 돼요. 네?

양정 (순간 당황) 뭐? 어... (당황해서 웃는)

성빈 송다래! (손가락으로 다래 이마 콩 하며) 결혼도 안 한 선생님한테 무슨 임신 얘기야?

다래 (순진한) 맞다. 결혼 안 하면 애기 못 낳죠?
강 선생 (어이없다는 듯) 어머 왜~? 결혼 안 해도 애기 낳을 수 있어.

순간 다들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
성빈, 조용히 다래 데리고 자기 책상으로 간다.

강 선생 (입 빼죽하며) 애들 교육 다시 시켜야겠다. 결혼이랑 임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지.

양정, 강 선생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뭔가를 생각한다.

#15. 영백고등학교/운동장(오후)

운동장 뛰는 한 반의 무리들.
그 무리 뒤에서 같이 뛰어가는 양정. (역시 체육복 입었다)

인서트.
#7 병원 진료실.

양정 (괴로운) 제가 아기를 낳아도 될까요?
의사 임신으로 인한 재발 확률은 높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면 확률이 높아지죠.

양정, 갑자기 빠르게 달리며 아이들을 앞지른다.
미친듯이 달려나가는 양정을 보는 아이들.
그중에서 찬성과 다래 보인다.

찬성 (짜증난 듯) 아 진짜 싫어 양.
다래 (그 소리 듣고 뒤돌아 찬성을 쬐려본다)
찬성 (신경도 안 쓴다) 양 왜 저래. 영어 교사가 체육 교사보다 더 열 내서 어쩔 건데?
남학생1 운동 중독이잖아 양. 허벅지 봤냐? 진짜 차범근 허벅지야. 와...

허벅지가.
찬성 (짜증난) 뭐든 자기만 열심히.
다래(E) 열심히 하는 게 나빠?

찬성과 다래, 서로 노려본다.
양정, 횡수 다 채운 듯 운동장 바닥에 있던 생수병 들고 역시 호쾌하게 마신다.
흐물거리며 뛰는 아이들.

양정 (체육 교사처럼 큰 소리로) 동작 봐라! 자세 똑바로 잡고 제대로 안 땄래?

아이들, 조금씩 자세 잡고 제대로 뛰는 척한다.
그때 양정 옆에 서는 체육 교사 주 선생(42세, 여).
주 선생 보고 얼른 꾸벅 인사하는 양정.

주 선생 (양에게 팔짱 끼며) 난 자기가 너무 좋아.
양정의 어깨에 머리 기대는 주 선생.
양정, 호쾌하게 웃는다.
그런 그 둘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

#16. 영백고등학교/교무실(오후)

교무실 창가에서 운동장의 양정을 쳐다보는 성빈, 미소 짓고 있다. 양정이 혼자 터벅터벅 운동장을 가로질러 건물 쪽으로 오는 모습 보고 냉장고로 가서 집에서 직접 갈아온 해독 주스 유리병을 꺼내들고 얼른 나간다.

#17. 영백고등학교/운동장 수돗가(오후)

아무도 없는 수돗가.

수도꼭지를 트는 양정.

인서트.

#1의 한강 자전거 남단 도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뽕냥거리는 호민과 여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쿵쿵 떨어지고, 그 물을 멍하니 보는 양정.
곧 정신을 차리고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틀어서 세수한다.
세수를 끝낸 양정에게 수건을 건네는 성빈.
순간 얼떨결에 수건을 받은 양정, 좀 당황스럽다.
얼굴을 닦으며 뭔가를 생각하는데.

양정 (다 닦으며) 지금 왜 당황스럽지? 싶었는데, 바뀌었어요.
우리 둘이.

양정, 손가락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가리킨다.

양정 제가 남자고, 차 선생님이 여자 같잖아요. (웃음)

성빈 둘 다 남자거나 둘 다 여자만 아니면 되지. (같이 웃는다) 모
그래도 상관없고.

양정 (웃으면서) 둘 다 남자 할까요?

성빈 어... 여자가 낫겠다. (가방에서 주스 유리병 꺼낸 뒤, 쓱스럽게
건넨다)

양정 (놀라서 받으며) 이게 하루 만에 유명해진 그 빈이 해독 주스?

성빈 (웃으며) 양 선생이 건강에 관심 많잖아. 그래서 한번 해주고
싶었지... (조금 뜸들이더니) 내가 또 대학 선배고...

양정 (갑자기 쓱스럽다)

성빈 (분위기 바꾸려고) 쥘봐 내가 열어줄게.

양정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힘주면서 뚜껑 연다)

성빈 아냐. 이리 쥘봐.

서로 유리병을 열겠다고 얹치락뒤치락 하다가 뚜껑이 열리면서
양정의 다리에 주스가 쏟아지고 만다.

양정, 얼른 목에 걸었던 수건으로 체육복 위를 털어내는데,
손놀림이 시원찮다.

수건을 낚아채서 양정의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체육복 위를
탈탈 시원하게 털어주는 성빈.

성빈 (양정을 올려다보며 담백하게) 내일 다시 해줄게.

양정 (역시 담백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성빈, 수건과 유리병을 들고 먼저 건물 쪽으로 간다.

그 모습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는 양정.

성빈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숨을 팍 내쉬는데.

양정 (진정하며) 후우~ 뭐지 이 긴장감은? (다시 한 번 성빈 쪽
쳐다본다)

양정, 다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체육복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린다. 시뻘건 과일 주스가
잔뜩 묻은 다리, 수돗가에 대충 올려서 물로 씻어내는데 점점
드러나는 심한 수술 흉터 자국. 무릎부터 종아리 중간까지
이어져 있다. 그때 건물에서 새 수건 들고 다시 나오는 성빈,
양정의 다리 흉터를 보고 다시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양정, 다리를 다 씻고 바지를 내리다가 일순간 흉터가 눈에
들어온다. 바지를 다 내린 뒤 성빈이 들어간 건물 쪽을 다시
보는 양정. 슬퍼 보인다.

#18. 영백고/교무실(오후)

퇴근하는 분위기의 교무실.

교무실로 들어오는 찬성, 성빈의 자리를 쳐다본다.

양정의 옆을 지나가는 찬성.

그런 찬성을 붙잡는 양정.

양정 오늘 축구했어?
찬성 (어이없는 듯 살짝 노려보는)
양정 (손가락 두 개로 그 눈 찌르는 시늉하며) 더 열심히 하라구.
더 열심히.

찬성, 짜증난 듯 양정의 팔을 치우고 성빈의 자리로 간다.

성빈 (그런 찬성에게) 너 영어 선생님한테 뭐가 불만이야?
찬성 영어면서 체육 쌤처럼 하잖아요. 허벅지는 차범근만 해가지고.
성빈 (짐짓 화난) 여선생님 허벅지 얘기를 왜 해?
찬성 허벅지가 여선생님 허벅지가 아니니깐 하죠. 선생님 못 보셨어요?
(양손으로 두께 재는 듯 크게 원 만들고)

성빈, 갑자기 아까 수돗가에서 양정의 심한 다리 훔터가
떠오른다. (플래시컷)

성빈 (찬성의 머리를 콩 치며) 너 병원 진단서는 왜 안 갖고 와?

가방 챙기는 양정.
핸드폰 진동이 울리자 화면 보면, ‘호민(하트 3개)’ 뜬다.
뒤에서 같이 화면 보는 강 선생.

강 선생 좋을 때다.

양정, 뒤돌아 강 선생 보고 황급히 핸드폰 가방에 넣는다.

강 선생 (자기 핸드폰 열어서 화면 보여주며) 우리 남편.

화면 - 기타 누락자
010-3527-xxxxx

강 선생 드라마 <도깨비> 봤지?
양정 (기겁하며) 남편분이 아셔?
강 선생 (검지 흔들며) 노우~ 부부간에도 서로의 핸드폰은 안 보는 게 예의. (윙크)
양정 (새삼 신기하게 보는데)
강 선생 (그때 기타 누락자에게 전화가 오자 받으면서) 자기야 (사이) 나두.

양정, 강 선생을 귀엽게 보는데 문자 진동이 온다.
문자 확인하는 양정, 얼굴 표정이 어둡다.

#19. 양정의 원룸 앞(저녁)

마주 보고 서 있는 양정과 호민.

호민 어제 아침에 병원에 왜 갔어?
양정 (어이없는) 너, 나 몰래 내 몸에 무슨 칩 달았냐? 내가 어딜 갔는지 니가 왜 알아?
호민 내 담당이야. 그 병원.
양정 (그러셔? 하는 얼굴) ... (갑자기 생각 난) 니 사수, 그 여자 담당 아니었냐?
호민 병원 덩치가 커져서 내가 맡게 됐어.
양정 (비웃는) 하! 회계사 된 지가 언젠데 후배인 너한테도 털리나 보네.
호민 양보한 거야. 나한테.
양정 (욱하는) 너 지금 그 여자 편드는 거냐? 내 앞에서?
호민 (같이 욕하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병원 왜 갔냐니깐?
양정 (순간 더 욕하다가 갑자기 임신 생각나서 그냥 입 다문다)
호민 (떨리는) 다시... 그렇게 된 거야?
양정 다시 뭐가?
호민 다시... 암 재발된 거냐구?
양정 (얼받은) 나 암 완치 판정받은 지 십 년 됐거든!
호민 니 암은 심각했잖아!

양정 (어이없는) 야... 너, 내가 암 걸렸을 때 만났어? 내가 그 지옥에서 살아 나올 때 만났냐고.

호민 ...

양정 (기가 막히는) 너, 그냥 나한테 말만 들었잖아. 나 스무 살 꽃 청춘일 때 죽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점점 울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못 봤잖아. 왜 함부로 입을 놀려? 영? (분노) 암재발이 무슨 니네 집 똥개 이름이야!

호민 (나름 억울한) 걱정! 되잖아. 아오 씨. 걱정된다구. 나두.

양정 (겨우 진정하는) 그만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호민 (기죽어서) 엄마가... 엄마가 그랬던 말야. 너 결혼해서 임신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양정 (O.L) 야!

호민 (변명) 너 걱정돼서.

양정 (살벌한) 걱정 한 번만 더 했다간 우리 아빠한테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다.

호민 (헛갈려하는) 나? 말이지? 우리 엄마 아니고 나지?

양정 (노려보며 집으로 들어간다)

호민, 멀뚱히 보다가 답답한 듯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린다.

#20. 양정의 원룸 안(저녁)

- 상자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사진들.
호민과 양정의 연애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다.
양정,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어 짹짹 찢어댄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뭔가 시원한 기분이 들자 마구 집어서 찢어대는데...
급기야 사진 두 장 세 장 한꺼번에 집어서 찢다가
그만 사진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여 기어이 피를 보고 만다.
손가락의 피를 보는 양정, 쓰린 표정을 짓다가 독한 얼굴로 바뀐다.

- 양손에 목장갑을 낀 양정.
양손으로 박수를 치며 다시 한 번 기운 내더니 사진들을 여러 장 한꺼번에 집어서 매끄럽게 짹짹 찢어댄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양정.

- 원룸 바닥에 짹 널린 사진 부스러기 위에 벌러덩 누워 있는 양정.

인서트. 병원 진료실+양정 방 안 교차.

양정 (#7의 병원 진료실) 저... 자신이 없어요. 결혼도 안 했고.

양정 (방에서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는) 혼자면 어때. 우리 아빠도 혼자서 나 키웠는데.

양정 (#7의 병원 진료실) 돈도 없고 저금도 많이 못 했는데.

양정 (방에서 다시 드러눕는) 교사인데 뭐 어때. 앞으로 모으면 되지.

양정 (#7의 병원 진료실) 다시 아플까 봐 무서워요.

양정 (방에서 벌떡 일어나 서서 주먹 불끈 쥐고) 절~대로 건강하게 아기를 낳아 보이겠어! 컴 온 베이비! 나에게 (양팔을 벌려) 오라!

하는 순간, 화면이 세피아로 바뀌면서 원룸에 벨이 울린다.
양정, 인터폰 화면을 보는데 아빠가 앞치마를 두르고 치마 앞단을 잡아 들고 있다.

양정 (의아한) 아빠? ...앞치마를... 왜 입으셨지?

인터폰 안의 아빠, 정아 이거 보이니? (하며 앞치마 안을 보여준다) 앞치마 안에 가득한 파란 고추.
양정의 아빠, 앞치마를 뒤집어서 고추들을 다 털어내자
또 앞치마에 고추가 한가득이다. 또 고추들을 쏟아내는데 또 그대로 고추들이 한가득. 양정의 아빠. 순간 당황해서 자꾸 자꾸 쏟아내는데 계속 그대로인 고추 한가득인 앞치마 안.
결국 앞치마를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벗겨지지 않는 앞치마.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순간 잠에서 깬 양정의 아빠.

아빠 (비몽사몽) 누가 애가 들어섰나. 뭘 놈의 고추 꿈이...
(슬슬 다시 잠든다)

#21. 양정의 원룸 건물 밖(오전)

건물 밖으로 나오는 양정.
한 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들려 있다.
건물 정문 옆, 쓰레기 버리는 곳에 봉투를 내려놓는 양정.
땅바닥에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고 주운 뒤, 쓰레기봉투를 연다. 살짝 보이는 쓰레기봉투 안, 전날 밤 호민과 양정의 찢겨진 연애사진들 한 뭉텅이다. 못 본 척 플라스틱 쓰레기를 넣고 다시 봉투를 묶는다.

#22. 영백고/교무실(오전)

영백고 외경 보이고.
교무실 안.
양정, 머리가 아픈 듯, 책상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내려다가 다시 서랍을 닫는다. 강 선생, 그런 양정을 보다가 서랍에서 1회용 칩 바늘통을 꺼내들고 양정의 자리로 간다.
양정의 손을 잡는 강 선생.

강 선생 날 믿습니까?
양정 살려주세요.

강 선생, 바늘을 꺼내서 양정의 손가락에 찌르려는 순간 양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다.

강 선생 (바늘로 양정의 코 가리키며) 여기 내가 찌른 거 아님.

양정, 뚝뚝 흘리는 코피를 얼른 손으로 막으며 책상 근처 휴지를 찾는다. 그때 수건을 내미는 손, 보면 성빈이다.
양정, 수건으로 얼른 코를 막는데,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줍기 위해 얼굴을 아래로 숙이자, 양정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수건을 잡아서 잘 막아주는 성빈.
양정, 그 와중에 핸드폰이 저기... 라고 하자 얼른 주워서 양정의 손에 핸드폰을 쥐여주는 성빈.

성빈 (양정을 일으켜 세우며) 안 되겠다. 보건실로 가자.

양정, 핸드폰 쥔 채 성빈에 이끌려 교무실 밖으로 나간다.

#23. 영백고/보건실 가는 복도(오전)

성빈, 양정에게 어깨동무한다.
순간 놀라는 양정.

성빈 (양정의 머리를 자기 어깨 쪽으로 기대며) 이게 편해.
양정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듯 압전하고)
성빈 (살짝 미소 짓는다)

그때 양정의 핸드폰이 울리고
양정, 불편한 자세로 화면 보면, '호민(하트 3개)' 뜬다.
놀라서 성빈 쪽 돌아보니 화면 보고 있는 성빈.
양정, 머리 들어 성빈을 본다.

양정 이 사람, 이제 하트 아니에요. (횡설수설) 그니깐 이제 제 약혼자 아니에요.
성빈 약혼했었어?
양정 (에라 모르겠다 얼굴로 어깨 으쓱 한번 한다)
성빈 (양정 뻘뻘 보며) 질문 한 개 있는데 대답... 해줄래?
양정 (포기한 얼굴로 어깨 으쓱 또 한다)

성빈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니깐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5년 7월 30일. 너 갑자기 왜 사라졌어?

양정, 들고 있던 핸드폰 떨어뜨린다.

성빈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양정, 너무 놀라서 얼어 있다가, 일단은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다.

양정 (간신히 정신 차리며) 선배, 그날 기억하는구나.

성빈 일단 그날, 난 너한테 고백하려고 했었으니깐.

양정 (몰랐다)...

성빈 오늘 며칠인 줄 알아?

양정 (생각하다가 놀란) ...7월... 30일.

성빈 일단 고백부터 할게. 13년이나 지났지만.

양정 (웬지 눈물이 날 것 같은)

성빈 양~ (피식 웃으며) 양~ 이거 내가 제일 먼저 너한테 붙여준 호칭인데. 맞지?

양정 (기억난 듯 고개 끄덕인다)

성빈 (헛기침 한번 한 뒤) 양. (하는 순간)

양정 선배! 제가 먼저 말할 게 있어요.

성빈 (보는)

양정 2005년 7월 30일. 그날 저보고 왜 사라졌냐고 했죠?

성빈 (보는)

양정 그날, 제가 사망 선고 받은 날이에요. (눈물이 가득한 얼굴)

#24. 영백고/교장실(오후)

근엄한 교장실 안.

책상 위 명패에 '교장 김만수'라고 써어 있다.

그 앞 소파에 꼳꼳하게 앉아 있는 양정.

인서트.

#23 보건실 가는 복도.

양정 (담담하게) 암 진단받고 바로 입원했어요.

성빈 (놀란)

양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아무한테도 연락 못 했어요.

성빈 (마음이 아픈)

양정 (장난스럽게) 예잇~ 선배가 고백할 줄 알았으면 고백받고 입원할 걸. 기운 나게. (웃는다)

성빈, 말없이 양정을 안는다.

그러다가 얼른 몸을 떼고,

성빈 (살짝 짜증난) 왜 여기 학교지?

양정 (크게 웃는다)

교장실 문 열리고, 교장 들어온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양정.

교장 (기쁜 듯) 양 선생 양 선생 앉아요. 앉아.

양정 (앉는다)

교장 (상석에 앉으며) 내 진즉에 양 선생 알아봤어요.

양정 (보는)

교장 양 선생의 뜨거운 열정과 집념을 볼 때마다 큰 거 하나 해낼 줄 알았다니깐. (기특하게 양정 본다)

양정 (민망한) 그냥 어찌다 받은 것 같아요.

교장 교육부장관상이 어찌다 받을 수 있는 상인가? 우리 학교처럼 사립 학교는 진짜 타기 힘들지, 죄다 그쪽 학교만 주는 거 다들 모르는 거 아닌데.

양정 (겸손한 얼굴)

교장 그래서 육성회 학부모님들이 조출한 축하 식사 자리 마련했으니깐 내일 점심시간 무조건 비워놔요.

양정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 네.

#25. 영백고/교무실(오후)

교무실 안.

다래, 양정의 뒤로 몰래 가서 목을 확 끌어안는다.

양정 (덤덤하게) 송중기?

다래 (웃는) 양 쌤 대단한 상 받으셨다면서요?

양정 평범한 상이지. 송중기도 못 보는데.

다래 (양정 말에 웃다가) 아! 내일 우리 엄마도 오는데

양정 오셔?

다래 아마 양 쌤 막 괴롭힐걸요. 여기저기 선보라고.

양정 (순간 당황) 무슨 선이야.

저쪽 성빈의 책상에서 반성문 쓰던 찬성, 귀 쫑긋하고,
냉장고 문 열고 해독 주스 꺼내든 성빈 또한 귀 쫑긋한다.

다래 그쵸? 무슨 선이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양 쌤은 임신해서
휴직 하면 학교에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아냐고,
절대로 결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막 그랬어요.

양정 (난감한)

책상에 엎드려 자던 강 선생,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강 선생 (눈 반만 뜬 채) 송다래.

다래 (깜짝 놀라며) 수학 선생님 계셨어요?

강 선생 결혼해도 임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해도 임신하는 사람이 있어.

다래 (뭘 말이지 싶은)

강 선생 이건 아주 기본적인 다양성이야.

다래 (뭘 말인지 모르겠다) ... 하여간 선생님 님은 딸 낳으면 진짜

말 잘할 것 같아요.

강 선생 나 아기 안 낳는다고. 덩크라고.

다래 왜요?

강 선생 (또냐? 하는 얼굴로 다시 책상에 엎드린다)

양정, 웬지 답답하다.

#26. 대학병원(오후)

산부인과 뺨말이 붙은 3층 코너에서 나오는 양정.

모자 수첩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문이 열리고

모자 수첩 보면서 그대로 타는 양정, 기쁜 얼굴이 된다.

양정 (그 마음 주체 못 하고 주먹 쥐며 작게) 아자.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바로 내리는 양정.
그 뒤 사람들 우르르 내리고, 맨 마지막에 천천히 내리는 찬성,
대단한 걸 본 얼굴이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남학생1,
찬성에게 간다.

남학생1 진단서 뻘냐?

찬성, 종이 한 장 팔랑 흔들어 보인다.

병원 현관을 나오자 앞에 걸어가는 양정이 보인다.

찬성 (양정 보며) 진짜 뭐든 혼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남학생1 (찬성 따라 앞의 양정 보고) 양이네. 그래서? 또 짜증나냐? (앞서
걸어가며) 아 배고파.

찬성 ...아니. 진심으로 짜증 안 나.

#27. 양정의 동네 마트(오후)

마트 안.
이것저것 담은 양정.
그때 울리는 핸드폰, 받는다.

양정 네. 아빠.
아빠(F) 얼른 안 오고 뭐 해?
양정 고기랑 생선이랑 이것저것 좀 사려구요.
아빠(F) 뭐하러 사~ 내가 간장게장 만들어 왔는데
양정 (순간 기분 안 좋은) 아빠, 오늘 호민이 안... (말하는데)
아빠(F) 벌써 왔어 호민이. (호민이 목소리 들리는. “아버님, 간장게장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양정 (순간 열받은) 이호민 집에 왔어요?
아빠(F) 아까 왔지. 너두 어여 와. (끓는)
양정 아빠! 아빠! (핸드폰 끄는) 후... 이 이호민 같은 이호민 자식.

양정, 이걸 어떡하지? 싶은 얼굴.

#28. 양정의 원룸(저녁)

원룸 안.
간장게장 열심히 먹는 호민.
그런 호민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양정의 아빠.
그런 그들을 짜증나게 바라보는 양정.

양정 (간장게장 담긴 그릇 치우며) 이제 그만 먹지.
아빠 (그릇 다시 빼어서 호민 앞에 놓으며) 마저 먹지.

양정, 아빠한테 헤어졌다고 말도 못 하고 답답하다.
양정, 호민을 노려본다.

양정(N) 근데 이 자식은 왜 온 거야? 설마 간장게장 먹으러?

양정, 기가 막힌 듯 더 강렬하게 호민을 노려본다.
그런 양정의 눈빛에 슬슬 기가 눌린 호민. 간장게장 먹던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아빠 (양정 보며) 좀 실컷 먹게 냅둬라. 너 자꾸 호민이 눈치 주면 호민이한테 차인다.
양정 (순간 뻑 쳐서 단호하게) 벌써 차였거든요. (호민 노려본다)
호민 (당황해하며 양정의 아빠 보고)
아빠 (잘 못 알아듣고) 자꾸 그렇게 하면 차인다고. 호민이 눈치 주면.
양정 (정색) 눈치도 안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3년 헌신했더니 아빠 딸 헌신짝 됐다고요. (순간 울컥해서 눈물 난다)
아빠 (우는 양정 보고 놀라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호민 보며)
호민아, 이게 뭐 말이... (하는데)
호민 (바로 무릎 꿇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한 아빠, 간장게장 한 개씩 집어 얹드린 호민의 등짝을 향해 스매싱한다.

아빠 니가 이걸 왜 쳐먹어? 영? 니가 왜 이걸 먹고 있냐고?
양정 (그런 아빠를 말리며 호민 향해) 너 오늘 왜 왔어? 빨리 안 나가?

호민, 안절부절못하다가 양정의 아빠 뒤에서 껴안으며 흥분을 저지한다.

아빠 놔. 이거 안 놔. 이놈 봐라. 이거 안 놔?
호민 (더 꼭 안으며)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님.
아빠 니 놔 말 듣기 싫고 너 얼굴 이리 봐봐. (하면서 호민의 얼굴을 확 닦아채려는 순간)
호민 (얼른 피하면서 외치는) 정아 암 재발됐습니다, 아버님!
아빠 (순간 병찌는) 뭐?

양정 (저게 무슨 헛소리야?)
 호민 암센터에서 나오는 거 봤습니다. 나오다가 기절하더라구요.
 양정 (아, 그날? 싫은데, 아씨 이호민 저 바보 같은 놈. 하는 얼굴)
 아빠 (갑자기 주저앉는다)
 양정 (놀라서) 아빠. (얼른 부축하며)
 아빠 (뉘 나간 얼굴로) 정아...
 양정 (젹싸게) 아니야 아빠, 나 재발 안 됐어. 안 됐어, 재발.
 호민 (화난) 거짓말하지 마. 얼굴 노래져서 암센터 진료실에서 나왔잖아.
 양정 아... 그건... (어찌지)...
 아빠 (얼굴 하얘진 채 양정 쳐다본다)
 양정 (아빠 얼굴 보고 놀라며 방언 터지듯) 아빠 나 임신이래.

순간 호민, 뒤로 자빠진다.
 아빠 계속 하얗게 질린 얼굴.
 양정, 후! 의외로 개운한 얼굴이다.

#29. 양정의 원룸 동네 골목길(저녁)

앞서서 걸어가는 호민.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양정.
 호민, 웬지 화가 난 모습이다.
 양정, 그런 호민을 보며 갑갑한 얼굴이 되고.
 호민, 화나서 막 앞으로 걸어가지
 멈춰 서는 양정.

양정 아! 그만 가.
 호민 (그대로 멈추는데 여전히 화가 난 뒷모습)
 양정 (짜증난 듯) 너 왜 이러는데?

양정, 짜증난 얼굴로 호민 쪽으로 걸어간다.

호민 (뒤돌아서) 어떻게 할 거야?
 양정 아까 못 들었어? 아빠 앞에서 말했잖아.
 호민 (침착하자) 낱을... 거라고?
 양정 (무표정) 어.
 호민 (화를 누르며) 혼자 낱아서 키우겠다고?
 양정 (다시 짜증난) 어.
 호민 (허공을 향해 헛주먹질하며) 아오~
 양정 너 왜 이러는데?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고 했냐, 애를 책임지라고 했냐, 넌 그냥 원래 너 살던 대로 니 엄마 품에서 그렇게 살면 돼. 나랑 내 아기랑 신경쓰지 말고.
 호민 그러다 너 잘못되면?

양정, 호민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호민의 가슴에 머리를 쿡 박는다.
 뒤로 나자빠지는 호민.

양정 (열받아 숨 고르며) 내 인생에서 널 지워버리고 싶다. (씩씩대는)

#30. 영백고/체육관(오전)

체육관 전경.
 아침 조회 중이다.
 아이들 모두 따분하게 교장의 말을 듣고 서 있다.
 단상 바로 아래에서 영혼 없는 얼굴로 서 있는 양정.

교장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조회를 하게 됐습니다.
 (양정 보며) 양 선생님, 올라오시죠.
 양정 (탄생각에 빠진 듯 못 듣는다)
 교장 양 선생님.
 양정 (뉘 나간 듯)

애들 앞쪽에 서 있던 강 선생, 손을 휘저으며 양정의 시야를

깨우려고 한다.
 그때 단상 아래 양정의 옆으로 가서 얼른 손을 잡는 성빈.
 양정, 순간 확 정신이 든다. 성빈, 잡았던 손 빼며 눈으로 단상
 가리킨다. 양정, 그제서야 급히 단상으로 올라간다. 그런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체육관 2층의 비상계단에 서 있던 찬성.

찬성 애 아빠가 누구야…

 다시 애들 앞으로 돌아가는 성빈을 쳐다보는 찬성.

찬성 혼자 뱀들 타입은 아닌데.

교장 상장 1등급. 영백고등학교 교사 양정. 위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제10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함.

상장을 받는 양정.
 교사와 학생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친다.
 다래, 특히 더 크게 박수 친다.
 강 선생과 성빈, 인정하는 얼굴로 박수 친다.
 2층 비상계단에 서 있던 찬성, 입모양으로 축하 축하.
 뿌듯한 얼굴로 단상 내려오는 양정.

#31. 영백고/교사 식당(오전)

교사 식당 안.
 꽤 괜찮은 케이터링이 세팅되어 있다.
 교사들과 육성회 어머님들이 담소 나누면서 자축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양정과 강 선생과 성빈.

양정 애들이랑 함께하면 좋을 텐데 여기.
 강 선생 여기 말고, 체육관. (접시에 놓인 떡 먹는다)

성빈 체육관에… 케이터링 백 개면 될까요?
 강 선생 (계산하는 듯) 150개에서 160개.
 양정 (복잡하다) 됐어 됐어. 그냥 상 반납할래.
 강 선생 반납 전에 뭐 좀 먹자.

양정과 강 선생, 접시 들고 케이터링 가서 여러 음식들을
 담는다. 성빈, 맛있는 것 집어서 양정의 접시에만 몰래
 놓아준다. 양정, 씨익 웃고.
 그때 다래 엄마가 양정에게 다가온다.

다래엄마 양 선생님,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양정 아 네. 감사합니다. (목례하는)
 다래엄마 우리 다래가 양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에서도 맨날 양이
 어찌고 저찌고, 어머 선생님을 별명으로 불렀네요. 죄송해요.

양정 괜찮습니다.
 다래엄마 (민망한 듯) … 하여간 다래가 양 선생님을 진짜 올바르게
 반듯하고 열정적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난 그냥 우리 다래가 양 선생님 닮았으면 좋겠어. 호호~

양정 (뭔가가 불편해서 억지 미소 짓는)
 다래엄마 (갑자기 자기 접시를 양정에게 디밀며) 양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새우가 진짜 토실한 게 너무 맛있… (하는데)

양정, 갑자기 헛구역질이 살짝 올라온다.

다래엄마 (놀라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양정 (고개 끄덕이며 자리를 뜬다)
 다래엄마 (걱정스러운) 체했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다래엄마, 새우 먹으려다가 뱀새를 맡아본다. 순간 인상 쓰는데,
 그러다 갑자기 뭔가가 걸리는 듯 가우뚱한다.

#32. 양정의 원룸 건물 밖(저녁)

불 켜진 자신의 방을 올려다보는 양정.
한숨을 크게 쉰 다음에 정문을 향해 돌진한다.

#33. 양정의 원룸(저녁)

원룸 안.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양정.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자 얼굴이 밝아진다.
주방에 들어가니 열심히 요리 중인 양정의 아빠.

양정 (뒤에서 아빠 껴안으며) 아빠~
 아빠 오늘 상 받은 거 축하해.
 양정 응.
 아빠 (망설이다가) 그거... 얘기도... 축하해.
 양정 (놀라서 아빠 앞으로 간다)
 아빠 (그런 양정의 눈을 제대로 못 맞추면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니깐 학교 잘 다니고.
 양정 (울먹이며) 응.
 아빠 무슨 일 생기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양정 응.
 아빠 절대 기죽지 말고!
 양정 (힘차게) 응! 내가 누군데~ 생존율 20프로에서 살아남은 천하무적이야! (뽀빠이처럼 팔 모양 한다)

#34. 영백고 정문 밖(오후)

학교 운동장 풍경 보이고,
학교 안에서 정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양정.
신호등 건너편에 호민이랑 호민이 엄마가 보인다.
답답한 얼굴의 양정. 파란 신호등 되자마자 건너간다.

양정 (호민엄마 보며) 어디 안에 들어가 계시지... (하는데)
 호민엄마 (얼굴로 호민 가리키며) 애 말이 맞아? 응?
 양정 (보는)
 호민엄마 맞냐고~ 애가 지금 헛소리하는데~
 양정 (호민 본다)
 호민 (눈길 피한다)
 호민엄마 맞냐고~
 양정 (호민보고) 너 뭐라고 말했어?
 호민엄마 정아 니가 말해.
 양정 (한숨 쉰 뒤) ...어머니가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호민엄마 애!!!
 양정 (본다)
 호민엄마 (기가 막힌)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주니깐 애가 진짜 어떻게 해까닥 됐나 봐. 진짜~
 양정 (끓어오르는 거 참고)... 진짜 해까닥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또 찾아오세요. 그럼 호민이 회사로 가서 해까닥 제대로 할 테니깐.
 호민엄마 (기가 찬 듯) 헛, 애 애~ 애가 본모습이 이런 애였어. (호민 보며) 영? 이런 애였어. 알았니?
 호민 (복잡한) 그만 가요.

그때, 다래엄마의 차가 그들 쪽으로 온다.
운전하는 다래엄마, 창문을 열고 (E) 양 선생님! 부르는데 양정은 호민엄마와 대치 중이라 다래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

호민엄마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영? 그니깐 애기 낳을 생각 절대 하지 마. 너 애기 낳기만 해. 내 가만 안 있어.

하는 순간, 다래엄마 차가 그들 옆을 바로 지나가고,
전부 들어버린 다래엄마, 경악한 얼굴이다.

#35. 양정의 원룸 골목길(저녁)

양정, 생각에 잠긴 채 걷는다.
그 뒤를 성빈이 축구공 모양의 꽃 화분 들고 따라 걷는다.
성빈, 핸드폰을 꺼내 양정에게 전화를 걸자 받는 양정.

양정 (받자마자) 니가 뭘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야?

성빈, 놀라는데 자세히 보면 자기랑 통화하는 게 아니다.
골목 안쪽에서 같이 통화하며 나오는 호민, 양정 앞으로 온다.
호민, 헬썩한 양정의 얼굴이 순간 안쓰러워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려 하자,
양정이 그 손목 꺾으려 하기 전에 먼저 탁 잡는 성빈.

성빈 (양정 보며) 이제 하트 아니라고 했지?

양정 (놀란다)

호민 (손 뿌리치며) 뭐야? (양정 보며) 너 아는 사람이야?

성빈 당신보다 오래 알고 잘 알아.

호민 (어이없어하다가 양정 보며 치졸한 느낌으로) 이 사람이 너에 대해
다 알아? 전부 다?

양정 (질린 얼굴)

성빈 (암 얘기뿐인 줄 알고 호민 보며) 다 알아. 지금 정아의 몸 상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빈, 진지하게 양정 본다.
양정, 그 마음 알고 진지하게 성빈을 마주 보는데.

호민 (갑자기 속이 확 꼬인다)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고 어떤
위치인지도 잘 알겠네.

양정 (호민 노려본다)

호민 (열받아서 같이 양정 보다가) 나 이대로 안 있을 거야. 날 위해서
아니야. 너 때문이야.

호민, 썩썩대며 간다.
양정, 답답한 마음으로 호민의 뒷모습 쳐다본다.
그런 양정의 얼굴을 담담하게 보는 성빈.
양정이 깨닫고 쳐다보니 축구공 화분을 눈앞에 보인다.
양정, 축구공 화분 보고 피식 웃자,
한 손으로 양정의 한 쪽 뺨을 감싸는 성빈.
화분을 가운데 두고 마주 보는 두 사람.

#36. 영백고/교무실(오전)

영백고 외경 보이고.
활기찬 얼굴로 교무실 들어오는 양정.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
양정, 자리에 앉으면서 두리번거리다가 성빈과 눈이 마주친다.
양정, 싱긋 웃는데 그대로 차갑게 고개 숙이는 성빈.
양정, 계속 성빈을 보는데 다른 일 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성빈. 양정, 알 수 없는 마음에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는
강 선생을 부른다.

양정 강 선생님.

강 선생 (벌떡 상체만 일으켜 세우며, 잠이 덜 깬) 어 굿모닝.

양정 (심란한) 그냥 모닝이요.

강 선생 왜 그냥 모닝이야, 어제는 마법처럼 사라진 거야?

양정 (성빈 보며) 사라졌네요. 연기처럼.

그때 누군가

(E) 양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부르세요.

양정, 담담하다.

#37. 영백고/교장실(오전)

교장실 안.
상석에 눈 감고 앉아 있는 교장.
담담한 얼굴의 양정.

교장 (희미하게 눈 뜨며 양정을 본다)
 양정 (무덤덤한 얼굴로 마주 보면)
 교장 (다시 눈 감고 생각 중인)
 양정 (뭘까? 생각하는데)
 교장 (눈을 살며시 뜨며) 우리 학교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양정 네.
 교장 일반 학교가 아니란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양정 (뭘 얘기지?)
 교장 보통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같은 명문 사립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양정 (점점 뭘지 알 것 같은)
 교장 결혼도 안 한 미혼 여교사가, 배불러가지고, 응? 교단에 설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 명문 사립 학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받아주는 학교가 있거나 하겠어요? 어렵없지 어렵없어.
 양정 (단호) 그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제 능력으로堂堂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교장 (답답한 듯) 참나~ 여기서 나가게 되면 그 능력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양정 (황당한)
 교장 (회유하는 듯) 우리도 소중한 인재인 양 선생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니깐 이번 일은 학부모가 잘못 들은 거고, 학생이 병원에서 잘못 본 거고, 뭐 그렇게 무마해버립시다. 네?
 양정 무마... 무슨 말씀이시죠?
 교장 내일부터 3일간 휴가 드리겠습니다.
 양정 (!)

#38. 영백고/교무실 가는 복도(오전)

충격받은 얼굴의 양정이 지나가자
학생들이 흥해처럼 갈라지는 복도.
그제서야 학생들의 태도에 반응하는 양정.
고개 들어 주변을 둘러본다.
학생들이 슬슬 피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멀리서 찌러보기도 하고
어떤 남학생은 킬킬 웃는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와 주저앉을 뻔한 순간
성빈이 나타나서 양정을 부축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복도 끝에서 그 모습 지켜보는 찬성.

찬성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양 봄.

#39. 영백고/여교사 휴게실(오전)

문 팻말에 '여교사 휴게실' 보이고.

성빈(E) 누워봐.

휴게실 안.
양정을 베개에 누이는 성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양정. 말없이 모로 눕는다.
양정의 등을 가만히 쳐다보는 성빈.

성빈 13년 전에도 날 놀라게 하더니, 지금도 날 몇 번씩 놀라게 만드네.
(가만히 듣는다)

성빈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솔직하게 말할게.

양정 ...

성빈 난 니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 제일 중요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그니깐 나한테 와.

양정 ...
 성빈 다 정리하고, 너만 나한테로 와.
 양정 (실망한... 하지만 이해도 되는 복잡한 심정)
 성빈 너 혼자 살게 두지도 않을 거고, 너 혼자 죽게도 하지... (한숨)
 하... 절대 너 혼자 안 둘 거야.

그때 여교사 휴게실에 들어오는 강 선생.
 성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간다.

강 선생 (돌아누운 양정의 등을 보며) 다들 너무하네.
 양정 (순간 눈물 나는)
 강 선생 아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기혼이든 미혼이든 얘기만
 낳는다면 응원해줘야지, 아빠가 있네 없네 그게 중요해?
 양정 (눈물 닦으며) 내가 보통 여자야? 나~ 생존율 20퍼센트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자라고 내가~
 강 선생 혈, 자기 진짜 너무 멋지다. 양 봄 최고. (엄지 세운다)
 양정 (일어나 앉으며 같이 엄지 세운다)

마주 보고 푹 웃는 두 사람.

강 선생 자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아기 포기할 거야?
 양정 (강한 결심) 끝까지, 건강하게 아기 낳을 거야.

#40. 영백고/운동장(오전)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교장.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경쾌한 목소리.

(E)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장 네~ (하면서 뒤돌아보는 순간 양정을 보고 화들짝 놀란다)
 교장 양 선생님. 오늘 휴가시잖아요.

양정 휴가 반납했습니다.

양정, 발랄한 걸음으로 교무실에 들어간다.
 교장, 불편한 얼굴로 그 모습 보는데.

#41. 영백고/교실(오전)

양정, 한숨 크게 쉬며 교실에 들어간다.
 떨리는 마음에 교실을 보면, 학생이 두 명밖에 없다.
 전부 수업 거부하고 나간 뒷모습.
 양정, 맥이 탁 풀린다.
 그런 양정을 보는 학생, 찬성과 남학생1이다.
 양정, 담담하게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교실 문 열린다.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다래.
 양정, 반가운 마음에 손짓을 하자,
 울 것 같은 얼굴의 다래, 그대로 문 닫아버리고 나간다.
 그런 다래의 모습에 허탈하게 웃는 양정.

찬성 선생님.

양정 (찬성 본다)

찬성 병원에서 선생님 봤어요. 산부인과에서 모자 수첩 받아서
 나오시는 거.

양정 (교장에게 말한 사람이 너구나, 그게 뭐 어쩌라 하는 얼굴)

찬성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양정 지금 알았다. (싱긋)

찬성 (같이 싱긋하며) 혼자서 얘기 낳을 거예요?

양정 (환하게 웃으며 끄덕인다)

남학생1 대박~

찬성 (처음으로 그 나이 또래처럼 환하게 웃는다)

양정 (창밖 보며) 나가자 우리.

#42. 영백고/운동장(오전)

양정, 찬성, 남학생1, 셋이서 드리블 하며 열심히 축구를 한다.
그런 그들을 건물 안 학생들 교사들 모두 지켜본다.
양정, 찬성과 남학생1을 따돌리며 혼자서 축구공을 물고 골대를
향해 간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드디어 골대 근처에 도달한
순간, 갑자기 나타난 찬성.

찬성 나 이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할 거예요.
양정 (좋았어! 하는 얼굴)

양정, 찬성을 따돌리며 공을 뒤로 뺏다가
다시 골대로 향해 달려가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 붕 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양정(N) 어... 나 지금 날았어? 나, 날 수도 있구나. 와~

#43. 대학병원(오후)

눈을 뜨는 양정.
아빠와 호민이 다가온다.

아빠 정아. 정신이 들어?
양정 아빠...
아빠 큰일날 뻔했어. 임신부가 무슨 축구야.
양정 (놀란) 얘기는?
아빠 (양정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얘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양정 (안심한다)
간호사(E) 양정 보호자님.
아빠 아빠 잠깐 의사 선생님 보고 올게.

아빠 나가자 뒤에 서 있던 호민, 양정 옆의 의자에 앉는다.

호민과 양정,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호민, 살짝 망설이다가 양정의 손을 잡는다.

호민 (긴장 확 풀며) 고마워. 손목 안 꺾어서.
양정 (피식)
호민 (진지) 정아. 너 얘기 넣는 거 나도 응원할게... (갑자기 정색) 얘기 넣는 것만 응원하는 거야. 너 다른 거 뭐... 그런 거 응원 아니야.
양정 (어이없어 피식. 하지만 그 응원의 마음 전해져 고개 끄덕인다)
호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말하고. (그러다 껌연쩍게 웃으며) 이거 내 독단적인 결정이야. 엄마 결정 아니다.
양정 (웃는다)
호민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말할게.
양정 (보는)
호민 너가 아기를 낳으려는 진짜 이유가 뭐야?
양정 ...
호민 아기는 니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양정 (!)
호민 널 그렇게 몰아간 게 나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았어.
양정 (뭔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에 휘말린다)

#44. 양정의 원룸(저녁)

깜깜한 방 안.
노트북 하나만을 켜놓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 양정.
동영상 보면, 13년 전 암 투병 생활하던 양정의 모습이 나온다.

동영상 화면.
밝은 얼굴의 사복 입은 양정,
병원 의료진들과 행복하면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다.

병원 가족들(E) 다신 여기 오지 마. 건강해야 해.

양정, 눈물 글썽이며 그들과 포옹한다.
차 타고 가는 양정.
병원 친구들이 준 선물과 카드를 꺼내서 풀어보는데
어느 봉투에 뜯어보니 카드 한 장이 나온다.
그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써어 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뒷면을 보면,
“정아 잊지 마. 너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는 것이야.”
양정, 그 카드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린다.

동영상 보던 양정, 일어나서 책상서랍을 뒤진다.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그 카드를 발견한다.

양정 (나직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는 것이다.

그 말 하는 순간, 양정의 배에서 태동을 느낀다.

양정 (울음을 토해내며) 살고 싶었던 거야. 너도 나처럼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랬던 거야.

환희와 기쁨과 깨달음의 눈물을 토해대는 양정.

#45. 영백고 정문 앞(오후)

하교하는 학생들. 그 틈으로 사이클 타고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찬성. 서울 시내 거리를 시원하게 라이딩한다.
그리고 멈춰 서는 오픈 독서실.
책상에 자리를 잡고 태블릿을 꺼내고 이어폰을 꽂는다.
인터넷 교육방송이 시작되고,
칠판엔 ‘양 붐의 수능 베이비’라고 써어 있다.
화면에 등장한 양정.

양정 (손 흔들며) 애들아 수업 다 끝났어? 양 붐은 오늘도 하루 종일 똥
기저귀 빨고 삶고 냄새 맡아보고, 냄새는 왜 맡냐고? 그건 말이줘.
내 새끼가 잘 처먹고 잘 소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늘 같은
모성애의 파워란다. (눈썹 찡찡룩룩 움직이는)

찬성 아, 오바 육바 진짜 찢어.

양정 어이! 거기 박찬성! 토 달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나처럼.

양정, 반바지(흉터는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입고 축구공
허벅지로 드리블 한다.

찬성 아, 수업은 대체 언제 할 거냐고?

양정 (마치 들은 듯) 자~ 양 붐의 말버지 드리블 쇼도 봤으니깐 이제
수업 시작하자. 애들아!

환하게 웃는 양정.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끝.

후기로 쓸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깐 다른 말은 불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오직 이 말만 하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양정을 위하여.

그리고 오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작의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죽음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이윽고 물이 나타났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받아 마셨다. 오직 살기 위해.
하지만 내가 마신 물은…
수백의 박테리아와 수천의 병균이 득실거리는 구정물이었다.

살기 위해 구정물을 받아 마신 결핍한 인간이 있다.
그는 결핍했기에 비어 있었고,
비어 있었기에… 자신 앞에 다가온 그것을 미친듯이 빨아들였다.

몹시도 결핍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불가피하며 또한 맹목적인 이야기.

등장인물

한수(35세, 남)

505호. 사라진 형을 찾는 동생.

한철(37세, 남)

505호. 부지불식간에 사라진 한수의 친형.

나연(31세, 여)

506호. 사람이 죽은 집에서 사는 여인.

석환(40세, 남)

201호. 의외로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택시기사.

춘배(50세, 남)

605호.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괴팍한 인물.

선녀(60세, 여)

303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말기암 환자.

그 외

형 친구, 약혼녀, 금 사장, 도박장 사람들, 경찰들 등.

형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의 비밀 역시 하나씩 밝혀지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던 이야기들이 그 조각을 맞춰간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몹시도 충격적인 진실.

과연 한수가 다다른 진실의 끝,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줄거리

도박으로 세월을 탕진하는 한수(35). 직업도 미래도 없는 한심한.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오는데.

‘제발, 형 좀 도와줘.’

친형 한철(37)이 보낸 의문의 문자.

전화해도 받지 않고, 오직 문자로만 이야기하는... 몹시도 이상한 상황.

형 한철이 사는 곳은 철거 직전의 낡은 아파트.

대기업에 다니는 형이 어째서 이런 곳에서 사는 걸까?

하지만 한수의 물음에 답해줄 형이 보이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가 어디에도 없다.

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수의 눈에 익숙한 물건이 들어온다.

201호에 사는 택시기사 석환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금빛 시계.

저 시계로 말할 거 같으면,

한수가 형에게 선물로 사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다.

왜 형의 시계를 저 사람이 차고 있을까? 혹시 저 사람이 형을 해한 것일까?

도와달라는 형의 문자는... 무슨 의미였을까?

사라진 형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이는... 형이 맞기는 한 것일까?

#1. 한적한 도로(밤)

도로 위를 달리는 사내.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동차. 킁! 퍽!
차에 치여 쓰러진 사내. 바닥에 흐르는 핏물.

#2. 도박장(낮)

쾌쾌한 연기를 빨아들이는 환풍기.
충혈된 눈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

한수(E)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도박을 하면 인생 망치는 줄 안다니까,
아니 여기에 인생 망친 사람이 어디 있어? 눈들을 봐. 다 맑다니까.

도박장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한수(E) 우리 형이 대기업 다니거든. 어릴 적부터 나를 그렇게 아꼈어. 물고
빨고 지금도 내 말이라면 껌뻑해요. 그러니까...

연신 돈을 따는 사내...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한수(35).

한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형한테 받으면 되는데.

누구도 한수의 말을 듣지 않는.
한쪽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뉴스 16개월 전, 폐가 공터에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60대 오 모 씨가

#3. 계단(낮)

계단을 올라가는 경찰들.

#4. 도박장(낮)

뉴스1 전문가들과 함께 꾸준히 오 모 씨를 설득한 경찰은 6개월 만에
주범의 몽타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오
모 씨를 현혹해 양귀비를 기르게 했던 주범의 몽타주를 최초로
보도...

범인 몽타주가 나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고.
우당탕!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도박장.

#5. 골목(낮)

숨을 헐떡이며 도망가는 한수.

한수 공무원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네, 적응 안 되게.

봉고차가 달려온다. 그대로 한수를 들이박는. 퍽! 데굴데굴.

#6. 폐차장(밤)

기절한 한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채업자 금 사장(40).
슬쩍 실눈을 뜨는 한수.

금 사장 그만 일어나라, 평생 누워 있고 싶지 않으면.

한수 ...아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어!? 사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금 사장 너 또 하우스 갔지?
 한수 아니에요, 거기 누가 불러가지고 잠깐.
 금 사장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한수 그럼요, 요즘 세상에 큰일나려고 남의 돈을 때먹어. 조금만 더 봐주시면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하하.

썩! 한수의 웃는 면상을 갈기는 금 사장.

금 사장 웃지 말고. 예능 아니고 다큐니까.
 한수 죄송합니다.
 금 사장 삼 일 줄게, 그 안에 해결하자. 니 형 대기업 다닌다며? 가서 빌려, 아님 보증을 세우든가.
 한수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빌려주고 보증서고 이런 거는...
 금 사장 아직도 컨셉이 안 잡혀? 니 배때기 열고 뭐 좀 꺼내가야 긴장할래?
 한수 아니요.
 금 사장 다큐에서 호러로 넘어가진 말자, 피곤하다.
 한수 예.

#7. 편의점(밤)

라면을 먹는 한수. 표정이 복잡하다.
 형에게 돈을 빌리라는 금 사장의 말이 머리에 맴돌고.
 휴대폰으로 형과 했던 예전 문자들을 본다.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한수.
 점점 답장이 없어지는 형.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명함을 꺼낸다.
 '○○제약회사 팀장 오한철'

#8. 제약회사 앞(밤)

퇴근하는 직원들.
 그 앞을 서성이며 형을 찾는 한수.

한수 벌써 갔나? 이때쯤 나왔던 거 같은데.
 퇴근하던 직원들 중 한 명이 한수를 알아본다.

형 친구 한철이 동생... 맞지? 형이랑 같이 몇 번 봤는데, 기억 안 나?

#9. 길(밤)

형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걸어가는 한수.

형 친구(E) 회사 몰래 신약 실험을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았어. 중추신경계 관련 약이었는데, 원래 한철이 그 자식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 아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하냐.

한수 찢렸다는 건데.

형 친구(E) 퇴사한 후에는 거의 못 봤지. 중국에 갔다는 말도 잠깐 들었는데, 외국지사에 있는 동기가 한철이를 연변에서 봤다나 뭐라나, 근데 그것도 확실한 거는 아니고.

형에게 전화를 거는 한수. 긴 신호음이 이어지고.

#10. 고시원 전경(밤)

소리샘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

#11. 고시원/복도(밤)

복도를 걷는 한수.

형에게 메시지를 남기는데, '형 잘 지내지?'

#12. 고시원/방(밤)

방에 들어와 불을 켜는 한수.

그러자 방 안을 뒤지고 있던 삼인조 강도가 그대로
 동작을 멈추는.
 강도들도… 한수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놀라고.
 이런 상! 방을 뛰쳐나가는 한수.
 재빨리 손을 뺀어 한수를 붙잡는 강도들.
 방 안의 전등이 ON/OFF를 반복하며… 개싸움을 벌이는
 한수와 강도들.

#13. 경찰서(밤)

엉망인 모습으로 호들갑스럽게 들어오는 한수.

한수 가, 강도… 강도가… 고시원에… 세 명… 막 때리고… 아파…
 형사1 아저씨 술 먹었어요? 여기가 모텔도 아니고.
 형사2 저쪽에 누웠다 가세요, 오바이트는 화장실에서 하시고.
 한수 고시원에 강도가 들었다고! 삼인조! 날 때렸다고! 가서 잡으라고!
 형사들 …
 한수 강도 안 잡아요? 빨리 가서 잡아!
 형사1 삼인조씩이나 돼서 고시원을 터는 게, 그게 그럼 손해 아냐?
 적어도 다세대 주택은 털어야…
 형사2 여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아저씨 혼나고 싶어!
 한수 말하는 거 봐라, 여기 서장 어디 있어?! 나와! 서장 나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일련의 사람들.
 한수도 익히 알고 있는 얼굴들… 도박장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다.

#14. 경찰서 앞(밤)

헐레벌떡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한수.

한수 강도 잡으려다가 내가 먼저 도박으로 들어갈 뻔했네.

문자가 온다. 형에게 온 문자다. '제발, 형 좀 도와줘.'
 잠시 고민하고 답장을 하는. '형 어디야?'
 바로 다시 문자가 온다. '김포시 북래동 낙원아파트 505호'

#15. 마을버스 정류장(낮)

버스에서 내리는 한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찰들 보인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듯.
 아파트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한수.
 헉!! 저 멀리~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아파트가 보인다.

#16. 언덕(낮)

헉헉.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라가는 한수.
 부릉-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언덕 위에서 내려온다.
 한수의 옆을 지나가고.
 내려가던 택시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되돌아 올라온다.
 택시기사 석환(40)이 한수를 향해 웃는다.

석환 힘드시죠? 언덕이 워낙 가팔라서, 타세요, 그냥 태워다 드릴게.

#17. 언덕을 오르는 택시(낮)

운전을 하는 석환. 그리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한수.

석환 낙원아파트 가시는 거 맞죠? 저도 저기 살거든요 201호.
 한수 내가 거기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혹시 금 사장이 보냈어요?
 석환 이 위로는 그거 말고 없거든요. 보니까 이사 온 거 같지도 않고, 몇
 호 찾아오셨을까?
 한수 말하면 알아요?
 석환 알죠, 다 이웃사촌인데.

#18. 아파트 입구(낮)

택시에서 내리는 한수.
음침한 아파트 모습이 정면에 보인다. 곧 철거를 해도 무방할.

한수 뭐야? 잘못 왔나?

#19. 아파트/1층(낮)

문자를 확인하는 한수. '열쇠는 우편함에 있어.'
505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승강기 쪽으로 걸어간다.
출입금지라는 테이프가 승강기 앞에 쳐져 있다.
계단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헉!
1층 계단에 떡하니 서 있는 시각장애인 춘배(50).
병거지에 선글라스, 손에는 접이식 삼단 지팡이.

한수 깜짝이야.
춘배 헤헤, 누가 오셨을까?

#20. 아파트/계단(낮)

탁탁! 지팡이로 계단을 짚으며 올라가는 춘배.
그 뒤로 한수가 따라오고.

춘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장님으로 아는데, 어디 큰일날 소리. (걸음을 멈추고 한수를 뚫어져라 보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보인다니까. 시력이 나쁜 거지 깜깜이는 아니거든, 505호 동생이라고?

3층 계단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문을 열고 계단에 들어서는데.
무심코 뒤를 돌아본 한수. 헉!! 소스라치게 놀라는.
산발한 머리의 선녀(60)가 3층 계단에 우두커니.

선녀 어리석은 눈으로 그분을 보지 못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진실을 봐, 거짓을 거둔 참의 진실을. 영접을 못 하고 죄를 범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춘배 (올라가며) 그냥 와, 빨리 와.
선녀 눈과 귀를 열어야 해!
춘배(E) 303호 사람인데, 많이 안 좋아, 암이야 말기 암.

#21. 아파트/5층 복도(낮)

걸어가는 춘배와 한수.

춘배 요즘은 치매도 온 거 같고, 돈 없으면 죽어야지.
한수 어찌나 개성들이 뚜렷하신지,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춘배 다 왔다, 이 집이야 505호. 근데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거 같은데?
난 그래서 여행이라도 갔나 했지. 형이 불러서 왔어? 형이 오래?

대꾸 없이 505호 안으로 들어가는 한수.

춘배 궁금한 거 있으면 올라와서 물어봐, 알았지? 바로 위층이야! 위층!

옆 506호 문이 열린다. 쓰레기봉지를 든 나연(31)이 나오고.

춘배 나연 양 오랜만이야. 오늘따라 아주 이쁘네. 점심 뭐 먹었어?
나연 (무시하고 가는)
춘배 헤헤. 싸가지 없네, 둘 다.

#22. 아파트/505호(낮)

들어오는 한수.
밖에서 들리는 춘배의 목소리. '바로 위층이야! 위층!'
집 안을 둘러본다.
작은 방, 거실, 화장실, 안방까지 모두 비어 있고.

한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듯 곳곳에 먼지가.
텅 빈 집에 혼자 서 있는 한수.
식탁 위에 반쯤 마신 양주병이 보인다.
쿵쿵거리며 잠시 냄새를 맡더니 이내 벌컥벌컥 마시는.
독한 듯 순간 머리가 핑- 돌고.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아주 작은.

한수 영감탱이 아직도 안 갔어? 텅이라도 달라는 거야 뭐야?

현관으로 걸어가 외시경에 눈을 가져간다.

인서트.
현관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석환, 선녀, 춘배.

소름이 쩍!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는 한수.

#23. 아파트/505호 앞+쓰레기장(낮)

벌컥!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안에서 뛰어나오는 한수.

한수 어디 눈깔을 들이밀... 없네?

텅 빈 복도. 이미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

인서트.
- 지팡이를 짚으며 계단을 오르는 시각장애인 춘배.
- 복도에 주저앉아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기암 환자 선녀.
- 콧노래를 부르며 언덕을 내려가는 택시기사 석환.

세 사람의 모습과 텅 빈 복도에 서 있는 한수의 모습이 묘하게 분할되며. 그때! 아파트 쓰레기장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나연의 모습이 끼어든다.

#24. 아파트/505호(낮)

거실에 앉아 있는 한수. 형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긴다. '형 어디야? 왜 없어? 언제 들어와?'
전화도 답장도 오지 않는.
시간은 흐르고... 1시간... 2시간... 3시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한수.

#25. 아파트/5층 복도(낮)

505호에서 나오는 한수.
전화가 온다. 형인가? 아니다 금 사장이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캉!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린다.
506호 문이 열리며 나연이 나온다. 머리와 옷이 물에 젖어 있다.

#26. 아파트/506호 나연 집(낮)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자신만만하게 싱크대로 걸어가는 한수.

한수 제가 예전에 이쪽 일도 했거든요. 엄청 간단해요. 사람 부르고
그러면 출장비도 뭐다, 쥐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걸 이쪽으로
돌리...

싱크대 수도를 돌리는데... 푹! 더욱 강하게 뿜어지는 물.

시간 경과.
수도를 고치고 있는 수리기사. 옆에서 지켜보는 한수와 나연.

한수 아, 그게 그쪽으로 돌리는 거구나. 전 반대쪽으로 돌렸거든요.
서울은 이쪽인데, 여기는 저쪽이었구나. 흠...

시간 경과.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 싱크대 수도.

한수 하하, 잘 나오네요. 아까 그 사람 잘 고치네. 그럼 저는 이만…
(하고 가려다) 아 저는 505호예요. 형 보러 왔어요. 잠깐 들르려.
근데 형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간 거지? 하하.

나연 …

한수 혹시 저희 형…

나연 몰라요.

한수 요즘 뭐 누가 알겠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부엌 반대편에 있는 방이 눈에 들어온다.
굳게 닫힌 것은 물론이고 문틈까지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혀 있는.

한수 (이상하다는 듯 방을 보고)

나연 사람이 죽었어요.

한수 아~ 사람이 죽… 예?!

나연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한수 …아… 근데 왜 여기 사세요?

나연 싸요.

한수 …가보겠습니다. 집 좋네요, 싸고.

나연 조심하세요.

한수 뭘요?

나연 사람들.

한수 어떤?

나연 전부, 여기 아파트 사람들 다 이상해요.

한수 …수고하세요.

#27. 아파트/5층 복도(낮)

506호에서 나오는 한수. 굉장히 찻찻한 표정.

#28. 아파트/곳곳(낮)

아파트를 둘러보는 한수. 대부분 집이 비어 있고 옥상은 잠겨
있다. 지하실도 들어가려 하는데, 너무 깜깜한 모습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는.

#29. 아파트/계단(낮)

계단을 올라가는 한수. 캉! 비명소리가 들린다.

#30. 아파트/3층 복도(낮)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한수. 303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문은 잠기지 않고 살짝 열려 있는. 캉! 다시금
비명소리가.

#31. 아파트/303호 선녀 집(낮)

천천히 들어오는 한수. 정리되지 않은 집 안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집 안의 벽지들이 사나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비뚤게 걸려 있는 십자가와 바닥을 나뒹구는 성경책.
구석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선녀. 비명을 지르며 벽지를
손으로 긁기도. 여기저기 나뒹구는 빈 양주병들 보이고.

춘배(E) 303호 사람인데, 많이 안 좋아. 암이야 말기 암,
요즘은 치매도 온 거 같고. 돈 없으면 죽어야지.

선녀 산신님께서! 산신님께서!! 산신님께서 오신다!!

고개를 돌려 한수를 노려보는 선녀.
눈이 마주치자 헉! 놀라며 밖으로 나가는 한수.

#32. 아파트/5층 복도(밤)

아파트를 내려다보는 한수. 을씨년스럽다.

한수 뭘 놔의 아파트가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 없어.

형에게 전화를 한다.

CUT TO.

계단에서 한수를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

웅- 휴대폰 진동이 느껴진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휴대폰. 발신자는 '동생'.

CUT TO.

505호 안으로 들어가는 한수.

#33. 아파트/505호(밤)

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형의 사진을 보는 한수.

함께 찍은 사진들도 보인다. 두 형제가 나란히 환자복을 입고.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형 친구'.

#34. 아파트 입구(낮)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며 아파트를 나서는 한수.

형 친구(E) 내가 혹시나 하고 회사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사과 동기가
최근 한철이를 만난 적이 있다네. 거기가 어디냐면...

빵빵! 클랙슨 소리에 옆을 돌아보면. 석환의 택시다.

석환 어디 가세요? 타세요, 하하.

#35. 도로를 달리는 택시(낮)

신나는 교통방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석환의 손목에 번쩍이는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다.

한수 꽤 버시나 봐? 시계가 휘황찬란하네요.

석환 (급히 소매로 시계를 감추는) 가짜예요 가짜, 하하.

한수 가짜가 참 진짜 같네.

휴대폰이 울린다. 사채업자 금 사장이다.

한수 아침부터 재수없게. (받지 않는)

#36. 신사동 일각/택시 안(낮)

백미러를 통해 걸어가는 한수를 보는 석환.

석환 저 새끼 눈치챈 거 아냐?

#37. 신사동 웨딩골목(낮)

웨딩숍 앞에 멈춰 선 한수.

형 친구(E) 한철이가 글썄, 웬 여자랑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네.

#38. 커피숍(낮)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수.

저 앞에서 여자가 걸어온다.

약혼녀 웨딩숍에서 통화했던 분 맞아요?

#39. 고급 아파트(낮)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놀란 눈으로 아파트를 둘러보는 한수.

한수 여기가 저희 형 아파트라고요? 그쪽은 약혼녀고?

거실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한철과 약혼녀의 사진.

약혼녀 근데 진짜 동생 맞아요? 닳은 거 같기도 하고.

벽에 걸린 사진을 유심히 보는 한수.

#40. 고급 아파트 밖(낮)

걸어 나오는 한수.

약혼녀(E) 며칠 출장 간다고, 통 연락이, 출장을 자주 가기는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적은 침이라, 이거 바람난 거 아냐?

한수 ...이 새끼 봐라, 재밌네.

#41. 마을버스 정류장/언덕1(밤)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석환의 택시.
언덕을 올라가려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택시 앞으로 날아온다.

석환 (내리며) 어떤 미친...

꺄렁거리며 서 있는 한수.

한수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석환 ??
한수 뭘 그렇게 쳐다봐요? 시비 거는 사람 처음 봐요?

석환 지금 뭐하시는...

한수 형이 나한테 뭘 줬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도 형한테 선물을 줬는데.
석환 ??

한수 선물이 뭘 줄 알아요?

석환 도대체 무슨 말을...

한수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사납금 내기도 빠듯한 영업택시가 왜 초면인 사람을 공짜로 태워? 그것도 두 번이나.

석환 예? 이웃이고 하니까 어차피 가는 길에...

한수 이상하다니까, 그럼 왜 자꾸 내 눈치를 보는데, 어제도 오늘도.

석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한수 손목에 찬 시계, 한번 보죠, 괜히 거짓말했어 홍콩에서 산 명품이라고, 짝퉁인데.

인서트.

한철과 약혼녀가 찍은 사진... 한철의 손목에 채워진 금색 시계.

한수 누가 알았나, 약혼식에서도 그걸 찰지.

석환 시, 시계요? 이거 흔해요.

한수 에이 그게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짝퉁도.

석환 ...아닌데...

한수 시곗줄 안에 이니셜 있으니까, 확인하면 알겠네.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피는 석환.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광! 닫고 그 앞을 막아서는 한수.

한수 너 훔쳤지, 우리 형 시계.

갑자기 몸을 돌려 언덕 위로 뱀다 도망치는 석환.

쫓아가는 한수.

#42. 언덕2(밤)

도망가는 석환과 그 뒤를 쫓는 한수.
가까스로 쫓아와 뒷덜미를 낚아채는데...
뒤엎키며 나자빠지는 두 사람.
다시 냉큼 일어나 도망치는 석환. 빠르다.

#43. 아파트 인근(밤)

감쪽같이 사라진 석환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한수.
그때 누군가 뒤로 다가오는데?! 다다닥!!

#44. 언덕 인근 계단(밤)

헉헉. 가파른 계단 위에 서 있는 석환.
그때 누군가 뒤로 다가오는데?!

#45. 아파트 인근(밤)

뒤를 돌아본 한수. 아무도 없다.

#46. 언덕 인근 계단(밤)

피를 흘리며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석환.

#47. 아파트/201호 석환 집(밤)

굉광! 문을 두드리는 한수.

한수 안에 있는 거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열지? 경찰 불러?!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혹시나 싶어 현관 손잡이를 돌리는데...?! 잠겨 있지 않다.
들어가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앵- 하는 구급차 소리가.

#48. 언덕 인근 계단(밤)

죽은 석환을 옮기는 구급대원들.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고.
“발을 헛디뎠나 보네.”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하긴 해.”
죽은 석환을 보고 놀라는 한수.
다른 것도 발견하는데... 석환의 손목에 시계가 없다.

#49. 아파트/201호 석환 집 앞(밤)

복잡한 얼굴의 한수. 가만히 201호를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내 형에게 받은 문자를 본다. ‘제발, 형 좀 도와줘.’

#50. 아파트/201호 석환 집(밤)

들어오는 한수.
지저분하고 퀴퀴한 실내 모습.
택시 앞에서 찍은 석환의 사진액자들.
아파트 분양 팸플릿과 신형 자동차 카탈로그도 보이는데.

한수 이런 데 살면서... 꿈이 큰 거야 뇌가 작은 거야?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들어온다.
너무 놀라 숨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린 한수.
주인 없는 201호에 들어온 사람은... 춘배다.

한수 !? (자신도 모르게) 어?
춘배 (무슨 소리가 들리자 귀를 기울이는)
한수 (급히 손으로 입을 막는)

춘배 (사방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헤헤, 아무도 없지? 그런 거지?

선글라스를 벗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춘배.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루페다.
루페를 눈에 끼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이동하는 한수.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멈칫.

한수(E) 거지 같은 집에서 뭘 저렇게 죽자고 찾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몸을 돌리는데...!!
정면에 딱하니 서 있는 춘배.
흡!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는 한수.
신발장을 뒤지는 춘배와 그 옆에 미동 없이 서 있는 한수.
다행히 걸리지 않는.
신발장을 다 뒤진 춘배는 방 쪽으로 향하고.

#51. 아파트 입구(밤)

걸어오는 금 사장.

금 사장 이 새끼 숨으려거든 제대로 된 곳에 숨든가.
(누군가를 발견) 거기. 이리 좀 와봐, 오라고.

가까이 다가온 누군가(?)에게 한수의 사진을 보여주는 금 사장.

금 사장 본 적 있어?

고개를 끄덕이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아파트 5층을 가리킨다.

춘배(E) 찾았다.

#52. 아파트/201호 석환 집(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방을 까뒤집어놓은.
손에 수첩을 들고 있는 춘배.
방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한수.

한수(E) 수첩?

#53. 아파트/605호 춘배 집 앞(밤)

수첩을 든 춘배, 실실 웃으며 605호 안으로 들어간다.
철커덕! 잠금장치 소리가 크게 들린다.
복도 끝 계단에 서 있는 한수. 달힌 605호 현관문을 바라본다.

한수 고작 수첩이라고?

시간을 확인한다. 10시가 조금 넘었고.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고, 밤 12시다.
605호 복도 창 앞에 서 있는 한수.
허술하고 녹슨 방범창.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방범창살 하나를 손으로 잡는 한수.
훅! 힘을 주니 아랫부분이 끊어지며 위로 휙! 휘어져버린다.

시간 경과.
여러 개의 방범창살이 구부러져 있고 안쪽 창문은 열려 있다.
복도에는 한수가 벗어놓은 신발이 보인다.

#54. 아파트/605호 춘배 집(밤)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한수.
거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즐비하게 붙어 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찍은 듯

초점이 조금씩 맞지 않는.
아파트를 배경으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한수의 형 한철의 모습도... 나연의 모습도... 보이고.
병원을 홍보하는 책자들도 보인다.
안과전문병원들과 최신수술기구 등을 자랑하는.

방으로 들어오는 한수.
자고 있는 춘배의 손에 수첩이 꼭 쥐어져 있다.
최대한 조용히 수첩을 빼내는 한수. 아슬아슬하게 성공하는.

#55. 아파트/5층 복도(밤)

수첩을 보며 걸어가는 한수.
한자와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다.

한수 숫자는 전화번호 같고, 한자는 뭐야?

수첩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문자가 보인다.
금 사장이 보낸 문자다.
'당장 전화해라, 각막하고 간 떼고 싶지 않으면.'

한수 전화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금 사장에게 전화를 한다.
신호음이 들린다. 그리고 벨소리도 들린다.

한수 ??

504호 쪽에서 벨소리가 들린다.

#56. 아파트/504호(밤)

변변한 가구도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빈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수.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신발장 구석에 휴대폰 하나가 떨어져 있다.

한수 ...?!

바닥에 핏자국이 보인다.
핏자국을 따라 방 쪽으로 걸어가는.
방문을 여는데...!! 시체가 놓여 있다.

한수 ...왜?

시체의 정체는... 금 사장이다.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멈칫.

한수 ...돈 빌려준 새끼가 돈 빌린 새끼 옆집에 죽어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죽인 거잖아.

고민하는 한수, 무심코 현관 쪽을 보는데.
현관 앞에 나연이 서 있다. 놀란 얼굴로.

한수 오해하지 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도망가는 나연.

한수 어디 가요?!

#57. 아파트/계단(밤)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나연. 쫓아가는 한수.

한수 좀 기다려보라고요! 이봐요! 저기! 야!

#58. 아파트/1층(밤)

다급히 내려오는 한수.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나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지하실 쪽으로 눈이 가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 입구.

한수 ...에이 설마?

#59. 아파트/지하실 계단(밤)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한수.
고임목이 받쳐진 채 열려 있는 지하실 문.

#60. 아파트/지하실(밤)

안으로 들어오는 한수.

한수 저기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사람 진짜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이 그럼 안 되지
내가 싱크대도 고쳐줬는데.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는 한수.
순간! 숨어 있던 나연이 밖으로 도망가는데
썩썩하게 나연의 손목을 낚아채는 한수.

나연 봐요!
한수 아니 이 여자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실랑이하는 두 사람.
실수로 문을 받치고 있던 고임목을 쳐버리고.
쿵! 하고 닫히는 문.

#61. 아파트/지하실 문밖(밤)

굳게 닫힌 지하실 문.

#62. 아파트/지하실(밤)

문을 열려고 끄끅거리는 한수. 하지만 열리지 않고.

나연 고장 났어요, 안에선 안 열려요.
한수 그러기에 왜 도망을 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한수. 통화권 이탈이다.

나연 진짜 안 죽었어요?
한수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나 그런 놈 아니라고요!
나연 시체 봤어요 저.
한수 시체 맞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연 살인은 했는데, 살인자는 아니다?
한수 그렇... 그게 아니라! 답답하네. 이걸 어디부터 말해야 돼.
나연 처음부터요.
한수 예, 내가 말해드릴게, 살다 살다 살인자 취급을 다 당하네.
 잘 들어요, 두 번 말 안 할 테니까.

그간 있었던 일을 나연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한수.

나연 그 말을 믿으라고요?
 한수 인간적으로 내 말도 이상한데, 이 아파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켈 먼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한 거 그쪽입니다.

갈등하는 나연의 눈동자. 그리고 불현듯 무언가 떠오르는데.

나연 …진짜 이상해요.
 한수 그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다니까, 좀 많이 이상해 여기.
 나연 …아까 강도 이야기요. 고시원에 든… 삼인조라고 했죠?
 한수 갑자기 왜 그리로 가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나연 봤어요, 그날 밤.

#63. 회상. 아파트 쓰레기장(밤)

쓰레기장에 숨어 뭔가를 보는 나연.
 …저 앞에 석환, 춘배, 선녀가 서 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얼굴에
 뒤집어쓰는데… 복면이다.

#64. 아파트/지하실(밤)

한수 그 세 명이 복면을 썼다고요? 왜?
 나연 왜겠어요?
 한수 …설마 고시원에 왔었던 강도가…

고시원에 든 삼인조 강도와…
 세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진다.

한수 말도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내 고시원에?
 나연 …한수 씨가 아니라.
 한수 내가 아니라?
 나연 동생이 사는 곳에 형을 찾으러 간 거면,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한수 형을 찾으러 왔다고요? 우리 형을?
 다시없이 진지한 얼굴로 한수를 보는 나연.

나연 한수 씨 형이 사라지고… 미친듯이 찾았거든요. 정말 미친듯이.
 처음부터 친절하고 과한 관심을 보인 석환과 춘배의
 모습이 떠오르고.

한수 …설마 처음부터…
 나연 그 도와달라는 문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철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는 세 사람(춘배, 석환, 선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한수 !! 그 세 사람이 형인 척 문자를 했다고요? 왜?
 나연 한수 씨를 여기로 불러, 한수 씨 형을 찾으려고?
 한수 …이런 미친…
 나연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너무
 속단하지는…
 한수 한 번도 형이 나한테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뭘 도와줘 나
 같은 게. 근데 형인 척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형을
 찾으려고? …뭐지 이 새끼들 정체가?

혼란스러운 표정의 한수를 가만히 지켜보는 나연.

나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정말 있을까요?
 한수 ??
 나연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외로워서 다치고… 다쳐서
 외로운… 지독히도 모든 게 결핍된 고독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을 채워줄 뭔가가 오면 미친듯이 매달리고
 빨려들거든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미친듯이.

한수 된 소리에요 갑자기?
 나연 좋아했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한수 씨 형을 좋아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 그랬어요. 혹시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한수 ...
 나연 우선 여기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왔을 때 여기 어디에
 환풍구가 있었던 거 같은데. (두리번거리는) 어? 저기!

부서진 환풍구가 보인다. 사람 한 명이 나갈 정도의 크기.

#65. 아파트/5층 복도(밤)

506호 앞에 서 있는 한수와 나연.

한수 일단 날 밝으면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연 씨는 상관하지
 말아요. 얹혀서 좋을 거 없어요. 들어가요, 괜히 나 때문에
 고생했네.
 나연 형은 좋겠어요.
 한수 우리 형이요?
 나연 만약 저라면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형이든 뭐든 이런 곳에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는 한수. 배에 수술자국이 보인다.

한수 신장이식 받았어요, 형한테, 내 목숨 구해준 형이니까 앞으로 진짜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사람 참 감사해요. 시간 지나니까
 맘이 변해, 나 쓰레긴가?
 나연 네.
 한수 예?
 나연 형 꼭 찾아야겠네요.
 한수 어디 가서 손해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있을 거예요.
 나연 그럴 거예요.

한수 그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나연 ??
 한수 남편 죽인 아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연 ...죽었어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한수 죽었구나.

복도 전등이 파르르 떨린다.

한수 아 씨, 제대로 된 게 없어.
 나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거든요.
 한수 ??

#66. 아파트/505호(밤)

기진맥진한 한수, 소파에 주저앉는.

#67. 아파트/605호 춘배 집(밤)

텅 비어져 있는 605호. 춘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68. 아파트/505호(밤)

소파에 앉아서 푹아떨어진 한수.
 부엌 서랍장 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어 나오는 춘배.
 바닥을 더듬거리며 소파 쪽으로 이동하는.
 음? 기척을 느낀 한수, 눈을 뜨며 고개를 돌리는데.
 치안용 스프레이를 한수의 눈에 뿌리는 춘배.
 으악!! 눈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구는 한수.

춘배 너지? 너밖에 없어?!
 한수 눈! 내 눈!!

춘배 내 수첩 어딴어? 빨리 말해, 말하라고!

삼단봉을 꺼내 한수를 내려치는 춘배. 퍽! 퍽!
몸을 웅크린 채 구타를 당하는 한수.
삼단봉을 내려치는 춘배.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옆으로 넘어진다. 그사이 벌떡 일어나 현관쪽으로 달려가는 한수.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닫힌 현관문에 그대로 쿵! 뒤로 넘어진다. 아픔을 느낄 사이도 없다.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걸어오는 춘배의 발소리가 들린다.

춘배 아파?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한수 내가 뭐? 이 미친놈아! 내가 뭘 했는데!!
춘배 나한테 왜 그랬냐고!!

손에 잡힌 의자를 냅다 한수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 춘배.
날아간 의자는 신발장 옆 유리에 부딪치고.
쨍그랑! 산산이 부서지는 유리. 한수의 머리 위로 부서진 유리파편들이 우수수.

저벅저벅. 걸어오는 춘배의 발소리.
어느 정도 가까워지자, 냅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날리는 한수.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벽으로 돌진해 그대로 쿵! 부딪친다.
바닥에 넘어져 괴로워하는 한수를 향해 또다시 삼단봉을 휘두르는 춘배.
퍽! 퍽! 퍽! 한참 동안 이어지는 구타.

춘배 죽었냐?
한수 …도대체 니들 정체가 뭔데…
춘배 궁금해? 그럼 말해, 니가 가져간 내 수첩 어딴어?!

한수 … (작게) 있어…
춘배 응?

한수 …있다고…
춘배 머라고? (하면서 한수를 향해 몸을 숙이는데)
기다렸다는 듯 박치기를 날리는 한수.
나자빠지는 춘배.

한수 (따가운 눈을 가까스로 부릅뜨며) 미쳤어?! 사람 죽이려고?! 너 나 죽이려고 했어! 어!!

주머니에 있는 치안용 스프레이를 다시 꺼내는 춘배.
냅다 걸어차는 한수.

한수 누구 바보로 아나? 두 번은 안 당해!

쓰러진 춘배의 멱살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간다.

#69. 아파트/5층 복도(밤)

복도 난간으로 춘배를 밀어붙이는 한수.

한수 밀어줄까? 여기서? 어차피 앞 못 보는 사람 추락사하면 그냥 채수 없어서 떨어진 줄 알 거 아냐?!

아슬아슬하다. 조금만 밀면 당장이라도 떨어질.

춘배 사, 살려… 줘.
한수 (살짝 손에 힘을 푸는)
춘배 으악! 살려줘!!
한수 다 말해?! 전부 다 말하라고!! 도대체 우리 형하고 니들은 뭔데?!

#70. 회상. 비닐하우스(낮)

비닐하우스 보이고. 열심히 꽃과 식물을 가꾸는

네 사람. (한철, 석환, 춘배, 선녀)
흙을 뒤집고, 거름을 주고, 비닐하우스 양 끝 쪽과 사이사이에
전기난로도 보인다.

한수(E)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니들하고 형이 꽃을 키워?
춘배(E) 꽃이지 꽃… 아름다운 꽃.

녹색의 풀들 사이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붉은 꽃잎.

#71. 아파트/5층 복도(밤)

한수 계속 헛소리할래?! 니들이 꽃을 왜 키워!
춘배 꽃은… 돈이니까!
한수 돈?
춘배 헤헤. 니놈 형이 그 꽃을 정제해 술에 넣고 마셨는데, 303호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 나랑 201호도 가끔 먹었는데, 그래도
적당히 했어야지, 303호는 낮이나 밤이나 입에서 떼질 않았어.
그러니까 맛이 완전히 가버리지.
한수 꽃이고 뭐고 우리 형은 어디 갔는데?
춘배 도망가려고 했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우스웠겠지,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72. 회상. 아파트/복도(밤)

복도를 걸어가는 한철.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와 퍽!

#73. 회상. 아파트/지하실(밤)

지하실로 끌려가 내동맹이쳐지는 한철.
쿵- 하고 닫히는 문.
닫힌 지하실 문 앞에 서 있는 춘배, 석환, 선녀.

#74. 아파트/5층 복도(밤)

한수 가됐다고? 어디에!?
춘배 없어 지금은 결국 도망쳤으니까.
한수 (혼란스러운)
춘배 수첩 어디 있어? 그거 줘, 나 줘.
한수 수첩, 그건 또 뭐데?
춘배 그게 있어야… 물건을 팔지.
한수 물건?
춘배 꽃을 팔아야지 내가 눈을 뜰 거 아니야!
한수 팔아? 꽃을 판다고?

인서트.
수첩에 적혀 있던 한자와 전화번호.

춘배 그만 괴롭혀,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한수 왜 불렀어?
춘배 어?
한수 복면 뒤집어쓰고 강도질에 형인 척 가짜 문자까지, 날 불러서까지
그렇게 형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
춘배 무슨 소리야?
한수 도망간 우리 형을 찾아 죽이려고 한 거지?
춘배 우린… (말을 하려는데)
한수 더 이상 들을 말 없으니까, 그 빌어먹을 꽃, 그거 어디 있어?
춘배 꽃… 꽃…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한수 (춘배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본다) …!!

잠겨 있던 옥상이 떠오른다.

#75. 아파트/옥상(새벽)

소화기를 들어 문고리를 내려치는 한수.

형 친구(E) 회사 몰래 신약 실험을 했는데, 그게 좀 안 좋았어.

문고리가 부서진다.

형 친구(E) 중추신경계 관련 약이었는데.

동이 튼다. 옥상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형 친구(E) 원래 한철이 그 자식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

옥상 가운데 자리한 커다란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꽃잎들.

한수 ...꽃, 돈이 되는 꽃.

바람이 불고. 붉은 꽃잎의 양귀비가 사랑살랑.
앞선 도박장에서 본 양귀비 관련 TV뉴스...
마지막 범인의 몽타주는... 한철의 얼굴!

#76. 아파트/5층 복도(새벽)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춘배.
누군가 걸어온다.

춘배 헤헤, 밥 먹을까?

#77. 아파트/옥상(새벽)

넋이 빠진 모습의 한수.
으악! 아래에서 들리는 춘배의 비명소리.
급히 난간을 내려다보면... 아파트 지상에 떨어져 죽어 있는
춘배의 모습!

5층 복도 창문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78. 아파트/계단(새벽)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한수.
3층 복도로 들어가는 범인의 실루엣.

#79. 아파트/3층 복도(새벽)

3층 복도에 들어선 한수. 열려 있는 303호 현관문이 보인다.

#80. 아파트/303호 선녀 집(새벽)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한수.
거실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선녀.
헉! 놀라는 한수.
죽은 선녀의 손목에 금속 시계가 채워져 있다.
석환이 차고 있던 그 시계다.

인서트.
- 계단에서 석환을 뒤에서 미는... 선녀.
- 5층에서 춘배를 미는... 선녀.
- 303호로 돌아와 자살하는 선녀.

나연(E) 캉!!

현관 앞에 서 있는 나연. 자살한 선녀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복도로 나가 303호 문을 닫는 한수.

한수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요.

#81. 아파트/옥상(새벽)

양귀비 발을 멍하니 바라보는 나연.

한수 …다 이거 때문이었어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나연 말도 안 돼.
한수 말이 돼요. 나연 씨가 그랬죠, 사람들이 형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들이 좋아한 건 형이 아니었어요. 형을 통해서 얻는…

인서트.

- 아파트 분양 팸플릿과 신형 자동차 카탈로그.
- 금시계를 차고 있는 석환.
- 병원을 홍보하는 책자들. 안과전문병원들과 최신수술기구
등을 자랑하는.
- “꽃을 팔아야지 내가 눈을 뜰 거 아니야!”라고 소리치는 춘배.
- 고통에 신음하는 선녀.
- 양주에 양귀비 가루를 타는 한철. 그 양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선녀.

한수 그래서 형을 찾았던 거예요.
나연 그럼 한수 씨 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갔다면…

그때. 한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한수 여보세요? …병원이요? …형이 병원에 있다고요?

#82. 아파트/계단(새벽)

바빠 계단을 내려가는 한수와 나연.

한수 여기 오다가 본 적이 있어요. 분명 거기예요.

인서트.

마을버스 정류장. 뺑소니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찰들.

한수 사람들 피해 도망치다가 차에 치였나 봐요.
나연 그럼 형은 지금?
한수 어제까지는 혼수상태였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잠깐씩 정신이
돌아온다고, 제 연락처도 형이 직접 말해줬대요.
나연 어디 병원이예요?
한수 여기서 얼마 안 멀어요, 금산병원이라고.
나연 …형 약혼녀 예뻐요?
한수 예? (하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잠깐만요. (전화를 받는) 여보세요.

#83. 경찰서(새벽)

경찰 (통화) 혹시 일주일 전쯤에 강도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천호동에
있는 고시원에 사시고, 맞으시죠?

수갑을 차고 있는 10대 세 명.
책상 위에는 복면과 다량의 현금들이 증거품으로 올라와 있고.

경찰 이것들이 털라면 부잣집을 털든가, 고시원이 뭐고 고시원이.

옆에 있는 책자로 10대들 머리를 내려치는 경찰.

#84. 아파트/계단(새벽)

전화를 끊은 한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며.

한수 고시원이… 진짜 강도라고? 이상하다… (하며 뒤를 돌아보는데)

소화기를 들고 있는 나연.

한수 뭐해요?

칙! 소화기가 발사되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한수. 쿵! 기절한다.
기절한 한수를 물끄러미 보는 나연.

CUT TO.

의식이 몽롱한 한수.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든 나연의 말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붉은 꽃을 키우는 사람들 속에는 나연의 모습도 끼어 있다.
그리고 테이프로 봉인된 방의 모습이 두둥! 보이며,
기절해 있던 한수. 눈을 뜬다.

#85. 아파트/5층 복도(낮)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한수.

나연(E) 사람이 죽었어요.

#86. 아파트/506호 나연 집(낮)

테이프로 봉인된 방 앞에 선 한수.
마구잡이로 테이프를 뜯는다. 그리고 문을 연다.
윽! 강한 악취에 인상을 찌푸리는.
나연의 결혼사진이 벽에 걸려 있다.
바닥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 있고.

나연(E)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 뚜껑이 닫혀 있는 대형 고무통.
불길한 눈빛으로 고무통을 보는 한수.

나연(E)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예요. 외로워서 다치고... 다쳐서
외로운... 지독히도 모든 게 결핍된 고독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을 채워줄 뭔가가 오면 미친듯이 매달리고
빨려들거든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미친듯이.

천천히 뚜껑을 연다. 그 안에는...!!

인서트.
'제발, 형 좀 도와줘.'...라고 문자를 하는 나연.

우엑! 주저앉아 구토를 하는 한수.

#87. 병원 앞(낮)

병원 앞에서 있는 나연.

#88. 택시 안(낮)

택시에 올라탄 한수.

한수 금산병원어요, 빨리요! (휴대폰이 울린다. 형이다) 여보세요!?

나연(E)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89. 병원/복도(낮)

한수와 통화를 하며 복도를 걸어가는 나연.

나연 평소에는 무능했고 술을 먹으면 무서웠어요.

#90. 몽타주

- 허리띠로 나연을 폭행하는 남편(40).
- 술을 먹고 뿔아떨어진 남편.
- 바닥에 떨어진 허리띠를 줍는 나연. 남편의 목을...
-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나연.
- 그대로 뛰어내리려는데.

나연(E) 그때 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 뛰어내리려는 나연의 손목을 잡아채는... 한철.
- 옥상 바닥에 넘어진 나연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한철.

나연(E) 최선을 다했는데, 난 정말 그 사람한테 잘했던 말이야.

- 한철을 도와 열심히 비닐하우스에서 붉은 꽃을 재배하는 나연.

나연(E) 그럴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지, 날 붙잡지 말지.

-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한철.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나연.
-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한철과 나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한철의 옷을 뒤지는 나연. 옷 안에서 나오는 비행기표 한 장.
- 석환, 춘배, 선녀를 모아놓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나연.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는 사람들.

나연(E) 내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내가 꼬셨어요, 그 사람을 가뉘야 한다고.

- 지하실에 갇혀 있는 한철에게 식사를 가져다주는 나연.
- 텅 비어 있는 지하실. 위쪽 환풍구가 부서져 있고, 사람 한 명이 나갈 작은 구멍.

#91. 병원/복도(낮)

소리치는 나연.

나연 가지 말라고 했어! 내 옆에 있으라고! 늙어 죽으라고!!

#92. 택시 안(낮)

한수 왜 죽였어요? 사람들.

- 인서트.
-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석환. ...뒤에서 미는 나연.
- 5층에서 떨어지는 춘배. ...난간으로 미는 나연.
- 목을 매고 자살한 선녀. ...술취한 선녀의 목에 줄을 감는 나연.

한수 금 사장도 나연 씨가 죽였어요?

#93. 회상. 아파트 입구(낮)

- 결렁하게 걸어오는 금 사장.
- 여기가 맞나? 하며 아파트를 바라보는.
- 1층에서 걸어 나오는 나연.
- 손을 까딱이며 재수없는 자세로 나연을 부르는 금 사장.
- 휴대폰으로 한수의 사진을 보여주는.
- 사진을 본 나연,
-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파트 5층을 손으로 가리킨다.

#94. 회상. 아파트/5층(낮)

- 5층 복도를 지나 504호 안으로 들어가는 금 사장.
- 이내 등 뒤에 장도리를 숨기고 금 사장을 따라 504호 안으로 들어가는 나연.

#95. 병원/병실 앞(낮)

나연 방해하니까. 한수 씨가 형을 찾는 거 그것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빨리 빨리 찾아야 한다고!
 한수(E) 지금 우리 형한테 갔죠? 병원이죠, 뭘 어떻게 하려고요?

간호사 복장의 나연,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96. 병원/곳곳(낮)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한수. 사람들을 밀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간다.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묻고, 대답을 듣자마자 엘리베이터로 달려간다.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엘리베이터. 에이! 얼굴을 구기며 비상구로 향한다. 미친듯이 비상구 계단을 뛰어오르는. 7층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는 한수. 저 앞에 병실이 보인다. 병실을 향해 달려가는데, 막 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가 보인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침상에 누운 한철과 그 옆에 서 있는 간호사 복장의 나연.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막으려 하지만... 한발 늦고,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가장 꼭대기 층에 가서 멈춘다.

#97. 병원/옥상(낮)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한수.
 혼수 상태의 한철을 끌어안고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나연.

한수 나연 씨? 내려와요, 내려와서...
 나연 그거 알아요?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긴 게 아니래요, 높은 나무의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변한 거래요, 살기 위해서.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본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나연의 머리카락을 나부낀다.

나연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한수.
 의식불명의 한철과 함께 옥상 아래로 추락하는 나연.
 급히 손을 뻗는 한수.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98. 병원 입구 주차장(낮)

옥상에서 추락하는 나연과 한철.
 펑! 자동차 지붕이 움푹 파이고, 핏물이 흐른다.

#99. 병원/옥상(낮)

아래를 내려다보는 한수. 넋을 잃을 듯.

#100. 마을버스(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학생.

앵커(E)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김포시 북래동의 건물 옥상에서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으며...

#101. 마을버스 정류장/언덕(밤)

버스에서 내리는 한수. 언덕을 올라가는.

#102. 아파트/옥상(밤)

어둡고 조용한 아파트... 시뻘건 불꽃들이 옥상에서 넘실거린다.
 화염에 휩싸인 비닐하우스.
 그 앞에 서 있는 한수.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는데.

나연(E)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정말 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고.

나연(E) 여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거든요.

#103. 회상. 아파트/5층 복도(밤)

복도 전등이 파르르 떨린다. 불안하게 깜박거리는.

나연 외로움은 결핍을... 결핍은 결국 빈 잔이 돼요.

한수 빈 잔?

나연 결핍한 인간은 비어진 잔과 같아서, 거기에는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채워진 잔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수 뭐요?

나연 여지없이 깨어져... 산산이 흩어져... 오롯이 그렇게 바스러지는 거.

한수 ...왜 깨지지? 유리컵인가?

나연 ... (뿡)

이내 특- 복도 전등이 완전히 꺼지고.

끝.

작가 후기
(오우거 - 채우)

오픈 당선은 저에게 있어 몹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되었다는 우쭐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선된 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픈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글이 영상으로 변하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글은 혼자서 쓰지만 완성된 글은 혼자가 아닌 여러 조언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센터장님을 비롯한 오픈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모두 그곳에 있다 — 손호영

작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선 사회. 드러난 사건 또한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피해사실이 밝혀져도 법정에 가지 않고 부모와 담임 차원에서 합의한다. 학폭위가 열려도 판결에 불복하면 그만. 대형 로펌을 동원해 행정소송을 하며 돈과 시간을 제 편으로 만든다. 나이를 들먹여 소년법의 허점을 노리기도 하고 감정 격한 피해학생 부모의 언행을 꼬투리 잡아 상황을 뒤엎기도 한다. 그렇게 내 새끼만 귀한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소년범죄 속 흉악범죄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가해자의 곁에는 참 많은 게 있다. 역성드는 부모가 있고, 이용되는 법이 있다. 일삼는 친구들이 있고, 나쁜 어른들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곁에는 무엇이 있다. 편들어줄 법은. 위로해줄 사람은 있는가. 나아질 기미는. 진정한 사과는 존재하는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한 학교폭력은 극복이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대중의 인식은. 기댈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은.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까.

응당 있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피해자가 끝없는 상처 속에서 오직 허상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리고 어른인 우리들이 각자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발견될지 스스로 결정하길 바란다.

등장인물

유수연(16세, 여) 학교폭력의 피해자

극히 평범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 돈은 많지만 자식에게는 관심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이유 없는 폭력의 이유를 알고 싶지만, 사랑받고 크지 못한 티가 나서 그런 것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오래전 자신을 아버지에게 보내버린, 지금은 사망한 어머니를 그리며 살아간다. 퇴원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 죽기보다 싫어 죽음을 택하지만 그 순간 나타난 일영에게 어느 순간부터인지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일영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졌다.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강일영(29세, 여) 사설 심리상담가

조곤조곤 들어주고, 부드럽게 웃어주는 그런 전형적 상담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강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지만 쉽게 흥분하지 않고, 아주 이성적이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과거가 있어서 가해자들의 잔인함을, 피해자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수연을 두 번 다시 폭력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 무슨 수를 써서든.’

유정연(16세, 여) 수연의 쌍둥이

수연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아이. 거친 말투에 행동도 거침없다. 학교 따위 다니지 않고, 간간이 오토바이를 훔쳐 팔며 돈을 번다. 거처나 생활 등 배경은 미스터리. 쌍둥이인 수연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의식하며 살진 않았다. 호기심은 많은 편이지만 귀찮은 일이나 구질구질한 남의 사연은 질색. 핏줄이고 뭐고 수연도 남일 뿐이다.
 ‘그러나 뭔가 자꾸 거슬리게 한다면, 얹전히 두고 봐줄 생각은 없다.’

도성준(30대, 남) 경찰

폭력사실을 입증할 단서가 없자 어떻게든 수연의 증언을 받고 싶다. 의욕도 있고 성품도 따뜻한 형사. 현실에 부딪혀 꼼짝하지 못하지만 수연을 찾아오며 연일 마음을 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그 아이는 절대 그랬을 리 없다... 그럼, 진실은 뭘까?’

이규진(16세, 여) 학교폭력 가해자

맞고 있는 수연을 보면 기분이 좋다. 학교에서는 모범적. 수연이 의식을 잃어 잠깐 겁은 먹었지만 또 아무 처벌 받지 않았고, 결국 이 모든 일이 더 만만해졌을 뿐이다.
 ‘태어나보니 잘난 부모 밑이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볼 생각이다.’

그 외

수연 부, 수연 모, 이 선생, 교감, 서 팀장, 경찰1, 규진 부, 규진 모, 의사 등.

줄거리

친구들에 의해 어두운 밤 산속으로 끌려온 수연은 몸캠을 찍으려는 아이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등산로 계단을 구르고, 의식을 잃는다. 병실에서 간신히 눈을 뜬 수연. 그러나 하나뿐인 아빠도, 담임선생님도, 가해학생의 부모들도 모두 자신의 아픔에 관심이 없다. 지옥 같은 현실이 절망스러운 수연은 도 형사의 노력에도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입을 다문다. 홀로 남겨진 수연은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지만, 때마침 병실을 찾은 심리상담가 일영에 의해 살아난다. 심리상담가라면서, 따뜻한 구석이라곤 없는, 말도 행동도 직설적이고 냉철한 일영. 그러나 수연은 오히려 그런 일영의 존재에 차차 안정감을 찾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 규진의 방문으로 수연의 병실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무너지는 수연을 뒤쫓던 일영은 정체불명의 아이, 정연과 마주친다. 정연의 정체를 안 일영은 이 갑갑한 상황들을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모두 그곳에 있다.
손호영

살짝 열린 병실 문틈으로 통화 중인 도 형사의 목소리 들린다.

#1. 산속 산책로 계단(밤)

드문드문 불 켜진 어두운 산책로 계단.
수연,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다. 찢겨 너덜한 교복 블라우스에,
두 손목은 등 뒤로 청테이프에 묶였고, 다리며 팔 여기저기 쓸려
피투성이다. 불빛에 드문드문 얼굴 보이면 엉망으로 맞은 듯.
머리도 산발인 채다. 수연, 사력을 짜낸 듯 계단 내려가다 결국
발을 헛디디고 구르기 시작한다.
계단을 끝없이 구르는 수연, 계단 초입 표지판에 오른쪽 이마를
찡고서야 멈춘다.

수연 (가까스로)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

수연, 이내 의식 희미해지고, 눈 감는다.

수연(E) 아무도... 없어요...?

이마에선 피가, 눈에선 눈물이 흐르는 수연의 얼굴 위로
툭- 툭-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타이틀. “모두 그곳에 있다”

#2. 병원/병실 안(낮)

수연, 눈을 뜬다. 여기저기 멍든 얼굴.
병실 침대 아래, 흙과 빗물 얼룩진 흰 운동화 한 켤레 놓여 있고,
침대 발치에는 유수연, 16세 등 신상 적혀 있다.

도 형사(E) 아직 안 깨어났고요. 보호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3. 병원/병실 밖(낮)

도 형사, 병실 복도에서 통화한다. 심각한 표정.

도 형사 이혼 후 어머니 쪽은 사망. 부친은 해외지사 근무로 체류
중입니다.

형사1(20대, 남), 순경과 멀리서 얘기하다가
도 형사 보고 다가온다.

도 형사 (전화에) 성폭행이나 다른 흔적 없고 다발적 외상입니다.
(형사1 보면)

형사1 전에 학폭 피해 의심된다고 제3자가 신고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인 신고 처리됐었다고. 여청과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도 형사 (듣고, 다시 통화) 산 말이에요. 애들이 CCTV 없는 데로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4. 병원/병실 안(낮)

수연, 표정 없이 일어나 앉아 있다.
손으로 오른쪽 이마 위 거즈를 가만히 만져본다.
도 형사, 전화 끊으며 들어온다.

도 형사 (수연 발견하고, 문밖으로 몸 빼서) 여기 환자 깨어났어요!
(들어와서) 유수연 학생, 정신 듭니까?

수연, 조용히 도 형사를 바라본다.
도 형사, 변화 없는 수연의 기색을 살핀다.

도 형사 경찰이에요. 오늘 새벽 산에서 발견돼서 실려 왔어요. 기억나요?
수연 ...
도 형사 대체 그 시간에, 산에서 누구랑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으면 하는데.
수연, 입 열지 않자, 도 형사, 차분히 기다린다. 고요한 병실.
그때 병실로 들어오는 이 선생(30대, 여), 급하게 온 기색이다.

이 선생 (약간 숨차서, 짜증난 투로) 조금 천천히 하시죠, 형사님?
도 형사 (뒤편, 바라보면)
이 선생 (수연 침대 쪽으로 간다. 형사 보며) 이제 막 깨어난 아이를,
보호자 입회도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되죠! 정신적 충격도
크고요. (수연 보며) 하... 다행이다 수연아. 선생님 진짜 얼마나
걱정했는지.

수연, 자기 머리를 어루만지는 이 선생을 물끄러미 본다.
이 선생, 수연의 눈빛에 찢리는 듯 눈길 피하며,
병실 문밖을 본다.
도 형사, 이 선생 시선 따라가보면... 문밖에서 서 있는
규진 모(40대)와 눈이 마주친다.

도 형사 (코웃음) 저기요. 선생님이나 좀 자중하시죠?
이 선생 뭐라고요...?
도 형사 얼마나 다쳤나 피해학생 구경 오신 건 아닐 테고.
이 선생 피해학생요? 무슨 근거로.
도 형사 아니라는 근거는요?
이 선생 (말문 막히지만) 아니, 무턱대고 의심하는 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도 형사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과 유수연이 같은 시각, 근처 정류장을
지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방향이 등산로 쪽이던데.
이 선생 그게 뭐라고... 학원 끝나고 불러서 잠깐 보고 헤어졌다
그러던데요.
도 형사 아. 불러냈구나. 새벽 두 시, 컴컴한 산속으로. 네?

문밖에서 있던 규진 모, 병실로 들어온다.

규진 모 (여유 있게) 됐고. 만에 하나 애들 실수가 있었다면, 애 부모 오면
그때 합의하죠. 애들 일 가지고 무슨.
도 형사 (결국 화난) 그저 돈. 그저 합의... 어떻게, 하실 말씀은 답니까?
그 순간, 뒤편 침대에서 수연, 하이얌- 크게 소리를 내며
찢어지게 하품한다. 다투던 일동, 놀라 수연 바라본다.
하품에 눈물까지 맺힌 수연, 일동 바라본다.

수연 (무감각한 투로) 졸려요.
수연, 그대로 단숨에 쓰러지듯 뒤로 퍽 누워버린다.
이 선생과 규진 모, 얼빠진 채 그 모습 본다. 도 형사, 한숨 쉰다.
뒤이어 병실로 온 의료진, 형사들과 경찰 둘(여청과),
자는 수연 보고 영문 몰라 선다.

#5. 병원/검사실(낮)

수연, 의사 앞에 앉아 있다. 의사, 이것저것 질문해보지만.
수연, 아무 말 없다. 이마에 여전히 거즈와 반창고 등 처치한
흔적 남아 있다.

이 선생(E) 그 후론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6. 학교/교감실(낮)

이 선생, 소파에 앉아 상석에 앉은
교감(50대, 남)에게 보고 중이다.

교감 실어증, 뭐 그런 건가?

이 선생 뇌에 이상은 없어서, 심리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함묵증...

이라고.

교감 (기분 좋은) 한시름 났네. 수고했어요, 이 선생.

이 선생 경찰도 진술 확보를 못 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학생 측이 소송도 학폭위 요구도 없어서. 잘하면 이대로…

(약간의 죄책감. 말 아끼는)

교감 (기색 살피며) 행여 뭐 마음에 걸려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 선생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

교감 (다정한) 이 선생. 그런 소문 한번 잘못 났다간 학교 위상 떨어지고, 학교 어수선해지면 결국 손해 보는 건 누굽니까, 아이들 아릅니까. 그리고, 실수 한번 한 걸로 생기부에 흔적 남기면. 그거 인생의 오점 됩니다? 이 선생, 아이들 위해서 덮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

이 선생 (입술 꼭 문다)

교감 (어깨 툭툭 쳐주며) 학부모들 이 선생 칭찬 자자해. 요번 여름에 연수만 잘 받고 와서 봅시다, 응?

#7. 병원/복도(밤)

수연, 혼자서 링거 밀고 다리를 절뚝이며 병실로 돌아가고 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는 도 형사. 형사1과 전화 통화 중이다.

도 형사 다친 애 아버님이? 답임이랑 만났다고?

형사1(F) 예 근데 뭐, 자긴 할 말 없다고. 바로 다시 나가봐야 한다 했답니다. 날라갔다 와서, 전학조치 밟겠다고.

도 형사 전학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겠다고? …그게 다야?

형사1(F) 병실에도 한번 안 갔답니다. 방치지 뭐… 암튼 딴 팀 일에 왜 끼냐고. 선배님도 그만 들어오시랍니다, 팀장님이.

도 형사, 전화 끊고, 치미는 한숨 푹 쉰다.

도 형사 애가 저 지경인데 씨. (잠시) 아니, 뭐 맨날 말로만 학폭 척결이지!

도 형사, 씩씩히 수연 뒷모습 보다가, 돌아서 간다.

#8. 병원/병실 안(밤)

수연, 병실 침대에 앉아 있다. 링거 줄을 손으로 쓸듯 만져본다. 수액이 흐르는데. 수연, 링거 줄을 목에 한 번, 두 번 감는다. 양 끝을 두 손으로 쥐고, 조금씩 조인다.

일영 죽고 싶니.

수연, 보면 병실 문 앞에 처음 보는 여자, 일영, 서 있다. 일영, 칼로 자른 듯한 단발머리에 감정 드러나지 않는 눈빛으로 수연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 수연의 양손을 잡는다. 그러자 수연의 두 손, 웬지 맥이 탁 풀린다. 일영, 감은 링거 줄 그대로 푼다.

일영 (링거 줄 만지며) 연락해서. 죽긴 힘들겠네. (수액 들어가나 보고) 아마 죽고 싶은 척, 살고 싶은 거겠지. 괜찮아. 다들 그래.

일영, 수연의 침대 옆 창가로 간다. 손도 대지 않은 수연의 저녁 식판이 놓여 있다. 일영, 식판을 살짝 옆으로 밀고 앉는다.

일영 나는 상담가 강일영이라고 해. 너는?

수연 …

일영 말하기 싫으면, 내가 말해줄까? 너는 유수연. 열여섯. 아마 열일곱이 되기 전 죽을 수도 있었던 아이. 오른쪽 이마가, (이마를 쓰다듬으며) 예쁜데 찢어져서 꽤 아까운 케이스.

수연 (거리낌 없는 손길이 거북한, 일영의 손 쳐낸다)

일영 경찰이 연계해준 기관에서 왔어. 너, 애들한테 맞았다며.

수연 (얼굴 일그러진다. 일영 보면)

일영 (죄책감 없다) 많이 맞고, 흠바닥을 기고, 또 맞고… 그러다

수연 옷까지…
 (O.L) 나가.
 일영 말할 줄 아네.
 수연 나가!

일영, 순순히 일어난다.

일영 죽지 말고 나 기다려. 다시 올게.

수연, 일영이 사라진 문을 보며 눈물 한 줄기 흐른다.
 입술을 꼭 깨무는 수연.

#9. 산속(밤)

수연의 꿈.
 수연, 산속을 걷고 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
 그때, 주변 어두워지고,
 사방에서 바스락 바스락, 기척을 숨긴 채 다가오는 발소리들!
 수연, 두려움에 달리기 시작한다.
 아이들 목소리와 웃음소리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
 산책로 계단 쪽으로 뛰던 수연,
 계단을 위태롭게 내려가다 멈추는데…
 계단 저 아래, 추락해 있는 누군가의 모습. 수연 자신이다!

#10. 병원/병실 안(새벽)

눈을 번뜩 뜨는 수연. 얼굴에 땀이 맺혀 있다.
 진정되지 않는 호흡.

일영(E) 죽지 말고 나 기다려. 다시 올게.

#8 일영의 말을 떠올리자, 수연, 점점 진정된다.

#11. 산책로 계단 입구(새벽)

과거.
 밤새 비가 온 듯 젖은 풀과 땅. 일영, 익숙한 듯 조깅하는데
 풀숲 사이 흙과 비로 얼룩진, #2의 흰 운동화 한 켤레가 보인다.
 일영, 이상함에 천천히 가보면 사람들 몇 모여 있고 경찰차와
 구급차 와 있다. 들것에 실려 가는 수연. 찢어진 옷, 손목의 멍
 자국 등을 보는 일영.

현재.
 새벽 조깅하던 일영. 수연이 쓰러져 있던 곳을 보며 서 있다.

#12. 병원/병실 안(낮)

수연, 혼자 가방에 짐 챙기며 퇴원 준비 중인데,

규진(E) 잘 걷는다?
 수연 (놀라 돌아보면)
 규진 (훑어보며) 생각보다 멀쩡하네. 곧 죽을 것처럼 난리 치더니.

규진, 수연에게 다가와 쇼핑백을 툭 침대에 던진다. 쇼핑백에서
 교복이 흘러나온다.

규진 내가 샀어. 원래 건 줌, 못 입게 된 거 같아서.

수연, 교복을 보자 얼굴이 굳어진다. 규진, 수연의 반응이
 만족스럽다.

규진 니 아빠가 담임한테 그랬대. 신경쓰지 말라고.
 (웃는) 그냥 죽지 그랬어.

그때 간호사 들어오면 규진, 바로 떨어져 서서 표정 상냥하게

바쁘다. 규진, 만족한 듯 병실을 나가면,
가만히 복도에서 듣던 일영, 병실에 들어와서
굳어 있는 수연 옆, 침대 위 쇼핑백과 교복을
확 움켜쥐고 나간다.

#13. 병원/로비 층 엘리베이터 앞(낮)

도 형사, 로비 걸어와 엘리베이터 기다린다. 전화 통화 중이다.

도 형사 온 김에 한번 보고 간다는 거죠… (옥한 듯) 가해자들은 멀쩡히
학교 다니고 있다가요! 애가 입을 안… 여는 거 알고, 우리 팀
일 아닌 거 아는데, 퇴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술
시도해보고,

그때 엘리베이터 로비 층에 도착한다. 도 형사, 올라타려다,
급하게 내리는 누군가(일영)와 퍽 부딪히며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떨어뜨린다.

도 형사, 휴대폰 줍고 바깥쪽 보면 이미 엘리베이터 문 닫힌다.

#14. 병원/로비(낮)

로비로 나온 일영. 쇼핑백과 교복 움켜쥔 채 규진을 찾는데,
없다. 결국 멈춰서는 일영, 허탈하게 돌아서면.
집가방을 든 수연, 서 있다.
수연, 절뚝거리며 지나가려 하면 일영, 수연의 손에 들린
집가방을 빼어들고 걷는다.

#15. 병원/병실(낮)

도 형사, 병실 들어서는데 이미 정리된 침대.
간호사가 뒷정리 중이다. 도 형사, 한숨 쉰다.

#16. 수연의 집 앞(낮)

고층의 고급 아파트인 수연의 집.
수연, 현관문 앞에 서면, 일영,
수연의 집가방과 쇼핑백을 옆에 두고 가다, 멈춘다.

일영 분하지도 않니.

수연 (보면)

일영 죽다 살았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지. 개들도, 세상도, 근데, (본다)
너도 마찬가지야.

수연 (표정 어두워진다)

일영 하나도 안 변했지. 그 산속에서나, 지금이나.

괴로운 수연, 일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린다. 남겨진 일영.

#17. 수연의 집/현관(저녁)

수연, 현관에서 경기하듯 잠에서 깬다.
들어온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아 잠들었던 듯.
진정되지 않는 수연. 일어난다.

#18. 옛 동네 계단(저녁)

수연, 낡은 계단을 힘들게 오른다. #2의 얼룩진 흰 운동화.
일영,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간다.

#19. 옛 동네 공터+골목(저녁)

일영, 낯선 공터까지 따라 올라오지만 수연이 보이지 않는다.
수연, 그때 절뚝거리며 어느 골목 안으로 사라진다.
일영, 수연을 부르려다, 골목으로 따라 들어간다.

수연이 사라진 좁은 골목을 걷는데,
수연이 보이지 않는다. 일영, 점점 속도 낸다.
가로등 불빛에 일영의 얼굴, 밝았다. 어두웠다 한다.
일영, 급기야 골목을 거의 뛰듯 헤집는다.
숨이 가빠지는 순간…!
뒤에서 기척을 느낀 일영, 급히 뒤돌다가 누군가와 부딪친다.

정연 아 씨발.

일영, 부딪친 상대를 보고 놀란다. 수연과 얼굴이 똑같은 듯,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다른, 훨씬 날카로운 눈빛과 인상을
가진… 정연이다.

일영 !

정연 뭘 봐. (그대로 굳은 일영을 치고 간다)

일영, 놀라서 멈춰 있다 돌아보면, 정연, 이미 없다!
일영, 몇 발짝 더 가면 골목 모퉁이 옆에 쓰러져 있는 수연!
일영, 수연에게 급히 다가간다.

수연 (깨어난다, 정신이 없는 듯한) …선생님?!

#20. 옛 동네 공터(밤)

동네 전경이 보이는 높은 지대의 공터. 집집마다 불이 켜진
모습. 수연, 동네 전경을 내려다본다.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 모습을 보는 일영.

수연 엄마랑 살던 동네거든요.

#21. 과거. 부촌 골목(낮)

수연 모(30대), 어린 수연(4세)을 매물차게 끌고 가 어느
집 대문 앞에 세워두고 간다. 수연, 달려가 수연 모의 손을
붙잡지만. 수연 모, 손을 확 빼낸다.
수연의 시선 속, 멀어지는 수연 모의 뒷모습.
잠시 후,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선다.
수연 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의 수연을 차갑게 쳐다보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꽁 닫는다.

수연(E) 엄마 임신한 걸 모르고 아버지랑 이혼했대요.
결국 네 살 때, 아버지에게 저를 맡겼어요.

#22. 과거. 옛 동네 집 앞(낮)

어린 수연(8세), 혼자 몰래 온 듯, 벽 뒤에 숨어서
어느 집 쪽을 보고 있다. 그때!
낡은 대문이 열리면서 수연과 똑같이 생긴 어린 정연(8세)
나온다. 수연, 움찔한다.

수연(E) 엄마 혼자 우리 둘을 다 키우긴 힘들었을 테니까. 이해해요.

수연 모, 정연의 옷매무새를 고친다. 밝게 웃는 정연과 수연 모.
수연, 두 사람이 멀어진 골목 쪽을 바라본다. 애달프다.

#23. 옛 동네 공터(밤)

#20 연결.
수연, 일영을 본다. 편해진 표정.

일영 둘?

수연 아버지는 몰랐지만. 우리 쌍둥이었거든요.

수연, 말하다가 골목 안쪽을 본다.
누굴 보기라도 한 듯, 멍한 눈빛으로 읊조린다.

수연 유정연. 제 쌍둥이요.

일영, 수연의 눈빛을 살핀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는 일영.

#24. 등산로 길(새벽)

일영, 조깅하다 멈춘다. 뭔가 생각한다.

#25. 옛 동네 공터(낮)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 자는 정연.
일영, 다가가 정연의 옷을 훑 쳐우면,
눈부서 찡그리는 정연, 오른쪽 이마에 다친 상처가 보인다.
정연, 일어난다.

정연 …뭐냐?

일영 이마. 왜 다쳤니. (일어나는 모습 보고) 다리는.

정연 뭐야 이거. 왜요, 약값 대주시게?

일영 대답해주면. (지갑에서 오만 원권 하나 꺼내 내민다)

정연, 이상한 듯 일영 쳐다본다. 흥미가 생긴 표정의 정연.
돈을 받고 고갯짓으로 일영 뒤를 가리킨다.
일영, 보면 낡은 오토바이 한 대 있다.

정연 뭘데 남 애길 캐고 다니실까.

일영 (지폐 한 장 더 꺼낸다) 수연이 상담가야. 니 쌍둥이, 알지.

정연 (픽 웃고, 돈 받는다) 그 멍청이.

일영 애들한테 맞았어. 죽기 직전까지.

일영, 지폐 한 장 더 꺼낸다. 정연, 또 돈을 낚아채려 하면,
획 거둬가는 일영.

일영 듣고, 도와달라고.

정연, 일영을 쳐다본다. 일영의 눈빛, 냉정하고 단호하다.

#26. 옛 동네 계단(낮)

정연, 걸어 내려가는데, 일영, 달려와 정연 앞에 선다.
정연, 짜증 섞여 쳐다보면,
숨 고르는 일영, 젖혀진 머리칼에 오른쪽 이마의 상흔 잠깐
보였다가 가려진다.

일영 내가 그랬어. 수연이랑 똑같이 당했어.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매일
후회해. (잠시) 상처는 진잔데, 그 후의 모든 건 가짜였어. 피 흘린
건 난데, 용서도 내 몫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반성은 누구 몫일까…
놀랍게도 그것까지 내 몫이었어. 무력하게 당한 후 그 애들과 그
부모들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미칠
듯한 죄책감만 느껴야 했거든.

정연 (비웃는) 다 하셨어요?

일영 수연이를 만나고 알았어. 세상이 변한 게 없다고. 그 애는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정연 거참 안 됐네. 근데 어떡해? 난 별로 공감이 안 되네? (간다)

일영 (건조해진 말투로, 또박또박) 돈 필요하잖아 너.

정연 … 하. (멈추는)

일영 하나 사는 게 낫겠던데, 그땐 굴러가지도 않을 오토바이.

정연 (돌아서 쳐다보면)

일영 흑시나 하고 감정부터 팔아봤는데. (앞장선다) 따라와.

정연, 짜증난다는 듯,
그러나 흥미로운 미소 지으며 일영 뒤를 따라간다.

#27. 수연의 집/거실(낮)

거실에 모인 수연과 정연, 일영.
정연, 꼴렁하게 여기저기 구경한다. 가구들과 창밖 풍경 등.

정연 이 집을 혼자 쓰는 거야? (고까운, 재밌는) 미친.
일영 당분간 둘이 여기서 함께 살면 어떨까.
수연 ?
정연 (수연 반응 보고) 야. 나도 싫거든?
일영 나도 최대한 있을 테니까. 같이 살면서 계획대로 진행해보고 싶은데.
정연 (코웃음) 계획. (리클라이너 소파에 대뜸 눕는) 아 모르겠고. 대체 이런 데 살면서 왜 당하고 사나 모르겠네. (수연 보며) 야 멍청아, 너 이럴 거면 우리 바뀌서 살래? (제 말에 웃는데)
일영 그렇게 살아. 바뀌서.
수연, 정연 (동시에) ?

일영, #12의 쇼핑백을 정연에게 던진다.
정연, 보면 교복 들어 있다.

일영 그게 내 계획이야.

#28. 수연의 집 앞(낮)

현관문 거칠게 닫으며 나온 정연,
엘리베이터 버튼 신경질적으로 누른다.
따라 나온 일영, 정연을 돌려세운다.

정연 아이 씨, 진짜 또라이 아니야 이거?
일영 평생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정연 (어이없어) 나보고 교복 입고 학교 가서, 저 멍청이 자리에 병신처럼 앉아 있어야? 쟀 뭐하는데. 나 대신 오토바이라도 훔쳐?

일영 수연인 곧 전학 갈 거야. 근데 그전에, 대가는 치르게 하고 싶거든.
정연 근데, 내가 왜 이런 개짓거리까지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도착한다. 정연, 올라간다.

정연 흥미 없고. 잘 해봐. 돈 많은 상 명칭이랑,
미친 또라이 선생 둘이서.

엘리베이터 닫힌다. 일영, 작게 한숨 쉰다.

#29. 수연의 집 건물 입구(낮)

짜증나 걷는 정연. 그때 휴대폰 메신저 알림음이 들려온다.
연속으로 떠링, 떠링, 끝없이 울려댄다. 정연, 짜증조로 휴대폰 확인하면, 대화창에 쉴 새 없이 쌓이는 메시지들. ‘야 이거 너냐?’, ‘미친ㅋㅋㅋ’, ‘노출 ㅇ스’ 등 거친 말들.

정연 이것들은 뭘 개소리야.

정연, 대화창 위쪽 동영상 누르면 수연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소리 흘러나온다. “야 찢어 찢어”, “쩍지 마 증거 남아”, “유심 빼서 먹이면 돼” 등 아이들 목소리. 흐느끼며 비는 수연의 소리 등. 정연, 기가 차서 웃는데. 점점 얼굴 일그러진다.

#30. 수연의 집(낮)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일영, 현관문 열면 정연이다.
정연, 문 열리자마자 일영 뒤편의 수연에게 다짜고짜 돌진한다.

정연 (휴대폰 동영상 들이밀며) 야, 이거 너냐?
일영 왜 이래. (막아서듯, 정연 밀치며) 맘 돌려서 온 거 아니었어?

수연, 영상의 정체 알고는 비명 지르며 주저앉는다.
일영, 사태 파악하고 정연의 휴대폰을 뺏으려 든다.

정연 (뺏기지 않으려 발악하며) 똑바로 보라고! 봐야 알 거 아냐!

규진의 독특한 웃음소리를 끝으로 동영상 재생 끝나면,
정적 속, 수연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는다.
화를 못 삭이던 정연, 뭔가 생각난 듯... 일영을 본다.
눈이 빛난다.

정연 이 이상하게 처웃는 애. 만날 수 있나? (싱글거리며)
내가 학교 가면?

#31. 학교/복도(낮)

교북을 입은 정연, 복도를 걸어간다.
가방은 대충 한쪽으로 메고, 지저분한 #2의 운동화 신은 채다.
정연, 웃으며 지나가면. 아이들, 수연인 듯 아닌 듯 이상한
기분 든다.

#32. 학교/교실(낮)

정연, 뒷자리로 가서 가방을 책상에 퍽 올리고 철퍽 앉는다.
아이들 몇몇 돌아본다.

정연 (애들 쪽 보며) 뭘 봐. 이 방관자녀들아.

아이들, 당황한다. 정연, 개의치 않고, 휴대폰 속 동영상 다시
플레이한다. 소리도 줄이지 않은 채. 아이들,
정연의 이상행동을 조마조마 보는데, 영상 속 규진의 웃음소리
나올 때쯤, 누군가 정연의 머리를 퍽 민다.

규진 학교를 진짜 왔어? 야... 내가 다 수치스럽네.

정연, 올려다보면,
규진, 의기양양한 얼굴로 책상 옆에 서 있다.

규진 뭘 봐? (다시 머리 밀고, 그러다 교북 보며) 내가 사준 거 입고
왔어? 한 치수 큰 거 살걸 그랬다. 돼지새끼야 뭐야.
(웃고, 가려고 하면)

정연 너가 사준 거야?

규진 뭐?

정연 혹시. (영상 보여주며) 이 웃음소리도 너야?

규진 이게 씨. (다가오면)

정연 (일어나 규진의 코앞으로 온다) 웃어봐. 똑같이. 소리 내서.

규진 하, 이게 들었다. 또 뭘.

정연, 규진의 웃음소리 듣는 순간 입꼬리가 만면에 무섭게
올라간다. 휴대폰을 주먹 속에 꽉 쥐는 정연, 갑자기 규진
얼굴가로 팔 휘두르면,

CUT TO.

퍽, 둔탁하게 교실 뒤편으로 날아가 부딪히는 규진.
주먹으로 맞은 입가 등 얼굴 몇 군데 터져 있다. 여자아이들의
비명 소리. 정연, 규진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규진의 목 누르고
한 손으론 휴대폰 영상을 찍는다. 정연의 표정, 아주 몰입했다.
폰 내려놓고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정연.

정연 너 아주 희한하게 웃더라?

규진 (버둥거리는, 간신히) 이거 봐. 이게 씨...

정연 (웃음소리 따라하며) 아하, 아하, 아하. 야. 그 개같은 웃음소리
너네 엄말 닳은 거야, 아빨 닳은 거야? 어?

이 선생(E) 니들 뭐야!

정연, 여전히 규진 올라탄 채 재밌는 표정으로 이 선생 쳐다보면, 교실 문 앞에 선 이 선생, 눈 앞의 광경에 당황한 기색 역력하다.

#33. 학교/회의실(낮)

사람 없는 빈 회의실. 이 선생, 정연과 규진을 세워놨다. 입술, 눈썹 등이 터진 규진. 반항적인 눈빛의 정연.

이 선생 유수연. 대체 뭐하는 짓이야.
정연 유수연. 하. 유수연. 그러게, 대체 뭐하는 짓일까, 내가.

정연, 피신포실 웃으며 규진 본다.

정연 넘어가지?
규진 뭐?
정연 너도 대가리에 생각이 있을 거잖아. 방금 몇 대 맞았어? 한, 세 대?
규진 (일그러지는, 당황한) 뭐라는 거야, 이 미친 게 진짜!
정연 마흔다섯 대. (잠시) 너랑 애새끼들이 그날 밤 산에서 펜 횃수.
(머리를 찌르며) 여기랑, (얼굴) 여기랑, (배) 여기랑, (가슴) 여기.
또...
규진 (O.L) (당황해서) 아 됐다고! (이 선생을 한심하게 보며)
에이 씨...

규진, 멋대로 나가고 나면,
정연, 이 선생을 비웃고, 따라 나가려 하는데.

이 선생 넌 누가 나가래? 이 자식이 근데.
정연 (바로 핵 돌아오며) 언제 봤다고 이 자식 저 자식이야 씨.

정연, 점점 다가오고. 이 선생, 정연의 기세에 당황해, 살짝 물러난다.

정연 알아. 선생질도 힘들겠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밥줄 끊기니까.
이 선생 ?!
정연 그냥 좀 버티면 될 일 같지? 애새끼들 지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연, 책상에 있던 펜을 주먹으로 쥐어 든다.

정연 유수연은 어쩔 것 같아요?
개도 버티면, 지나면... 좋은 날 올 것 같아?
이 선생 ...안 물러나?
정연 내가 밥줄은 못 끊어도. 뭐라도 들고 가서, 목숨줄 같은 거 끊어도요.
이 선생 !
정연 (살기에 가까운 눈빛) 할 말 없다고 넌 이제. 알아?

이 선생, 입 떡 벌어진 채 할 말 잃고 정연을 본다.
정연, 펜을 툭 던지고 피식 웃으며 나간다.
웃음 가신 뒤엔 더욱 이성 잃은 얼굴.

#34. 학교/교실(낮)

정연, 수업 중인 교실로 성큼성큼 들어온다.
곧바로 규진의 자리로 가서, 옆의 창문을 연다.

선생1 야, 뭐야?

정연, 규진의 가방을 집어 와르르 내용물을 쏟는다.
운동장으로 난 창밖으로 물품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집어던진다. 책, 파우치, 휴대폰 등... 규진,
기가 막혀 보고 있다.

선생1 암마!

규진, 일어나 정연의 머리를 치면, 정연, 바로 규진의 뺨을 날린다. 선생I, 다가오면 정연, 창가 화분을 선생I 발 앞으로 집어던진다. 깨지는 화분. 정적.

정연 (규진 보고 씩 웃으며) 기분 좋아. 씨.

정연, 마지막으로 규진의 빈 가방을 창밖에 집어던지고 나간다.

#35. 옛 동네 공터(낮)

정연, 먼저 와 있던 수연과 마주친다.
정연, 신경쓰지 않고 벤치로 가서 벌렁 드러누워 눈 감는다.
수연, 그런 정연을 잠시 보다, 가려 하면.

정연 야, 멍청아. (휴대폰 꺼내주며) 선물.

수연, 쭈뼛거리며 와서 휴대폰을 받아 들면
정연, 도로 눈 감는다. 내심 기분 좋은 표정이다.

#36. 수연의 집/수연의 방(낮)

수연, 침대 아래에 앉아 휴대폰을 본다.
#32의 정연이 규진의 목을 조르며 찍은 동영상이다.
수연, 폭력적인 영상이 끔찍하다.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
그때, 일영 들어온다.

#37. 옛 동네 공터(늦은 오후)

정연, 저번처럼 벤치에 누워 옷 덮고 자고 있다.
일영, 와서 정연의 옷을 치운다.

일영 목을 조르고, 영상을 찍어.

정연 (픽 웃으며) 봤어?

일영 품행장애. 충동이 제어가 안 되겠지.

정연 어찌라고. 개 목줄 풀 땐 물릴 각오도 했어야지.

일영 맘대로 해.

정연, 의외라는 듯 일영을 본다. 담담한 일영의 표정.
재밌는 정연.

일영 대신 수연이한테선 선 지켜. 그 아인 너랑 다르니까.

정연 (비웃는) 잔소리는... 아, 근데 전학 그냥 안 가면 어때?

일영 (보는)

정연 내가 계속 학교 다니게. 내가 오늘 아주 재밌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사고를 쳐도, 다 그 멍청이가 한 줄 알겠더라고?

일영 (잠자코 듣다가) 정연아.

정연 ?

일영 겁주고, 패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사과받는 거거든.

정연 (비웃는다) 순진하게.

일영 그러기 위해선 수연이가 좀 더 회복해야 돼. 넌 딱 그때까지만 존재 할 뿐이야. 그리고 수연이...

정연 (웃음기 사라진)

일영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너보다 훨씬 강한 아이거든.

정연, 기분이 더럽다. 그대로 일영을 뺨 지나간다.

일영, 태연하게 미소 짓는다.

#38. 거리(밤)

정연, 길을 걷는데 편의점 바깥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
그 옆으로 살짝 지갑 보인다.

정연, 지갑에 손대는 순간. 탁! 누군가 정연의 손목을 잡는다.
도 형사다.

앉아 있던 손님들, 그제야 "뭐야?" 하고 보면

도 형사, 자연스럽게 정연 손에서 지갑 빼서 테이블에 올린다.

도 형사 바닥에 떨어졌네요. 잘 챙기시지. (그제야 정연 보고) …유수연?

정연, 도 형사를 보고 찡그리면,
도 형사, 순간… 정연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느낌을 받는다.

도 형사 나 못 알아봐? 경찰. 병실에서 봤었는데.

정연, 대답 없이 서 있다가 짜증난 듯 도 형사의 손을 책
뿌리치고 걷는데.

도 형사 유수연!

정연, 짜증난다. 결국 멈춘다.

#39. 식당 안(밤)

사람이 별로 없는 설렁탕집.
도 형사, 퍽퍽 먹고 있다. 그 앞에 정연, 그냥 앉아 있다.
도 형사, 정연의 손에 숟가락 쥐여준다. 정연, 짜증 참고,
숟가락으로 국물 휘젓는다.

도 형사 맛있어. 먹어봐.

정연 (심드렁한)

도 형사 여전히 말을 안 하네. (애써 밝게) 학교는, 다니고 있어?

정연 …

도 형사 (한숨) 저기, 학폭위라도 열면 어떨까. 네가 전학가기보단. 개들도
알아야지! 잘못하면 대가 치른다는 거. 물론 니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정연, 도 형사를 빤히 쏘아본다.

도 형사, 정연의 낮선 눈빛을 보는 순간,
스스로 좀 한심한 느낌. 미안한 감정 든다.

도 형사 (지갑에서 명함 꺼낸다) 무슨 일 있음 전화해.

정연 (안 받는다)

도 형사 도와줄 사람, 도와줄 어른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정연, 말을 끊듯 명함을 툭 받고 일어나 나간다.

도 형사, 정연의 뒷모습 보고 있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40. 수연의 집/거실(밤)

정연, 빛나는 눈으로 양주 진열대를 쪽 훑고 있다.
그 모습을 조용히 보는 수연.

정연 (양주들 보며 혼잣말) 도와줄 사람. 도와줄 어른. 좋아해요.

수연 (조용히 혼자 되풀이) 어른…?

정연 (수연 보며) 명청아. 넌 (양주들 가리키며) 마셔봤냐?

수연 (고개 저으면)

정연 이런 혜택을 안 누릴 거면 넌 여기 왜 사니? (늑아채듯 어깨동무
하며) 오늘 증명하자.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41. 수연의 집/주방(밤)

아일랜드 식탁 위, 빈 양주병 두어 개. 유리잔 대신 그냥 머그컵.
구색 없이 꺼내먹은 과자봉지.
얼음 담은 볼, 치즈 포장 껍질 등 굴러다닌다.
수연, 취한 듯 고개 숙인 모습.
그 앞에서 재밌다는 듯 웃는 정연, 역시 취해 있다.

정연 야. (수연의 고꾸라진 머리 툭툭 치며) 명청아. 크크크.

수연 (고개 숙인 채로) 엄마 보고 싶어.

정연 에이 씨... 야. 너 그냥 말하지 마.
수연 (고개 숙인 채로) 엄마랑 지낸 너가 부러워.
정연 야, 생각해봐! 엄마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너 버린 사람 아냐?
수연 (고개 들고) ...씨발.
정연 (얼씨구? 웃겨서) 너 지금 뭐하냐?
수연 (덩달아 웃으며) 난 욕해도 웃겨? 넌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되게 어울리잖아. (정연 표정 따라하며) 이 멍청아.

정연, 어이없다. 그때 수연, 식탁에 머리 고꾸라지는 찰나,
정연, 반사적으로 수연의 머리 한 손으로 받친다.
아직 밴드가 붙은 오른쪽 이마.
정연, 수연의 고개를 반대로 돌려 식탁에 내려놓고,
취한 눈으로 수연을 본다.

정연 욕이... 되게 어울리는 건 뭐야. 그게 욕이다 이 멍청아.

#42. 옛 동네 공터(밤)

일영, 올라오면,
수연,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수연 죽으면 엄마한테 갈 수 있을까요.
일영 죽으면 그냥 끝이야, 미안하지만.
수연 애들이 왜 나 때렸는지 궁금했어요. 왜 내가 죽이고 싶게 미운지.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대요.
일영 이유 같은 거 없으니까 찾을 필요 없어.

수연, 또다시 눈빛이 변한다.
허공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듯 멍한 눈빛.

수연 정연이요, 나보다 엄마 더 닮았어요. 개는 모르겠지만.
일영 모르겠어. 내 눈엔 너희는 그냥 한 사람 같은데.

수연 (느려진 말투. 꿈꾸듯 속삭이는) 나는 알아요. 걔 자세히 봤거든요... 만약 내가 엄마 더 닮았다면. 엄마가 날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영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엄마는 더 믿는 아이를 보냈을 수도 있어.
수연 (그 소리에 정신 갠 듯. 일영 바라본다)
일영 엄마가 곁에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더 용감한 아이를.

수연, 일영을 본다. 용기가 생긴 표정이다.

수연 저도 선생님처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일영 (보면)
수연 (용기가 생긴) 진짜 사과를 받고 싶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영,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수연 바라본다.

#43. 상담실 안(밤)

심리 전공서적이 가득한 상담실. (#81의 상담실과 같은 공간)
책상 위에 스탠드와 노트북, 각종 프린트물, 아이들의 인적사항, 전공서적들이 있다. 일영,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반복해서 수연의 폭행 동영상을 본다. 순간, 화면 정지시키면 한쪽 구석에 식별할 정도의 얼굴! 찰나지만... 규진이다.

#44. 수연의 집/거실(아침)

정연, 소파에 아직 잠들어 있다.
교복을 입은 수연, 정연을 보고 열게 미소 짓는다. 집을 나선다.

#45. 학교/복도(낮)

수업 중인 듯 조용한 복도. 수연, 긴장한 표정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 이 선생이 보인다. 수연, 급히 숨으면, 이 선생,
교감실로 들어간다.

#46. 학교/교감실 안+밖(낮)

교감과 규진 모, 대화 중이다. 들어온 이 선생, 목례하고 앉는다.

규진 모 (불쾌하단 듯) 애가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는 줄도 몰랐네요.
교감 저희도 설마 했죠! 안 나와도 된됐는데. 미처 알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이 선생 (교감 눈치에) 죄송합니다.
규진 모 한창 예민한 나이에, 이러다 규진이 성적이라도 떨어지면요.
교감 성적이 떨어지다뇨! 유전자가 우월한데.
규진 모 아무튼. (이 선생 보며) 끝이 영 깔끔하지가 못하시네요.

교감, 진땀 빼며 이 선생 보던
이 선생, 멍하니 생각하고 있다.

플래시백.
#33. 학교 회의실(낮)

정연 유수연은 어떨 거 같아요? 개도 버티면, 지나면...
좋은 날 올 것 같아?

교감, 이 선생 옆구리를 푹푹 친다.
이 선생, 고개 푹 숙였다가 말 잇는다.

이 선생 금방... 수일 내로 전학 갈 겁니다.

교감실 밖, 듣고 있던 수연, 웬지 토할 것 같다. 입을 막고
복도를 걸어간다.

#47. 학교/화장실(낮)

화장실에서 나오던 규진. 급히 들어오는 수연을 보고
살짝 움찔했다가, 빈칸으로 들어가는 수연을 본다. 웅 웅,
헛구역질하는 소리.

규진 하. 가지가지 한다...

규진, 인상 찌푸리며 가려다가, 웃으며 다시 돌아본다.

CUT TO.

힘없이 화장실 칸에서 나오던 수연. 퍽! 뭔가에 맞고 쓰러진다.

#48. 수연의 집(저녁)

정연, 잠에서 깬다.
조용한 집 안. 하품을 찢어지게 하고 휴대폰 보면
메시지 와 있다.

수연(E) 오늘은 내가 학교 갔다 올게.

정연, 얼씨구? 찌푸리다가, 창밖 보면 이미 저녁이다.
다시 눈 감으려다 뜨는 정연.

#49. 학교/교실(밤)

정연, 교실 문 열어보는데 아무도 없다. 다시 발걸음 옮긴다.

#50. 학교/화장실(밤)

정연, 화장실 칸을 다 열어보는데 아무도 없다. 나가려다가,
달힌 청소비품칸을 본다. 정연, 다가가 열면...

수연, 의식 없이 찌그러지다시피 떨어져 있다.

#51. 대학교 복도(밤)

일영, 복도에서 누굴 기다리듯 서 있다.
간혹 대학생들만 몇 지나가고 인적 없다. 일영이 서 있는 복도
끝 문. '교수 오영숙' 네임태그 붙어 있고 부재중 표시되어 있다.
일영, 손에 출력한 사진을 한 장 들고 있다.
그때 복도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규진 모.
일영, 다가가려는데, 전화 온다.

정연(F) 내가 이따위론 안 될 거라고 했지?
일영 무슨 일이야.

일영 앞까지 다가온 규진 모. 일영, 외면하면,
규진 모, 사무실로 들어간다.

정연(F) 이제 나 막을 생각 마요. (전화 끊는)

일영, 사진(규진의 캡처를 인화한)을 쥐 손에 힘이 들어간다.
복도를 걸어나간다.
빈 복도에 구겨진 채 남겨진 사진.

#52. 규진의 집 앞(저녁)

규진, 집 대문으로 들어서려는데, 휴대폰 메시지를 받는다.
보면, 폭행영상 속, 규진이 순간 찍힌 걸
정확히 캡처해서 보낸 사진. 이어 메시지 온다.

정연(E) 내 영상 말이야. 니 부모는 봤니? 선생은? 경찰은?
규진 (놀라) 이 미친년이... 진짜 약을 처먹었나.

규진, 대문에서 급히 몇 발짝 떨어져선, 바로 전화 건다.
정연 받는데, 규진, 한 마디 할 틈도 없이 정연,
빠르게 쏘아대는 목소리.

정연(F) 개짓거리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와. 안 그럼 1분 내로 전부
발송할 거니까. 네 부모, 선생, 경찰, 니네 엄마 교수질하는 대학,
니네 아빠 까고 싶어 안달 난 방송국까지. 재밌겠지? (끊어버린)
규진 (불안한데 애써 웃는) 그때도 병신처럼 말도 못 했으면서.

그때 규진 휴대폰으로 전화 온다. 발신인 '엄마' 뜬다.
규진, 순간 긴장한다. 전화 받지 못한다. 전화 끊기지만,
바로 또 온다. 규진 얼굴에 당혹스러움 번지고, 그때 다시
정연으로부터 메시지 온다.

정연(E) 어때. 니 엄마가 뭐래?

#53. 수연의 집(저녁)

일영, 집에 급히 들어오지만 아무도 없다.
방방마다 다 확인하는 일영. 심상치 않은 표정,
다시 집을 나선다.

#54. 산책로 계단(저녁)

드문드문 불이 켜진 산책로. 규진, 계단을 씩씩대며 올라간다.

규진 유수연. 넌 오늘 내가...

순간 규진의 백팩을 잡아채는 손! 규진, 불시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간다.

#55. 산책로 공터(저녁)

규진, 눈을 뜨면 산책로 근처 후미진 공중화장실 뒤편 공터다.
청테이프로 감긴 입, 손목은 뒤로 묶인 채 모로 누운 규진.
끌려온 듯, 다리와 팔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다.
정연, 그 앞에 턱 괴고 앉아 있다.

정연 오래도 처자네. 여기 기억나?
규진 (테이프 때문에 거의 읊읍 소리로 들리는) 미친! 풀어! 악!
정연 아. 등산로 입구에 CCTV 생겼더라? (픽 웃고) 너 때문이잖아.

정연, 혼자 휴대폰 속 사진을 넘겨본다. 규진의 사진이다.

정연 (씨익 웃는다) 내가 너 잘 때 사진 좀 찍었어.
규진 뭐?
정연 학교에 확 뿌리면 어떤 반응일까?
규진 (화가 나서 눈물 맺히며) 너... 가만 안 뒤!

규진, 점점 두렵다. 버둥대지만 소용없다.
정연, 악 쓰는 규진 보며 재밌다는 표정.
가져온 투명한 페트병을 흔들어 보인다.

정연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너 딱 한 방울만 먹어도.

정연, 규진의 입에서 거칠게 청테이프 뜯어내고,
입 억지로 벌리려 드는데
규진, 놀라서 입을 필사적으로 다문다!
정연, 거칠게 규진의 입 벌려 페트병 속 액체를 들이부으면
규진, 필사적으로 뱉어낸다. 웁웁, 눈물에 헛구역질이 나도록.
정연, 재밌어 웃는다.

정연 그냥 물이야 병신아! (낄낄 웃으며) 아 웃겨. 미치겠네.

규진 (겁에 질려, 오열하며) 나한테 왜 이래! 왜, 왜 나한테만!
정연 뭐래, 이제 와서. 넌 왜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뭘 했다고.

정연, 후- 숨 한번 쉬고 또 하나 페트병을 가져온다.

정연 어때, 이것도 물인 거 같아?

#56. 옛 동네 공터(저녁)

일명, 공터에 도착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장소!

#57. 산책로 공터(저녁)

정연, 규진 주변을 빙 돌면서 규진의 주변에
물을 조금씩 붓는다.

정연 세상에. 이렇게 투명하고, 보기엔 그냥 물인데, 위험한 게
많거든. 안 궁금해? 이걸 내가... 공사판에서 주웠는지,
인터넷에서 사왔는지.

규진 잘못했어! 다신 안 그렇게!

규진, 다급하게 빌며 정연 본다.
정연, 숨넘어가게 깔깔대다가, 규진 본다.

정연 그럼 이렇게 하자. 저쪽 계단으로 도망가. 지금.

규진 뭐?

정연 도망가면 사진도 지워주고, 오늘 일 없던 걸로 해줄게. 어때?
규진 (무서운, 분한) 유수연...!

정연 (홍분한 채, 웃음 꼭 참고) 뭘 일 나면, 구급차는 꼭 불러줄게.
니들은 내가 죽든 말든 토졌지만 난 너 죽게는 안 해.

규진 (흐느끼는, 계단 쪽을 보는)

#58. 산책로 계단(저녁)

일영, 산책로 계단 입구에 도착한다.
계단을 올려다보고, 급히 올라가려는데.
정연, 계단 위에서 내려온다. 멈추는 일영.

정연 왔어? (내려오는, 웃느라 흥분한) 왜 이렇게 늦게 와. 진짜 웃겼는데!

일영 올려다보면, 계단참에 누군가의 형체.
규진이 팔이 뒤로 묶인 채, 쓰러져 있다!
일영, 놀라서 규진에게 다가가려다가... CCTV를 보고 멈춘다.
다가가면 찍힐 범위.

정연 (기세등등한) 사과도 받아냈고. 신고도 했어 내가.
일영 (기막힌, 골치가 아픈) 수연이는, 어딴어.
정연 유수연 피해 안 가게, 내가 했다고 다 불 테니까. (픽 웃고) 걱정 마요. 잘 해볼게. (다가와서, 꺾꺾 눌러 말한다) 내가, 내 힘으로.

일영, 정연을 보는 혼란스러운 표정.
잠시 후, 사이렌 소리 가까워진다.
그때 규진, 아직 의식이 있는 듯 신음하는 것을 일영, 본다.
일영, 묘책이 떠오르는 듯, 정연을 본다.

일영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정연, 삐죽 입을 한번 내밀고 웃으면.

#59. 경찰서/복도(밤)

도 형사, 급하게 복도를 걷는다.

도 형사(E) 누구요? 유수연이, 뭘 했다고요?

#60. 경찰서/조사실 밖(밤)

도 형사, 급히 오면, 서 팀장, 와 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표정 태연하다.

서 팀장 그때 그 등산로라며, 너 불러달랬다던데.
도 형사 (한숨, 잠시 생각하다) 말을 했대요? 말 못 했었는데.
서 팀장 (반응이 어이없어, 보며) 단순 사고 절대 아니라고 부모가 신고했어.
도 형사 ...그렇다고 미성년자를 보호자도 없이 이 시간에 잡아둘 수는 없죠.
서 팀장 (의외의 반응에) 얼씨구?
도 형사 (묵묵, 시선 피하면)
서 팀장 그니까 왜 니가 설쳐서 일 만들어? 여청과로 이참에 보내줘? 하여간.

도 형사, 유리창 너머 정연과 눈 마주친다.

#61. 경찰서/조사실(밤)

서 팀장과 도 형사, 들어온다.
도 형사, 정연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진술서를 본다.

도 형사 (조용히, 서 팀장을 의식해) 수연아.
정연 (뻔뻔하게 바라보며) 저 할 말 없는데요.
서 팀장 저, 유수연 학생.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면 득 될 게 없어.
정연 피해자 측 깨어나면 합의하고 싶은데요. 아마 합의해줘야 될 거고.
도 형사 합의... 합의하겠다...
정연 (고개 숙인다, 순간 못 참고 피식 웃는)

도 형사, 정연의 웃음을 혼자 포착한다.

#62. 경찰서/로비(밤)

정연, 형사1과 나온다. 형사1,
전화를 받으러 잠시 멀어지면 혼자 남는 정연.
일영, 기다렸던 듯 정연에게 다가온다.

정연 (고개 숙이고 웃는) 사람들 진짜 재밌어. 겨우 이 정도로,
이젠 이규진이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요. 개가 불쌍해요?
내가 잔인해?

일영 (듣고 있는)

정연 인간들 진짜 뭘 보고 사는 걸까? 다들 눈깔이 거기까진데.
(픽 웃고)

일영, 정연을 본다.

정연, 웃음 뒤편, 북받치는 눈물을 겨우 참고 있다.

정연 나 실패한 것 같아요. 개들... 다시 잘 살 거 같죠? 웃을 일 있음,
웃어가면서.

일영, 마음이 아프지만 꼭 참고 정연의 오른쪽 이마 위를
쓰다듬는다.

일영 천천히 나와. 기다릴게.

일영, 유리문을 나가 주차된 차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정연, 일영이 나간 유리문을 바라본다.

#63. 경찰서 앞 계단(밤)

정연과 형사1, 경찰서 앞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규진 모(E) 이 악마 같은 년!!

정문 쪽에서 달려온 규진 모, 정연을 세게 밀친다! 넘어지는
정연. 밖으로 나오던 서 팀장과 도 형사 일행, 소동 말린다.
도 형사, 할 말 잃고 본다.

규진 모 니가 감히! (밟고 차며) 왜 내보내! 이거 살인미수야!

정연 아줌마. 웃어봐요.

규진 모 뭐...?

정연 (일어나 코피 문지르며) 아줌마 딸. 누구 닮아 그렇게 웃나
궁금했거든. 남의 인생을 조져놓고도 정말 잘 웃더라고.

규진 모 이... 이 싸이코 같은 게. (다시 치려 하면)

정연 아줌마 딸년이요! 내가 그냥 재수없대. 내가 그냥 건방지대!

도 형사 (끼어들며) 그래서. 괴롭힘당했어? 그날 산으로 끌려갔어? 유수연!

규진 모 (진술 시작되자 다급한) 너, 너! 죽어. (달려들면)

정연 (되려 밀쳐 넘어뜨리고) 아 대충 합의금 먹고 떨어져요! 애들 일
가지고 무슨. (피식피식 웃는)

도 형사, 정연 몸 거칠게 돌려세운다.

정연, 독기 어린 눈빛. 줄줄 흐르는 코피를 아무렇게나 문질러
얼굴이 피투성이다.

도 형사 유수연.

정연 에이 씨! 그놈의 유수연, 유수연. (똑바로 보며) 그렇게 찾는
수연이는 지금도 산책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멍청한 년
이름을 자꾸 나한테 불러대면, (확 일그러뜨리며) 열받잖아.

도 형사 ...뭐?!

정연 저 복수해도 된됐는데? 내 나이 뎨 그렇게 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쿵 웃고) 자기는 내 나이 때 못 그런 게 한이래... (점점 악 쓰며)
그래서! 나 괴롭게 한 년들 다 잡아 죽이자고! 그렇게 말했다고!

규진 모 (발악) 누가아아!

정연 (눈 매섭게 뜨며) 내 상담 선생님이.

정연, 시선을 주차장 쪽으로 휩 돌린다. 형사들, 일제히 정연의 시선 따라가면, 주차된 차 속에서 차량 한 대 급하게 경찰서를 빠져나간다!

규진 모 (다시 달려들며) 다 들었지! 이거, 살인교사야! 살인교사!

도 형사, 정연 본다.
정연의 신경증적인 표정. 시시각각 경련하듯 바뀐다.

#64. 차 안(밤)

도 형사, 운전하고, 서 팀장, 조수석에서 전화 통화 중이다.

형사1(F) 상담가고 뭐고, 전혀 모르는데요. 연계해준 적 없답니다.
서 팀장 일단 우린 병원으로 가볼 테니까, 등산로 근처 CCTV 확보해.

서 팀장, 전화 끊고는 가웃한다.

서 팀장 차도 전혀 딴 사람이고, 근데 분명 애가 그 순간에 차를 봤단 말이야...

도 형사 피해자 의식은요?

서 팀장 큰 문제 없다니까 곧 깨어나겠지. 일단 가보자고.

도 형사 (생각하다가) 우리가 등산로로 가죠.

서 팀장 왜?

도 형사, 뭔가가 계속 걸리는 표정. 결심한 듯,
급하게 차를 돌린다.

#65. 산책로 계단(밤)

도 형사와 서 팀장의 차량, 계단 아래에 선다.
도 형사, 차에서 내려 걸어와서 입구의 CCTV 카메라 발견한다.

정연(E) 그렇게 찾는 수연이는 지금도 산책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멍청한 년 이름을 자꾸 나한테 불러대면, (확 일그러뜨리며) 열받잖아.

도 형사, 빠르게 계단을 올라간다.

서 팀장 (내려서) 하 저 새끼 저거. (반대편 관리사무소 쪽 본다)

#66. 산책로 공터(밤)

도 형사, 급하게 공터에 올라오는데, 아무도 없고 고요하다.
그때 전화 울린다.

형사1(F) 의식 찾았습니다. 자세히 진술할 상태는 아니고요. 근데 그...
유수연 혼자가 아니었다? 합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도 같고.

도 형사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었다?

#67. 병원/병실+복도(밤)

규진, 누운 채 분해서 눈물을 줄줄 흘린다.

규진 부, 침통하고 약오른 듯한 모습.

형사1, 전화하면서 병실을 나온다.

형사1 주변 애들도 오늘 여기저기서 테러 비슷하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규진의 휴대폰 보며) 뭐 찢리는지, 다들 신고는 못 했고요.

#68. 산책로 계단(밤)

도 형사, 통화하며 계단을 내려온다.

형사1(F) 근데, 이런 것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때 봤고.

도 형사, 그 말에 곰곰 생각하면,

플래시백.

#38. 지갑에 손을 대던 정연.

도 형사, 골치가 아픈 표정. 그때 올라오던 서 팀장과 마주친다.

서 팀장 야, 산책로 입구 CCTV 받았는데. 애가 왜 이래?

도 형사, 서 팀장의 휴대전화 본다.

인서트.

전송된 CCTV 속 화면.

산책로 계단을 오르는 정연. 잠시 후, 규진이 계단을 올라간다.

잠시 후, 규진이 계단을 구르면 따라 내려온 수연.

울면서 풀어줬다가, 막 배 잡고 깔깔 웃으면서 멀어졌다가,

계단에 걸터앉아 구경하다,

규진 주변 빙빙 돌다가... 등등의 모습.

점점 심각해지던 도 형사, 갑자기 뭔가 확 감이 잡힌 듯!

다시 전화에 대고 말한다.

도 형사 여러 사람처럼 '말했냐'고 물어봐 줘!

형사1(F) 예...? 아 잠시만요. (잠시) 그랬답니다! (밧기 힘든)

여러 사람처럼...!

도 형사, 믿을 수 없는 듯, 탄식 나온다.

휴대폰을 쥔 손을 떨어뜨린다.

도 형사 유수연이... 아니에요.

서 팀장, 뭐? 놀라서 CCTV 화면을 다시 들여다본다.

도 형사, 허탈하게 계단을 둘러보면,

장면이 펼쳐지며...

#69. 산책로 계단(저녁)

규진, 계단 위에 쓰러져 있다. 급히 다가오는 수연.

수연 (울면서, 묶인 손 풀어주며) 왜 그랬어. 왜. 나도 힘들었는데.

규진 살려줘... 잘못...

수연 (눈물 닦으며, 풀어주는 손을 떠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제.

규진, 다친 얼굴로 수연을 올려다본다. 눈 마주치는 순간!

발작하듯 표정 돌변하는 수연! 정연이처럼 거친 눈빛과

말투로 바뀐다.

수연2(정연) 씨발. 이 멍청이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뭐 너를 살려주네 마네.

정연의 인격으로 변한 수연, 일어나 비웃으며 규진을 내려다본다. 뒤로 물러나서 작은 돌을 주워 규진에게 투척 장난처럼 던진다.

수연2(정연) 미안한데, 나는 수연이가 아니라 정연이야. 그러니까 수연이 불러도 소용없어. 그냥 똑같이 조지는 내가 낫지 않아? 위선 안 떨고?

규진 (의식 희미한) 제발... (수연에게 기어오는)

기어오는 규진을 보던 수연, 다시 한 번 발작하듯 고개를 뻗 뒤집는다! 천천히 다가와 규진 앞에 쭈그리고 앉는 수연. 조금 전과 달리 차분하고 냉정해진 눈빛이다.

수연3(일명) 안녕. 나는 수연이 상담가 강일영이라고 해.

탈진한 규진, 의식 희미한 채 손을 뻗으면
수연, 규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규진,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수연을 본다.
일영의 얼굴과 혼동되어 보인다.

수연3(일영) 살고 싶니?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죽어가거든.

#70. 경찰서/조사실(밤)

도 형사와 수연, 마주 앉아 있다.
수연, 처음엔 주눅 들어 울다가,
이내 정연처럼 사악하게 킬킬 웃었다가…
순식간에 일영처럼 냉정하고 무표정해진다.

도 형사(N) 유수연. 유정연. 강일영. 그건 모두, 수연이었다.

#71. 과거. 몽타주

- 병실, 링거 줄을 훑는 수연.
- 교실, 규진의 목을 조르는 동영상을 찍는 정연.
- 병원, 쇼핑백을 움켜쥔 일영.

도 형사(N)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온 유수연은 극도의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고, 그날 산속에서의 밤 이후,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불러냈다. 냉철하고 똑똑한 20대 후반의 심리상담가, 강일영.
그리고 훨씬 거칠고 폭력적인 성격의 쌍둥이, 유정연.

- 수연, 목을 감았던 링거 줄을 직접 풀고 있다.
- 수연, 규진의 책을 집어던지고, 선생 앞에 화분을 깬다.
- 수연, 옛 동네 골목을 절뚝거리며 걷는 뒷모습.
돌아보면 다른 분위기의, 정연이다.

도 형사(N) 그건 모두 유수연의 환시였고
산산조각 난 영혼이자, 유수연의 다른 자아였던 것이다.

#72. 병원/진료실(낮)

수연, 가운을 입은 의사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의사 요즘은 어때요?

수연, 대답 없다. 무심한 표정. 책상에 종이 두 장을 꺼내놓는다.

도 형사(N) 유수연은 이규진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땐…

#73. 병원 입구(낮)

병원 입구로 걸어오던 도 형사, 병원을 나오던 수연과 마주친다.

도 형사 수연아.

수연 …

도 형사 (밝게, 수첩을 손바닥에 툭툭 치며) 검사 받으러 왔어?

수연 …

도 형사 다시 말을 안 하네.

수연 (그냥 가려는데)

도 형사 힘들었을 거야. 그치.

수연 (멈추는)

도 형사 어른이 필요했고, 또래가 필요했고, 그것뿐이었잖아. 힘들었을
거야. 근데… 결국 아무도, 아무 도움도 못 되고, 널 혼자 뒀으니까.

수연, 도 형사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뗀다.

수연 유학… 가기로 했어요.

도 형사 (고마운, 웃는) 그래.
수연, 담담히 도 형사를 지나서 간다.
도 형사, 그 모습에 착잡하고 홀가분한, 복합적인 감정이다.
이내 병원으로 들어간다.

#74. 거리(낮)

걸어가는 수연의 뒷모습. 수연, 멈춘다.

#75. 병원/복도(낮)

도 형사, 병원 복도를 걸다가,
복도 저편, 정신의학과 표지 눈에 띈다.
도 형사, 그쪽으로 간다.

#76. 거리(낮)

길에 멈춰선 수연 옆, 나란히 차 한 대가 선다.
운전자는 나오지 않는다.
조수석에 올라타는 수연. 차 출발한다.

#77. 병원 입구(낮)

급히 병원 밖으로 뛰어나오는 도 형사. 종이 두 장 손에 쥐고 있다. 조금 전 수연이 갔던 방향으로 마구 뛰는 도 형사.

#78. 거리(낮)

도 형사, 지쳤는지 손으로 무릎을 짚고 고개 숙인 채 숨 몰아쉬다. 두리번거리지만 수연은 어디에도 없다.
도 형사, 종이 두 장을 다시 본다.

인서트.
상담센터 안.
의사와 도 형사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도 형사에게 종이 두 장 건넨다.

의사 수연이가 만든 몽타주예요. 경찰과 함께 만들었다던데요.

현재.
길에서 몽타주 그림 보는 도 형사.

의사(E) 쌍둥이 인격은 당연히 얼굴이 같겠지만. 20대 여자도 꽤 얼굴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이마 위에, 상처까지.

수연을 빼닮은 정연 몽타주를 넘기면,
차가운 무표정, 칼로 자른 듯한 단발머리의 20대 후반 여자,
일영 몽타주 보인다.

도 형사(E) (확신한 듯) 있었어!

#79. 공항 주차장(낮)

수연, 조수석에서 내린다. 이어 운전석에서 내리는 여자(얼굴 전체는 나오지 않는다). 칼로 자른 듯한 단발머리가 어깨 위에서 찰랑댄다.

#80. 거리(낮)

#78 연결.
도 형사, 이마를 짚은 채 일영의 몽타주를 자세히 본다.
다시 모르겠다는 표정... 기억을 쥐어 짜내려는 듯 찡그린다.

도 형사(N) 있었을까, 정말...?

플래시백.
#9. 병원 로비 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로비 층에 도착하고, 도 형사 올라타려다,
급하게 내리는 누군가와 퍽 부딪히며 휴대폰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떨어뜨린다.
도 형사, 휴대폰 줍고 돌아보면, 엘리베이터 닫힌다.

현재.
도 형사, 뭔가 허탈하고, 모르겠고, 답답한 표정.
일영 몽타주를 쥔 손을 힘없이 떨어뜨린다.

도 형사(N) 그런 누군가가… 수연이의 상상이 아닌 진짜가.

플래시백.
#9. 병원 로비 층 엘리베이터 앞.
좀 더 느리고 세세하게 다시 회상된다.
도 형사, 휴대폰 줍고 돌아본 뒤 엘리베이터 닫히는 찰나가
느린 재생처럼 보여지면, 구겨진 쇼핑백과 교복을 왼손에
움켜쥔 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환자복 차림의 수연’의
모습이 순간 보였다가,

다시 현재.
도 형사, 거리에 우두커니 홀로 서 있다.

플래시백.
#9. 병원 로비 층 엘리베이터 앞.
다시 반복된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찰나,
구겨진 쇼핑백과 교복을 왼손에 움켜쥔 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20대 후반의 칼로 자른 듯한
단발머리 상담가 일영’이다.

도 형사(N) 그때, 아무도 없던 그 아이 옆에.

우리가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곳에,
누구라도… 있었을까.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암전.

#81. 상담실 안(낮)

햇볕 잘 드는 상담실 안.
단발머리의 여자, 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막. “10년 후”
지적이고 냉정한 얼굴의 어른이 된 20대의 수연.
익숙하게 걸음 벗고 가운 입는다. 가운데 꿰뚫은 명찰,
심리상담의 유수연 적혀 있다.
머리를 묶다 보이는 오른쪽 이마의 열은 상처.
그때 누군가 푹푹, 문 두드린다.
수연, 문 쪽을 보며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지으면,
천천히 문 열리며 들어오는 누군가.
들어온 사람의 모습, 밝은 햇살에 잘 보이지 않지만…
20대 후반, 그때의 일영이다.
마치 병실에서의 첫 만남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햇살 속에서 마치 환영처럼 사라지며… 화면 화이트아웃.

#82. 산속 산책로 계단(새벽)

비가 막 그친 어스름 새벽. 인적 없다.
#1의 계단 초입 표지판 아래, 빗물 고인 흠길 위에
벗겨진 흰 운동화 한 짝 흠과 빗물에 엉망으로 젖어 있다.

무전(F) 밤부터 내린 비로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사망 확인 후 이송 중. 정확한 신원 파악 바랍니다.
이름은…

흰 꽃이 운동화 위로 툭 떨어지는 찰나.

끝.

대본을 읽은 분들께 간혹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영이라는 상담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럼 저는 되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없었으면 좋겠는지.

결말에 대해서도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되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허상이었다는 결말 같은지,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다는 결말 같은지.

그런 질문들을 남기려는 마음 하나로 썼고,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이 거칠고 불친절한
초고였습니다. 제작을 앞두고 모호한 지점들을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대본집에 실린
것은 여러 수정 중 하나입니다. 아주 거칠지도, 그렇다고 아주 친절하지도 못한...
정연이와 수연이의 중간쯤 되는 버전입니다.

낮선 케도에 들어선 지 2년.
부족한 능력 탓에... 글을 수정할까, 인생진로를 수정할까 여전히 고민하지만,
그 와중에 만난 많은 인연과 다른 풍경에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설퍼도 꾸준히 이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어느 날엔가는
내가, 내 삶과 함께 나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에 있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 김주후

작의

소통의 부재가 낳는 작은 오해는 큰 파국이 되어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핸드폰 수신자명에서 시작된 부부의 작은 의심.
이는 같은 상황도 반대로 해석하게 만들고 관을 키우고 키워,
결국 이혼이라는 큰 쓰나미를 맞게 한다.

한 가정이 맞는 파국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건
'작은 관심과 대화'라는 사실을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다.

등장인물

최소해(36세, 여)

처녀시절, 김희선과 같은 청순함과 도발적인 매력으로 진목의 마음을 훔쳤다.
지금은 결혼 8년 차 가정주부로서 무미건조한 생활을 영위 중.

김진목(38세, 남)

대화와 관심이 전무한 가정생활에 위기감을 느끼고 상담 차 병원을 찾는다.
김희선의 왕팬. 유통회사 인사과장.

김환희(7세, 남)

오락보다는 책을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
부모님의 위기가 대 스타 '김희선'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그 외

연정(소해의 친구), 형구(진목의 친구), 동성, 여 의사, 남 의사 등.

줄거리

8년 차 부부인 소해와 진목. 교집합이 아들뿐인 그들은 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진목은 이런 부부관계에 위기감을 느끼고 관계 개선을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핸드폰에 등록된 아내 이름을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으로 바꾸고, 전화가 올 때마다 아내가 그 연예인이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보라는 것.

평소 배우 '김희선'을 좋아하던 진목, 일단 해보기로 한다.

Part 1. 김희선이 그렇게 좋아?

어울리지 않는 로맨틱한 멘트와 꽃다발... 남편이 달라졌다. 소해는 달라진 진목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를 가만히 지켜보던 소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로 억장이 무너지는 결론을 내리고... 천신만고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김희선'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남편과 자주 통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평소 남편이 김희선의 팬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름까지 같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소해는 큰 상실감을 느낀다.

Part 2. 와이프의 환생. 그러나...

반신반의, 그러려니 했던 이 작은 시도가 글썽...! 효과가... 있다!!! 아내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설레는 진목. 놀랍게도 그의 오래 묵혀뒀던 지난 연애편지들이 조금씩 "Wake Up!"을 외치지만...

자꾸만 곁도는 소해... 진목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진목은 소해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이동성'이란 남자와 자주 통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역시나 억장이 무너지는 진목! 이 사실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나... 분노와 함께 머리가 복잡해지는 진목인데, 어린 아들 환희를 보는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린다. 자신의 감정에 앞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소해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보려는 진목.

Part 3. 그와 그녀의 동상이몽

진목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해는 진목의 사랑은 오래전에 식었고,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더욱 잘하려 애쓴다고 오해한다. 이판사판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일부러 알려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었던 소해. 하지만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들킬까 너무 애쓰는 진목의 모습에 소해는 이미 우리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계속된 갈등과 오해 끝에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다다르게 된다.

Part 4. 김희선 누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이래요?!

구구단 외우기도 바쁜 나이인 환희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다. 그 이혼의 이유는 대 스타 김희선 때문에!!!

이에 환희는 김희선과 답판을 지으러 홀로 집을 나서게 되는데...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김주후

#. 프롤로그-1 십 년 전. 커피숍(낮)

촬영 모드인 핸드폰 화면, 본인의 얼굴을 구석구석 체크하는 진목(28세, 남). 소심해 보이는 듯한 빨테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착용한다. 촬영 모드를 종료하는 진목, 배경화면엔 김희선의 화사한 얼굴이 나온다. 배시시 웃는 진목… 김희선의 얼굴에 수줍게 뽀뽀하고는 핸드폰을 넣는다. 조심스럽게 커피숍의 문을 여는 진목. 일행이 있는 손님들 속, 혼자 앉아 있는 여자의 뒷모습 보인다. 천천히 다가가는 진목… 몰래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진목 저… 최소해 씨…?

슬로비디오.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이 배경음악처럼 커지며)
소해(26세, 여),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햇빛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이 점점 드러날 때마다, 기대에 찬 진목의 얼굴은 긴장되는지 점점 얼어붙어가고… 새침한 듯, 도도한 듯, 당당한 듯, 청순한 듯 여러 매력의 소해,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목례하면…
소해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빛이 진목의 얼굴을 환하게 비춘다!
진목, 눈을 찡그리면서도 웃음을 감출 수 없는 모습에서…

#. 프롤로그-2 진료실(낮)

회상에 젖어 있는 진목의 얼굴로 오버랩되며.

진목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김희선 씨처럼 청순하고 도발적인 매력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까지… (슝슝하게 웃으며) 벌써 10년 전이네요… 아! 제가 김희선 씨 왕팬이거든요.

남 의사,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남 의사 권태기를 맞는 사람의 문제는… 사실 그것을 느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진목 (의아하다는 듯) 본인에게 있다고요…?

남 의사 진목 씨, 아내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변했나요?

진목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요…

남 의사 아내의 모습은 10년 전과 비슷한데 진목 씨는 지금 권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익숙함이란 안경을 쓴 진목 씨의 문제일까요? 변하지 않은 아내의 문제일까요?

진목 (잠시 유구무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 의사 노력하셔야죠.

진목 어떻게…?

남 의사 자기 최면의 힘은 대단합니다.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을 조종하는 것이 반복된 자기 최면이거든요.

진목 자기 최면이요…?

점프.

핸드폰 액정, 전화번호부 '와이프' → '김희선'으로 바뀐다.

진목, '수정'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춰하고는

진목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가능할까요…?

남 의사 제가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부부에게 자주 권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도 여러 번 입증되었어요.

진목 흠…

남 의사 이제부터 아내분의 전화가 올 때마다 김희선 씨의 이름이 뜨면, 김희선 씨와 과거 아내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리는 겁니다. 좀 익숙해지면 전화가 오지 않을 때도 그 모습을 떠올리며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죠. 내 아내는… 김희선이라고.

머뭇거리리는 진묵… 잠시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액정, ‘김희선’에서 떠오르는 타이틀.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1. 진료실(낮)

자막. “1쿼터”

망설이고 있는 소해.

여 의사 소해 씨, 자기의 일을 털어놓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대화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요. 제 역할은 단지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소해,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른다.

소해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2. 주방(저녁)

탁… 탁… 탁… 식칼이 무언가를 썰며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일정하게 들리는 가운데,
33평 아파트의 깔끔한 실내 곳곳(시계-오후 7시)이 보인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환희(7세, 남), 암전히 위인전을 보고
있고 소해, 무표정한 얼굴로 감자를 썰고 있다.

소해(E)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3개월 전이었어요.
(E) 멍동!

환희 누구지…?

소해 (벨소리에도 반응이 없다. 보지도 않고) 아빠.

환희 (의아하다는 듯) 아빠요…?

달려나가는 환희.

현관에서 진묵의 소리 “아들~” 들리는 가운데,
소해는 계속해서 야채를 썰고 있다.

그러다가 문득 동작을 멈추는 소해… 고개를 돌리면
진묵, 꽃다발을 내밀고 있다.

잠시 어색한…

소해 왜?

진묵 생일이잖아.

소해 오늘? 누구?

진묵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겐 생일이야.

소해 (잠시… 받으며) 그냥 고기나 사오지.

#3. 식탁(저녁)

우유퐀에 꽂힌 꽃다발.

식사를 하고 있는 세 식구, 조용한 공간에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린다. 진묵, 소해를 힐끔거리다가 환희를 보고

진묵 환희야, 아빠 오랜만에 집에 일찍 오니까 좋지?

환희 (환하게 웃으며) 네.

진묵 아빠도 환희하고 엄마하고 밥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엄마도
좋아할까?

환희 엄마도 좋아하시겠죠. (소해를 보면)

눈이 마주치는 진묵과 소해.

진묵,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식사를 한다.

소해, 그런 진묵의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은 꽃다발로 향하고…

#4. 침실(밤)

침대, 등을 지고 누워 있는 소해와 진목.
소해, 슬며시 눈을 뜬다.

플래시백 #2.

진목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겐 생일이야.

현재.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소해, 조용히 일어나 나간다.

#5. 주방(밤)

소해, 말없이 꽃다발을 쳐다보는데...
소해의 허리춤에서 조그마한 스파크가 튀더니 첩추를 타고 위로
'파바박!' 올라간다. 눈이 커지는 소해.

소해(E)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죠...

#6. 커피숍(낮)

심각한 얼굴의 연정.

연정 꽃다발이라... 혹시 낮간지러운 말은 안 했어?

소해 (진목을 따라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겐 생일이야.

연정 (괴롭다는 듯 몸을 떨며) 으으으...

소해 언제...?

연정 내 생각엔...

소해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엔...?

연정 바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 구십구 퍼센트.

소해 (실망하며) 그래...?

연정 우리 철민이 아빠 때랑 똑같아. 남자가 바람피우기 시작하면
전조가 항상 그렇거든. 더 잘해주고 가족한테 가. 똑같은 말도 하고.

의기소침해지는 소해...

연정 (안쓰럽게 바라본다... 냉커피를 내밀며) 일단 좀 마셔.

소해 (냉커피를 쭉 다 마시고는 숨이 차는지) 하아...

연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봐.

소해 뭐...?

#7. 침실(밤)

소해, 자고 있는 진목의 눈앞에 손을 흔든다.

반응이 없다.

소해, 침대맡에 놓인 진목의 핸드폰을 바라본다.

연정(E) 평소에 환희 아빠, 핸드폰 안 잠가놓지?

소해(E) 응.

#8. 화장실(밤)

조용히 들어오는 소해.

진목의 핸드폰을 바라본다...

플래시백 #6.

연정 만약 핸드폰이 잠겨 있다면... 그건 백 퍼센트니까.

현재.

소해, 핸드폰의 액정을 쾅다.

소해 제발…

대기화면을 터치하면

소해 !!!!!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핸드폰…

#9. 환희 방(새벽)

침대, 자고 있는 환희를 꼬옥 껴안고 있는 소해.
 소해, 새록새록 자고 있는 환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10. 커피숍(낮)

멍하니 앉아 있는 소해.
 연정, 소해 앞에 허니버터브레드를 내려놓는다.

연정 먹고 힘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소해 별로 입맛이 없네… (팔뚝을 만지며)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점프.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오물거리는 소해.

연정 잘 들어.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해.
 소해 ?
 연정 남편 핸드폰 통화내역이나 문자를 확인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11. 침실(밤)

잠들어 있는 진묵, 핸드폰을 꼭 쥐고 있다.
 소해, 숨죽여 핸드폰을 빼내려 하지만 잘 안 된다.
 소해, 진묵의 손가락을 하나씩 벌린다.
 손가락이 다 퍼지자 다시 움켜쥐는 진묵.
 잠시…
 소해, 다시 진묵의 손가락을 하나씩 벌린다.

#12. 화장실(밤)

몰래 들어오는 소해, 변기에 앉는다.

소해 (핸드폰 잠금화면을 보고는) 우선 비밀번호로… 본인 생일.
 ‘잘못 입력했습니다’

소해 환희 생일.
 ‘잘못 입력했습니다’

소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 생일.
 ‘잘못 입력했습니다’

소해 핸드폰 번호 뒷자리.
 ‘잘못 입력했습니다’

소해 마지막으로… 국민 비밀번호 0000
 ‘30초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13. 몽타주(밤)

- 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해.
핸드폰 액정, '잘못 입력했습니다'

- 서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해.
핸드폰 액정, '잘못 입력했습니다'

- 현관, 생각에 잠긴 소해.
핸드폰 액정, '잘못 입력했습니다'

- 다용도실, 핸드폰을 바라보는 소해.
핸드폰 액정, '잘못 입력했습니다'

#14. 거실(낮)

우유팩에 담긴 시들한 꽃을 빼는 소해,
새로운 꽃으로 갈아 꽂는다. 돌아보면,
소파에 꿰어떨어져 있는 진목.
TV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고 앞에선
환희가 책을 보고 있다.
소해, 진목이 꼭 쥐고 있는 핸드폰을 바라본다.

#15. 서재(낮)

A4용지, 네 자리의 무수한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1/3 정도가 ×표 되어 있는 가운데 소해,
하나의 비밀번호를 ×자로 긋는다.

소해 (비밀번호 누르며) 삼팔일오...

핸드폰 액정. '30초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소해 (×를 그으며) 아이 진짜...

그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진목.
소해, 반사적으로 A4용지를 밑으로 숨긴다.

진목 뭐 해...?

책상에 놓인 진목의 핸드폰.
잠시 정적.
소해, 눈을 힐끔 내리면 핸드폰 액정. '해제 시간 20, 19, 18...'

소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목 어...? 뭐... (들어오려고 하자)

소해 (다급히 소리치며) 들어오지 마!

진목 (멈칫) ...

소해 (생각을 쥐어짜다가...) 나만의 시간이야.

진목 저기... 난 그냥... 내 핸드폰 좀...

소해, 눈을 힐끔 내리면 핸드폰 액정. '해제 시간 3, 2, 1...'

소해 (그제야) 어 미안... 내 핸드폰 배터리가 좀... (다가가 핸드폰을 내밀며) 여기...

진목 (이상하게 쳐다본다... 받으면)

소해 저기... 나 핸드폰 비밀번호 좀 풀어주면 안 돼? 전화 좀 쓰게.

진목 그냥 집 전화 써...

연정(F) 그럼 아직 풀지도 못한 거야?

#16. 침실(오후)

소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전화하고 있다.

소해 응...

연정(F) 그럼 내가 한 방법으로 해봐.
소해 ???

#17. 환희 방(오후)

책을 보고 있는 환희.

소해 (들어온다. 과일을 내려놓으며) 환희야, 과일 먹자.
환희 네.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환희.

소해 환희야, 책은 좀 재미없지 않아?
환희 아뇨. 재밌어요.
소해 그래...? 그래도 어렸을 땐 오락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환희 (책에 눈을 고정한 채) 오락 안 좋다면서요.
소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지... 사실 오락이 장점이 참 많거든?
적당히만 하면 두뇌활동에도 좋고.
환희 (반응이 없다...)
소해 은근히 손가락 운동도 되고.
환희 (반응이 없다...)
소해 창의력에도 좋고 또... 말초신경도 자극하고 또... 고민이 많을 때는 시간도 잘 가고 또...
환희 (쳐다보며) 엄마.
소해 어...?
환희 오락하고 싶어요?
소해 아니~ 나 말고 환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환희 (뻘뻘 쳐다보는) ...
소해 그래 엄마가 무지하게 하고 싶다 지금. 미치겠다.

#18. 거실(오후)

진목, 소파에 누워 자고 있다.
환희, 진목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잠시 쳐다보고는

환희 아빠.
진목 (들릴 듯 말 듯) 응...
환희 저 게임하고 싶어요.
진목 응...
환희 (흔들어 깨우며) 아빠. 아빠. 저 게임 좀 할게요.
진목 (잠결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주면)
환희 (받는다. 유심히 보던 비밀번호를 따라 눌러보는...)

#19. 화장실(오후)

긴장된 얼굴로 진목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소해.
떨리는 손으로 최신 통화목록을 누른다.
'최 부장', '이 대리' 다음에 있는 '김희선'!!!

소해 김희선?

소해, 통화기록을 살핀다.
김희선과 거의 매일 통화한 흔적... 소해, 눈에서 불꽃이 튜다!
손을 번쩍 들어서 핸드폰을 던지려는데 멈칫! 부르르 떨리는 손...

연정(E) 김희선?

#20. 커피숍(낮)

고개를 끄덕이는 소해.

연정 (픽 웃으며) 어쩔 남자는 다 똑같냐.
 소해 평소에 김희선 이쁘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니만... 어쩔 이름도 같은 애를...
 연정 개 술집애야.
 소해 어?
 연정 김희선. 우리나라 최고의 미녀. 술집에선 에이스들만 예명으로 쓴다고 하더라고.
 소해 (탄식) 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연정 (쓱쓸하게 웃으며) 우리 남편도 김희선이었어.
 소해 (탄식) 아...
 연정 그나저나 어떡할 거야?

#21. 진료실(낮)

소해 환희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이었을 거예요. 신뢰감이 깨진 결혼생활은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여 의사 그럼...?
 소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혼을 준비하거나... 맞바람을 피우거나...
 여 의사 둘 다 가정이 깨지는 길이네요.
 소해 아뇨. 맞바람은 가정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냥 남편을 용서하려면 평생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요. 맞바람은... 공평하잖아요.
 여 의사 남편과 대화를 해보시죠?
 소해 대화요? (쓱쓸하게 웃는다...) 아뇨. 저한테 두 가지 길뿐입니다.
 블랙아웃.

#22. 진료실(낮)

자막. “2쿼터”
 망설이고 있는 진목.

남 의사 진목 씨, 자기의 일을 털어놓는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대화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요. 제 역할은 단지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진목,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른다.
 진목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습니다...

#23. 화장실(낮)

홍얼거리며 들어오는 회사원1, 소변기 앞에 선다.
 진목(E) 3개월 전부터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네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뭐지?’ 하고 고개를 돌리는 회사원1.
 대변기 칸.
 진목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듯) 내 아내는 김희선이다... 내 아내는 김희선이다... 내 아내는 김희선이다...
 인서트. 진목의 상상.
 김희선의 모습과 결혼 전 소해의 모습이 천천히 묘하게 오버랩된다.
 현재.
 함박웃음 짓고 있는 진목... 눈을 뜬다.

#24. 사무실(낮)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진목, 진동소리에 핸드폰을 꺼낸다.
 발신자 ‘김희선’

핸드폰 화면 - #23(진목의 상상)에서의 소해 모습이
매직아이처럼 짝악~ 떠오른다.
싱긋 웃는 진목.

진목 (받으며) 어 여보.

#25. 주방(저녁)

(#2와 동일 내용)
진목, 꽃다발을 내밀고 있다.
잠시 어색한...

소해 왜?
진목 생일이잖아.
소해 오늘? 누구?
진목 (어색하게 웃으며)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겐 생일이야.
소해 (잠시... 받으며) 그냥 고기나 사오지.
진목(E)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26. 진료실(낮)

남 의사 (끄덕이며) 아... 역시. 그게 바로 자기 최면의 힘이죠.
진목 출발은 좋았습니다.
남 의사 (의아하다는 듯) 그런데 왜...?
진목 (한숨...) 처음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건 핸드폰 때문이었습니다...

#27. 서재(낮)

(#15와 동일 내용)
소해 (다급히 소리치며) 들어오지 마!
진목 (멈칫) ...
소해 (생각을 쥐어짜다가...) 나만의 시간이야.

진목 저기... 난 그냥... 내 핸드폰 줌...

소해, 눈을 힐끔 내리면 핸드폰 액정. '해제 시간 3, 2, 1...'

소해 (그제야) 어 미안... 내 핸드폰 배터리가 줌... (다가가 핸드폰을 내밀며) 여기...

진목 (이상하게 쳐다본다... 받으면)

소해 저기... 나 핸드폰 비밀번호 줌 풀어주면 안 돼? 전화 줌 쓰게.

진목 그냥 집 전화 써...

남 의사(E) 그냥 빌려드리지 그랬어요?

진목(E) 혹시나 아내가 자기 이름이 '김희선'으로 되어 있으면 실망할까 봐요. 그랬으면 애당초 잠금설정을 하지도 않았겠죠.

#28. 환희 방(오후)

머뭇거리는 환희.

진목 아빠가 뭐라고 했지? ...거짓말하면 누구라고 했지?
환희 나쁜 사람...
진목 그럼 아빠 핸드폰 게임... 환희가 한 거 맞아?
환희 엄마가 말하지 말했는데...
진목 ...

#29. 진료실(낮)

남 의사 아내가 게임중독?
진목 아뇨... 연애할 때 제가 게임의 '게'자만 꺼내도 질색 팔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 의사 (끄덕이며) 흠... 그런데 자기 핸드폰을 놔두고 왜 진목 씨 걸로...?
진목 제 아내 핸드폰은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사준 폰이라. 연애 초기에...

인서트.
식탁 위의 무전기 폰.

현재.

진목 아무튼 이유를 생각해내느라 골머리를 썩을 때였어요.

#30. 거실(저녁)

소파에 누워 있는 진목, 심각하다.

환희 아빠. 나 영어 숙제 좀 도와주세요.
진목 (생각이 많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환희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아빠한테 가래요.
진목 아빠도 머리 아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실랑이를 벌이는 부자.
진목이 꿈쩍도 하지 않자 포기하는 환희, 책을 편다.
«그리스 로마신화»
이때, TV에서 김희선의 광고가 나온다.
진목, 자동으로 몸을 일으킨다.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달려와 TV 전원을 확! 끄는 소해,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그때 진목의 허리춤에서 조그맣게 튀는 스파크,
척추를 타고 위로 '파바박!' 올라간다.
눈이 커지는 진목.

진목(E) 남자의 직감은 정확한 법이죠...

#31. 호프집(밤)

맥주를 짜악 들이키는 진목.

진목 무관심하긴 해도 화낸 적은 없었거든...
형구 똑같네 똑같아...
진목 뭐가?
형구 여자들 바람피울 때 변하는 행동들. 별일 아닌 거에 짜증 내고
화내고 예민해지고...
진목 (아니었으면 해서) 그렇지...? 바람... 맞는 거지...?
형구 (끄덕이며) 우리 와이프 때랑 똑같아.
진목 (피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며) 아...
형구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아직 백 퍼센트는 아니야. 한 구십구
퍼센트?
진목 (형구를 보고는) 어...? 나머지 일 퍼센트는...?
형구 제수씨 핸드폰 비밀번호 잠가놨?
진목 아니.
형구 핸드폰 잠금장치가 되어 있나 확인해 봐. 되어 있으면
백 퍼센트니까.
진목 (아직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문득 걱정스럽게)
그런데 만약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면...?
형구 증거를 확보해야지. 비밀번호 풀어서.

#32. 거실(낮, 밤)

청소기를 미는 소해.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소해 군살이 좀 붙었나...?

다시 청소기를 미는 소해,
하체 운동과 병행하는 듯 이동할 때마다 업다운 한다.
신문을 보는 척, 이러한 소해의 모습을 훑쳐보는 진목.
소해의 앞치마에 꽂혀 있는 핸드폰.

점프.
소파에 앉아 있는 진목, 시계를 보면 밤 11시.
(E) '띠띠띠띠', '도록'
들어오는 소해.

진목 늦었네?
소해 어.

진목, 방으로 들어가는 소해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33. 침실(밤)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소해와 진목.
진목, 조용히 일어나 소해의 눈앞에 손을 움직인다.
미동 없는 소해.
진목, 소해의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을 가지고 나간다.

#34. 서재(밤)

조용히 서재로 들어오는 진목.
어두운 서재, 심호흡을 하는 진목.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핸드폰 액정, 잠겨 있다...

진목 !!!!!

진목, 고개를 푹 숙인다...

#35. 서재(밤)

아파트 외관, 모두 꺼져 있고 한 창문만 희미하게 불이 나온다.
스탠드가 비치는 곳에 A4용지를 내려놓는 진목.
A4지, '0000'부터 순서대로 빼곡히 비밀번호 숫자가 적혀 있다.

진목 자... 될 때까지 해보자... 우선 (핸드폰 번호를 누르며) 0000.

액정, 비밀번호 풀린다!

진목 (놀라며) 영영영영...?

고개를 가웃하는 진목.
진목, 한숨을 내쉬고는... 통화기록 버튼을 누른다.
목록에 보이는 낯선 남자 이름 '이동성'

진목 (불안한 듯) 이동성...?

진목, 동성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른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조만간 또 뵙요.'

진목, 눈에서 불꽃이 튈다!
손을 번쩍 들어서 던지려는데 멈칫! 부르르 떨리는 손...

#36. 호프집(밤)

형구 (소주를 권하며) 마시고 힘내.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진목 (잔을 뒤집으며) 별로 안 땡기네...

점프.

진목 (빈 병을 흔들며) 이모 여기 소주 하나 더요~

테이블 위에는 빈 병이 가득이다.

형구 하긴... 여자는 남자의 바람을 참아줘도 남자는 여자의 바람을 못 참는 법이지... 다음엔 어떡할 거야?

진목 눈에 눈! 이에는 이!
 형구 맞바람? 니가?
 진목 (격렬하게 빈 병을 흔들며) 이모 여기 소주~

#37. 현관/환희 방(밤)

(E) '띠띠띠띠', '도록'
 현관으로 들어서는 진목.
 진목, 환희의 방으로 들어선다.
 새록새록 자고 있는 환희...

진목(E) 환희의 얼굴을 보는데... 맞바람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목, 환희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조용히 흐느낀다.

진목(E) 다짐했죠. 내가 노력하자고...

#38. 주방(아침)

프라이팬에 짜악 퍼지는 달걀.
 사과를 깎는 진목, 잘 안 되는지 삐뚤삐뚤 깎다가 놓친다.
 진목, 때굴때굴 굴러가는 사과를 집으려는데
 사과, 발 앞에 멈춘다.
 진목, 올려다보면

소해 (짜증 난 얼굴로 내려다보며) 뭐 해?

진목 (밝게 웃으며) 일어났어?

소해 타잖아.

진목 어?

진목, 프라이팬을 보면 타고 있는 달걀.

접프.
 세 개의 접시에 담긴 아침식사, 엉망이다.
 세 식구,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한다.
 진목, 소해의 눈치를 보다가

진목 (어색하게) 환희야. 오늘은 아빠가 유치원 데려다줄까?

(E) '짱!' 포크를 세게 내려놓는 소해.
 침묵이 감도는 식탁...

#39. 몽타주

- 진목,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 진목, 환희의 영어숙제를 도와주고 있다.
- 진목, 소해에게 꽃다발을 내밀고 있다.
- 진목, 앞치마를 한 채 된장찌개의 간을 보고 있다.
- 소해, 이 모든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40. 침실(밤)

어두운 침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심각한 얼굴의 진목.

소해 (들어오다가 진목을 발견하고는) 아! 깜짝이야...

진목 늦었네?

소해 뭐 해? 안 자고?

진목 그냥.

진목, 옷을 갈아입는 소해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진목 뭐 했어?

소해 (잠시...) 영화 봤어.

진목(E) 누구랑 봤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진목 다음 달부터 용돈 받아써.
 소해 (어이없다는 듯) 뭐?
 진목 용돈 받아쓰라고.
 소해 무슨 소리야…?
 진목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한다고.

물러섬이 없는 두 사람의 눈빛.

소해 그러든가. 이혼하고 싶으면.
 진목 뭐…? 이혼?

#41. 진료실(낮)

진목 환희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이었을 거예요. 신뢰감이 깨진 결혼생활은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남 의사 그럼 어떻게…?
 진목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관리를 내가 하거나, 아님 그냥 돈이 줄줄 새도록 놔두거나.
 남 의사 둘 다 가정이 깨지는 길이네요.
 진목 아뇨. 돈 관리를 내가 하게 되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되죠. 불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자조 섞인 웃음 지으며) 아니… 불륜이란 단어보다는 그냥 연애라고 하죠. 한때의 철없는…
 남 의사 부인과 대화를 해보시죠…?
 진목 대화요? (쓱쓱하게 웃는다…) 아뇨… 저한테 두 가지 길뿐입니다.
 블랙아웃.

#42. 진료실(낮)

자막. “3쿼터”

쓱쓱하게 웃고 있는 소해.

소해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막상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피우는 것인데, 이것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아들 얼굴은 어떻게 보나 부끄러울 것도 같고…
 여 의사 쉽지 않은 일이죠. 유부녀가 바람피운다는 것은.
 소해 그렇다고 가만히 물어두자니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려더라고요. 남편이 김희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망상에도 자주 휩싸이고…
 여 의사 그래도 가정은 지키고 싶고.
 소해 (끄덕인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난 데 기름을 붓더라고요.

#43. 침실(저녁)

두통인 듯,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소해.

환희 엄마. 영어숙제 좀 도와주세요.
 소해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환희 맨날 엄마가 도와줬잖아요.
 소해 엄마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밥도 해야 되고. 아빠한테 가봐.

#44. 거실(저녁)

(#30과 동일 내용)

소해, 거실로 나오면 숙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진목과 환희.
 소해, 진목을 흘기고는 주방으로 간다.
 그때, 조용해진 거실… 소해, ‘뭐지?’ 바라보면 TV에 나오는 김희선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진목.
 달려가 TV 전원을 확! 끄는 소해,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소해(E) 결국… 친구 따라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45. 전통 술집(저녁)

20명 남짓 앉아 있는 30대 중후반의 남녀들,
일제히 소해를 쳐다보고 있다.
소해, 부끄러운 듯 쭈뼛거리면

연정 (옆으로 다가와) 여기는 제 친구 최소해입니다. 돌싱 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좋은 친구 만나고 싶어서 나왔답니다. 인사해.

얼굴이 빨개지는 소해.

소해 안녕하세요…
일동 (손뼉 치며) 와~~

점프.
소해, 몸을 뒤로 돌린 채 조용히 통화하고 있다.

소해 (나지막이) 어… 엄마 오늘 좀 늦어…
아빠한테 저녁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소해, 전화를 끊는다.

동성 전화기가 참 투박하네요.

건너편의 동성, 싱긋 웃고 있다.

소해(E) 상당히 호감형인 남자분이셨어요.
동성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반가워요.
소해 (당황하며) 네…? 무슨…?

동성, 무언가를 내밀면 소해와 같은 기종의 무전기 폰.
소해, 놀란 듯 눈이 동그래진다…

#46. 진료실(낮)

미소 짓고 있는 모습으로 오버랩 되는 소해.

소해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 전공이 서양화인데 미술에도 조예가
깊은 것 같고… 또…

여 의사 또…?

소해 제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더라고요.

#47. 거실(낮)

청소기를 미는 소해, 하체 운동과 병행하는 듯
이동할 때마다 업다운 한다.

신문을 보는 척, 소해의 모습을 훑쳐보는 진목.
설거지, 바닥 걸레질 역시 운동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된다…

#48. 국립현대미술관(오후)

미술관을 둘러보는 소해와 동성.
소해, 한껏 치장한 모습이 예쁘다.
화기애애한 두 사람.
소해, 힐 때문인지 절뚝거리고…
동성, 그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어디론가 뛰어가는 동성, 혼자 남은 소해.

점프.
골프화를 내미는 동성.
소해, 동성의 배려에 미소 짓는다.

#49. 차 안(밤)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대형 세단.

조수석, “깔깔깔” 웃는 소해.

동성 재밌죠?
 소해 (웃음을 누르며) 네, 재밌네요.
 동성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영똥한지 참…
 소해 보고 싶으시겠어요.
 동성 많이 보고 싶죠. (잠시 주저하는…)
 소해 (동성의 행동을 감지하고는) 저… 오늘 즐거웠습니다…
 (인사하는데)
 동성 저기 소해 씨. 저…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같이 보실래요…?
 소해 (당황하며) 네…?
 동성 아드님 성함이 환희라고 했죠? 환희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외아들이라 통하는 것도 많을 테고… 또 책도 좋아하고…

소해, 표정이 굳는다…

동성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어디 불편하세요…?
 소해 …

#50. 진료실(낮)

소해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연애를 하려고 그 모임에 나간 게 아닌데…
 여 의사 ‘아차’ 했다는 건…?
 소해 (끄덕이며) 흔들렸죠. 옛날 연애하던 때도 생각나고… 암튼 환희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난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지 깨려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남편이 빨리 내 핸드폰을 확인하길 바랐어요. 비밀번호를 ‘영영영영’으로 해놓고.

#51. 침실(밤)

(#33 내용과 동일)
 등을 대고 누워 있는 소해와 진묵.
 진묵, 조용히 일어나 소해의 눈앞에 손을 움직인다.
 미동 없는 소해.
 진묵, 소해의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을 가지고 조심히 나간다.
 소해, 기다렸다는 듯 눈을 뜬다.

소해(E) 남편이 각성하고 변화길 기대했죠.
 여 의사(E) 그래서 변했나요?
 소해(E) (한숨…) 변화긴 했죠…

#52. 몽타주

(#39 내용과 동일)
 - 진묵, 청소기를 돌리고 있다.
 - 진묵, 환희의 영어숙제를 도와주고 있다.
 - 진묵, 소해에게 꽃다발을 내밀고 있다.
 - 진묵, 앞치마를 한 채 된장찌개의 간을 보고 있다.
 - 소해, 이 모든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53. 커피숍(낮)

생각에 잠겨 있는 연정.

소해 (초조하게) 어때…? 식었을까…?
 연정 (생각에 잠긴 채) 안 하던 집안일을 한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회개한 사람이 된 것마냥 열심히…
 소해 (아니길 기대하며) 맞는 거 같지?
 연정 그 남자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고?
 소해 (불안…) 응…

연정 화도 안 내고?
 소해 (더욱 불안…) 응…
 연정 (눈을 뜬다…) 식었다. 완전히.
 소해 (크게 한숨) 그렇지…

핸드폰 액정, 전화번호부 ‘남편’ → ‘개자식’으로 바뀐다.

#54. 진료실(낮)

여 의사 더 잘하려고 그렇게 변한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해 (절레절레) 잘하려고 했다면 우선 털어놔줬죠,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좋았던 거예요. 이제 맘 놓고 김희선과 연애할 수
 있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집안일을 그렇게 했던 거고…

#55. 거실(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 소해, 설거지하고 있는 진목을 노려보고 있다.
 소해 옆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환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는데 울리는 진목의 핸드폰.

진목 (받으며) 네 부장님, 사거리 호프집이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진목, 방으로 뛰어들어간다.

진목 (바로 나오면서) 부장님 여기 근처에 오셨다고 해서. 갔다 올게
 환희야.

환희 네 아빠.

진목, 급하게 나간다.
 소해, 식탁 위에 올려진 진목의 핸드폰을 바라본다.
 이때, TV에 나오는 김희선 광고.

소해 (TV를 보고) 이게 다 재 때문이야…
 환희 (소해를 보고 TV 속 김희선을 본다…)

식탁으로 가 진목의 핸드폰을 드는 소해.

소해 (바라보며) 김희선 나쁜 년.

놀란 눈으로 소해를 바라보는 환희.
 무언가 생각이 난 소해, 핸드폰을 들고 침실로 간다.

#56. 교차. 침실+거실(저녁)

- 침실.
 핸드폰 액정, 통화기록에 ‘김희선’
 소해, 잠시 머뭇거리다… 통화 버튼을 누른다.

- 거실.
 거실 소파 위, 진동하는 소해의 핸드폰.
 환희, 핸드폰을 집는다. ‘개자식’

환희 (받는다…) 어… 어…

- 침실.
 깜짝 놀라는 소해, 바로 전화를 끊는다.

소해(E) 어린 남자아이의 호흡… 느낌으로 알았어요.

#57. 진료실(낮)

소해 그이의 아들이란 것을.
 여 의사 김희선 씨가 미혼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혼녀이거나…

소해 (단호하게) 아니요, 이건 여자의 직감이에요. 분명 그년하고
 낳은... 아! 죄송합니다. 분명 그 여자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연정(E) 아닐 수도 있지.

#58. 커피숍(낮)

소해 (당황하며) 어...?
 연정 아니, 어떻게 직감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고.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도 안 돼.
 소해 아니... 뭐...
 연정 웬만하면 좋게 좋게 생각해. 환희를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막말로... 요즘 바람 한번 안 피워본 남자가 어딴냐? 그냥 니가
 이해해. 그게 속 편하니까.
 소해 (뻘뻘 쳐다보다...) 너 좀 이상하다...
 연정 (씩 웃으며) 티 나냐? 나 사실... 철민이 아빠하고 재결합하기로
 했어.

#59. 거리(밤)

밤거리를 두벅두벅 배회하는 소해.

소해 나쁜 년... 아 좋겠다...

#60. 침실(밤)

(#40과 동일 내용)
 어두운 침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진목.

소해 (들어오다가 진목을 발견하고는) 아! 깜짝이야...
 진목 늦었네?
 소해 뭐 해? 안 자고?
 진목 그냥.

소해(E) 그날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진목, 옷을 갈아입는 소해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진목 뭐 했어?
 소해 (잠시...) 영화 봤어.
 소해(E) 웬지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은 느낌... 잘됐다고 생각했죠.
 사실대로 말하자. 그리고 사실을 물어보자. 그런데...
 진목 다음 달부터 용돈 받아줘.
 소해 (어이없다는 듯) 뭐?
 진목 용돈 받아쓰라고.
 소해 무슨 소리야?
 진목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한다고.
 소해(E) 어이가 없었죠. 바람피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빼돌리겠단 소리에...

물러섬이 없는 두 사람의 눈빛.

소해 그러든가. 이혼하고 싶으면.
 진목 뭐...? 이혼?
 소해(E) 설마설마했어요.

#61. 영화관 매표소(낮)

소해 (카드를 내밀며) 여기요.
 동성 (말리며) 아뇨, 제가 계산할게요.
 소해 (내밀며) 안 되죠. 제가 먼저 보자고 했는데. 이걸 제가 낼게요.
 직원, 카드를 받는다.
 직원 손님, 잔액이 부족한데요.
 소해 네...? (동성의 눈치를 본다. 다른 카드를 내밀며) 그럼 이걸로

해주세요.

직원 (카드를 긁은 후) 이걸 정지됐는데요.
동성 (카드를 내밀며)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소해 ...

#62. 영화관(낮)

깔깔거리며 영화를 보는 소해.
동성, 소해를 보고는 미소 짓는다.
동성, 다시 영화를 보다가... 이상한지 소해를 쳐다본다...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들썩이고 있는 소해...
잠시... 동성, 소해를 살며시 안아준다.
소해, 동성에게 기대 운다...

#63. 침실(밤)

불을 켜는 소해.
진목, 등을 보이며 자고 있다.

소해 일어나.
진목 그냥 얘기해.
소해 일어나.
진목 ... (앉는다) 얘기해.
소해 뭐야?
진목 얘기했잖아. 이제부터 돈 관리 내가 한다고.
소해 나도 얘기했을 텐데? 그럼 이혼이라고.
진목 그래서?
소해 뭐?
진목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소해 ... 이혼하자.
진목 ... 그래. 이혼하자.

#64. 진료실(낮)

소해 끝까지 지키려고 애써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여 의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소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 의사 이혼은 언제...?
소해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이제... 완전히 끝인 거죠... (답답한지 가슴을 누르면...)
여 의사 약 처방해드릴까요...?
소해 (절레절레) 일단 버텨볼게요...
여 의사 저...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편분한테도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해 (잠시... 고개를 가로젓는다...) 어쩔 우리 사이엔 커다란 벽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인서트. 소해의 상상.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소해, 끝없이 하늘로 솟은 벽을 올려다보며...

소해(E) 이 일이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65. 환희 방(오후)

빗줄기로 인해 얼룩덜룩한 창문.

자막. "4쿼터"

환희(E) 김희선 누나... 이모... 아니 누나... 이모... 누나에게.

편지지 위에 멈춰 있는 연필.
환희, 생각에 잠겨 있다. 잠시...
환희, 쓰기 시작한다. 그 위로

환희(E)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일곱 살 김환희라고 합니다. 누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의 아빠는 김진묵입니다. 요즘 누나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십니다.

#66. 거실(저녁)

(#55 내용과 동일)

소해, 식탁 위에 올려진 진묵의 핸드폰을 바라본다.
이때, TV에서 나오는 김희선 광고.

소해 (TV를 보고) 이게 다 재 때문이야…
환희 (소해를 보고 TV 속 김희선을 본다…)

식탁으로 가 진묵의 핸드폰을 드는 소해.

소해 (바라보며) 김희선 나쁜 년.

놀란 눈으로 소해를 바라보는 환희.

환희(E) 엄마는 욕을 하기 시작했고…

#67. 거실(저녁)

(#30 내용과 동일)

실랑이를 벌이는 부자.
진묵이 꿈쩍도 하지 않자 포기하는 환희,
책을 편다. <그리스 로마신화>
제우스와 헤라가 싸우는 삽화.

환희 (조용히 읽으며) 제우스는 천하의 바람둥이로 수많은 여신들과 요정들을 유혹했다. 제우스의 바람기에 애를 태우던 아내 헤라는

그 때문에 질투의 여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이때, TV에서 김희선의 광고가 나온다.

진묵, 자동으로 몸을 일으킨다.

광고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달려와 TV 전원을 확! 끄는 소해,

눈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책을 보던 환희, 고개를 들면 소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헤라의 모습으로 변한 소해, 손에는 피톤(거대한 구렁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환희, 고개를 돌려 진묵의 모습을 보고는 더욱 깜짝 놀란다.

제우스의 모습으로 변한 진묵, 손에는 번개창이 들려 있다.

고함을 지르는 소해와 진묵, 피톤 지팡이와 번개창을 세계 부딪힌다!

환희(E) 부부의 싸움은 전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68. 주방(밤)

(#63 내용과 동일)

주방으로 향하는 환희.

진묵과 소해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조용히 방으로 다가가는 환희, 침실 문에 귀를 댄다.

진묵(E)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소해(E) … 이혼하자.

진묵(E) … 그래. 이혼하자.

놀라는 환희! 입을 막는다.

#69. 유치원 놀이터(낮)

그네를 타고 있는 환희와 친구1.

친구1 (회상하며) 이혼이라... 내 나이 일곱 평생 가장 피로운 시간이 부모님의 이혼이었어...

환희 (조심스럽게) 뭐가 피로운데...?

친구1 (환희를 응시하며) 엄마와 아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

극심하게 흔들리는 환희의 눈동자.

환희(E)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70. 환희 방(오후)

편지를 쓰는 환희, 그 위로

환희(E) 저는 누나의 팬입니다. <??>도 재밌게 봤어요. 아빠랑 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누나는 정말 예뻐요.

환희, 편지를 보고는 싱긋 웃는다.

#71. 아파트 입구(낮)

뛰어오는 환희, 편지함을 확인한다.
비어 있자 실망하는데...

경비원 왜 환희야? 오늘도 안 왔어?

환희 (시무룩하게) 네...

경비원 누구한테 오는 건데?

환희 ... (인사하며) 안녕히 계세요.

터벅터벅 들어가는 환희.

#72. 환희 방(밤)

어두운 방. 환희, 한숨을 쉰다...
천천히 열리는 방문... 환희, 급하게 자는 척을 한다.
소해, 침대 옆에 앉아 환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환희 엄마...

소해 일어났어...?

환희 응...

소해 환희야... 내일 아침에 할머니 올 텐데 며칠만 할머니 댁에 가 있을래?

환희 (불안한 듯) 왜요...?

소해 흠... 엄마하고 아빠가 할 일이 좀 있어서...

환희 무슨 일이에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소해, 가까스로 참는다.

소해 (환희를 안으며) 미안해 환희야... 엄마가 미안해...

환희 ...

#73. 거실/환희 방(아침)

아파트 외관.

진목 (통화하며) 네 어머니. 바로 오시면 돼요. (끊는다) 거의 도착하셨대...

소해 ...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해, 환희 방으로 간다.

소해 (노크, 방문을 열며) 환희야, 다 챙겼지? 어…?

비어 있는 방.
책상 위, 뜯겨진 저금통.

#74. 택시 안(아침)

택시기사,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고 있다.

택시기사 (조수석의 환희를 보고) 이게 어디야?
환희 김희선 누나 있는 데요…

플래시백. 서재.
탁! 키보드를 누르는 환희.
모니터, '김희선'에 관한 정보.

현재.

택시기사 (의심의 눈으로) 엄마는?
환희 집에…

택시기사 (잠시…) 돈은 있어?
환희 (자신 있게) 네.

가방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는 환희.
안에 5만 원권을 비롯해 꽤 많은 지폐와 동전이 있다.

택시기사 (생각보다 많은 돈에 놀란다… 표정 숨기고)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데…

환희 (실망하며) 이거밖에 없는데…

택시기사 그래 까짓것! 가자!
환희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75. 건물 앞/로비(오전)

택시, '붕~' 출발하면
환희, 높은 건물을 올려다본다.
(화려함 또는 웅장함에 압도당한 듯…)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환희…
누가 나오며 문이 열리자 얼른 들어간다.
환희, 두리번거리는데

경비원 애! 일로 와봐.
환희 (가면) …
경비원 어디 온 거야?
환희 김희선 누나 만나러…
경비원 약속은 돼 있어…?
환희 아뇨…
경비원 약속도 없이 온 거야? 혼자?
환희 김희선 누나하고 저희 아빠하고 아는 사이라서…
경비원 (잠시 환희를 쳐다본다… 인턴폰을 들고는) 여기 누가 김희선
씨 찾아오셨는데요? (환희를 보고는) 아… 그냥 어린 친구… 네.
(끓는다.) 오늘 김희선 씨 사무실에 안 계시다는데?
환희 그럼 어디에…?
경비원 글썸… 뭐 집에 있겠지.

#76. 경찰서(낮)

형사 어디 갈 만한 데가 없을까요?
소해 다 전화해봤는데 없더라고요…
진묵 (신경질적으로) 다 해본 거 맞아?
소해 (꼭 참으며) 맞아.
형사 근데 궁금한 게… 왜 집을 나갔을까요…? 어린애가?
소해 잘 모르겠습니다…
진묵 아는 게 뭐야?

소해 뭐?
진목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소해 뭐야!!!

#77. 지하철 개찰구(낮)

개찰구에 서 있는 공익요원.

공익요원 (생각을 더듬으며) 어... 성북동이 아마도... 한성대역에 있을걸?
환희 한성대역이요?
공익요원 근데 너 혼자야? 돈은 있어?
환희 아뇨...
공익요원 돈도 없이 타게? 몇 살인데?
환희 일곱 살이요...
공익요원 생일 지났어?
환희 아뇨...
공익요원 그럼 무료야.
환희 (웃는다...)

#78. 몽타주

지하철, (지하철 노선도 위)강남역을 출발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다가 한성대역에 겨우 도착한다.
그 위로 오버랩 되어 보이는 환희의 몽타주.
- 지하철에 앉았다.
- 역에서 두리번거린다.
- 할머니에게 물어본다.
- 앉아서 쯤다.
- 노을 지는 창밖을 본다.
- 피곤한 얼굴 등.

#79. 한성대역 입구(저녁)

입구로 올라오는 환희. 이미 어둡다.
환희, 추운지 파카의 모자를 쓴다.
환희, 걷다가 만두가게 앞에 멈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환희, 침을 꿀꺽 삼키는데

주인 왜? 만두 줘?
환희 저... 성북동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주인 성북동 어디?
환희 김희선 누나 사는 데요...

#80. 거리(저녁, 밤)

길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환희.
할아버지, 손가락으로 오르막길을 가리킨다.
환희, 옆으로 대저택이 준비한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환희, 멈춰 선다... 얼굴엔 힘든 기색이 역력하고...
다시 오른다...

#81. 대문(밤)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서 있는 환희.

환희 (꿈만 같다...) 다 왔다...

환희,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안 닿는다.
까지발을 하고 손을 짚지만 닿을 듯 닿지 않는 손...
애쓰는 환희, 뒤통거리다 뒤로 엎어진다.
잠시 숨을 몰아쉬는 환희, 입김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다...
환희, 비틀거리며 일어나다가 “아...” 다리를 감싸준다.

아파하는 환희... 절뚝이며 계단에 주저앉는다...

환희 다 왔는데... (조금씩 눈이 풀리며) 아... 따뜻하다...

환희, 조금씩 눈을 감는다... 고개를 숙인다... 잠시...
그때, 자동차 불빛이 환희를 비춘다.
벤에서 내리는 김희선.
김희선, 환희에게 다가온다.

김희선 (조심히 흔들며) 애야... 애야...

환희 (천천히 고개를 든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 ...

김희선 무슨 일이야?

환희 누나... 저희 아빠랑 헤어지면 안 돼요...?

김희선 ...

#82. 아파트 입구(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소해와 진목.
멀리, 벤이 다가온다.
소해와 진목, '혹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입구에 멈추는 벤. 김희선, 내린다.
진목, 꿈인 듯 김희선을 바라보는데... 소해, 진목을 '툭' 친다.
'아차!' 싶은 진목, 자고 있는 환희를 안고 나온다.

소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목 정말 감사합니다...

김희선 환희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웃으며) 저 때문에 두 분이
이혼하신다고.

머쓱한 소해와 진목.

#83. 환희 방(밤)

진목, 환희를 침대에 조심히 눕힌다.

환희를 바라보는 진목과 소해... 두 사람, 어색한 가운데...

진목 저기...

소해 왜...?

진목 아냐...

소해 (잠시...) 잘되냐?

진목 뭐가?

소해 개량.

진목 누구?

소해 당신 핸드폰 다 봤어. 김희선.

진목 어...? (잠시 생각... 허탈한 듯) 아... 당신, 이름만 보고 번호는 안
봤지?

소해 어...? 어...

진목 그거 당신이었어. 당신 이름을 김희선으로 바꾼 거라고.

소해 ...

진목 (치...) 그래서 당신도 만난 거였어? 억울해서?

소해 (피식...)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

동성(E)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어디 불편하세요...?

플래시백. #49 이어서

소해 죄송해요...

동성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싱긋) 괜찮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친구로서.

현재.

진목, 슬며시 웃는다.

진목 오랜만에... 와인 한잔 할래?

소해 뭐… 그러든가…

 나가는 진묵과 소해.
 환희,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감돈다…

환희 (흠조리며) 고마워요… 김희선 누나…

 서서히 페이드 아웃.

끝.

작가 후기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 김주후)

이 대본의 초고가 나온 것이 거의 2년 전입니다.
그만큼 많이 봐오고 눈에 익은 대본인지라,
수정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객관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픈에는 작가, 감독, 오픈 관계자 등 리뷰를 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셨습니다.
가끔은 리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3개월이란 수정 기간 동안 조금씩 발전하는 대본을 확인하니, 그제야 작품에 대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만큼 스스로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본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오픈 3기/드라마 작품집

굿바이, 마드무아젤 — 윤인영

작의

아주 독특하고 고독하게 이 세상을 떠난 어느 여성 노인에게 바치는 엘레지.

일명 ‘맥도날드 할머니’의 독특한 노년의 생활방식과 죽음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집도, 가족도 없이 24시간 패스트푸드점과 카페를 전전하며 남은 생을 이어갔던 그녀. 돌이키기 힘든 파국, 압박한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원치 않는 도움을 거절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유지했으며, 기적을 꿈꿨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로 파주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일했던 그녀는 왜 노숙자로 삶을 마감했을까? 사람들은 이 같은 파탄의 원인을 허영과 사치, 정신질환이나 성격적 결함 혹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방식이나 배우자를 고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눈높이 등에서 찾고자 했다. 이 비극을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본 것이다. 과연 그것만이 전부였을까…?

해방 전후에 태어나 대학교육을 받고, 비혼을 선택하며 워킹우먼을 지향할 수 있었던 1세대 여성, 그렇지만 퇴직 이후에 탁월 노후와 빈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대의 여성. 이 작품에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 가시화되지 않은 이 세대 여성의 노후 빈곤과 고독사의 문제를 그려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어느 특별한 엘리트 여성이 노숙자로 전락하고 파멸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그린 드라마가 아니라 직장을 잃고,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의 어느 고독한 여성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남은 생을 이어가는 이야기이다. 또한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런 그녀의 삶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누가 그녀에게 연민을 품고 공감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가족과 친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전 세대가 생존경쟁에 내몰리는 이 시대에 누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수 있을까?

등장인물

마드무아젤 권(70대, 여) 본명 권하영

과거 메이퀸 출신 미모의 재원이었으며 20년간 외교부 근무. 현재는 24시간 카페를 전전하는 노숙인. 과거의 생활반경 10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정원(30대 초반, 여) 계약직 연구원

광화문 북스커피에서 마드무아젤 권을 만나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게 된다.

제재희(20대 중반, 남) 사회복지요원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복무 중 마드무아젤을 만나 그녀에게 도움을 준다.

아키비스트 제이(20대, 남) 유튜버

마드무아젤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녀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의문의 인물.

공스타명 사장(50대, 남)

죽기 전 마드무아젤이 머문 마시안 해변 카페 사장.

그 외

마드무아젤 어머니, 서형우 경사, 북스커피 알바, 백발탈색녀, 남수혁, 외교부 옛 동료 등.

줄거리

죽기 전 마드무아젤에게 전해진 의문의 지프

광화문의 24시간 프랜차이즈 카페를 삶의 마지막 피난처로 삼아 생활하던 마드무아젤 권. 카페가 보름간의 인테리어 공사로 문을 닫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날, 그녀에게 자동차 한 대가 탁송된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연락처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선바이저에 꽂힌 ‘인천공항 1번 게이트’라 휘갈겨 써진 메모 한 장뿐. 옛 직장이 있던 광화문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던 살아왔던

그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마드무아젤 주변을 맴도는 두 명의 젊은 남녀

마드무아젤에게 전해졌던 지프가 영종도 마시안 해변에서 발견된다. 차 안에서 숨을 거둔 마드무아젤의 코트에 남겨진 이정원, 제재희 두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 마드무아젤과 만나게 된 걸까? 언젠가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외할머니를 둔 30대 계약직 연구원 정원과 조부모의 사랑 속에 자랐지만 두 분 모두 병에 걸리자 간병과산으로 내몰린 20대 사회복지요원 재희. 두 사람이 무연고 변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나란히 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진술 속에서 어떤 것은 말해지고, 어떤 것은 말해지지 않는데... 두 사람은 왜, 어떻게 마드무아젤의 마지막 자동차 여행에 동행하게 된 걸까?

마지막 기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는데, 떠도는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어요.”

외교부 근무 20년 연한이 채워지기 직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된 마드무아젤. 연금 없는 노후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유능한 인텔리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왔던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그래도 어쩌면 기적이 있지 않을까? 오래전 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어진 오빠가 내게 이 차를 보낸 거라면?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 자동차 여행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마무리되는데...

죽음 앞에서도, 바들비처럼!

“아니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셨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안타까움과 비난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동안 기회가 많았을 텐데 왜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지? 왜 폐지라도 줍지 않았어? 왜 작은 방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이에게 몸을 위탁하지 않았지? 어쩌면 그녀는 그 질문에 기이한 방식으로 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하루에 커피 한 잔만을 마시며, 매일 무언가를 읽고, 쓰는 삶... 이 고행에 가까울 정도의 성실과 근면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시대에 인간의 마지막 존엄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녀가 던진 물음 앞에 서 있다.

굿바이, 마드무아젤
윤인영

#1. 영종도 마시안 해변(새벽)

여명의 해변. 회색빛 구름 사이로 날이 밝으면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한 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텅 빈 해변에 흰
눈으로 덮인 채 서 있는 한 대의 지프.

#2. 영종도 마시안 해변(아침)

지프 옆으로 경찰수첩을 든 형사와 검은 코트 차림의 젊은 두
남녀가 서 있다.

서 형사 (손에 든 경찰수첩 펼쳐 잠시 일별한 후) 이정원 씨, 제재희 씨?
저는 영종경찰서 수사과 서형우 경입니다.

서 형사의 얼굴에 잠시 의아한 표정이 번진다.
그의 시선 따라가 보면.

CUT TO.

정원의 코트 옷깃에 꽂힌 검은 리본장식. 재희의 왼쪽 가슴에도
비슷한 리본이 달려 있다. 상제(喪制) 리본처럼 눈에 띄는 흰
색은 아니고 수수한 추모리본이다.

서 형사 두 분, 잘 아시는 사입니까?

정원 … (고개를 젓는다)

재희 (정원 보며) 아닙니다…

서 형사 (짧게 고개 끄덕인 후, 차 쪽으로 돌아서며) 이 차가 맞습니까?

† 이 작품은 실존인물 '권하자' 씨의 삶을 모티브로 했으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 가족관계, 주변인물, 사연 등은 대부분 창작된 것임을 밝힙니다.

눈에 덮인 자동차 프레임을 장갑 낀 손으로 뚝뚝 닦는 서 형사. 카키색 차체가 살짝 드러난다. 서 형사, 이번에는 조수석 문을 열어 내부를 보여준다. 문이 열리면서 그 반동으로 룸미러에 걸려 있던 마른 장미 한 송이가 살짝 흔들린다.

정원 … (흔들리는 꽃을 물끄러미 본다)
 재희 … (서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서 형사 … (차 문을 쿵 닫는다)

카메라, 지프 옆에 선 서 형사와 검은 옷차림의 두 남녀에서 눈 덮인 해변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흐린 하늘로 털업한다.

타이틀. “굿바이, 마드무아젤”

#3. 영종경찰서/조사실 내부(낮)

검은 코트 차림의 정원과 재희. 적막한 조사실에 서 형사와 마주 앉아 있다.

서 형사 (노트북 펴둔 채) 무연고 변사사건이라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차량에 무단 침입한 정황은 있지만, 고인이 꽤 알려진 분이신 데다, 복막암 말기였으니.
 재희 차주 분과는 연락이 된 겁니까?
 서 형사 네. 현재 출국 중인 차량 소유주도 사건이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알 만한 집 자제분이니 남의 이목을 끄는 게 부담스러운 거겠죠… 이번 수사는 형식적인 겁니다. 고인 코트 주머니에서 두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요.

정원, 뭐라 덧붙이려다 입을 다물고 창 쪽으로 고개 돌리는데, 머리카락에 가려졌던 옷깃의 리본이 보인다.

서 형사 (리본 흘깃 본다) 실례지만 두 분은 상중이십니까?

정원 (담담하게) 열흘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재희 저는 할아버지께서… (리본 만지며) 삼우제는 끝났지만 아직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 형사 상심이 크실 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간단히 참고인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원 씨는 권하영 씨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페이드 아웃)

#4. 과거. 몽타주. 광화문 세종대로 앞 광장

- 과거. 자막 “1976년” 광화문 세종대로/출근길(흑백). 현재 경복궁이 있는 자리에 철거되기 전의 조선총독부 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왼쪽 뒤편으로 외교부가 들어선 정부종합청사 건물이 우뚝 서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아직 공사 중이다. 그 앞으로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삐 오간다. 30대 초반의 마드무아젤도 오른쪽 어깨에 가죽 서류가방을 메고 바바리코트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 과거. 자막 “1986년” 광화문 세종대로/출근길(흑백). 세종문화회관이 완공돼 공연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도로는 지금보다 한산하고 포니, 스텔라, 로얄살롱, 노란 택시 등이 다닌다. 세종대로 앞으로 버스가 정차하고 안내양이 차 문 두드리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우르르 내려 회사로 향한다. 저 멀리 바바리코트에 가죽가방을 어깨에 멘 마드무아젤도 신문을 맡아 쥐고 서둘러 걸어오고 있다. 화면 끝날 때쯤 정원의 목소리 겹쳐진다.

정원(E) (O.L.) 그분은 언제나 그 거리에 계셨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글썄요. 어찌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 자막 “2019년 겨울” 광화문 광장(낮). 광장에 수백 명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깃발과 의경들 그리고 시위대.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고용안정 쟁취, 투쟁!” 사회자의 마이크 음성과 집회 참여자들의 함성 번갈아 들리다 잦아들면서 정원의 목소리 겹쳐진다.

정원(E) (O.L.) 그분과 처음 대화를 나눈 날을 기억합니다.
아주 독특한 분이셨죠, 마드무아젤 권.

집회현장에서 광장 옆 건물로 팬. 커피전문점으로 들어서는 한 노인의 모습.

#5. 광화문/벅스커피 카운터(오후)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커피전문점. 마드무아젤 권(권하영, 이하 마드무아젤),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선다.

알바생 환영합니다, 고객님! (말과는 달리 지겨운 듯 쳐다보지도 않는, 작게) 오늘도 또, 오셨네요.

그녀의 뒷모습 천천히 털업. 낡고 검은 단화에 깃을 세운 바바리코트(앞서 화면에 나온). 코트는 여기저기 해지고 때가 꼬질꼬질하다. 코트자락 밑으로는 심뜩할 정도로 길게 자란 백발이 보인다. 영자신문이 잔뜩 든 무거운 백화점 종이가방을 안고 있다.

알바생(E) 카페라떼 한 잔, 4900원입니다. 포인트카드나 적립카드… 없으시고, 영수증… 필요 없으실 테고, 잠시 후 오른쪽에서 음료 나옵니다. 진동벨 울리면 받아가…

마드무아젤, 못마땅한 표정으로 알바를 노려보다 말 끝나기도 전에 진동벨 뉘아챈다.

#6. 광화문 벅스커피/2층(밤)

어둑어둑한 저녁. 창밖으로 보이는 광장에선 잔여 시위대가 뒷정리를 하고 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접고, 바닥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광장에서 커피전문점으로 팬하면 광장의 쓸쓸함과 대비되는 실내의 밝은 조명, 캐털. 창가 자리의 마드무아젤 권이 영자신문을 읽으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

카메라가 그녀의 정면에서 천천히 뒤로 빠지면 바로 앞 테이블이 보인다. 마드무아젤을 향해 앉아 자료를 펼쳐놓고 책을 읽는 정원의 모습. 책 제목은 <필경사 바틀비>다. 마주 본 마드무아젤과 정원 사이로 비스듬하게 스타이틀이 뜬다.

자막 “제1장. 나와 마드무아젤”

#7. 광화문 벅스커피/2층(새벽)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정원. 지이잉, 핸드폰 알람 울린다. 보면 ‘새벽 4:00’. 휴대폰 내려놓은 정원, 고개를 들어 카페 내부를 둘러본다. 맞은편의 마드무아젤이 고개를 숙인 채 조는지 성경을 보는지 모를 자세로 앉아 있다. 그 옆으로 술에 잔뜩 취한 젊은 여자가 탈색한 흰 머리를 늘어뜨린 채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따로 앉아 있다. 한 명은 야구모자를 쓴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한 명은 검정 후드 모자를 뒤집어쓴 채 DSLR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다.

알바생, 계단을 올라와 벽에 걸린 청소확인 차트 빼 들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이내 나와 “아이 뭐야. 또야” 중얼거리며 비품창고로 간다. 뚝어빵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다, 바로 앞 트레이바에 다 마신 음료수 쟁반을 올려놓으려던 마드무아젤과 마주친다.

알바생 할머니! 매일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드무아젤 이런 일이라니...? 무슨...?

알바생 무슨 일은 무슨 일, (푹어뻑 치켜들며) 이런 일이죠.

마드무아젤 (차분하게) 이봐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커피 한 잔 외엔. 잠도 자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누워 잠을 자다니. 그건 낫 퍼미트...

알바생 (끓으며) 아씨, 짜증나. 세면대에 흰 머리카락들은 어떡할 거예요. 길긴 좀 길어.

그때 술에 취해 자던 백발 여자가 우웁, 우웁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온다.
알바생 사색이 돼 온몸으로 그녀를 막으며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

알바생 고객님, 안 돼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요.

알바생, 여자를 밀쳐내고 잼싸게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여자는 흰 머리에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낮게 헛구역질한다. 혼란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할머니를 뒷자리에서 촬영하는 야구모자. 정원, 그 모습 본다.

침착하게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려던 마드무아젤. 순간 휘청하며 정원의 테이블에 놓인 책이며, 논문 자료들을 쳐서 떨어뜨린다. 당황해 무릎 꿇고 자료들을 주워 담는데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마드무아젤 (당황해) 이를 어찌. 미안해요.
정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주울게요.

마드무아젤, '이정원' 이름 적힌 다른 노트를 주우려 고개를 숙이는데 그녀의 뒤통수에 붙은 포스트잇. '원조 된장녀의

최후. 헬조선 김치녀들은 각성하라!'라고 적혀 있다. 정원, 얼른 포스트잇 떼어내 감춘다. 이를 눈치 채 건지 알 수 없는 마드무아젤 표정.

마드무아젤 (노트를 건네주며) 가끔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정원 ...저를요?
마드무아젤 자주 여기에 오나요? ...언제 한번 애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날 좋을 때요.

#8. 광화문 빅스커피/2층(아침)

아침 햇살이 밝게 비쳐드는 커피숍 내부. 어느새 마드무아젤은 사라지고 없다. 정원, 유튜브에서 '빅스커피 할머니'를 검색하면 동영상 목록이 주르륵 뜬다. 그중 제일 조회수가 많은 마드무아젤 관련 영상을 클릭하면 한 편의 시처럼, 느린 랩 가사와 리듬으로 영상이 재생된다.

노래(E) '시시한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 시시한 곳에서 자고 싶지 않아, 시시한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아, 시시한 남자와는 살고 싶지 않아. 나를 마드무아젤이라 불러주세요. 오, 당신은 나의 마드무아젤. 세련된 바바리코트에 긴 생머리, 당신은 백발의 집 없는 천사. 4900원짜리 브랜드 커피 한잔으로 축소돼버린 당신의 LIFE. 영광의 메이퀸, 여전히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나요? 당신은 아직도 기적을 믿고 있나요?'

위의 영상에 출근길 걸음을 서두르는 광화문 직장인들의 모습이 겹친다. 모자를 뒤집어쓰고 카메라를 챙겨 자리를 뜰 준비를 하는 후드남, 자료를 가방에 담고 일어설 준비하는 정원. 두 사람이 각자 쟁반을 들고 오다 트레이바 앞에서 마주친다.

정원 (말없이 후드남의 쟁반에 구겨진 포스트잇을 내려놓는다)
후드남 (? 펼쳐본 후) 이거... 나 아닌데요.

정원 (정말? ...목에 건 카메라에 시선 준다)
 후드남 (시선 알아채고) 영상을 찍은 건 나 맞고, (손에 쥔 포스트잇
 고개로 가리키며) 이건 나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악의적인
 내용을 찍어서 올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포스트잇 뒷면에
 불펜으로 'Archivist J'라고 쓴다)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요.
 제 계정 주소예요. (목에 건 카메라 만지며) 그냥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가끔 그쪽이 이 카페에 나타나서 할머니를
 관찰하는 것처럼.

한 방 얻어맞은 듯 말을 잊지 못하는 정원. 후드남, 할 말 다
 끝낸 듯 모자를 벗으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앞에 야구모자를
 쓴 남자가 보인다. 야구모자,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 정원과 시선
 마주치자 급히 고개 돌리고 달아난다.

#9. 광화문 고급 레스토랑 앞(낮)

멀리서 종이 쇼핑백을 안고 걸어오는 마드무아젤. 어느
 고풍스러운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서더니, 가게를 올려다본다.

#10. 광화문 고급 레스토랑 안(낮)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품격이 느껴지는 레스토랑 내부.
 지배인인 듯한 정장 차림의 백발 노신사와 마드무아젤이 마주
 앉아 있다. 지배인이 돋보기안경을 쓰고 마드무아젤의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본다. 경력 사항이 한자로 뺄뺄이 적힌 이력서.

마드무아젤 (커피잔을 들어 보며) 여전히 로열 딜튼이네요. 아주 익숙해요, 이
 커피잔. 예전엔 조금이라도 한가한 틈이 생기면 여기 와서 이 잔에
 커피를 마셨죠. 아시다시피 외교부 일이라는 게 워낙에 정신없이
 바쁘니까.

지배인 간간이 오셨던 것 기억합니다. 그사이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게 벌써 사십 년 전이라니.

마드무아젤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여긴.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오신 손님 응대라든가.

지배인 (안경을 벗으며) 안타깝네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서빙 파트만 충원 중이라서요.

마드무아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도도하게,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그런가요.
 할 수 없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1. 광화문 레스토랑 앞(낮)

무거운 종이 쇼핑백을 안고 멀어지는 마드무아젤.
 그 뒷모습을 노신사가 배웅하듯 오래 지켜보고 서 있다.

#12. 대학 캠퍼스 대운동장(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캠퍼스. 운동장에서 미식축구부가
 연습게임을 하고 있다. 스탠드에서 그 모습 보며 캔맥주를 쪽
 들이켜는 정원. 친구가 다가와 그 모습 한심한 듯 본다.

정원 친구 야, 술을 마시기엔 좀 이른 거 아니니.

정원 ... (말없이 핸드폰을 내민다)

정원 친구 (정원 핸드폰의 문자를 읽는) 귀하는 본 대학의 연구직 재계약
 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핸드폰 다시 건네고 옆에 앉아 맥주캔 따며) 그래,
 마셔라 마셔. 이제 여기서도 밀려나면 어디로 가니, 너.

맥주가 잘도 넘어가는 두 사람.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낯선 번호다.

정원 (전화 받으며 가웃) 여보세요? 누구...? 아, 예. 지난번 광화문
 카페에서 뵈었죠. 어쩐 일이세요? 네...? 자동차를요?

인서트.

광화문 세종대로. 벅스커피 앞에 카키색 지프가 한 대 서 있다. 마드무아젤이 알바생 옆에서 전화기를 빌려 전화하고 있고, 퇴근길 도로를 막고 선 차에 화가 난 차주들이 경음기를 요란하게 울려대는 중이다.

마드무아젤(F)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자동차 한 대가 생겼어요. 카페 앞이 너무 혼잡해서 빨리 차를 빼줘야 하는데 당장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달리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정원 (맥주캔 보며 난감한 표정) 어찌죠? 제가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장릉면허라 운전도 서투르고요.

마드무아젤(F) (빠르게 체념하는)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실례가 많았어요.

#13. 광화문 벅스커피 앞(낮)

다음날. 정원, 카페 앞에 서서 유리문에 붙은 공지를 읽고 있다.

인서트.

공지 '벅스커피 광화문점은 인테리어 공사 관계로 보름간 휴업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벅스커피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는 정원. 내부에선 몇 명의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알바생이 간단한 짐을 챙겨 유리문 밀고 나온다.

정원 저 혹시... 오늘은 그분 안 오셨나요? 바바리코트 입고 늘 창가 자리에서 신문 읽으시는.

알바생 그분도 당분간은 못 오시죠. 보시다시피 공사 중이라.

정원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세요?

알바생 글썄요. 여기가 이 일대에 딱 하나 남은 24시간 카페라. 참! 어제 제가 그분 부탁으로 지프 한 대를 옮겨다 드렸어요. 갑자기 차가

생기셨는데 몇 군데 전화해보도 달리 부탁할 분이 없으셨나 봐요. (혼잣말) 그런데 대체 누가 그런 분한테 차를...

정원 거기가 어디죠?

알바생 사직공원 근처요.

#14. 사직공원(늦은 오후)

텅 빈 사직공원 안. 어둑어둑한 하늘에 먹구름 밀려왔다 비를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몸을 웅크린 채 비를 맞고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마드무아젤. 정원, 조심스레 다가가 우산을 받쳐준다.

마드무아젤 (뒤돌아본다) 여긴 어떻게...?

정원 늘 이 근처에 계신대서요. 새로 생기셨다는 그 자동차는 어디에...?

#15. 사직로 골목길/2층 양옥집 앞(해질녘)

좁은 골목길을 마드무아젤과 정원이 우산 하나 받쳐 든 채 나란히 걸어온다.

마드무아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사직동 8-15번지.

정원, 길 끝에 다다라 보면 2층 양옥집이 있고 그 앞에 지프가 세워져 있다. 양옥집 2층 큰 창에서는 따뜻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어린아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창문을 열고 "비가 오네" 하고 중얼거리다 무심코 이쪽을 본다. 아이 엄마, 두 사람을 잠시 주시하다가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에 다시 창문을 닫는다.

정원 (조금 당황한 얼굴로 보다가) 여기가...?

마드무아젤 (멍하니 보며) 저 집에서 어머니와 제가 살았죠. 오래전 일이지만.

#16. 양옥집 앞 골목길/지프 안(석양)

양옥집이 보이는 곳에 서 있는 지프. 정원과 마드무아젤 나란히 앉아 있다. 차 지붕을 후려치는 빗소리가 거세다.

정원 운전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마드무아젤 (생각해보는) 오래전에 면허를 따긴 했는데, 왜 한 번도 직접
 운전을 해볼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일할 땐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정원 그때랑은 자동차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고, 시동을
 걸 상태에서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히터. 음악을 듣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원이 FM 라디오 버튼을 누르자 샹송이 흘러나온다.

정원 어…? 클래식 채널인데 오늘은 샹송이 나오네.
마드무아젤 프랑수아즈 아르디의 <Comment te dire adieu>… 내 방에서
 자주 들었던 곡이네요. (옛집 그리운 듯 보며) 첫 월급 탔을
 때 어머니께 블라우스를 사드렸죠. 무척 기뻐하셨어요. 목부터
 어깨까지 둘러진 레이스가 유난히 예뻐요. 두 번째 월급을
 탔을 땐, 큰맘 먹고 전축을 샀어요. 그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어찌나 좋던지…

정원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마드무아젤 It hurts to say Goodbye. 어떻게 너에게 안녕을 말할까.
 노랫말은 슬프지만 템포는 흥겹죠.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 그
 느낌이 난 마음에 들었어요.

불륨을 높이는 정원.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드는 마드무아젤의
얼굴에서 디졸브.

#17. 과거. 마드무아젤의 집(저녁)

동그란 거울 안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마드무아젤과 어머니.
새로 산 블라우스(어머니 쪽이 레이스가 달려 더 화려하고,
마드무아젤의 옷은 조금 더 검소한)를 입고 이리저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다. 그러다 눈 마주치자 생긋 웃는 두 사람.

CUT TO.

초르륵, 코끼리 보온병에서 물을 따르는 마드무아젤. 새로 낸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집을 읽기 시작한다. 새 블라우스를
입은 어머니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뜨개질을
한다.

마드무아젤 (시집을 읽는)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어머니 (멀리서 뜨개질하며 외치는) 등!

마드무아젤 (등을 꼳꼳이 펴며)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어머니 (똑같이 따라하는)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마드무아젤 나는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겨울바람에 창문이 덜컹이고, 석유곤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가
푹, 소리를 내며 끓는다. 넓진 않지만 간소한 가구들이 갖춰진
70년대 가정집 거실의 풍경에서 페이드 아웃.

#18. 지프 안/밖(밤)

차 안. 어느새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정원 저 이만 가볼게요. (머뭇) 오늘밤 여기서 지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마드무아젤 (히터를 본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내 방에

있는 것처럼.

정원 (조심스레) 그 히터... 계속 틀어두면 휘발유가 나가는데. 게이지 보이시죠? F에서 E로 갈수록 연료가 바닥이...

마드무아젤 (끓으며 냉정하게) 생각 없이 낭비 말고 아껴 써라?

정원 (당황) 아뇨, 아뇨. 그런 게 아니라. (주저. 확신은 없는) 차라리 오늘 밤 저희 집으로 가시면 어떨까...

마드무아젤 거절하겠습니다. (눈 감고 의자 내린다) 이만 쉬고 싶군요.

차 문 닫고 천천히 발을 떼던 정원, 다시 되돌아와 차창을 두드린다.

마드무아젤 (창문 내리고 본다) ...?

정원 CD투입구 밑에 자물쇠 모양 버튼 보이시죠? 그게 잠금 기능이거든요. 혼자 계실 땐 꼭 차 문 잠가놓고 계세요. 그럼 가볼게요!

뒤돌아서 힘차게 뛰어가는 정원. 잠금 버튼 물끄러미 보는 마드무아젤.

#19. 정원의 원룸(밤)

좁은 방에 책들만 빼곡한 원룸. 정원, 침대에 앉아 낡은 흑백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 클로즈업.
 흰 드레스에 화관을 쓴 여자(20대)와 단정한 양장차림 여자(30대)가 나란히 서서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다. 사진 우측 하단에는 '오월의 여왕, 메이퀸과 함께 - 1965년 외대 캠퍼스에서'라고 금장 글씨가 새겨져 있다.

#20. 꿈. 숲속/도로(낮)+현재. 정원의 방(새벽)

클래식한 올드카(캐딜락 정도) 안. 누군가의 늙은 손이 라디오 버튼을 돌린다. 프랑수아 아르디의 <Comment te dire adieu(어떻게 너에게 안녕을 말해야 할까)>가 흘러나온다. 시동 걸고 운전대 잡은 사람, 마드무아젤의 바바리코트를 입고 허리까지 오는 긴 백발을 늘어뜨렸다. 그렇지만 얼굴 보이면, 마드무아젤이 아니고 나이든 정원이다.

숲. 음악 소리 멀어지면서 캐딜락이 오른쪽 급커브길 지나면, 전방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신호등이 나타난다. 노란불 빠르게 깜빡인다. 위태로운 느낌. 캐딜락, 다시 우회전해 회전 교차로에 들어선다. 교차로 빠져나간 캐딜락이 끼익-급정거한다.

기계 안내음(E)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하시오, 안전벨트를 풀고 기어를 파킹에 두신 후, 하차해주시시오... (다시 한 번)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하시오, 안전벨트를 풀고 기어를 파킹에 두신 후, 하차해주시시오.

고요한 숲속. 호수 옆에 캐딜락이 서 있다. 바람이 불고, 풀이 눕는다. 운전석의 백발 노인은 여전히 핸들에 고개를 박고 미동도 않는다. 반짝이는 호수에 잔물결이 일고, 호수 위 푸른 하늘에 신호등이 걸려 있다. 빨간불 신호다.

정원의 방 안. 미간 찌푸리며 꿈 꾸던 정원, 벨소리에 깨어 전화를 받는다.

정원 네, 제가 이정원인데요. 네?? 파출소요?

#21. 사직파출소 밖(새벽)

날이 밝아오는 새벽, 파출소 앞. 순찰차 옆에 지프가 서 있다.

#22. 사직파출소 안(새벽)

파출소 안엔 20대 정도의 남자 순경과 50대 정도의 경찰이 번갈아 하품하며 데스크를 지키고 있다. 민원인 벤치엔 술 취한 남자가 잠들어 간간히 잠꼬대를 한다. 그 옆 따로 놓인 보조의자에 마드무아젤이 꼳꼳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다. 정원, 파출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온다.

경찰 (들어오는 정원 보며) 권하영 할머니 보호자분?

CUT TO.

마주 앉은 정원과 경찰.

경찰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며칠째 집 앞에 낫선 차가 서 있으니까 불안하다고. 나이드신 분이 왜 차에서 주무시냐 여쭙 봐도 횡설수설하셔서 저희 순경이 일단 이리로 모셔왔어요. (마드무아젤 힐끗 보다 목소리 낮춰) 조회해보니까 주소가 성당이에요. 거주지도 불분명한데 차량이 있는 것도 수상하고, 보니까 비싼 차 같던데.

마드무아젤 (차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후원자분이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경찰 하. 참, 미치겠네. (정원 보며) 아가씨는 이분이랑 어떤 사이신데? 차주인 남수혁 씨 아세요? 전화를 해봤는데 연결도 안 되고.

정원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할머니를 잘 알아요. (잠시 고민하다 적당히 둘러댄다. 눈 마주치지 않고 말하는) 남수혁 씨도 저희 교민이세요. 할머니 사정이 딱하다고 해외 선교 나가시면서 차를 잠시 내주셨어요.

경찰 그래요…? (잠시 생각해보는데 귀찮음이 밀려온다) 어쨌든 일단 보호자분도 오셨고, 이만 모시고 가보세요.

#23. 사직동 골목길(아침)

운전석의 정원,
보조석에 앉아 곤히 잠들어 있는 마드무아젤 물끄러미 본다.

시간 경과.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차 안을 비춘다. 눈이 부신지 마드무아젤이 깬다.

마드무아젤 (머리 매만지며) 내가 잠이 들었었나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정원 좋은 꿈이라도 꾸셨어요?

마드무아젤 글썄요… (생각에 잠긴 표정)

정원 이 차요… (조심스레) 어떻게 된 거예요?

마드무아젤 실은 나도 잘 몰라요. 카페에 있는데 누가 내 앞으로 차를 탁송해 주고 갔어요.

플래시백. #12의 인서트와 연결된 상황.
운송조끼에 캡 쓴 탁송기사가 대로에 서서 마드무아젤에게 영수증을 내민다.

탁송기사 저도 보낸 분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나, 다음 탁송 밀려서 빨리 가 봐야 되니까 얼른 사인 좀 해달라고요!

떨떠름한 표정으로 사인하는 마드무아젤.
영수증 낚아채 돌아서는 탁송기사.

마드무아젤 누구까. 누가 나한테 이런 차를 보냈을까. 계속 생각해보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영문도 모르는 차를 덤석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카페도 문을 닫았고. 당장이 막막해서… 정원 양 눈엔 이런 내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려나…

정원 아네요, 혹시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차일까 봐. (기분전환하며)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슬슬 출발해볼까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마드무아젤 ... (의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보는 얼굴이다)
정원 그럼, 일단.

#24. 몽타주. 사직동 문구점. 세탁소. 목욕탕(오전)

외출 준비.
- 문구점 매대 위에 걸린 '초보운전 스티커'를 고르는 정원과 마드무아젤.
- 세탁소 앞에 서 있는 지프. '속성드라이클리닝' 적힌 세탁소 문 밀고 들어가는 둘.
- 목욕탕 앞에서 기다리는 정원. 마드무아젤, 문 밀고 나온다. 세탁소에서 찾은 깨끗한 코트를 입었다.

#25. 사직동 유정미용실 앞(오전)

오래된 동네 미용실 앞에 걸음을 멈추는 마드무아젤. 간판이며, 인테리어가 완전 옛날식이다. '연말 이벤트, 커트 손님 고데 공짜'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마드무아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서 있다.

정원 (다가가 살피며) 머릿도 좀 자르시면 어때요? 많이 길었는데...
마드무아젤 (머리 만져보며) 아직은 괜찮아요.
정원 왜요? 여기가 이래봐도 유명한 곳이래요. 청와대 드나들던 분들도 여기서 머리 하셨대요. 잡지에서 봤어요.
마드무아젤 펴이나 웨이브는 소공동 호텔 슉이 일류예요. 거기 아님 다 시시하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가게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마드무아젤. 안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원장이 가웃하며 이쪽을 본다. 얼른 고개를 돌리며 무의식적으로 코트 앞섶을 여미는 마드무아젤.

정원이 보면, 코트 안에 입은 남방의 옷깃이 때가 타 꼬질꼬질하다.

정원 (목에 들렀던 머플러를 풀며) ...이렇게 할까요?

#26. 사직동 유정미용실 안(오전)

미용실 의자에 앉은 마드무아젤. 정원의 머플러를 솔처럼 넓게 어깨에 돌렸다. 60대 정도의 원장이 그 위에 다시 커트보를 두르고 긴 머리를 얼마나 잘라야 할지 가늠해본다.

원장 짧은 머릿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깨까지 쬐으며) 이 정도 어떠세요?
마드무아젤 아니. 난 아무래도 좀 긴 게 좋아요, 엘레강스하게.
원장 (등 정도까지 쬐으며) 그럼 길이는 이 정도로 하고. 머리는 제가 알아서 맡아드릴게요.

옛날식으로 불에 달군 고테기 들고 와 마드무아젤의 흰 머리를 한 가닥씩 마는 원장. 소파에 앉은 정원이 뒤에서 그 모습 지켜본다.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원장 (뒷거울 보여주며) 마음에 드세요?
마드무아젤 (꼼꼼히 본 후) ...여전하시네요, 송 원장님 솜씨는.
원장 (커트보 벗겨주며) 얼른 회복하셔서 정상생활 하셔야죠...
마드무아젤 (눈에 살짝 눈물이 고인다. 몽클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는)

#27. 외교부 앞 도로/지프 안(낮)

의경들이 지키고 있는 외교부 청사 정문. 그 앞 도로를 지나쳐가는 지프. 꿈무늬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지프, 어느새 되돌아와 다시 그 길 위에 서 있다. 계속 청사 앞을 뱅글이하는 지프.

정원 (신호 받고 멈춘. 운전석에서 정문 보며) 여기를
들어가지겠다고요?
마드무아젤 … (고개만 끄덕)

#28. 외교부 정문/유리문 입구/청사 1층 로비 국민외교센터(오후)

마드무아젤과 정원, 당당한 걸음으로 정문 통과하는데 의경들이
경례를 한다. 청사 유리문 입구. 감회가 새로운 표정으로
청사 건물을 올려다보는 마드무아젤. 두 사람, 1층 로비로
들어서는 데 안쪽 행사장에서 소리가 들리고 입간판이 서 있다.
‘국민외교센터 공감팩토리 - 외교부 선배님들과의 만남’

#29. 외교부 1층 행사장(낮)

연단에서 주최자가 행사를 주관하고, ‘국민외교 학생기자단’
때 두른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다. 테이블마다 연세 지긋한
전 외교부 직원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정원과 마드무아젤,
입구 쪽 외진 테이블에 자리 잡는다. 둘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알아보고 다가온다.

옛동료 언니? 하영 언니 맞구나!

마드무아젤과 친분이 있던 이는 한 사람인데 덩달아 서넛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달려와 눈인사를 하고 합석한다. 정원, 슬며시
자리를 피해준다.

옛동료 (자리에 앉으며) 언니, 소식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마드무아젤 (내키지 않는)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옛동료 나야 뭐 어떻게, 라고 할 게 있다. 그냥 평범하지.

마드무아젤 (그 말을 곱씹어보는) 평범하다…

합석한 사람 하나가 “어휴, 덤네-” 하고 외투를 벗으면 분위기
타듯 옆자리에서도 “난방이 너무 세”, “이게 다 국민세금인데,
아끼지 않고” 하며 겹옷을 벗어 의자에 건다. 모피나 캐시미어
같은 값비싼 외투들. 특별한 날이라 겹옷 안에도 제법 잘 차려
입었다. 마드무아젤 혼자 코트 옷깃을 붙잡고 있다. 외투는
세탁했지만 속의 옷은 내보일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런
마드무아젤을 흘깃 걸눈질하는 테이블 사람들.

옛동료 있잖아, 언니… (손잡는) 방송 나가고 나서 전직 외교부 동료들이
상의를 해봤거든. 근데 곧 좋은 소식이 갈 것 같아.

마드무아젤 …? (조금 기대하는 표정이다.)

옛동료 언니 이제 이렇게 힘들게 생활 안 해도 돼. 늘그막에 둘만 남은
내외가 말벗도 할 겸 언니한테 방 한 칸을 선뜻 내주겠다. 그리
넓은 집은 아니지만 작은 마당도 있다는데. 좀 고마운 일이야.
거기서 편히 쉴고, 쉬고…

마드무아젤 (실망한, 단호한) 그건 내가 싫어.

옛동료 (예상 못 한) …아니 왜?

마드무아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냐. 어차피 지금 이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것도 아닌데… 편한 거, 평범한 거 그런 것 따위, 뭐가
중요해.

옛동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마드무아젤 (손 빼며) 글썸. 내가 거절했으니까 더 묻지는 말고. 그냥 내 NO를
NO로 받아주는 게 예의겠지. 나 먼저 일어설게.

#30. 외교부 건물 복도(낮)

건물 내 외진 복도에 놓인 전신거울.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마드무아젤. 눈을 깜빡, 감으면 압전.

#31. 과거. 어느 연회장(밤)

‘외교부 주재 존 해밀턴 주한미군사령관 환송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연회장. 샹들리에가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가운데 한쪽에선 연주자들이 클래식을 연주하고, 웨이트리스들 샴페인과 음식을 나른다. 성장한 남녀들 잔을 들고 연회 즐기고, 그 사이사이 군복 차림 주한미군들 보인다. 바바리코트를 입은 50대 초반의 마드무아젤, 주한미군사령관 존 해밀턴 장군과 한국육군대장 모 장군 사이에서 연신 수첩에 필기해가며 통역을 하고 있다.

갑자기 어디선가 쟁반이 떨어지고 샴페인 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와 동시에 관악기가 불협화음을 내뿜는다.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연회장. 웨이트리스가 옷깃을 부여잡고 연회장을 뛰쳐나가고, 그녀가 있던 자리엔 군복 차림의 눈 풀린 주한미군이 샴페인 병을 손에 쥐고 키득키득 웃고 있다.

모 장군, 상황을 파악하고선 어딘가를 향해 탁, 손짓을 하자 연회장이 암전되고, 또 다시 탁, 손짓하면 샹들리에 켜진다. 눈 풀린 주한미군,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연단 마이크 앞에 선 모 장군. 존 해밀턴 사령관과 마드무아젤도 그 옆을 지키고 서 있다. 모두의 시선이 모 장군에게 쏠린다.

모 장군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 잠시 장내가 소란스러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드무아젤 (영어로 통역한다)

모 장군 여러분은 혹시 절영지연이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드무아젤 (영어로 통역한다)

모 장군 초나라 장왕은 연회에서 한 신하가 자신의 후궁을 희롱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이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이런 일로 나의 신하를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마드무아젤 ... (모 장군, 통역 이어지길 기대하며 그녀를 보는데 침묵하는)

모 장군 (일단 다음 말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는 전장에서 피를 나눈 형제다 이겁니다. 브라더후드!

마드무아젤 ... (여전히 침묵한다)

모 장군 (마드무아젤 보며) 우리 통역사님께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네.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러시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제의 사소한 실수를 눈감아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이겁니다. 마드무아젤... (침묵하고, 사람들의 시선 그녀에게 쏠린다)

모 장군 (당황한. 잠시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고) 이봐. 뭐해?

마드무아젤 ... (정면으로 모 장군을 쳐다본다)

모 장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느꼈다)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마드무아젤 ... (단호히 볼펜의 뚜껑을 닫고, 수첩을 덮는)

모 장군 (불쾌한 표정) 안 한다 이거지? 배짱 하나는 좋네.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겠어?

모 장군 팔을 뻗어 탁, 손짓을 하자 연주자들의 흥겨운 음악이 시작된다. 다시 분위기 화기애애해지는데, 그 분위기를 틈타 아까의 눈 풀린 주한미군이 들어온다. 한 손에 술병 쥔 주한미군, 연단으로 올라가 모 장군의 대머리를 나머지 한 손으로 붙잡더니 살며시 그러나 길게- 키스한다. 경악한 모 장군의 표정... 웅성이는 사람들.

마드무아젤 (혼자 중얼거리는) 놀구들 있네...

이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배경으로 홀로 고집스럽게 서 있는 마드무아젤에서, 암전.

#32. 외교부 청사 주차장(오후)

청사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지프. 보조석 유리창 너머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마드무아젤의 모습이 보인다. 정원이 커피를 들고 지프에 탄다.

#33. 지프 안(오후)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마드무아젤에게 행사장에서 가져온 커피를 내미는 정원.

정원 왜 좋아하는 커피도 안 드시고 그냥 가셨어요.

마드무아젤 ...

정원 이제 어디로 가지... 다시 사직동으로 갈까요?... 아님, 광화문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마드무아젤 ... 내가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나 아는 사람, 성당 지인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매일 커피를 마셔요... 광화문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 그냥 나는 그대로인 거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도.

정원 ...

마드무아젤 광화문 광장에선 거의 매일같이 집회가 열려요.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안정 쟁취하자', 솔직히 시끄럽기도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기다렸어요. 다시 일할 수 있기를,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보조석 선바이저를 내려 거울을 본다) 이 꼴로 거길 왜 갔을까. 그래도 거긴 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변해버린 것도 모르고.

정원 누구나 그런 장소가 있지 않나요.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곳. 거울에 비친 모습만이 진실인 건 아니잖아요.

정원, 자신도 거울을 보러 운전석 선바이저 여는데 메모지가 낱장으로 떨어진다. 주워서 보면 휘갈겨 쓴 글씨가 있다.

정원 (메모 읽는) 인천공항 1번 게이트, 뉴저지...

마드무아젤 ...뉴저지?

정원 아시는 곳이에요? 혹시... 이 차를 보낸 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마드무아젤 뉴저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열 살 터울 오빠가 미국 뉴저지에 살아요. 소식 끊긴 지 한참 됐는데. 날 참 많이 아끼고

위해줬던 분이예요. 오빠가 나한테 차를 보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정원 그럼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실마리가 잡힐지도 몰라요. ... 당장 머물 곳도 필요하고요.

#34. 북로분기점 IC/지프 안(저녁)

전방에 북로분기점 IC 표지판. 인천공항·청라 방향으로 오른쪽 화살표 표시가 돼 있다. 오른쪽 길로 빠지는 지프. 차 안, 정원 말없이 운전하고 있고, 마드무아젤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본다. 해가 조금씩 사위어간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소리만 요란하다.

#35. 영종대교 하부도로 위/지프 안(저녁)

지프가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천천히 지나간다.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가는 차량의 노란 미등만이 겨우 보인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영종대교 경고 사이렌이 불안함을 가중시킨다.

경고음(E) 안개발생! 절대감속! 안개발생! 절대감속!

갑자기 내비게이션마저 먹통이 된다.

내비게이션(E)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주행경로를 변경합니다. '빠리릭'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주행경로를 변경합니다. '빠리릭'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주행경로를 변경합니다.

정원 (불안한 표정) 어어. 내비까지 왜 이러지... 고장 났나.

#36. 운엽도 들어서는 길/운엽도 비포장도로(밤)

전방의 도로표지판. 아무 글자도 없이 화살표만 우측과

아래쪽으로 그어져 있다.

정원 (놀란) 표지판에 아무 글자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지프, 우측으로 빠지는 길 택해 들어서는데 갑자기 비포장도로가 이어진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멈춰선 지프. 눈이 멀 듯 강렬한 라이트만이 텅 빈 길을 비추고 있다.

#37. 지프 안(밤)

헤드라이트도, 시동도 꺼진 차 안. 정원, 운전대에 고개를 박고 잠들어 있다. 입김이 차창에 서릴 만큼 추운 날씨. 차내 LED 켜져 있고 마드무아젤이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손때 탄 낡은 일기장에 무언가 끄적이고 있다. 잠에서 깨어 그 모습 보는 정원.

정원 … 일기 쓰세요?

마드무아젤 그냥 뭐… 이름에 어떤 한자를 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원 한자요? 버들 정에 동산 원이요. 평범하죠.

마드무아젤 여자들 이름에 자주 쓰이는 글자이긴 한데… 이진 어떨까나.

마드무아젤이 일기장 내민다. 새 페이지에 빼어날 拵, 동산 園 한자로 크게 적혀 있다. 명필이다.

정원 빼어날 정에, 동산 원…?

마드무아젤 여자들도 좀 진취적으로 뜻을 펼치며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써서 보여주며) 내 이름은 여름 夏, 빛날 榮을 써요. 우리 오빠는 여름 夏에 나루 津.

정원 우리 엄마 이름은 옥자예요. 외할머니 이름은 귀남이고요. 사람 인생 이름 따라 간다고, 이름이 더 고왔으면 덜 투박한 인생 살았을 거라고 자주 불평이셨어요. 그에 비하면야…

마드무아젤 우리 어머니는 오빠와 나를 똑같이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

시대엔 드문 일이었지. 나는 성실하게 공부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어요. 정원…

마드무아젤, 이번에는 일기장에 依願免職이라고 크게 쓴다.

마드무아젤 의원면직. 원에 의해서 직을 면한다. 원은 원인데, 누가 원한 걸까. 내가, 아니면 회사가.

#38. 운연도 별판(밤)

답답한지 마드무아젤이 차 문을 열고 나간다. 정원도 따라 나선다.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는 두 여자의 실루엣.

마드무아젤 생활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퇴직금이 바닥나고, 집이 날아가고.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괜찮았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회피적인 사람이라는 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떠도는 시간은 영원과도 같았어요. 안개 속을 끝도 없이 헤매는 것 같은 그 기분.

그 자리에 주저앉는 마드무아젤. 어찌 말을 보태야 할지 알지 못해 처연한 그 모습 그대로 보는 정원.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정원 (안타까운) 추워요… 이만 들어가세요.

어디선가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E) '냐—옹. 냐옹'

정원 (돌아보며) 어, 고양이 소리네. 새끼가 봐요…

자동차 오른쪽으로 가보면, 바퀴 뒤에서 아기 고양이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

정원 (앉아서 고양이 본다) 짐박이구나. 왼쪽 눈에만 멍이 있어.
마드무아젤 (다가가 고양이 쓰다듬으며) 흡니. 배고프구나. 이렇게 바삭
말라서.

정원, 주머니에서 행사장에서 가져온 화과자를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준다. 새끼 고양이, 허겁지겁 과자를 삼켰다가 다시
뱉어낸다.

정원 왜 안 먹지, 오래 굶었을 텐데... 너무 커서 그런가.
(과자를 잘게 부수어서 다시 놓아준다)

고양이, 이번에도 과자에 혀를 대보는데 먹질 않는다.

마드무아젤 (그 모습 애처롭게 보다가)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못 먹는 거야... (맨손으로 고양이 눈에 잔뜩
낀 눈곱을 쓸어주며) 조심히 다니고 아프지 말아라...

어디선가 덤프트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소리에 놀라 날쌔게
도망가는 새끼 고양이.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준설토 투기장과
마른 갯벌의 형태가 드러난다.

정원 안개가 조금씩 걷히나 봐요... 다시 가볼까요?
마드무아젤 (공정의 느낌으로 마음 다잡으며 고개 끄덕이는)

#39.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진입도로/지프 안(밤)

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 지프. 양옆으로 자동차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니 지프를 추월해 속도 내며 달려간다. 저 멀리 불 환히
밝힌 거대한 공항의 모습 보이기 시작한다.

정원 드디어 공항이네요...
마드무아젤 인천공항은 처음이에요. 나 때는 김포공항만 있었는데.
정원 (미소 지으며) 설레세요...?

새로운 이정표 앞에 마드무아젤도 약간 상기된 표정이 되는데,
내비게이션용으로 거치대에 걸어두었던 정원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다. 운전 중이라 받지 않는데, 계속, 계속해서 벨이
울린다. 액정에는 '엄마'라고 떠 있다.

마드무아젤 급한 전화인가 본데 받아봐요.
정원 모(E) (스피커폰 연결된) 정원아...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외할머니가
쓰러지셨다.

'끼이익' 갖길에 급정차하는 지프. 얼어붙은 정원의 표정에서
페이드 아웃.

#40. 영종경찰서 뒷마당(오후)

하얀 눈 위로 난 발자국. 그 발자국 따라 걷는 또 다른
발자국에서 소타이를 뜬다.

자막. “제2장. 마드무아젤과 재희”

#41. 영종경찰서 뒷마당(오후)

정원이 멈춰 선 곳에 눈사람이 있다. 재희가 눈사람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정원 따뜻하겠다...
재희 할머니 생각나서요. 애처럼 눈 좋아하시는데, 또 추위는 어찌나
타시는지. 목도리를 (손으로 미간 가리키며) 여기까지 두르고 눈을
빚으셨어요. (DSLR 카메라로 목도리 두른 눈사람 사진을 찍는다)

정원 오늘도 눈을 밟고 계시겠네요. 올해 첫 눈이니.
 재희 지금은 병원에 계시요, 우리 할머니. (돌아보며 씩웃) 근데, 우리 구면이죠?
 대화 나누는 돌 뒤로 소리도 없이 서형우 경사가 다가온다.
 서형사 여기들 계셨군요.

#42. 영종경찰서 조사실(오후)

1장과 마찬가지로 구도로 정원, 재희, 서형사가 앉아 있다. 이번엔 재희가 진술한다.
 재희 그분을 처음 뵈 건 1년 반 전이었어요. 창덕궁 후원에서요.
 인서트.
 사방이 캄캄하고 적막하다. 밤, 검은 연못. 곤충들이 움직이는 소리들만 들려온다. 물가 벤치에 마드무아젤이 홀로 앉아 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습 카메라에 담는 재희.
 재희(E) 밤늦은 시간 인적 드문 곳에 홀로 앉아계셨어요, 나이드신 분이, 그것도 여자노인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서요. 이상했어요. 너무 슬퍼 보였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그분을 다시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공항에서, 일주일쯤 전에. (페이지 아웃)

#43. 인천공항 T1 병무민원센터(낮)

간이 우리가 둘러진 민원테스크 앞에 재희와 직원(남, 30대)이 앉아 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와 무언가를 묻거나 요구한다.

점프컷.
 외국인청년 (커다란 배낭 메고 영어로) 공항철도 어디서 타요?
 점프컷.
 할아버지 (5만 원권 내밀며) 천 원짜리로.
 점프컷.
 중년 여성 (사발뿔 내밀며) 저기 총각, 라면에 뜨건 물 좀 부어줄 수 있을까? 우리 비행기 탈라픈 한-참 남았는데 배가 고파서.
 재희 죄송하지만 공항에서 뜨거운 물 사용 안 됩니다.
 중년 여성 아니, 민원센터가 이렇게 뽀뽀하게 굴기야.
 재희 아주머니, 여기는 그런 민원센터가 아니고요...
 재희, 두 손으로 공손히 간판 보라는 듯 위를 가리키고, 아줌마도 짜증난 얼굴로 위 올려다본다. 카메라 텅텅하면 '병무민원센터' 간판 달려 있다. 바로 옆에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붙어 있고, 의경 셋이 각 잡고 앉았다.
 직원 (민원인들 다 가니 그때서야 고개 들며) 아, 씨. 왜 이름 끝에 민원센터를 붙여가지고. 하필 구역도 정중앙이야. 근데 사람들 이상하지. (옆으로 고갯짓) 절대 민중의 지팡이들한테는 뭐 안 물어봐요. 죄진 거들 있나.
 재희 제가 응대할게요, 주사님. 너무 일일이 신경쓰지 마세요.
 직원 (기분 제법 괜찮다) 그래, 그래. 내가 여기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 셋 중에 너 젤 좋아하는 거 알지? (배 움켜쥐고) 나 화장실 다녀올게. (벽시계 본다. 4시 55분이다) 시간 되면 알아서 퇴근해. (나간다)
 재희, 씩- 웃으며 생수를 마시다가 일어나 뒤쪽에 놓인 화분에도

물을 준다. 덩치에 비해 화분이 너무 작아 줄기며 잎이 앞으로 온통 쏠렸지만 그래도 제법 싱싱하게 잘 자란 화분이다. 그 뒤로도 작은 화분이 몇 개 더 있다.

미화원(여) (어느새 들어와 여기저기 쓸다가 다가와) 어휴, 재희 학생 아니었음 애네들 벌써 죽었지. 여긴 뭐 원체 자주 사람들이 들고 나니, 식물이 옆에서 살아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이제 재희 학생 가고 나면 누가 애네들 돌보나. 언제 제대한댔지?

재희 (쑥스러운 듯 웃으며 시계 본다) 34일 7시간 3분 후예요.

앞쪽 민원 창구에 또다시 누군가 찾아왔다.

마드무아젤 실례합니다…

#44. 인천공항 T1 3층 야외 1번 게이트 앞 벤치(석양)

1번 게이트 앞 벤치에 마드무아젤과 재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재희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구요?

마드무아젤 저희 오빠 함자가 권하진이에요. 여름 하에, 나무 진 자 쓰시는데, 찾을 방법이 있으려나.

재희 글썄요.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뉴저지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 차를 오빠분이 주셨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출입국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법무부나 경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텐데…

마드무아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내가 사정이 있어서. 관공서에 가면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절대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 입으로는 쉽게 내뱉지 못하는) 왜, 길에서… 아무튼 행색이 조금만 이상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갓 아웃-! 하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서… 무리한 부탁인 건 나도 알아요.

재희 (난감하다) 일단 오늘은 더 이상 뉴저지에서 뉴욕공항 통해 오는 항공편이 없어요. 어떡하죠. 당장 오늘 밤 지내실 곳도 걱정이고.

마드무아젤 (끊으며) 걱정 말아요, 그건. 난 내 방식대로 기다릴 테니까.

#45. 인천공항 T1 3층 터미널 밖/터미널 안 일원(새벽)

출근길, 버스가 3층 1번 게이트 앞에 선다. 세관, 면세 복장 사람들 우르르 내리는 가운데 재희 모습도 보인다. 재희, 어제의 그 벤치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다. 터미널로 들어서자 밤샘 환승객들이 벤치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고 있다. 어딜 봐도 마드무아젤 없는데, 카페 앞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추는 재희. 마드무아젤이 곳곳이 앉아 신문을 보며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다. 재희와 눈 마주치자 까딱- 인사를 건네는 마드무아젤. 안도하는 재희의 표정.

#46. 인천공항 T1 병무민원센터 안(낮)

재희, 무거운 생수병을 양손 가득 들고 와 정리하기 시작한다. 어제의 그 직원이 업무상 통화를 하고 있다. 재희 벽시계를 보면, 이제 막 12시 59분에서 00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침.

직원 (전화 통화) 병적조회 해보니까 별 문제는 없네요. 관련 부처 추천서 받아서 허가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재희 (수화기 내려놓는 것 보자마자) 주사님, 저 점심 먹고 와도 될까요?

직원 (쳐다보지 않고, 갔다 오라는 손짓) 너무 늦지 마.

#47. 인천공항 T1 꽃집 앞(낮)

재희, 누군가를 찾는지 터미널 로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다. 저 멀리 보이는 꽃집. 마드무아젤이 꽃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가운 얼굴이 되어 다가가는 재희.

재희 (등 뒤에 서서, 밝게) 마음에 드는 꽃 있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마드무아젤 (분홍 장미를 골라 들며) 참 곱지 않아요? 다정하고, 품위 있고.

나는 분홍 장미가 좋아요.

근데 차를 빼시겠다고요?

#48.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지프 안(낮)

단기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지프.
룸미러에 분홍 장미가 걸려 있다.

시간 경과. 고속 촬영.
내리쬐는 한낮의 태양에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는 장미.

#49. 인천공항 T1 단기주차장 M층(늦은 오후)

마드무아젤이 공항과 연결돼 있는 단기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다
바로 앞에 세워진 주차요금표에 눈길 준다.

마드무아젤 (요금표를 읽는) 단기주차장 요금…
한 시간에 2,400원, 1일권 24,000원. 이틀이면…

#50. 인천공항 단기주차장/지프 안(늦은 오후)

지프 안, 라디오 소리가 들린다. 운전석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며
열게 신음하는 마드무아젤. 보조석에는 약봉지가 놓여 있다.

지프로 다가와 차창을 두드리는 재희. 마드무아젤, 자물쇠
모양 버튼을 눌러 잠금을 푼다. 약봉지를 글러브박스에 넣고,
박스에서 흰 봉투 꺼내는. 봉투 겉면에 'to 마드무아젤, from
정원'이라고 적혀 있다. 봉투 안을 열어보면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가 여러 장 남아 있다. 내려서 보조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마드무아젤.

마드무아젤 (힘이 쭉 빠진) 퇴근했어요?

재희 (운전석에 타며) 네. 오늘도 새벽조라 다섯 시 퇴근이에요.

#51. 영종도 파스타 가게 외경(늦은 오후)

파스타 가게 앞에 지프가 세워져 있고, 통유리로 된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재희와 마드무아젤의 모습이 보인다.

재희(E) 그런데 여긴 왜…?

#52. 영종도 파스타 가게 안(늦은 오후)

각자 파스타를 앞에 두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마드무아젤 그동안 마음 써준 거 알아요.

재희 …!

마드무아젤 답례로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요.

CUT TO.

깨끗하게 비워진 채 나란히 놓여 있는 두 개의 빈 접시.

#53. 파스타 가게 밖/지프 안(늦은 오후)

지프 보조석에 앉아,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재희의
모습을 보는 마드무아젤. 무심코 기어 옆 킥홀더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데, 거기 놓여 있는 스마트키가 보인다.

보조석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는 마드무아젤. 조심스레
시동 버튼을 눌러본다. LED 안내창에 '시동 전 브레이크'라는
경고문구가 뜬다… 이번에는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다시 시동
버튼을 눌러보는 마드무아젤. 계기판의 rpm 눈금이 요동치고,
'부릉' 시동이 걸린다. 긴장한 표정의 마드무아젤, 운전대를
꽉 쥐어보는데, 멀리서 전화를 끊고 다가오는 재희의 모습이
보인다. 마드무아젤, 버튼을 다시 눌러 시동을 끈다.

#54. 용유역 인근 영종해안도로 남로/지프 안(석양)

붉은 석양이 바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해안도로를 달리는 지프. 저 멀리서 모노레일이 철길을 따라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마드무아젤 (모노레일 보며) 기차인가…?
 재희 공항과 용유역 사이를 오가는 모노레일이에요. 귀엽죠? 더 기특한 건 가격도 공짜라는 거.

마드무아젤 (말없이 본다)
 재희 아는 형이 용유역 인근 마시안 해변에 카페를 차렸어요. 이 차는 그 근처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없는 마드무아젤. 라디오를 트는 재희.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른다.

재희 근데… 찾으시는 분과는 어떻게 연락이 끊어지신 거예요?
 마드무아젤 미국 가고도 한동안 날 챙겨주셨는데 내가 연락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워낙 오래전 일이라… 돌아가셨을 줄 알았죠.

재희 제가 그분 생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몰래 병적조회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 조금 고민이 되네요.

마드무아젤 (단호한) 그럼… 관둬요.
 재희 (의외다) …네?
 마드무아젤 오빠는 매사 분명한 분이셨어요. 메모 한 장도 허투루 쓰실 분이 아니었죠. 날짜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애매하게 만남을 기약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리로 왔어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오빠가 아직 살아계셔서, 이런 내 생활로부터 단번에 날 구원해주는 그런 기적… 결국 나는 혼자니까요.

해가 어느새 다 저버렸다. 주위가 킁킁하다.

재희 해가 다 저버렸네… (페이드 아웃)

#55. 영종경찰서 조사실(낮)

재희가 서 형사에게 진술을 하고, 옆에서 정원이 차분히 듣고 있다.

서 형사 바로 그날 할아버지 부고를 들으신 건가요?
 재희 원래 지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할머니보다 먼저 떠나실 줄은… 너무 갑작스러워 그분을 카페에 모셔다 드리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서 형사 그래서 차가 그 근처 마시안 해변에서 발견된 거군요. 그치만 아직 누가 그분께 차를 보냈는지가 미스터리로 남는군요.

재희 …
 서 형사 참 이상하죠. 갑자기 누가 차를 보냈다는 것도 그렇고, 두 분도… 묘하게 그분께 호의적이란 말이죠. 물론 무슨 사연으로 그런 처지가 되셨나 궁금한 마음이야 들지만… 솔직히 그분이 누구 호감을 살 만한 인물도 아니고.

정원 그런 걸 호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딱히 헤드린 것도 없고요.
 재희 그러게요. 그냥 하루, 이틀 짧은 여행에 함께 동행한 것뿐인 걸요.
 서 형사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이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별도의 조사 후 추가로 여쭙볼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56. 영종경찰서 앞(낮)

정원이 계단참에 서 있고, 재희가 계단을 먼저 내려가고 있다.

정원 (불러 세우며) 재희 씨라고 했죠.
 재희 (돌아보는) …?
 정원 그 카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57. 영종도 해안도로/재회의 세단 안(낮)

빨간색 고급 세단이 해안도로를 달린다. 재희가 운전을 하고, 정원이 옆에 탔다.

정원 그뎨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빅스커피에서.
 재희 아셨군요.
 정원 그때랑은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재희 되근하면 영혼까지 달라지는 게 공익이죠.
 정원 아키비스트 제이 계정으로 가끔 유튜브에 올린 영상 봤어요. 왜 경찰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록이 있으면 차를 준 사람에 대해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재희 글썽요… 복무 중에 복잡한 일에 엮이면 열 배는 더 피곤해지니까요.
 정원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지프 말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게.
 재희 … (생각에 잠긴 얼굴이다)

#58. 카페 콩스타멍 앞(오후)

마시안 해변 한적한 곳에 자리한 작은 카페. 주인인 듯한 남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손보고 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간판의 글자에 알록달록 불이 들어온다. 불어 발음기호 그대로 [kōstamā]이라고 적혀 있다. 카페 앞으로 빨간색 세단이 들어오고, 재희와 정원이 내린다. 사다리에 있던 주인, 별말 없이 눈인사만 건네고 하던 일 한다.

재희 (간판 올려다보며) 뭐야… 카페 이름 바꿨어?
 정원 (올려다본다) 불어네…

#59. 카페 콩스타멍 안(오후)

창가 작은 테이블에 정원과 재희가 마주 앉아 있고, 사장이 커피를 말없이 내놓는다.

재희 형, 가게 이름 바꿨어? 무슨 뜻이야?
 사장 콩스타멍. 한결같이, 꾸준하게. (내뱉고 그냥 간다)
 재희 (투덜) 저 형, 한결같이, 꾸준하게 무뚝뚝하네.
 (정원 보며) 오해 마세요. 저래 배도 좋은 형이에요.
 정원 (묵묵히 커피잔만 보다가 바다에 시선 준다) 마지막엔 여기 머무르셨군요… 제가 결국 그분을 이 낯선 곳에서 떠나가시게 했어요.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재희 자책하지 마세요. 모든 길엔 끝이 있는 거니까.
 그분과 여기에 오기 전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릴게요.

#60. 회상. 마시안 해변 입구 도로(저녁 무렵)

플래시컷. #54와 이어진 장면(용유역 인근 영종해안도로 남로)

재희 해가 다 저버렸네…
 마드무아젤 …
 재희 저기… 이 차 말인데요. 사실은…
 마드무아젤 (길 위에서 무언가 봤다) 잠깐만요. 잠깐 차 좀 세워보겠어요?

마드무아젤 차에서 내린다. 재희도 따라 내린다. 내려서 보면 자동차 오른쪽에 흰 고양이가 죽어 있다. 왼쪽 눈에만 검은 멍이 있는 새끼 고양이이다.

재희(E) (전화 거는) 여보세요. 로드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네, 죽어 있었어요. 구청 청소과에 연락하라고요?

전화를 거는 재희 옆에서 죽은 고양이를 한참 보던 마드무아젤.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벗어 새끼 고양이의 몸을
감싸듯 덮어준다.

#61. 회상. 마시안 해변 입구 도로/지프 안(밤)

지프 안. 재희가 말없이 운전하고, 마드무아젤이 창밖을
바라보다 얘기를 꺼낸다.

마드무아젤 모든 길엔 끝이 있죠. 나는 너무 슬픈 엔딩은 싫어요.
재희 …? (재희, 마드무아젤 보면, 그녀의 시선이 룸미러에 걸린
장미꽃에 머물러 있다.)

룸미러의 분홍 장미, 이미 시들어버렸다.

마드무아젤 사람들은 언제부터 죽은 사람에게 흰 국화를 바쳤을까… 내 죽음
앞엔 흰 국화보다 분홍 장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2. 현재. 마시안 해변(석양)

해변을 걷는 재희와 정원. 저 앞에서 아홉 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해변을 성큼성큼 걷고, 그 뒤로 대여섯 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오빠, 오빠- 같이 가” 하며 제 뒀에는 뛰듯이 뒤따라간다.

재희 (뛰어가는 아이 보며 미소 짓는) 저러다 넘어지겠다…
정원 오빠와 여동생은 언제까지 오빠와 여동생일까요. 가족은, 친척은…
언제까지 가족이고, 친척일까요.
재희 시간이 흐르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각자의 삶이 생기면… 더 이상
서로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때가 오기도 하겠죠.

여자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울음을 터뜨린다. 오빠가 되돌아와
“괜찮아? 미안해-” 하며 동생을 달래준다. 해변의 파도가 점점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한다.

정원 그분은 결국… 죽음이 임박했던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재희 아마도요. 저희 할머니도 복막암이세요. 초기엔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병이 진행되면 무척 고통스럽죠.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는 못 받으셨다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던 건
느끼셨을 거예요.

정원 결국 재희 씨가 올린 영상들이 그분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되었네요. 왜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죠?

재희 (목에 건 카메라 보며) 기록하는 건 몸에 밴 습관이에요. 미디어
전공이니까. 물론, 저 키워주신 조부모님 두 분 다 아프신 바람에
다 그만두고 돌아왔지만요.

정원 …

재희 (정원 보며) 처음엔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분이 실패한 이유를.
정원 지금은?

재희 글썽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희망, 끝까지 버리지
못한 자존심. 그런 것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져요.

해변에서 여자 거지가 술을 두르고 서성인다. 어디에선가 누군가
트럼펫을 불기 시작한다. 쓸쓸한 풍경에서 페이드 아웃.

#63. 파주 추모의집 무연고납골당(오후)

검은 옷을 입은 정원과 재희가 무연고납골당 앞에 서 있다.
일반 납골당과 달리 아무 장식도 없는 컨테이너 창고다. 중앙에
철제문이 달려 있고, 문이 잠겨 있다.

자막. “한 달 후”

재희, 납골당 문고리에 분홍 장미 화관을 건다. 그 앞에 나란히
서서 묵념하는 두 사람.

#64. 파주 추모의집 무연고납골당(오후)

아무도 없는 '무연고납골당'. 철제문 아래에 놓인 한 잔의
아메리카노와 오늘자 영자신문. 커피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그 풍경 위로 소타이를 뜬다.

자막. “제3장. 굿바이, 마드무아젤”

#65. 추모의집 주차장(오후)

야외 주차장. 정원, 스마트키 누르자 '초보운전' 스티커 붙은
경차가 '베리릭' 반응한다.

재희 이 차, 샀어요?
정원 남은 잔고 다 털어서 샀습니다. 어쩐지 운전이 하고 싶어서.
재희 그럼 나 공항까지 좀 태워줄래요?
정원 지난번 그 차는요? 예쁘던데.
재희 아, 그 차요. (씩익- 웃는다)

#66. 회상. 인천공항 T1 3층 앞 도로(낮)

카키색 지프와 빨간색 세단이 나란히 달려와 1번 게이트 앞에
신다. 재희 친구 남수혁과 재희가 각각 지프와 세단에서 내린다.

재희 (앞에 선 수혁 부르며) 야, 남수혁! 뭐야! 얼마 만의 비번인데 사람
운전병 노릇 시켜?
수혁 야, 나 이번에 사고 친 거 들통나서 올 엄마가 차 압수한다고
난리거든. 이 차들, 니가 좀 맡아줘야겠다.
재희 뭐? 나보고 어찌라고?
수혁 넌 내 주차대행기사인 거지. 적당한 데 대놔다가 나 돌아오면 바로
이 자리로 마중 나오란 말씀. 너희 집 앞에 뒤도 괜찮겠네.
재희 야, 니네 엄마가 이 차 있는 곳 못 알아내시겠나?

수혁 (씩-웃으며) 우리 엄마 나 많이 좋아한다? 진짜 진짜 많이. 지금
저렇게 화내시지만 잠시 눈앞에서만 사라지면 다 해결돼. 막 사람
시켜서 찾아내고 그럴 분 아냐.

재희 내가 이 차로 뭘 짓을 할 줄 알고?
수혁 너희 할머니 입원하신 병원 오갈 때 차 필요하잖아. 니가 그럴 때
차 쓴다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난 뉴-저지로 떠나고 없을 텐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간다! (손 흔들고 캐리어 끌며 얼른
사라진다)

재희 뭘래. 저 엄마가 무섭다는 거야, 내가 좋다는 거야. (그제야 환하게
웃는 재희. 지프에 타고선 급히 '뉴저지, 1번 게이트'라고 써서
선바이저에 꽂아 넣는다)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재희.

재희 할아버지, 저 재희데요. 할머니 치료 잘 끝났어요? 할머니한테 좀
여쭙봐주세요, 레드가 좋은지 아니면 카키가 좋은지. 레드? 정말?
후회 없는 거지? 오케이.

재희,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재희 거기 탁송회사죠? 지프 한 대 광화문까지 탁송 좀 부탁드립니다.
빨리요.

시간 경과.

탁송기사에게 지프를 넘긴 후 세단을 타고 출발하는 재희.

#67. 현재. 카페 콩스타명 안(오후)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은 정원. 사장, 다가와
마드무아젤의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사장 어차피 폐기처리 될 것 같아서 경찰에는 얘기 안 했어요. 재희한테

말했더니 전해드리라고.

정원, 상자 열어보면 외무부 시절 공무원증, 대학 시절 사진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사이에 섞여 있는 통장 열어보는데... 석 사장,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되돌아와 묻는다.

사장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통장에 적힌 이름이 혹시...?
 정원 네. 맞아요. 이정원은 저, 서옥자는 저희 엄마, 권귀남은 저희 외할머니... 제 이름을 그분이 지어주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한자를 틀리게 적어 내긴 했지만.
 사장 (의아한) 그분이 이름을요?
 정원 저한테는 외외이종할머니세요, 그분이.
 사장 외외이종할머니?
 정원 우리 외할머니의 사촌 여동생이셨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한때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아끼셨던.

사장, 이해했다는 듯 고개 끄덕이고 간다. 정원, 통장의 이체 내역을 본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이정원 만 원, 서옥자 오천 원, 권귀남 칠천 원... 주기적으로 찍혀 있다.

정원, 상자 제일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19의 흑백사진과 똑같은 사진이다. 정원, 외투 주머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꺼내 대조해본다. 그러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 뒷면을 돌려보면, '나의 자랑, 사촌 하영이와'라고 적혀져 있다. 사장이 프렌치토스트를 가져온다.

사장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분이 좋아하셨어요, 이 토스트.
 정원 (그냥 가려는 걸 불러 세운다) 여길 자주 오셨나요?
 사장 매일 오셨죠. 늘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68. 회상. 카페 콩스타명(오후)

정원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마드무아젤이 앉아 있다. 사장이 프렌치토스트와 커피 내려놓고 가는데 마드무아젤이 불러 세운다.

마드무아젤 이봐요, 미스터...
 사장 (...? 본다)
 마드무아젤 (빠히 올려다보며) 미스터...
 사장 (그제야 답하는) 석입니다. 미스터 석.
 마드무아젤 미스터 석. 이 가게 이름이 불어로 '금박을 입힌, 금빛의' 이런 뜻인데요. 여기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사장 (돌아보면 대체로 우드톤으로 데코레이션되어 있다)
 마드무아젤 (일기장 꺼내서 써 보이며) 콩스타명, 이 단어가 영어에 콩스탄트랑 비슷한 단인데. '꾸준히,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걸로 가게 이름을 바꿔보는 게?
 사장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들고 있는)
 마드무아젤 내가 이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69. 과거. 몽타주

- 아침의 공항,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마드무아젤.
- 낮 12시, 인천공항 모노레일 정거장. 모노레일 타고 창밖을 내다보는 마드무아젤.
- 카페 콩스타명. 신문을 읽고, 일기를 쓰는 마드무아젤.
- 카페 콩스타명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마드무아젤과 푸른 눈의 외국인 노년 여성. 테이블 위에 <필경사 바틀비> 책 놓여 있다. "바틀비를 읽고 계시네요." "내 친구가 읽던 책이에요."... 영어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 지프 안. 석양에 물든 해변을 바라보는 마드무아젤.

사장(E) (몽타주 화면에 겹쳐서) ...늘 비슷한 시간에 카페에 오셨어요.

항상 무언가를 읽고 쓰느라 분주하셨고요. 가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는데. 해변에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 차로 가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시간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70. 과거. 마시안 해변/지프 안(늦은 오후)

지프 운전대에 얼굴을 묻고 있는 마드무아젤. 고개를 들어보면 해변의 조형물에 술 취한 남자들이 오줌을 갈기고 있다.

마드무아젤 테러블...

마드무아젤, 글러브박스에서 흰 봉투를 꺼내 열어본다. 동전 몇 개만 남았다.

마드무아젤 오, 테러블...

마드무아젤 한숨 푹 쉬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밖의 남자들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해변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한다.

마드무아젤 벗... 뷰티풀.

#71. 과거. 마시안 해변/지프 안(석양)

노을을 바라보다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한 표정을 짓는 마드무아젤.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시동 버튼을 누른다.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자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지프. 마드무아젤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자 지프가 해변을 벗어나 차로로 진입한다.

#72. 과거. 마시안 해변도로/지프 안(석양)

석양의 해변을 따라 달리는 지프. 마드무아젤, 한 손으론 핸들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윈도 버튼을 누른다. 차창이 내려가고, 창문으로 거센 바람이 들어온다. 바람에 날리는 마드무아젤의 긴 머리카락. 생애 마지막 드라이브임을 예감한 듯 그녀의 얼굴에 애잔한 미소가 번진다. 찬란한 석양. 지프, 점점 멀어지다가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진다.

끝.

지난해 겨울 영종도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글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영종도에서 보낸 시간과 그즈음 내가 했던 생각들이 녹아 있습니다. 원고를 고치는 과정 내내 마드무아젤이라는 캐릭터에 조금 더 개성과 행동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애초 엘레지라는 형식 안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인지 그런 방향으로의 수정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공을 내 알은 경험과 상상력의 세계 안에 가둬둔 것만 같아 미안했고, 다음 이야기에선 인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간과 만남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여러 번 원고를 읽고서 작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 센터장님, 내가 마드무아젤이라고 이름 붙인 존재를 마드무아젤이라고 불러주고 작품에 대해 좋은 의견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작의

청춘(靑春) : (명사)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청춘은 끝이 난다.
예고도 없이 끝장난 청춘은
겁대加里 없이 도전할 만큼 피가 들끓지 않는다.
일어선 적도 없는데 일곱 번이나 넘어져 있다.

세상에 안 팔리는, Worstseller가 되어버린 청춘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엔 잘 팔리는 것보다 안 팔리는 것이 훨씬 많다고.
우린 다 같은 Worstseller라고.

등장인물

새봄(29세, 여) 소설 작가 지망생

편의점 알바와 방송국 촬영 테이프를 문서로 변환하는 프리뷰어 알바를 하며 생계유지 중이다. 공모 낙선도 지겹고, 이제 글을 왜 쓰는지도 모르겠다. 내년이면 서른, 더 늦기 전에 취직하기로 하고 글 쓰는 건 다 그만두자고 다짐하는데... 방송국 프리뷰 영상으로 수경의 인터뷰가 날아온다! 문창과 시절, 새봄의 동기였던 수경의 베스트셀러 기념 팬 사인회가 열린단다. 서점에 가서 수경의 소설을 읽어본 새봄은 기가 찬다. 이거 내 얘기잖아?

지수(26세, 남) 서점 알바생

하나뿐인 어머니는 혼수상태에 생계유지로 군 입대조차 못 하는 휴학생.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는 대학동기 현석의 서점 알바 대타를 뛰어주기로 맘먹은 건 오로지 '작가 이수경 단독 사인회' 이벤트 때문이다. 이수경 작가의 열렬한 팬인 지수는 사인회 날 수경에게 책에 나오는 그 소년이 자신임을 고백하기로 하는데 수경의 책을 괴롭히는 진상고객 새봄이 나타난다. 성공적인 사인회를 위해 이

여자를 밀착마크 해야 한다!

수경(29세, 여) 소설 작가

새봄의 문예창작과 동기. 청춘의 삶을 대변하는 소설 <위스트셀러>로 단번에 데뷔와 동시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신예 작가다.

현석(26세, 남) 지수의 친구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지수의 동기. 풍족한 가정환경에서 나오는 꾸미지 않은 여유로움을 가진 인물로 지수에게 언제나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그 외

편의점 점장, 새봄의 대학동기 등.

*** 주요 언급되는 책(소설) 정보**

<위스트셀러>

수경의 데뷔 소설로, 마포대교 생명의 전화 상담원인 여자와 자살 시도를 위해 매일 마포대교로 향하는 소년의 로맨스. 어른이 된 소년과 여자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문창과 시절, 새봄은 자신이 상담으로 구한 소년의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써 수경에게 합평을 받은 적이 있으며 소설의 주요 에피소드 및 대사가 새봄의 실제 경험과 유사하다.

<육조>

신춘문예에 당선된 새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장편소설로, 육조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인 생명의 전화 여자 상담원의 이야기다.

줄거리

“죽어도 내 돈 주고 사 읽긴 싫다구요!”

신춘문예 담당자로부터 당선 취소 연락을 받은 새봄(29)은 문창과 시절 동기 수경의 책 <위스트셀러>를 읽기 위해 서점으로 달려간다. 그 자리에서 수경의 소설을 읽은 새봄은 어이가 없다. 대학시절,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출한

단편소설을 그대로 차용한 것! 이 이야기는 내꺼야! 새봄은 매일 서점에 가서 수경의 <위스트셀러> 재고를 몽땅 사고 환불하는 진상을 부린다. 수경의 열렬한 팬인 서점 대타 알바생 지수(26)는 고의성이 다분한 새봄에게 대놓고 망신을 주는데... 죽어도 제 돈 주고 사 읽을 수 없다는 새봄과 실랑이 끝에 뽀까지 얻어맞는 지수! 수경의 책에 집착하는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지?

“제 집주소요? 어디였지... 아, 맞다. OO병원 보호자 대기실.”

생애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지각하게 된 새봄이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하는 신입 야간 알바생은 바로 지수! 지수는 서점 환불 테러에 대한 사연을 듣고 싶다며 새봄을 맥주집으로 데려가는데 오히려 지수가 취해 수경의 팬이 된 이야기를 한다. 지수의 속사정을 듣던 새봄은 자신이 과거에 살렸던 마포대교 소년이 지수라는 걸 깨닫는다. 잔뜩 취한 지수는 자꾸만 자기 집주소가 보호자 대기실이라며 진상을 부린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새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룸에 지수를 들인다.

“육조, 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뒤늦게 깨어난 지수는 새봄의 원룸을 둘러보다 대학시절 수경과 새봄의 사진과 <육조> 원고를 발견한다. 아, 이 여자 작가 지망생이구나. 동기가 잘나가서 그랬던 거구나. 측은지심으로 새봄을 이해하게 된 지수는 새봄에게 <육조>를 읽어보고 싶다고 얘기한다. 새봄이 단박에 거절하자 지수는 <위스트셀러>처럼 쓰고 싶은 거 아니었냐며, 나한테 보여줄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작가가 되겠냐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편의점 알바를 교대하면서 두 사람의 냉전이 계속되고, 새봄은 지수에게 사실을 밝히고 표절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수경에게 매료된 지수 앞에서 초라해지는 자신이 너무 싫다. 지수가 했던 말을 곱씹던 새봄은 편의점 마지막 근무 날, 지수의 가방에 <육조> 오리지널 버전을 몰래 넣는다.

“오늘이 빼앗아 간 걸 내일이 돌려주기도 한다면서요.”

새봄은 수경을 만나 <위스트셀러>의 환불을 요구하며 더 이상 표절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다. <육조>를 읽고 <위스트셀러>의 상담원이 새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수. 새봄이 편의점까지 그만두자 지수는 더 이상 새봄에게 다가갈 수 없다. 편의점 점장을 통해 지수의 소식을 듣게 된 새봄은 지수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찾아가고 새봄과 지수는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준다. <육조> 때문에 취직면접까지 떨어진 새봄은 울컥해서 찾아간 마포대교에서 다시 한 번 지수와 재회한다.

청춘실격 박은하

#1. 새봄의 원룸(밤)

5평 남짓한 작은 방.
체호프, 헤밍웨이, 카프카, 보르헤스 등의 책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노트북에 이어폰을 꽂고 프리뷰 작업 중인 새봄(29).
노트북 화면에 영상, 문서파일이 반반씩 띄워져 있고,
빠른 속도로 영상의 대화를 타이핑하는 새봄.
이때 핸드폰이 울리고 힐끔 보더니 다시 타이핑에 집중하는
새봄. 계속해서 핸드폰이 울리자 그제야 영상을 멈추고
이어폰을 뺀다.

새봄 (전화 받는, 심드렁한) 안 사요. (듣다가 눈 번쩍하는) !!

#2. 새봄의 원룸 앞(밤)

3층짜리 원룸 건물.
주차장을 개조한 옥외 1층 집에서 뛰어나오는 새봄.
신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새봄.
옥상을 향해 경중경중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건물 외벽 창으로
보인다.

#3. 옥상(밤)

하늘 향해 두 손 모으고 소리치는 새봄.

새봄 (기쁜) 정새봄 신춘문에 당선!! 나 당선됐다!!

<육조> 원고 파일에 키스를 마구마구 퍼붓는 새봄.
꿈만 같다. 원고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는 새봄.

#4. 새봄의 원룸 앞(밤)

배달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자박스를 내리던 헬멧 쓴 지수(26).
새봄의 우렁찬 소리에 깜짝 놀라서 옥상 쪽을 보다가 가웃한다.
지수, 영수증에 적힌 대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치는데,
잘 안 돼서 몇 번 시도 끝에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선다.

#5. 원룸 건물 안(밤)

새봄, 옥상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큰 소리 들려서 멈춰서 있다.

여자 아니 요즘 누가 30분 지나서 배달을 와요? 다 식었겠네.
지수 죄송합니다. 오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돌아오다 보니까…

괜히 지나쳐 내려가기 민망해서 위에서 잠시 기다리는 새봄.
지수에게서 피자박스를 받아드는 여자.

여자 그럼 내려가는 김에 이것 좀 버려줘요.

여자가 내미는 쓰레기봉지를 받아드는 지수.
문이 쾅- 세계 닫히고 지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불편한 표정으로 시간차 두고 내려가는 새봄.

#6. 새봄의 원룸 앞(밤)

건물 앞에서 쓰레기 버릴 곳을 못 찾아 헤매는 지수.
공동현관문을 나온 새봄, 그런 지수가 신경 쓰이고,

새봄 저기요,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 아니에요.
지수 아… (이건 어찌지 싶고)
새봄 (손 내밀며) 주세요, 내일 제가 버릴게요.
지수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쓰레기인데…
새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요, 그쪽 불편한 거 나눠가지려구요.
 싫으면 됐구요.
지수 (잡으며) 저기! 그럼 부탁드릴게요.

새봄, 쓰레기봉지 받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도 집이 있었구나 하는 표정으로 새봄의 집을 보는 지수.
지수, 핸드폰 울리자 정신 차리고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멀어져가는 지수의 뒷모습에서 오프닝 타이틀. “청춘실격”

#7. 서점(낮)

새봄, 콧노래까지 부르며 베스트셀러 코너 구경 중인,
이때 <위스트셀러> 표지가 눈에 띄고 집으려는데 핸드폰 울린다.
새봄, 발신자 번호 확인하고 목 음음- 가다듬으며 받는다.

새봄 (들뜬)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당선 공지는 그럼 (하다가 굳는) …당선 취소라뇨? (듣다가) 그게
 무슨…

혼란스러워하다가 눈앞의 <위스트셀러>에 멈춰서는 새봄.
일단 전화를 끊고 <위스트셀러>의 표지를 본다.
'SOS 생명의 전화 상담원과 마포대교 소년의 로맨스'
표지머지 둘러져 있고,
페이지를 넘기며 빠르게 <위스트셀러>를 읽어 내려가는 새봄.

현석 (조심스레) 저기 손님, 재고를 채워야 해서요.

새봄, 대꾸도 없이 선 자세 그대로 책을 읽어나가자,
알바생 현석(26), 급적이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슬로 모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봄 주위를 지나가고,
새봄, 결국 선 자세 그대로 마지막 장을 덮는다.

현석 (다시 조심스레) 저기, 손님. 재고를...

새봄, 화난 표정으로 현석에게 <위스트셀러> 넘기고 간다.

#8. 거리(낮)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뒤져 '문창과 10 수경'에게 전화하는 새봄.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안내 음성이 나오자,
<위스트셀러>를 검색해 출판사 대표번호에 전화한다.

새봄 (화난) <위스트셀러> 출판사 '비상'이죠? 그 책 판매 중지해주세요.
그건 표절이에요! (잠시) 이수경 작가랑 합평할 때 제가 습작으로
낸 거라구요. (답답한) 그럼 수경이 번호 알려주시든가요. (화를
참으며)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러죠! 전 정식으로 항의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화 끊고 전화번호부에서 '문창과 10 현아' 찾아 연락하는 새봄.

새봄 (통화하는) 어, 현아야. 너 혹시 아직도 수경이랑 연락해?

현아(F) 어, 하지. 이번에 결혼식 청첩장 보냈으니까.

새봄 그럼 주소도 알겠네?

현아(F) 어, 근데 왜? 무슨 일인데?

새봄 (잠시 고민하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좀 할 얘기가 있어서.

현아(F) 너도 혹시 뭐 원고청탁 그런 거 하게? 너뿐만 아니라 개한테
줄 서려고 나한테 개 연락처 알려달라는 애들 엄청 많았어.

새봄 (억누르며) 그런 거 아니야. 사적인 일 아니고 공적인 일이야.

현아(F) 그럼 수경이한테 니 번호 넘겨줄게. 개도 이제 공인인데 남한테 막

개인 정보 뿌리기엔 좀 그렇잖아.

새봄 (빠직) 남? 아, 김현아. 나 좀 서운하다?

현아(F) 이제 알겠지? 너 내 결혼식 못 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냥 니가 내 결혼식 오면 다 해결되겠네.

새봄 알았어. 갈 테니까 모바일 청첩장 보내줘.

#9. 마포대교(밤)

난간에서 캔맥주 꿀꺽꿀꺽 마시는 새봄.

분이 풀리지 않는지 봉지에서 캔맥주를 연달아 꺼내 원샷한다.

이때 빵-클랙슨 소리 들리면 돌아보는 새봄.

경찰차 창문이 스윙 내려간다.

경찰 아가씨. 젊은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새봄 저 죽고 싶어도 그럴 감당 안 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찰 집 어디예요? 태워줄 테니까 타요. 이게 우리 일이라서 그래요.

새봄 (술술 외는) 생명의 전화 1588-9191,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여성안심귀가서비스 02-120 이분들 일이라서 그래요. (꾸벅)
안녕히 가세요.

새봄이 자리를 뜨자 경찰차도 멀어진다.

걸어가던 새봄, 마포대교 난간에 새겨진 글귀들을 본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바람을 이겨내면 겨울 지나듯'

새봄 (손으로 글귀들을 스윙 만지며) 그땐 이런 것도 없었는데.

'SOS 생명의 전화' 앞에서 걸음을 멈춘 새봄.

이때 저 멀리서 교복 입은 남학생이 뛰어오면서
다음 신 이어진다.

#10. 회상. 교차. 마포대교+생명의 전화 상담원실(밤)

마포대교.

깡패들에게 쫓겨 마포대교 위를 전력 질주하는 지수(19)
생채기 가득한 얼굴로 숨 혈떡이다가 생명의 전화를 발견한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드는 지수.

상담원실.

데스크톱 컴퓨터와 전화기만 있는 작은 개인 상담원실.
한쪽 벽엔 크게 '생명의 전화 위치안내도'가,
다른 벽엔 생명의 전화로 사람을 살린 기사 스크랩이
빼곡히 붙어 있다. 새 스크랩 기사를 붙이고 있던 새봄,
전화가 울리자 수화기를 든다.

새봄 (상냥하게) SOS 생명의 전화입니다.
지수(F) 살려주세요!!!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 봐요! 아파요!

새봄, 다급하게 마포대교 CCTV 화면을 보면,
생명의 전화 앞에서 지수를 끌고 가려는 깡패들 보인다.
황급히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새봄.

#11. 과거. 경찰서(밤)

새봄, 주뻑주뻑 직원 안내에 따라 담당 형사 앞에 앉는다.

형사 최초 신고자분 맞으시죠?
새봄 네... 그 친구는 괜찮은가요?

형사, 쓱 툇짓하면 구석 의자에 앉아 잠든 지수 보인다.
고되게 잠든 지수의 모습 위로

형사(V.O) 애아빠 없이 애엄마 혼자 자식 키우다가 빗에 병원비에...

사채업자들은 돈 나올 구멍이 애밖에 없고,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니까.

새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형사 (괴식 웃으며) 한두 번이어야지.
그래도 이번엔 발견이 빨랐나 보네. 성함이?
새봄 정새봄입니다.

시간 경과.

조서를 마치고 나가려는 새봄, 지수가 자꾸 맘에 걸린다.
지수의 앞에 마주 앉아 생채기를 살피는 새봄.
밴드를 꺼내 붙여주려다가 멈칫하는 새봄.
겨우 잠든 지수를 깨우고 싶지 않다.
새봄, 다시 밴드를 넣고 지수의 옆에 앉는다.
그렇게 가만히 지수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새봄의 모습에서,

#12. 현재. 편의점(낮)

카운터 위에 올려진 <위스트셀러>를 훑어져라 보는 새봄.
핸드폰 올려서 보면 '점장님'이다.
새봄, 천장 구석을 돌아보면 깜박이는 CCTV.

새봄 (전화 받으며) 안 앉아 있었는데요.
점장(F) 그게 아니라... 새봄 씨 평일에 아무 일도 안 하지?
새봄 (불쾌한) 왜 그러시는... (하다가) 혹시 아직도 못 구하셨어요?
점장(F) 나도 미치겠어, 좀 봐주라. 이 새끼들이 짜고 그만두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청 민원까지 넣는 바람에 눈탱이 밤탱이라고!
새봄 (살짝 귀를 뚫다가 다시 통화) 그럼 저 당장 교대는요?
퇴근 한 시간 남았는데.

이때, 딸랑 문소리 들리며 후다닥 점장(50대, 남) 들어오는.

점장 그래서 내가 왔지! (카운터로 오며) 손님도 없는데 왜 일어서 있어.

편하게 해.

새봄 (얼결에 앉는) 이렇게 갑자기는 좀…

점장 (구슬리는) 여기서 하면 되지! 요즘 취업이 막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취업 준비하면 되지!

새봄 지금은 취업보다 제가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점장 새봄 씨는 여기서 글을 쓰든 뭘 하든 무조건 노터치, 주휴수당도 챙겨주고 응?

새봄 (통명스럽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점장 (안 통하자) 내가 인심 썼다! 새봄 씨 타임에 들어오는 물류 내가 할게! 새봄 씨 자취한다고 했지? 이제부터 폐기도 다 챙겨가! 내가 최대한 빨리 구할게, 응?

새봄 (어쩔 수 없는) 딱 일주일만이에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점장 아 그럼! (시간 확인하더니) 자자, 지금 퇴근해. 오늘은 일찍 가서 푹~ 쉬어.

점장이 등 떠밀자 얼결에 짐을 챙기던 새봄.

새봄 (<위스트셀러> 가리키며) 근데 이거 점장님 책이에요?

점장 어. 새봄 씨 빌려줄까? 이거 괜찮더라고.

새봄 (정색) 뭐가 괜찮은데요?

점장 (신나서) 이게 말야, 마포대교 전화 상담원 애긴데 내가 또 그 느낌을 딱 알거든. 이게 초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고 보면… 이미 새봄 없다.
잠시 후,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지수.

지수 안녕하세요. 평일 야간 면접 보러 왔는데요.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점장에게 면접 보는 지수.
지수 시점으로 점장 말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눈치껏 편의점 곳곳을 둘러보며 자신만의 점수를 매기는 지수.

점장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가능해요?

지수 아 저기 죄송한데… (하다가 카운터에 놓인 <위스트셀러> 발견하고 밝아지는) 이거 점장님 책이에요?

점장 어어. 오늘 이 책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역시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지수 (싱긋) 급하다고 하셨죠? 교육은 오늘부터라도 괜찮은데요.

#13. 새봄의 원룸(밤)

새봄, 구석에 쌓여 있는 박스를 다 꺼내서 헤집는, 대학생 때부터 쓴 습작물과 다이어리가 수두룩하게 나온다. 새봄, 2010년 다이어리에서 <육조> 합평 기록을 발견하고, 기록에 적힌 합평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린다.

새봄 (통화 중인) 네, 선배. 안녕하세요. 저 10학년 새봄인데요. 아… 정새봄이요. 아니 장이 아니고 정.새.봄.이요.

‘한보라’ 밑줄이 찍 그어진다.

안내음(F) 해외로 로밍됩니다.

‘김상진’ 밑줄이 찍 그어진다.

새봄 (통화 중인) 배연호 씨 핸드폰 맞나요? 어, 연호야. 나 기억해? 문창과 정새봄. 어어, (멈칫) 아… 미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맘 잘 추스르고… 뭐 그냥 연락했지. 옛날 생각나서 응.

‘배연호’ 밑줄이 찍 그어진다.

새봄 (통화 중인)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새봄이요.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합평에 낸 습작 중에 <육조> 기억하시죠? (다이어리 기록 보며) 더 많은 사건으로 전개될

수 있는 설정이라 장편으로 꼭 써봤으면 좋겠다. 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잠시) 아... 수경이 소식 저도 들었어요. 네, 저도 준비 중이에요... 네.

수경을 뺀 모든 사람의 이름에 줄이 찍 그어진, <육조> 원고를 허탈하게 바라보는 새봄.

새봄 (한숨) 결국 넌 나뿐이구나.

#14. 서점(낮)

베스트셀러 진열대 앞에 서 있는 지수, 현석. 텅 비어 있는 1위 칸에 <위스트셀러>를 채워 넣는 현석.

현석 (책 정리하며) 베스트셀러는 특히나 재고가 잘 비니까 수시로 보고 채워주면 돼. 사람들이 제자리에 잘 안 갖다놓거든.

지수 (뿌듯한) 역시 <위스트셀러>.

현석 솔직히 불어라. 너 저거 때문에 알바 대타한다고 한 거지?

현석, 턱짓하면 매장 한편에, '위스트셀러 이수경 작가 사인회' 입간판 세워져 있다.

지수 뭐 검사검사. 마침 배달 알바 관렸거든.

현석 하긴 배달 알바보단 이게 낫지. 암튼 보름 동안 잘 부탁한다.

지수 (너스레 떠는) 내가 맘만 먹으면 보름 뒤에 니 자린 없을 텐데?

이때, 진열장에 채워진 <위스트셀러>를 숙 가져가는 여자(새봄). 역시! 뿌듯해하는 지수와 작게 한숨 쉬는 현석.

현석 (절레절레)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지수 (현석 따라 보면 새봄이다) 어? 쓰레기?

현석 너 아는 사람? 진상 쓰레기인 건 어떻게 아냐?

지수 뭐... 그냥 쓰레기 버리다가 만난 (대충 넘기는) 근데 진상 쓰레기는 또 뭐냐?

현석 아 난 또 아는 사람이라고. 저 여자 잘 봐둬라. 완전 노답이니까.

지수, 현석과 카운터로 가면서 돌아보면, 책상에 앉아 <위스트셀러>를 뺀히 내려보는 새봄 보인다. 그런 새봄을 보다가 이내 현석을 따라가는 지수. 새봄, <위스트셀러> 옆에 낡은 <육조> 원고를 꺼내, 한 장씩 넘겨가며 비교하기 시작한다.

#15. 과거. 생명의 전화 상담원실(밤)

새봄, 모니터의 CCTV 속 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CTV 속 지수, 다리 위를 서성이다가 생명의 전화 쪽으로 다가오자, 밝아지는 표정의 새봄. 곧 전화가 울린다.

새봄 (전화 받는) 여보세요. 생명의 전화입니다. (상대방 답 없자) 여보세요. (정적)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기다릴게요. 지수(F) 저번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안 정적이 이어진다.

새봄 거기 바람 어때요? (눈 감으며) 감촉... 냄새... 어제랑은 다르지 않아요?

지수(F) 잘...모르겠는데. 그런 걸 누가 신경써요.

새봄 여기 있잖아요. (잠시) 제가 구해드렸으니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지수(F) 돈 드는 것만 빼구요.

새봄 (웃으며) 내일의 바람이 어땠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궁금하거든요.

지수(F) 아줌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새봄 (농담조로) 저 아줌마 아닌데요, 아저씨.

#16. 현재. 서점 카운터(낮)

결제를 끝내고 카운터 너머로 쓱 상체 굽혀서,
아이(초등학생쯤)에게 두 손으로 책을 건네는 지수.

아이 감사합니다, 아저씨!

만족한 표정으로 지수가 손님 응대하는 걸 보는 현석.

현석 너 서점 집 아들이었지?
지수 (장난) 이 형님이 잘 안 맞는 알바는 있어도 안 해본 알바는
없거든.

이때 핸드폰 진동 울리자 슬쩍 핸드폰 확인하는 현석.

지수 야, 근무 중 핸드폰 소지 금지라며?
현석 안 걸리면 되지. (화색) 예쓰, 국가장학금 들어왔다. 이걸로
여행자금 확보 끝. 야 너 그러지 말고 보름 동안이라도 우리 집
들어와 있을래?

지수 (넌덜머리나는) 너 찾아온 전 여친들한테 저번처럼 대신 뽀
맞으라고?

현석 야야 개넌 여친 아니라니까. 그냥 몇 번 커피 사주고,
밥 사준 게 다야.

지수 (뻘히 보다가) 근데 넌 알바 왜 하나? 용돈도 많이 받으면서.

현석 왜긴, 서점 알바가 썸타기 좋으니까.

지수 (에휴) 한결같은 새끼.

이때 여알바 지나가면서 은근히 현석에게 눈짓한다.

현석 (신호 알아차린) 야, 나 잠깐 화장실 좀.

이때 카운터에 <위스트셀러>를 잔뜩 품에 안고 오는 새봄.

지수 (살짝 기대하는) 안녕하세요.

새봄 (못 알아보는) 이거 재고까지 다 계산해주세요. (카드 내미는)

지수 잠시만요. (포스기 만지더니) 이게 마지막 재고네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봄, 결제된 책을 품에 안고 가려고 하자,

지수 잠시만요.

주변에서 박스까지 찾아서 책을 정성스럽게 넣어주는 지수.
새봄의 오른 손목에 붙여진 파스가 맘에 걸린다.

지수 혼자 안 힘드시겠어요?

새봄 괜찮아요.

힘겹게 박스를 안고 서점을 벗어나는 새봄.
지수, 신경 쓰이는 모습으로 새봄을 보는데 현석 온다.

현석 야, 저 여자 오늘은 몇 권 사갔나?

지수 스물네 권이었나? 선물하실 건가?

현석 (절레절레) 선물은 개별. 박스는 뭐가 예쁘다고 챙겨주냐. 에휴.

지수 (표정)?

#17. 지하철 물품보관소(낮)

대형 물품보관소에 박스를 집어넣는 새봄.
오른쪽 손목을 마사지하며 문을 닫는다.

시간 경과.

보관소 문이 열리면 다른 옷차림의 새봄.

전보다 힘든 표정으로 박스를 꺼낸다.

#18. 서점 카운터(낮)

황- 서점 카운터 위에 올려지는 박스.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새봄과 지수.

새봄 환불해주세요.
지수 네?

옆 직원들, 지겹다는 표정으로 힐끗대고,
지수, 그제야 어제 현석이 했던 말의 뜻을 깨달은 표정이다.

지수 (조심스럽게) 혹시 저희 매장에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나요?

새봄 이 책이 불편해요.
지수 (난감) 고객님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한꺼번에 구입하시고 환불을 여러 번 하셨던데 이게 반복되면 진짜 필요한 손님이 구입을 못 하시거든요. 왜 이러시는지 알아야 저희가 도움을...

새봄 그냥 환불해주세요.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도 7일 이내에 가능하잖아요.

지수 (싸늘) 그럼 그걸 알고 이러시는 거네요? 환불 못 해드리겠는데요.
새봄 (지수 명찰 보는) 이지수 씨. 환불해주시죠.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지수 (어이없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습니다. 전 환불 못 해드립니다. 다른 분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세요.

새봄 (지지 않는) 죽어도 내 돈 주고 사 읽긴 싫다구요. 환불해주세요.

지수와 새봄, <위스트셀러>가 담긴 박스를 서로에게 숙
밀어내는데 파스가 붙여진 새봄의 손목 힘이 풀리며 박스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우르르 쏟아져서 바닥을 나뒹구는
<위스트셀러>. 대기하던 손님들이 쑥덕대기 시작하고,
수치심을 느낀 새봄이 서점을 벗어나려고 하자,

카운터에서 나와 새봄의 오른 손목을 잡아채는 지수.

지수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요. 어디 가세요, 손님?
새봄 (손목 비틀며) 일단 이것 좀...!

새봄, 지수에게 잡힌 손목을 빼내려 몸부림치다가,
지수에게 벗어난 손으로 철썩- 지수의 뺨을 때린다!
수군대며 더 모여들기 시작하는 손님들.

새봄 (당황) 그... 그러니까 놓으라고 했잖아요!

한심한 눈빛으로 새봄을 빤히 보던 지수.
카운터로 돌아가서 영수증을 다시 뽑는다.

지수 (억누르며) 환불처리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고객 분들을 위해서...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진짜 불쌍해 보여요.

수치심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는 새봄.
지수, 모여든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
카운터로 돌아온 지수, 새봄이 놓고 간 카드를 발견한다.

#19. 버스정류장(낮)

새봄, 지수에게 잡힌 손목을 보면 파스가 너털너털하다.
찌익- 파스를 떼어내고 손목 마사지를 하며 걷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다. 새봄, 후다닥 근처 정류장으로 뛰어가면
정류장에 딱하니 보이는 <위스트셀러> 홍보 간판.
버스가 도착하고 타려는데 카드를 두고 온 걸 깨달은 새봄.
황급히 지갑을 뒤져보는데 현금이 없다.
망연자실하는 새봄을 스쳐 지나가는 버스.

#20. 거리(낮)

새봄, 비를 쫓딱 맞으며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보면 카드사용내역이다. '3000원 - AS편의점 ××타워점'
다시 황급히 왔던 방향으로 뛰어가는 새봄.

#21. 편의점(낮)

물에 빠진 생쥐 꼴로 편의점으로 들어서는 새봄.

새봄 (알바생에게)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결제한 문자가
날아와서요. 여기. (문자 내역 보여주면)

새봄의 카드와 우산을 건네는 알바생.

알바 일부러 찾으러 오시라고 굶으신 거 같던데.

새봄 (민망) 아...네. 감사합니다.

알바 여기 이것도. (파스 건네주는) 아는 분이신 거 같은데 다음엔 그냥
전화로 연락하세요. (짜증나는) 무슨 여기가 심부름해주는 데도
아니고.

새봄 아, 네. 죄송합니다.

#22. 서점 카운터(낮)

지수, 황급히 머리의 빗방울을 털며 카운터로 복귀하면

직원 그냥 본인이 찾아오라고 냅두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해줘?

지수 비 오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23. 새봄의 원룸(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는 새봄.

아, 소리와 함께 오른쪽 손목을 돌려본다.

편의점에서 받은 파스를 보는 새봄.

한참을 만지작대다가 찌익 개봉해서 파스를 손목에 붙인다.

쌓여 있는 공과금 고지서들과 <위스트셀러>를 환불받은
영수증들.

새봄 (한심한) 찌질하다 찌질해 진짜.

이때 핸드폰 울려서 보면 프리뷰 의뢰 문자다.

'프리뷰어님. 급한 건인데 지금 바로 프리뷰 가능하신가요?'

새봄, 노트북 앞에 앉아 메일로 온 영상을 내려받고,

문서프로그램과 영상을 화면 절반 사이즈로 설정해서

동시에 띄운다. 이어폰을 연결해 귀에 꽂고 영상을 재생하다가
굳는 새봄.

리포터(F) 오늘은 요새 정말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베스트셀러는 없었다. <위스트셀러>의 이수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수경(F) 안녕하세요. <위스트셀러>를 쓴 이수경입니다.

리포터(F) 출판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셨는데요. 재고가
없어서 못 판다는 서점도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위스트셀러>만이 가진 경쟁력은 뭘까요?

수경(F)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책은 작가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씌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나타난 저라는 사람에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하- 기가 찬 표정으로 수경의 영상을 노려보는 새봄.

재생되는 영상 너머 대학시절 새봄과 수경의 사진이 겹쳐
보인다. 새봄, 아픈 머리 감싸쥐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새봄 (저기압) 네.

기자(F)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춘문에 당선 취소되신 정새봄 작가님
맞으시죠?

새봄 (스팀 빵) 지금 누구 놀러요?
기자(F) 작가님 진정하시구요.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일보… (소리 점점 작아지는)

전화 상대에게 점점 집중하는 새봄의 표정.

#24. 편의점(낮)

딸랑, 황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새봄.

새봄 죄송합니다! 내일 10분 더 일찍 나올… (헉!)

새봄과 지수, 동시에 서로를 보고 경악한다.
뛰어오느라 벌게진 얼굴로 헉헉 숨을 몰아쉬는 새봄.
눈치보며 슬금슬금 카운터 안으로 들어온다.
지수, 뒤로 물러나면 스킨치면서 포스기 앞에 서는 새봄.

새봄 (민망한) 시재 점검 할게요.

지폐를 세어 포스기에 입력하는 새봄.
새봄의 오른 손목에 감긴 파스를 보는 지수.

플래시백.
#18. 카운터에서 나와 새봄의 손목을 잡아채는 지수.

지수 환불해달라면서요. 어디 가세요, 손님?

새봄 (손목 비틀며) 일단 이것 좀…!

현재. 지수, 미안한 마음으로 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새봄 또한 눈치보며 동전을 천천히 세고 있는

플래시백.

#18. 잡힌 손목을 뿌리치다가 지수의 빵을 때리는 새봄.

새봄 (미안해서 미치겠다, 현금통 닫으며) 잘 맞아요.

새봄, 무심코 돌아서면 닿을 듯 가까운 지수!
황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지는 두 사람.

지수 저기 그땐 제가… 좀 심했던 거 같아요. (꾸벅) 죄송합니다.

새봄 (어색) 저도 본의 아니게 때린 거 사과할게요. 오늘 늦은 것도.
지수 (농담조로 웃으며) 괜찮아요. 빵 맞은 거에 비하면 10분 늦은 건 약과죠.

새봄 (싸늘) …카드 잘 받았어요. 파스 값 드릴게요.
지수 (당황) 아, 농담인데… 제가 어색할 때 일부러 농담하는 버릇이 있어서.

새봄 (뻘히 보다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지수 그럼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괜찮죠?
새봄 (이상하게 말리는 느낌이고) 맘대로 해요. 왜 하필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여긴 야간 수당도 안 붙고.

지수 (끊고) 휴게시간도 없고, CCTV로 감시까지 하는 아~주 후진 알바죠. 전에 일하던 알바생들도 도망간 거고. 그냥 카운터에 <위스트셀러> 가 있어서요.

새봄 (이해불가) 무슨 알바를 고작 책 하나로 정해요?
지수 (싱긋) 저한테 고작 책 하나가 아니라서요. 이제 제 차례죠? 서점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때 딸랑, 손님 들어와서 매대 쪽으로 가는.

새봄 모든 대답에 예스 오어 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노코멘트 할게요.
지수 와… 지금 사기친 거예요?

새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수 그럼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게 기다릴게요.

새봄, 황당한 표정으로 보면
 짐 챙겨 테이블 쪽에 가서 자리 잡는 지수.
 보란듯이 <위스트셀러>를 꺼내 읽는다.
 하- 어이없는 표정으로 지수 보다가 손님을 응대하는 새봄.
 지수, 책을 읽는 척하며 손님 응대하는 새봄을 힐끗 힐끗 보는.

#25. 편의점 앞(낮)

쓰레기봉지 들고 나오는 새봄을 쫓아 나오는 지수.
 유리문 너머로 점장이 이 둘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새봄 (짜증)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지수 사정 들어보고 납득되면 내가 앞으로도 환불해줄게요.
 죽어도 내 돈 주고 사 읽기 싫다면서요. 그럼 우리 서점 계속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새봄 그쪽 자꾸 이러는 거 보통 사람들 눈엔 짐적대는 걸로 보이는 거 알아요?

새봄과 지수, 동시에 편의점 뒤편 돌아보면,
 점장, 바짝 붙어서 지켜보다가 황급히 고개 돌린다.

지수 새봄 씨가 먼저 짐적거렸잖아요. (쓰레기봉지 가져가며, 새봄 성대모사 하는)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요. 그쪽 불편한 거 나뉘가지려구요.
 새봄 (뻘뻘 보다가) 그때 그... 배달?
 지수 (싱긋) 이제 됐죠? 맥주 콜?
 새봄 (거슬린다) 왜 자꾸 웃어요?
 지수 새봄 씨가 제 얼굴에 침 뱉을 거 같아서요.
 새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연탄재도 막 발로 차는 사람인데.
 지수 (이 여자 꼴 때린다) 그럼 오늘은 내가 뜨겁게 차여줄게요, 연탄재 대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표정으로 지수를 보는 새봄.

#26. 맥주집(낮)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는 새봄과 지수.
 두 사람 앞에 안주와 500cc 맥주가 서빙된다.
 새봄, 오른손으로 맥주잔 들러다가 왼손으로 바퀴 쥐고 마시는,
 그런 새봄을 말없이 바라보는 지수.
 꿀꺽꿀꺽 500cc를 반 정도 비워내고 탁- 내려놓는 새봄.

지수 이제 말해봐요.
 마른안주를 씹으며 망설이는 새봄.
 새봄 (분위기 잡으며) 제 얘기예요, 그거. 믿기 힘들겠지만. (하고 보면)
 지수 (황당) 무슨 소리예요. 그거 내 애긴데요?
 새봄 (표정)?

#27. 회상. 상담원실(밤)

지수와 상담 전화 중인 새봄.

지수(F) 와, 다행이다. 오늘은 누나가 바로 받아서.
 새봄 학교 다니고 알바하느라 오늘밖에 시간이 없거든.
 지수(F) 누나는 전공이 뭐예요?
 새봄 문예창작과라고 소설이나 시 같은 거 공부하는 과야.
 지수(F)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완전 노잼이죠?
 새봄 어떻게 알았어? 진짜 밥맛없는 과야.
 지수(F) 누나 그럼 내 얘기 써주면 안 돼요?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읽어줄게요.
 새봄 (웃으며) 생각해보고. (하다가 문득) 근데 지수야. 오늘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이만 집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수(F) 아... 그래야죠. 맞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새봄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기, 지수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지수(F) 오늘... 엄마가 죽었어요.
 새봄 !!!!
 지수(F) 걱정 마세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심폐소생술 때문에 갈비뼈가 다 부러졌다는데 어쨌든 살았으니까 그걸로 됐죠.
 새봄 아... 불행 중 다행이네.
 지수(F)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다행인지... 저도 모르게 엄마 심장이 계속 멈췄으면 좋겠다고, 1초만 더 제발 1초만 더... 멈춰달라고 빌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수의 떨리는 음성.
 자신이 겪은 것처럼 심장이 아린 새봄.

지수(F) 엄마 심장이 다시 뛰는 순간, 저는 병원비부터 생각났어요. 아... 병원비는 앞으로 계속 쌓이겠구나. 엄마 옆에는 진짜 나밖에 없는데 엄마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으면 정말 슬플 텐데... 근데도 나는 엄마가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걸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CCTV 화면에 전화기를 붙들고 고개 숙인 지수가 보인다.
 울컥하는 걸 참고 '상담 원칙' 벽보를 보며 진정하는 새봄.

새봄 (따뜻하게) 지수야, 괜찮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오늘 수고했어. 내가 지수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어제가 빼앗아 간 걸 내일이 돌려주기도 해. 지수는 빼앗긴 게 많으니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거야.

지수(F) 그럼 오래 살아야겠네요. 다 돌려받으려면.

새봄 (애쓰는) 엄청 오래 살아야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자.

지수(F) 누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뚝 끊기는 전화에 당황한 새봄, 마포대교 CCTV 화면을 본다.

상담전화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수 보인다.
 이때 노크와 함께 들어오는 교대 근무자.

근무자 새봄 씨. 나 왔어. 오늘 혹시 전달사항...
 새봄 (말 끊고 황급히 짐 챙기는) 감사합니다!

#28. 회상. 마포대교(밤)

다리 위를 달리며 생명의 전화 주변을 일일이 확인하는 새봄.
 다리가 끝나갈 무렵 저 멀리
 난간 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발견한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가는 새봄.
 결국 알은체하지 못하고 지수의 뒤를 지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춰 지수와 나란히 선다.
 지수, 인기척을 느끼고 새봄 쪽을 돌아보면,
 새봄,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린다.
 새봄, 부산스럽게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으면,
 새봄을 힐끗 보던 지수가 그제야 맘 편히 눈물을 쏟아낸다.
 일부러 음악의 볼륨을 높여보지만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새봄.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곁에 머무는 새봄과 지수의 뒷모습.

#29. 회상. 버스정류장 근처(밤)

간격을 두고 지수를 쫓아가는 새봄.
 지수, 멍한 표정으로 걸다가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는,
 새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간격을 점점 좁힌다.
 지수, 그 간격을 다시 넓히며 버스에 올라타고,
 지수를 따라 황급히 버스에 오르는 새봄.

#30. 회상. 버스(밤)

지수, 요금통에 동전을 넣고 들어가면

기사 (통명스러운) 학생, 얼마 넣었어? 요금 덜 넣은 거 같은데.
새봄 기사님, 제가 대신 낼게요.

지수, 지친 표정으로 창가에 기대 앉아 있다.
멀찍이 떨어진 뒷좌석에서 지수를 보고 있는 새봄.
지수를 따라서 창가에 머리를 대본다.

#31. 회상. 보호자 대기실(밤)

독방 같은 어두운 보호자 대기실로 들어오는 지수.
불도 켜지 않고 교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구석에 눕는다.

시간 경과.
지수, 추운지 몸을 점점 웅크리면 누군가 담요를 덮어준다.
인상 쓴 채 잠을 자던 지수의 표정이 서서히 풀어진다.

#32. 현재. 맥주집(밤)

조명이 켜진 야외 테라스.
맥주 한잔 겨우 비워내고 술 잔뜩 취한 지수.

지수 (술주정 하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저라구요, 잇츠 미(It's me)!
쩔조? 우리 이수경 작가님 아니었으면 나는 닷땡(nothing)!
이미 저어기 (하늘 가리키며) 저어기에서 아빠랑 오순도순 집
짓고... 아! (시무룩) 근데 저기도 월세 내려나? 그럼 난 못 살겠다.
(허탈하게 웃으며) 그러니까 그 책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미움 받는 거 간단 말이야...

새봄 (짙하게 보며) 내가 그쪽을 왜 미워해요.

지수 (배시시) 자 약속.

새봄 (중얼중얼) 그놈의 약속 엄청 좋아해.

지수, 새끼손가락을 새봄 앞으로 뻗으면

새봄, 장단 맞춰주려 오른쪽 손을 뻗는데
새봄의 오른 손목 파스를 안쓰러운 듯 쓰다듬는 지수.

지수 (슬픈) 많이 아팠겠다...

서로를 바라보는 지수와 새봄.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먼저 피하는 새봄.

새봄 (억누르며) 그만 일어나죠. 좀 이따가 지수 씨 편의점 출근해야
되잖아요.

지수 (꾸벅) 네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고 일어서는데 우당탕탕 자빠지는 지수.

#33. 거리(밤)

지수를 질질 끌며 부축해 택시를 잡는 새봄.
택시 와서 서면 지수를 뒷좌석에 구겨 넣는 새봄.

새봄 (슬슬 짜증나는) 지수 씨. 집 어디세요? 지수 씨 정신 좀 차려봐요!
기사 (쫄쫄) 남자친구가 많이 됐네, 많이 됐어. 아가씨가 그냥 같이
타지?

새봄 (발끈) 남자친구 아닌데요? (지수 흔들며) 지수 씨! 집주소
말해줘요, 얼른!

지수 아... 집. 내 집... 어디였지... 아, 아!

기사, 새봄 둘 다 지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데,

지수 (싱긋) 아, 맞다. ○○병원!

새봄 (한숨)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말해요. 지갑 어디 있어요?

지수 (슬픈) 진짠데... 거기 3층 보호자 대기실이 내 집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봄 (표정) …

새봄, 기사에게 사과하며 지수를 다시 끌어내린다.
 택시 출발하면 길가에 처량하게 앉아 있는 지수.
 새봄, 주변의 모텔 간판 보고 멍청하다가 고개 마구 짓는다.

새봄 (머리 형클며) 아, 이 인간 두 시간 뒤에 일어나서 알바는 갈 수 있나? 미치겠네, 진짜. (지수 흔들며) 지수 씨! 좀 일어나봐요!

#34. 새봄의 원룸(낮)

지수,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뜨면… 낮선 곳이다!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 지수.

지수 (난감) 어디야. 여기가…

새봄의 책상에서 수경과 새봄의 액자사진을 발견하는 지수.
 지수, 동요하며 돌아서다가 바닥에 있던 상자를 쓰러뜨린다.
 우수수 쏟아진 종이뭉치들을 박스에 넣는 지수.
 새봄이 쓴 습작 공책들 사이로 <육조> 원고가 보인다.

지수 아… (이제야 알겠다는 듯, 잔하게) 부러워서 그런 거구나.

지수, 대충 박스 정리하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쪽을 보다가,
 아…!! 아!!! 황급히 신발을 꺾어 신고 급하게 나간다.

#35. 편의점(낮)

새봄에게 현금으로 계산하고 나가는 손님.
 새봄, 포스기 현금통에서 ‘이지수’ 명찰을 발견하고
 지수의 명찰을 꺼내 아련하게 보는 새봄.

새봄 (한숨) 어떻게 아직도 거기에 사냐.

이때, 딸랑 문소리 울린다.
 새봄, 황급히 명찰을 넣고 보면,
 숨을 헉헉 몰아쉬며 카운터 앞에 서는 지수.

지수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짜… (헉) 미안… (헉) …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중간에 나가서… (헉헉) 길을 헤매가지고. (헉헉)

지수의 뺨에 숙취해소 음료캔을 대주는 새봄.
 앓, 갑작스러운 차가움에 물러서는 지수.
 새봄, 받으라는 듯 음료캔 계속 들고 서 있으면,
 두 손으로 음료캔을 받아드는 지수.

지수 감사합니다.

새봄 저번에 제가 교대 10분 늦은 걸로 통쳐요. 점장님한테 내가 대신 말했어요.

획 상체를 밀어 포스기 시간을 확인하는 지수.
 황급히 뒤로 물러가는 새봄.

지수 (망연자실) 아… 진짜 죄송해요.
 어제 괜히 제가 술 마시자고 해서…

새봄 (까칠) 아 같은 말 좀 반복하게 하지 마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 안 벌어진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내 타임 대신 안 해줄 거예요?
 지수 당연히!! (깨갱, 비죽) …해줄 거예요.

새봄, 짐 챙겨 나갈 준비하는데,
 딸랑, 문소리와 함께 점장 들어온다.

점장 (놀라서) 어? 지수 씨도 있었네? 오늘 못 나온다더니. (은근한

시선으로) 뭐야, 둘이? 연애해?

귀찮은 표정으로 나가는 새봄과 찢찢매는 지수.

#36. 거리(낮)

새봄, 걷다가 신경 쓰이는 표정으로 휙 돌아보면,
화들짝 놀라는 지수. 슬금슬금 새봄 옆으로 걸어온다.

새봄 (불편한) 왜 자꾸 따라와요?

지수 이렇게 그냥 가면 완전 민폐남 되는 거 같아서요. 어제 내 시간까지
대타 뛰느라 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에요.

새봄 잘 알면 그만 좀 가죠? 불편하게 하지 말고.

지수 밥 못 먹었죠? 우리 해장하러 가요. 제가 살게요.

새봄 됐어요.

하고 돌아서는데 새봄의 손목을 잡는 지수.
새봄, 통증 때문에 아! 하면서 손 뿌리친다.

지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아...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해요.

새봄 (포기한) 정 그러면 부탁 하나만 할게요. 됐죠?

지수 (강아지마냥 끄덕끄덕) 네! 뭐든 시켜만 주세요!

#37. 새봄의 원룸 앞(낮)

새봄, 문을 열고 나와 책들을 끈으로 엮은 묶음을 내민다.
책 묶음을 한 손으로 넘죽 받아드는 지수.

지수 (우쭐) 이 정도는 뭐...

하는데 집 안에서 책 묶음을 두 묶음 더 꺼내는 새봄.
태연한 척하며 양손에 책 묶음을 든 지수.

새봄 안 무겁겠어요? 무거우면 이걸 다음에.

지수 (표정 관리하며) 남자가 이 정도쯤이야!
아까 왔던 길로 가면 되죠?

양손에 책 세 묶음을 들고 먼저 앞장서는 지수.
새봄에게서 돌아서자 표정은 죽을 맛이다.

새봄 (피식 웃으며) 하나는 나 줘요. (하면서 지수 따라가는)

#38. 거리(낮)

결국 책 묶음을 나눠들고 걷는 새봄과 지수.

지수 근데 책은 왜 파는 거예요?

새봄 다시 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수 <위스트셀러>랑 다르게?

새봄 (찌릿 보다가) 단순하네요, 참. 본인 애길 써준 게 그렇게 좋아요?
나라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지수 (벽찬) 이게 안 좋을 수가 있나?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의 존재가 된 건데.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잖아요.

새봄 그 작가가 <위스트셀러>에 나오는 그 상담원이 아니면요?

지수 (확신에 찬) 그럴 리 없어요, 절대. 제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거든요. 정말 멋진 작가가 될 줄 알았어요 전. 그래서 이번
사인회에 가서 고백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소년이에요, 하고.

새봄 (저도 모르게) 그냥 하지 말지.

지수 (멈칫) 왜요?

새봄 (뻘뻘 보다, 일부러) 그 사람이 지수 씨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려구요.

지수 (밝게 웃으며) 뭐,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어요.

새봄 (자조적으로) 청춘이네.

지수 이름한테 안 미안해요? 새봄, 같은 봄이면서.

새봄 ...난 내 이름 싫어요.

지수 (무심코) 난 좋은데, 새봄.
 새봄 (자조적으로) 어리다고 누구한테나 세상이 푸른 봄날인 건 아니니까.

지수, 멍뚱 서서 새봄을 보면 어느덧 중고서점 앞까지 다 왔다.
 지수의 손에서 책 묶음을 가져가는 새봄.

새봄 (눈 마주치지 않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잘 가요.

지수, 킁킁대며 들어가는 새봄의 뒷모습을 보는데.

#39. 회상. 마포대교(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듯 위태로운 남자의 뒷모습.
 지수, 달려가서 남자를 돌려세우면... 점장(40대)이다!
 검은 정장을 입고 울었는지 벌건 눈을 하고 있다.

지수 아저씨, 혹시... 죽고 싶어요?
 점장 (버럭) 쫓그만 게. 상관 말고 꺼져. 안 가?
 지수 (이해한다) 신경 끝 테니까 저거 한번 해보세요.

점장, 지수가 가리키는 곳 보면 생명의 전화다.

시간 경과.
 지수, 점장과 거리 두고 난간에 기대 앉아 있다.
 전화를 막 끊고 한껏 기분이 진정되어 보이는 점장.

점장 (다가와서) 야, 고딩. 너도 저거 해봤냐?
 지수 네. 근데 저는 저거 쓰는 날 따로 있어요.
 점장 그래? 내가 첫사랑만 실패 안 했어도 저만한 딸이 있었을 텐데.
 지수 어? 상담원 젊은 여자였어요? 목소리 예쁜 누나?
 점장 그런데?

생명의 전화로 허겁지겁 뛰어나는 지수.
 수화기를 들고 초록색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새봄(F) 네, 생명의 전화입니다.
 지수 (반가운 맘에)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누나 오늘 수업 있는 날이잖아요.
 새봄(F) 아, 지수구나. 내가 말 안 했나, 나 휴학한 지 좀 됐어.
 지수 왜... 왜요? 말해주세요. 네? 우린 그래도 되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새봄(F) 어리다고 누구에게나 세상이 푸른 봄날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는 중이야, 새봄이 오기를.
 지수 (위로하는) 봄이든 겨울이든 바람은 불잖아요. 누나, 오늘 바람은 어땠어요? (눈 감으며)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40. 현재. 중고서점 앞(낮)

꿀꿀히 뭔가 생각하며 입구 옆에 서 있는 지수.
 새봄, 지갑에 돈을 넣으며 나온다.

지수 (불쑥) 많이 벌었어요?
 새봄 (놀란) 아직도 안 샀어요?
 지수 (씨익) 배가 너무 고파서 걸어갈 힘이 없는 거 있죠? 주변에 해장국 맛집 추천 좀 해줘요. 여긴 새봄 씨네 동네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새봄 (성가시게 보다가) 따라와요.

앞장서는 새봄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지수.

#41. 해장국집 앞(낮)

노포 해장국집 앞에 서 있는 새봄과 지수.

새봄 됐죠?

다짜고짜 문 열고 들어가는 지수.
새봄, 드디어 해방이다 싶어 뒤도는데,

지수 이모! 여기 해장국 들어요! (문 잡고 돌아서서) 뭐해요?
새봄 (한숨) 왜 그렇게 제멋대로예요?
지수 (뻔뻔) 왜 그렇게 까칠해요? 같이 한번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끓어오르는 짜증을 참고 지수 어깨 퍽 치며 들어가는 새봄.
어깨 문질문질 앓는 소리하며 따라 들어가는 지수.

#42. 해장국집 (낮)

해장국을 먹는 새봄을 힐끗대는 지수.
왼손으로 먹느라 천천히 서툴게 먹는 새봄.
지수, 새봄 대신 김치를 집어 올려주면,
일부러 오른손으로 들어 먹기 시작하는 새봄.
지수, 자존심 부리는 새봄의 모습이 이해가 된다.

지수 재워줘서 고마워요. 버리고 갔으면 맘 아플 뻔했는데.
새봄 잠 한번 재워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근데 그쪽 정말 집
없어요?
지수 (먹으며, 담담하게) 네.
새봄 (먹으며, 담담하게) 짜증나지 않나, 집 없이 사는 거.
지수 (역시 담담하게) 당연히 짜증나죠. 집 없이 사는 건 집만 없는 게
아니니까.

한동안 아무렇지 않게 식사에만 열중하는 두 사람.

지수 (조심스럽게) <육조>... 보여주면 안 돼요?
새봄 (눈빛 변하는) 봤어요?
지수 (눈치보며)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박스를 쏘아서

정리하다가 그냥 표지만 본 거예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
같던데...

새봄 열심히 하면 뭐해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지수 보며) 다
뻗었는데.

지수 (들이대며) <위스트셀러>에 안 나오는 비밀 대사 알려줄까요?

새봄 (보면) ...

지수 (씩씩하게 웃으며) 어제가 빼앗아 간 걸 내일이 돌려주기도 해요.
새봄 씨는 빼앗긴 게 많으니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거예요.

새봄 (과거 O.L) 어제가 빼앗아 간 걸 내일이 돌려주기도 해. 지수는
빼앗긴 게 많으니까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거야.

새봄, 과거 지수에게 했던 자신의 위로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밥을 밀어넣는 새봄.

지수 그날도 쓰고 있었죠? 잠결에 타자 치는 소리 들리길래 꿈인 줄
알았더니 (하다가 새봄 손목 파스 보고, 아픈 표정으로) 손목을
그래가지고.

새봄 (못 참겠다, 수저 탁 내려놓으며) 먼저 갈게요.

지수 궁금해서 그래요.

새봄 (일부러) 내 글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요?

지수 새봄 씨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지. 어떨
때는 따듯했다가 어떨 때는 차갑고, 왜 그러는지 안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봄 씨가 쓴 글로 이해하고 싶구요.

새봄 왜 날 이해하려고 해요? 그쪽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위스트셀러>나 읽어요.

지수 (화난) <위스트셀러>처럼 쓰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당신 이야기
봐달라고 쓰는 거잖아. 나한테 보여줄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작가를 하려고 해요?

새봄 (아프다, 참으며)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보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새봄.

거의 못 먹은 새봄의 그릇을 보고 한숨 쉬는 지수.

#43. 보호자 대기실(밤)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보호자들 제각각 흩어져 있고,
저마다 시름을 안고 고단해 보이는 표정들이다.
구석에서 <위스트셀러>를 읽고 있는 지수.
대사 간간이 형관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지수의 <위스트셀러>

플래시백.
#38. 거리.

새봄 어리다고 누구한테나 세상이 푸른 봄날인 건 아니니까.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을 덮는 지수.

지수 (이상한) 그 애긴 책에 없는데. 우연인가...

이때 보호자들 하나 둘씩 일어나 자리를 벗어나면,
지수, 핸드폰 시간 확인하더니 일어서서 중환자실로 향한다.

#44. 편의점(낮)

지수, 매대에 물건 채우는데 문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새봄.
지수, 말 걸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데 시재 점점 하며 찬바람
쌩쌩 부는 새봄.

새봄 (형식적) 수고하세요.

지수 (마음 상한, 새봄과 똑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시간 경과 느낌으로 반복되고,
새봄을 신경쓰던 지수 또한 점점 무표정으로 변해간다.

새봄 수고하세요.

지수 수고하셨습니다.

새봄 수고하세요.

지수 수고하셨습니다.

#45. 새봄의 원룸(밤)

새봄의 발에 툭 걸리는 박스.
박스 속에서 해진 <육조> 원고 보인다.

플래시백.
#42. 해장국집.

지수 당신 이야기 봐달라고 쓰는 거잖아. 나한테 보여줄 용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작가를 하려고 해요?

새봄, <육조> 원고를 들어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전화가
걸려온다.

새봄 (전화 받는) 네, 기자님. (뜸들이더니)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뺏긴 게 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더라고요.

#46. 서점 일각(낮)

베스트셀러 칸에서 <위스트셀러> 재고를 채우는 지수.
뒤에서 새봄이 <위스트셀러> 한 권을 뽑아간다.

지수, 돌아보면 하객룩 차림의 새봄.

처음 보는 새봄의 꾸민 모습에 잠시 멍해지는 지수.

지수가 말을 걸 틈도 안 주고 계산대로 향하는 새봄.

계산해서 나가는 새봄을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지수.

#47. 예식장/신부대기실(낮)

서너 명의 친구와 신부를 축하해주는 새봄.
문이 열리면서 수경, 들어오면 친구들 전부 수경에게 몰려간다.
저마다 <위스트셀러>를 꺼내 수경에서 사인 받느라 바쁜 친구들.
혼자 동떨어져서 수경의 모습을 바라보는 새봄.

#48. 예식장/여자화장실(낮)

먼저 손 씻고 있는 새봄의 옆에 서서 손을 씻는 수경.

수경 너 아직 글 쓴다며. 뭐 어려운 건 없고?

새봄, 가방에서 <위스트셀러> 꺼내서 수경에게 내미는

수경 어찌지? 지금은 펜이 없는데. 아님 내 사인회 와서 받아 갈래?

새봄 환불해줘. 니 책 아무래도 내 돈 주고 못 사 읽겠어.

수경 (표정)?

새봄 아니다, 그냥 너한테 기부한 셈 칠게. 여기에 짜깁기 된 내 이야기도.

수경 (피식) 아, 출판사에 전화해서 표절 얘기한 게 너였어? 우리 직업이 뭐 이것저것 엮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잖아. 표절은 좀 오바 아냐?

새봄 (암기하듯) 개인적으로 책은 작가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 나타난 저라는 사람에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신 거 같습니다.

수경 (당황)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새봄 내가 니 인터뷰 원본 영상 프리뷰어니까. (진심으로) 수경아, 난 니가 계속 잘됐으면 좋겠어. <위스트셀러>가 데뷔작이자 유작이었던 문장도 안 씌어진 니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웃듯 정돈해주며) 힘내.

새봄, 수경의 손에 억지로 <위스트셀러>를 쥐어주고 먼저 나가면, 부들부들거리며 문을 쏘아보는 수경.

#49. 편의점(낮)

창고 뒤에서 냉장진열대에 맥주캔 채우고 있는 지수.
딸랑, 소리에 진열대 틈으로 보면 새봄이다.
못 본 척 맥주캔을 계속 채우면서도 슬쩍 눈치보는 지수.
마무리하고 나와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면,
역시나 대화를 거부하는 냉랭한 표정의 새봄.
이제 서로 수고했던 말조차 하지 않는 두 사람.

#50. 보호자 대기실(낮)

목에 수건을 둘러매고 가방에서 세면도구 꺼내던 지수.
가방에 들어 있는 <육조> 원고를 발견한다.
지수, 자리 잡고 앉아 <육조> 첫 페이지를 넘기면 과거 회상과 이어진다.

#51. 과거. 마포대교(밤)

생명의 전화 앞에서 새봄과 통화 중인 지수.

지수 오늘 엄마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새봄(F)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어머니는 지수가 아들이라 정말 행복하겠단.

지수 (신나서) 어른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엄마한테 좋은 밥 사드리는 게 꿈이에요. 누나는 꿈이 뭐예요? 베스트셀러 작가?

새봄(F) 난 그냥... 육조 있는 집에서 사는 거? 좀 이상하지?

지수 (웃으며) 왜요, 엄청 누나다운데. (잠시) 저기 근데 누나. 왜 꿈은 꾸다고 하는 걸까요? 꿈꾸는 것도 뭔가 빛지는 것 같아요.

새봄(F) 음... 꿈은 누군가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빌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내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고, 누군가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처럼.

지수 와 진짜 작가 같다. 누나 진짜 멋있어요. 그럼 저도 누나 꿈꿀래요! 안 팔리면 어때. 내가 다른 사람 뭉까지 읽어줄게요.

새봄(F) 그럼 난 위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가?

웃으며 새봄과 통화하는 지수.

#52. 현재. 보호자 대기실(낮)

취소선이 죽죽 그어진 문장들을 읽는 지수의 눈빛이 흔들린다.
다시 앞장을 넘겨 표지를 보는 지수.
“육조”를 여러 번 되뇌다가 자리를 뛰쳐나간다.

#53. 편의점(낮)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오는 지수.
점장, 젊은 여대생에게 포스기 사용법 알려주고 있다.

점장 (화들짝) 어, 지수 씨! 뭐 두고 간 거 있어?
지수 새봄 씨요! 지금 왜 점장님이 있어요?
점장 아, 그만됐는데. 둘이 친한 줄 알았더니 몰랐어?

황망한 표정으로 다시 뛰어나가는 지수.

점장 (혀를 끝끝 차며) 사내연애는 이래서 문제야.

#54. 새봄의 원룸 앞(낮)

새봄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춰서는 지수.

플래시백.
#38. 거리.

새봄 그 작가가 <위스트셀러>에 나오는 그 상담원이 아니면요?

플래시백.
#42. 해장국집.

새봄 열심히 하면 뭐해요.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지수 보며) 다 뺏기는데.

현재, 허공에 떠 있던 지수의 손이 힘없이 떨어진다.

지수 (자조적인) 등신새끼. 니가 무슨 자격으로...

#55. 서점 일각(낮)

건조한 표정으로 책장에 책을 꽂아 넣는 지수.
지수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오는 현석.

현석 저기, 베스트셀러 코너에 <위스트셀러>가 없는데요.
지수 (정신 팔린) 네.
현석 뭐 하나, 너?
지수 (정신 차리고 보면) 어?

지수가 전혀 상관없는 책장에 꽂아 넣는 책 <위스트셀러>다.

현석 (잘못 꽂힌 <위스트셀러> 빼내며) 진상 후유증이나? 대판 싸웠지만.
지수 어떻게 알았냐?
현석 그날 서점 단톡방 완전 니 얘기뿐이던데 모를 수가 있냐. 다들 사이더라고 난리던데? 그런 진상짓도 일종의 정신병이라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 거지 그동안.

지수 (싸늘) 나라에서 공부하는 데 보태라고 준 장학금으로 놀다 온 사람이 운운할 얘기는 아니지. 그 장학금이 절실한 사람한테 누가 똥이겠냐?

현석 새끼, 왜 이렇게 꼬였냐? 답지 않게. 너 진짜 무슨 일 있었냐?

지수 (장갑, 앞치마 벗어주며) 자, 너 왔으니까 내 할 일 끝난 거지?

현석 (눈치 없는) 아 알았다. 너 이 새끼 <위스트셀러> 북콘서트 때문이지?

지수 무슨 소리야?

현석 사인회 추가 요청 빗발쳐서 오늘 사인회 전에 북콘서트 하잖아. 뭐야, 너 진짜 몰랐어? 좀 전에 시작했을 걸?

현석에게 책을 몽땅 떠넘기고 황급히 뛰어나는 지수.

#56. 북콘서트장(낮)

독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수경.
 사회자의 유티 있는 농담으로 장내에 웃음이 넘쳐난다.
 지수, 들어와서 빈자리에 앉으면 엇갈려서 나가는 새봄.

사회자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질문 받고 이수경 작가님은 사인회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보다가)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저분. 방금 오셨거든요. 꼭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신 거 같아요.

장내, 다시 웃음바다 되고 무표정으로 마이크를 건네받는 지수.

지수 <위스트셀러>에 나오는 마포대교 소년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수경 (생각하다가)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지금쯤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도 졸업했겠네요. 여자친구도 있을 것 같고 가장 빛나는 청춘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지수 (크게 웃다가) 생각보다 상상력이 부족하시네요, 작가님. 그 소년은요. 아직 갓아야 할 빛이 산더미라 그 나이 먹도록 군대도

못 갔어요. 신용은 바닥이라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졸업만 못 했을까요? 연애도 못 했고 몸 누일 곳은 아직도 보호자 대기실이죠. 이게 정말 빛나는 청춘인가요?

수경 사람은 남의 큰 불행보다 자신의 사소한 불행에 더 아파하기 마련인데요. 미래의 나는 분명 과거의 내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아픔도 가치가 있는 거죠.

지수 (자조적인) ...지랄하네.

마이크를 타고 퍼진 지수의 욕설에 웅성거리는 장내.

지수 웃기지 않아요? 불행에도 순위를 매긴다는 거. 그럼 그 소년은 감사해야겠네요. 작가님이 끼워 판 그 소년의 기쁨, 슬픔, 아픔이 지금 베스트셀러니까요.

사회자 (정리하려 애쓰는)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북콘서트는 이쯤에서...

수경 (지지 않는) 독자님, 참 무례하시네요.

지수 통치죠.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반쪽짜리 주인공이니까. 작가님도 저한테 허락 안 받으셨잖아요?

수경 (이제야 상황 파악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상처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통해서...

지수 (말 끊고) 표절작가라 그런가 문맥 파악이 엉망이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은 반쪽짜리 주인공이지.

말문이 막혀버린 수경.
 지수, 소란스러운 장내를 벗어나자 웅성거림은 더 심해지고, 사회자, 독자들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하나 둘 벗어난다.

#57. 새봄의 원룸(낮)

끊임없이 울리는 새봄의 핸드폰.
 새봄, 착잡한 표정으로 실시간 검색어 화면을 보고 있다.
 <위스트셀러> '이수경', '위스트셀러 표절', '마포대교 소년'

새봄, 핸드폰을 종료하려다가 발신인 '점장님' 보고 멈칫한다.

새봄 지우는 걸 깜빡했네. (어쩔 수 없이 받는) 네, 점장님.
 점장(F) 새봄 씨, 진짜 미안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대타 부탁 좀 하자, 응?
 새봄 (한숨) 저번에 약속했잖아요. 딱 일주일만 하기로.
 점장(F) 그건 그런데 어떻게 안 될까? 사람 된 도리로 문상은 가야지.
 새봄 지수 씨한테 부탁해보세요.
 점장(F) 어떻게 상주한테 부탁을 해.
 새봄 (표정) ...

#58. 장례식장(밤)

새봄, 문이 열려 있는 빈소 안으로 들어서면 텅 빈 빈소에서 벽에 기대 잠든 지수 보인다.
 새봄,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가서 향을 올린다.
 환한 지수 모의 미소에 울컥하는 감정을 삭이는 새봄.
 돌아가려다가 고개를 묻고 잠든 지수가 맘에 걸린다.
 주변에 있던 담요를 지수에게 덮어주던 새봄.
 지수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주려다 멈칫 정신 차리고,
 지수의 옆에 나란히 앉는 새봄.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다.
 새봄, 일어서려고 하는데... 새봄의 손을 잡는 지수.

지수 (아프게 보며) 조금만, 조금만 그대로 있어주면 안 돼요?

새봄의 손을 잡은 지수의 손이 절실하다.
 새봄, 말없이 지수의 옆에 앉으면 새봄에게 기대 잠이 드는 지수.

시간 경과.
 그대로 깊이 잠들어 있는 지수.

점장 (V.O) 지수 씨! 지수 씨!

점장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 지수.
 주변을 둘러보면 새봄은 이미 없다.

지수 새봄 씨 못 봤어요?
 점장 무슨 소리야. 어제 바쁘다고 대타도 거절당했는데. 새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말야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잘 헤어졌어!

새봄이 덮어주고 간 담요를 보며 생각에 잠기는 지수.

#59. 면접장(낮)

단정하고 포부 넘치는 표정의 남녀 지원자들.
 그 사이에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새봄.

면접관 (서류 보다가) 정새봄 씨는 직장이 여기가 처음이시네요? 그동안 뭐 했어요?

새봄 (당당하게) 알바했습니다.

면접관 (어이없는) 아니, 알바 말고 다른 거요. 자신의 꿈을 위해 뭘 했다는가?

새봄 글을... 썼습니다.

면접관 (서류 보더니) 아, 문창과 출신이시네? 저도 취미로 글 써요. 어떤 글 썼어요?

새봄 (손에 힘이 들어가는) 육조 있는 집에서 사는 게 꿈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면접관 그래요? 난 육조 있는 집에서만 살아서 잘 공감아 안 가네.

표정이 굳는 새봄. 떨어졌음을 직감한다.

#60. 마포대교(낮)(노을)

난간에 기대 찬바람 맞으며 꿀꺽꿀꺽 캔맥주를 마시는 새봄.
새봄, 빈 캔을 찌그러뜨리고 천천히 대교 위를 걷기 시작한다.
눈을 감으며 바람을 느끼는 새봄.
한 발짝 두 발짝 걸다가 누군가와 부딪힌다.

새봄 아, 죄송... (보면)!!!

지수다. 생명의 전화 앞에서 마주 보고 선 두 사람.

지수 그거 알아요? 십 년 전 이후로 여기 매일매일 온 건 처음인 거.
물론 같은 이유로요. (<육조> 원고 내미는) 빗진 꿈 돌려줄게요.

새봄, 지수에게 받은 <육조> 원고를 다리 너머로 미련 없이
던져버린다. 바람을 타고 흩어지며 강물로 추락하는 원고.
허탈한 표정으로 새봄을 보는 지수.

새봄 이제 꿈을 빗질 일도 풀 일도 없죠.

지수 씨도 그냥 지수 씨 인생 살아요.

지수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때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요. 그때 날 살린
건 당신이라고 그 상담원이 나라고,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새봄 (담담하게) 쪽팔리니까. 저걸 볼 때마다, 고칠 때마다, 나한테 당장
내일이 없어도 펜찰을 만큼 열심히 썼어. 글 쓰는 게 좋았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썼다구요. 근데 아니라잖아. 이제 저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내가 내 이십 대를 통째로 바친 건가, 실격인
줄도 모르고. 이런 거지같은 생각만 든다구요.

지수 꼭 베스트셀러가 왜야 의미 있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새봄 씨가
나한테 써내려간 그 이야기가 나한테 구원이자 희망이었다고.
나로선 부족해요?

새봄 (표정) ...

지수 새봄 씨는 잘못 살지 않았어요. 우릴 스쳐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스트셀러예요. 잘 팔려야 잘나가야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이 빼앗아 간 걸 내일이 돌려주기도 한다면서요. 지금 잃은
게 많을수록 앞으로 돌려받을 게 많다면서요. 이렇게 힘들게
돌려받았는데 난 또 잃으라고?

새봄 아직 돌려받을 때가 아닌가 보죠.

지수 (보면)?

새봄 오늘 면접관이 <육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육조'
있는 집에서 산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 지수 씨와 내 얘기 없어도 지수 씨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
쓸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아야죠. 중도해지 하기엔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억울하잖아요.

새봄, 그대로 쿨하게 지나치려는데 새봄을 잡는 지수.

지수, 파스봉투를 찢 뜯어 새봄의 오른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고,
새봄의 재킷 주머니에 파스봉투를 넣어준다.

지수 (싱긋) 만기이율 기대할게요.

못 당해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지수와 새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다 반대방향을 향해 걷는 두 사람.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스쳐간다.

#61. 서점(밤)

누군가의 손, 신간 평대에서 <육조> 책을 집어든다.
<육조>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군복 입은 남자.
베스트셀러 진열장 앞에 서 있는 군복남의 뒷모습.
현석, 지나가다가 군복남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현석 (툭 치며) 새끼, 벌써 휴가 나왔냐? 말 좀 하고 나와라, 쫌!

지수 뭘 굳이 말해. 나와서 보면 되지, 이렇게.

현석 (이해 불가) 하여간 면제된 놈이 갑자기 입대를 하질 않나. 진짜 이상한 새끼.
 지수 왜 면제 받았냐는 질문에 생계가 곤란해서요, 대답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평생 꼬리표일 텐데 더럽고 치사해서 한번 갔다 오고 말지.
 현석 (지수 손에 들린 <육조> 보며) 그 책은 뭐냐? 드디어 다른 책에 꽂힌 거? 다행이다, 내 친구가 정상이라.

지수, 뭔가 말하려고 하면 멀리서 “현석 씨~” 부르는 소리 들린다. 현석, 가고 나면 다시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는 지수. 아직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위스트셀러> 진열장에 한 권 남은 <위스트셀러>를 휩 가져가는 남자. 비어 있는 1위 진열장에 <육조>를 놓고 가는 지수. 1위 칸에 있는 <육조>를 집어드는 누군가의 손. 시간 경과 느낌으로 베스트셀러 진열장 순위가 휙휙 정신없이 바뀌면서, <육조>가 1위 자리로 치고 올라온다. <육조>를 가져가는 수많은 손들.

#62. 육실(낮)

깔끔하고 세련된 하얀 육조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육실 밖에서 이사하느라 분주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삿집 직원들이 나가자 누군가 육실로 들어온다. 애뜻한 눈빛으로 육조를 쓰다듬는 새봄. 육조 안으로 들어가 전신욕 하는 것처럼 누워본다.

지수 (똑똑 노크하며) 작가님, 제가 주문한 건데요?
 새봄 (당연한 듯) 그럼 내 거 맞지.
 지수 (웃으며) 이상하게 합리적이네. 테스트 해봤어요?
 새봄 무슨 테스트?

췌어- 샤워기의 물을 틀어 새봄에게 흘뿌리는 지수.
 “아, 하지 마!” 육조 안에서 아등바등하며 샤워기를 뺀 새봄.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 햇빛이 쏟아진다.
 행복한 새봄과 지수의 표정에서

끝.

<청춘실격>은 작가지망생으로 살아온 저와 제 주변 지망생 이야기가 90프로 이상 녹아 있는 대본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29세의 나이로 직면한 아홉수 방황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얘기를 써보자. 내 밀천을 전부 팔아서라도 안 되면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자.' 이렇게 제 생애 마지막 습작물이라는 각오로 쓴 대본이 <청춘실격>이었고 오펜의 당선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그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e-book을 준비하면서 당선작가로서 작가지망생의 이야기를 수정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였고 자전적인 이야기였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수정 작업은 설정만 있고 허상처럼 비어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채워 넣는 것과 현재 인물들의 원동력인 과거 에피소드를 대사뿐인 '전화 상담' 장치에서 벗어나 상황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정 작업은 험난했지만 오펜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 덕분에 평소 습관적으로 소홀히 생각했던, 작가라면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완고는 당선작에서 오프닝과 엔딩을 포함해 절반 정도 바뀌었지만 치열하게 고민한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걸어간다는 것 자체로 많은 힘이 되어주는 오펜 3기 드라마, 영화 동기분들과 천동별거승이에게 기회를 주신 오펜 센터 측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잘 팔리는 것보다 안 팔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청춘실격>이 각자만의 어둡고 긴 터널을 걷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의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의지처 하나씩은 있기를 바란다. 나도 누군가에게 어느 한순간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등장인물

오준호(17세, 남)

오성일의 아들이자 오드리의 조카.

아빠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자꾸 탕진하는 바람에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했던 불우한 아이. 보증금 500만 원을 모아 아빠랑 맘 편히 사는 게 꿈이라, 종종 일부러 시비를 걸어 얻어맞고 합의금을 받아낸다. 근데 그마저도 날려먹는 아빠. 이번에는 삼촌네서 지내라며 보내진 곳에 웬 여자가 등장한다. 트랜스젠더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매우 짹짹하고 조금 무섭다.

오드리(39세/47세, 여) 트랜스젠더. 본명 오두일

오준호의 삼촌(또는 고모)이자 오성일의 동생.

‘오드리 라이브바’를 운영하는 부유한 트랜스젠더 여성. 비록 180이 다 되는 키에 넓은 어깨를 가졌지만, 굴곡진 섹시한 몸매와 화장기술이 빼어난 얼굴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전에는 트랜스젠더인지 모른다. 하늘 아래 의지할 데 없이 산전수전공중전을 다 겪은 터라 세상일 모두 웬만해서는 심드렁하다.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해서, 자기 팔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힘이 돼주고 싶어 한다. 그 뜻만은 오드리 험번 못지않다. 어느 날, 먼저 연을 끊었던 형(사실 오빠)이 염치도 없이 제 아들 준호를 잠깐 맡아달라며 찾아온다.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가지 않으면 세상을 떠돌게 될 17세 준호에게 마음이 쓰인다.

나비(20대 후반, 여) 트랜스젠더

성형미 넘치는 특급 미녀. 오드리의 집인 오드리하우스에서 같이 살고 있다. ‘오드리 라이브바’에서 일하다가, 오드리의 지원으로 요가강사 자격증을 따

요가학원을 운영한다. 강습이 없을 때는 계속 바에 나가는데, 오드리를 돕기 위해서다.

오드리하우스를 거쳐 간 많은 언니들이 그랬듯이, 나비 역시 오드리가 없었다면 인생 더 힘들 뻔했다. 그래서 오드리 언니의 뜻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싸가지 없는 준호도, 오드리 언니가 맞아들이기로 했다면 나비는 오케이이다.

장미(40대, 여) 트랜스젠더

‘오드리 라이브바’ 직원. 아재 체형에 아재 애티튜드, 굳이 예쁘게 내지 않는 걸걸한 목소리… 임재범 노래를 임재범 형님보다 멋지게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원피스를 즐겨 입는 장미. 누가 봐도 여자라기보단 여장남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총도 제일 많이 받지만, “왜, 안 이쁘면 차마 못 입냐”로 되받아치며 본인은 개의치 않는다. 오드리페밀리의 트랜스젠더들 중 유일하게 혈연가족에게 딸로서 사랑받는다.

오성일(48세/26세, 남)

오준호의 아빠이자 오드리의 형.

도박중독이다. 아들 준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노름에 눈이 돌면 그 사실을 잠시 잊을 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10대 시절부터 동생 오두일(오드리)을

고생 고생해서 키웠다. 그 수고가 허망하게 여장이라는 해괴한 짓을 해대며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두일의 배은망덕함에, 26세의 성일은 17세의 두일을 내쫓고 연을 끊다시피 했다. 그런데 노름판에 또 쥐꼬리만한 집 보증금을 날리고, 육촌에 팔촌들까지 모두 신세를 진 뒤라 더 이상 준호를 맡길 데가 없자 십수 년 만에 동생에게 연락을 한다.

박성택(17세, 남)

준호가 다니는 학교의 일진. 준호의 의도적인 도발에 주먹을 휘두르다 합의금을 뜯긴, 알고 보면 피해자다.

어깨1, 어깨2

오성일과 화투 치는 사이. 화투판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만드는 양아치, 도박꾼이다.

그 외

학생1, 남손님 대여섯, 여손님 넷(20대), 30대 커플, 아줌마·2, 어린아이, 도박남1·2, 도박녀1·2, 기흥, 기흥여친, 장미남친, 성택 모, 성택 부, 순경, 담임, 종업원1·2(남), 통장(중년 남) 등.

줄거리

아빠(오성일, 48세)의 도박중독 때문에 몇 번째 보금자리를 잃고 또다시 남의 집에 얹혀 지내야 하는 준호(17세). 이번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삼촌 집에 가 있으라는데. 삼촌이라며 나타난 사람은 키가 훗칠한 웬 여자(오드리, 39세)다. 오드리의 집에 가보니 외모가 기똥차지만 목소리로 보아 역시 트랜스젠더인 나비(29세)도 있다. 준호 생각에 이 집, 오드리하우스는 위험하다.

준호는 어차피 삼촌네 머무를 생각도 없었다. 또다시 눈칫밥 먹으며 찌그러져 지내느니 그냥 헛터 같은 데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찻집하게 트랜스 집이라니… 하룻밤만 자고 그냥 떠나려는 준호. 그런데 그를 대하는 오드리의 방식이 참신하다. 뜬금없이 학교 끝나고 올 때 당근을 사오라는 오드리의 심부름이 꼭 준호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데. 그래서 늦은 밤, 갈 곳 없는 준호는 오드리하우스로 돌아온다.

오드리와 점차 정이 드는 준호. 준호는 처음으로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살게 되었다. 그러나 준호가 달고 온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온갖 풍파에도 ‘여성’으로 살던 오드리가 남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거기다, 자신과 아버지 때문에 오드리가 마음을 다해 운영하는 ‘오드리 라이브바’가 위기에 빠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싫은 준호는 이제 그만 오드리의 삶에서 사라지려고 한다. 가진 것 없는 준호가 오드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남긴 채.

삼촌은 오드리 헵번
심보영

곧 다급히

#1. 고등학교 복도(낮)

쉬는시간. 학생들 지나다니고.
벽에 붙어선 준호(17세, 남), 구석에 달린 CCTV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꺾어 풀고 어깨도 으쓱 했다 툭툭 내리며,
길게 뻗은 복도를 주시한다.
덩치가 큰 성택(17세, 남, 일진)이 학생1과 장난치며 지나가자
긴장한 준호, 파이터처럼 숨을 한번 훑 내뿜고는.

준호 박성택 이 짜질한 새끼.
성택 (돌아보고, 어이없는) 뭐?
준호 (가소롭다는 듯 피식하며) 뭐.

성택과 학생1, 준호에게 다가와 선다.

학생1 (어이없는) 오준호 너 미쳤냐?
성택 (준호 이마를 때리듯 밀며) 야, (밀며) 야 이새끼. (밀며) 뭐라고?

준호, 성택이 밀 때마다 뒤로 한 걸음씩 밀려나지만
성택을 향해 치뜬 두 눈만큼은 절대 깔지 않는다.

준호 너 겁나 짜질하다고, 열받냐? (턱 들이대며) 열받으면 쳐보든가.
성택 (들이민 준호 얼굴을 한 손으로 우악스럽게 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나하하. 아이씨. (그대로 확 밀어버리는) 레벨을 맞춰서 나대라.

성택, 가던 길 가고. 그 뒤를 학생1이 따르며 준호를 야리는.
준호, CCTV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이게 아닌데 하는 얼굴이다.

준호 (크게 소리치는) 누가 이기나 쳐보라니까 박성택! 꼴았냐?!

성택, 뒤를 돌아보면
모든 학생이 자신과 준호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다.
그중에 여학생도 많고.
흥미진진한 눈빛들 반짝이는데.

준호 꼴았냐고. 왜 피해? 너 별것도 아닌 거 들킬까 봐?
성택 (준호에게 성큼성큼 가며) 이 미친 새끼가 진짜...

하며 날아가 준호의 가슴에 꽂히는 성택의 발. 그에 맞춰 엄정화
<배반의 장미>의 비명소리가 울리며. 준호, 뒤로 넘어가고.
<배반의 장미> 간주가 신나게 이어 깔리는 가운데,
준호 가슴에 올라탄 성택이 마구 주먹질을 해댄다.
그런데 준호, 양손을 배꼽 위에 꼭 모아 쥐고 있는. 전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흠뻑 두들겨 맞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 같기도 하다.

오드리(E) (노래) 처음부터 내겐 없던 거야~

#2. 오드리 라이브 이곳저곳(밤)

무대 위, 화려하게 돌아가는 조명.
한껏 의상을 차려입고 <배반의 장미>를 부르는 오드리(39세).
안 올라가는 목소리가 뒤집어지지만 표정과 몸짓만은 엄정하다.
남자 백댄서 데어셋이 오드리를 둘러싸고 멋진 무대를 만드는데.

테이블의 손님들, 공연을 즐기며 무대를 향해 환호하고.
아예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는 사람,
무대 아래서 손을 잡아달라는 듯 오드리에게 격하게 팔을 뻗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이 여자손님도 많고.

바에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는 장미(40대). 양주를 따라 앞에 앉은 20대 여손님 넷에게 건넨다. 장미 옆의 나비(20대 후반)는 마치 여기가 무대인 듯 눈까지 감고 춤에 몰입한.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장미와 그 앞 여손님들이 무대를 향해 두 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

무대. 백댄서 두 명이 오드리의 거드랑이를 받쳐 번쩍 들어올리고. 환호와 박수 속, 팔을 활짝 펴고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힌 오드리. 얼굴에 조명이 더 환하게 쏟아진다.

#3. 오드리 라이브 앞(밤)

빛나는 'Audrey Live' 간판에
타이틀. "삼촌은 오드리 헵번"

#4. 오드리 라이브/홀(밤)

춤추던 손님들, 오드리에게 박수치며 제자리로 돌아가 앉고.
오드리, 백댄서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대에서 내려와서는

오드리 (손 잡아준 댄서 등짝 찰짝) 왜 남의 무대에 난입하고 난리.
남손님1 (아프다) 아 오드리님!
오드리 근데 고객님들, 모여서 연습하니? (흘겨보며) 잘은 했어. (멀리 종업원1에게) 여기 맥주 삼천 줘라~

좋다고 웃는 손님들 뒤로하고 바 쪽으로 가는 오드리다.

#5. 오드리 라이브/바(밤)

#2의 바에 앉은 20대 여손님 넷과 이야기하고 있는 나비.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흥이 가시지 않은 몸을 들썩인다.

여1 언니 저도 인종 축소하려는데 어디가 좋아요?
나비 봐봐. (여1 얼굴 보이면) 아우 자기는 안 해도 돼. 적당한데 뭘.
오드리 (바 안으로 들어오며) 있지, 나비 재는 (코 높이는 시늉) 코를 몇 번을 들어 올렸는지, 인종이 (윗입술 짝 끌어내리며) 이래, 이래 길어져봐서 한 거지.
여손님들 (까르르)
나비 (오드리 탁 때리며) 미쳐! 내가 언제!
오드리 (나비에게) 퇴근하고 바로 왔지? 빨리 들어가서 밥 먹어.
나비 아우 이 시간에 무슨 밥이야.
오드리 밥 아니고 풀떼기야. 빨리 들어가. 먹어.

하며 나비 엉덩이 툭툭 치면서 바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마지못해 나가는 나비다.

여2 와아- 언니 키가 몇이예요?
오드리 (한숨 쉬며) 180. 저주받았지? 가슴으로 갈 게 잘못 간 거야.
깔깔대며 뭐라뭐라 이야기 나누는 오드리와 여손님들.

#6. 옥담방 앞(밤)

낡은 옥담방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온다.

#7. 옥담방(밤)

살림이랄 것도 없는 방. 지퍼 열린 비키니장에 몇 안 되는 옷
걸렸고, 한쪽 버너 위에 냄비와 밥그릇 몇 개 쌓인. 벽지도

깔끔하지 못하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병째 마시는 오성일(48세). 병을
비닐봉지에서 빼지도 않은 채다.
전화번호 적힌 쪽지가 마치 안주처럼 놓였고,
한 모금 마시고 그걸 쳐다보는 성일의 뒤로
이불을 덮고 등져 누운 사람이 있다.
쥐어 터진 얼굴로 자고 있는, 준호다.
방바닥에 허물처럼 벗어놓은 교복에 핏자국이 얼룩얼룩하고,
핸드폰을 집어 드는 성일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8. 오드리 라이브/테이블(밤)

무대, 꽃단장한 장미가 걸걸한 목소리로 임재범 노래하는.
꽤 잘 부른다.
과일안주와 양주 놓인 30대 커플 테이블. 오드리가 합석했다.
무대 보며 장미 노래에 흠뻑 빠진 오드리, 양주 한 모금 마시면.

남친 근데 결혼 왜 못해요? 주민번호 안 바꿨어요?
오드리 웬걸~ 여자로 호적 바꾸는 게 쉬운 줄 알아? 바꾼다고 곧바로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남친 왜요? 또 뭐가 문제데요?
오드리 남자.
여친 (남친 옆구리 쿡 치며) 남자가 문제지.
오드리 (눈알 획 굴리며) 있는 것들이 난리. (테이블 위 핸드폰 울린다)
여보세요? (쉬고) 네 오드립니당~
성일(F) 오두일... 맞습니까?
오드리 (핸드폰 액정 한번 보고) 누구세요?
성일(F) ...두일아. 형이다.

오드리의 멍해지는 얼굴.

#9. 교차. 오드리 라이브 휴게실+옥탑방(밤)

휴게실은 행거에 현란한 무대의상이 빼곡히 걸렸고 음향 장비도
많다. 나비, 소파 테이블에서 샐러드 도시락을 먹고, 오드리,
화장대에 앉아 통화 중인.

성일 잘 지내냐.
오드리 (빈정대는) 나야 기깔나게 잘 지내지.
성일 ...다행이네.
오드리 십몇 년 만에 갑자기 안부가 궁금하세요?
나비 (젓가락 멈추고 오드리 쳐다보는)
성일 두일아. (지는 준호의 등 바라보며) 형이 부탁 좀 하자.

자는 것 같던 준호, 벽을 노려보고 있다.
등 뒤의 아버지 통화를 듣는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오드리 (가슴에 얹은 손과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린다) 오드리. 나
오드리예요. 형이라 부를 사람 없거든요?

어느새 걸음으로 온 나비가 오드리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 손을 오드리가 꼭 잡는데.

#10. 옥탑방(밤)

성일, 핸드폰 내려놓고 소주 한 모금 마시는데.

준호 합의금은 다 어쨌어요.
성일 깎어?
준호 (이불을 차며 벌떡 일어나) 아 어쨌냐고!
성일 (소주 마시려는데 병이 비었다. 허탈하게 내려놓는)
준호 그걸로 보증금 하면 됐잖아. 그러면서 돈 벌면 됐잖아! (아몰지
않은 얼굴의 상처 어딘가를 잡고) 아야! 에이씨...

성일 잠깐만 가 있어. 금방 부를게.
 준호 또 어딜 보내려고. 육촌, 팔촌, 친구에 선배까지 돌려놓고, 또 어디를! 누가 반긴다고오!
 성일 삼촌.
 준호 삼촌은 무슨 삼촌.
 성일 있어, 삼촌.
 준호 됐고요 아버지, 강 어디 쉽터 같은 데 떨귀요. 내 알아서 살게.

하며 결의에 차 주먹 꼭 쥐고 성일 노려보는 준호의 얼굴에서.

#11. 도로/성일 자동차 안(낮)

굴러갈까 싶게 녹슬고 찌그러진 작은 차가 도로를 달린다.
 무겁게 운전하는 성일. 멍하니 창밖 바라보는 조수석의 준호.
 얼굴 여기저기 반창고가 붙었고.

준호 어디까지 가...

지나치는 표지판, 수원시에 들어선다.
 달달거리며 가는 자동차의 뒷모습.

#12. 카페(낮)

카페 문이 열리며 등장하는 화려한 여자, 오드리.
 흰철한 키에 굴곡진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 과하게 도도한 워킹.
 그녀가 또각, 발을 내딛을 때마다 '와우!' 하는 얼굴로 쳐다보는
 여러 손님들. 선글라스를 착 벗고 카페를 둘러보는 오드리의
 눈에 나란히 앉은 성일과 준호가 보인다. 준호 옆에는 커다란
 가방이 두 개나 놓였다.
 성일, 오드리가 이쪽으로 오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오드리가 점점 가까이 오자, '설마' 하는

준호 ...삼촌이라며?
 성일 (다가오는 오드리를 보고만 있다)
 오드리 (앉으며) 진짜 왔네. (하는 목소리가 트랜스고)
 성일 (오드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너...
 오드리 (준호 흘끗 보면)
 준호 (신기한 동물 보듯 오드리 훑어보는)
 성일 어려서 뿔 모르고 까부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오드리 바보야? (양팔 들어 제 몸 한번 내려다보고) 이게 까부는 걸로 보여?
 (얼굴 들이밀며) 오빠, 이 이쁜 얼굴 좀 보라고. 이게 까부는 건지 사는 건지.
 성일 (시선 피한다) 오빠 소리 치워. 징그럽다.
 오드리 오.빠. 나한테 많이 그랬지? 똑바로 살라고. 결국 난 잘 살고 있는데,
 (준호와 커다란 가방 보고) 오빠 아닌가 봐?
 오드리, 복잡한 심경으로 성일을 빤히 보는데
 성일은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색하고, 민망하고.
 성일 ...화장실 좀.
 하고 일어서는 성일을 쫓는 오드리의 눈이 빨갛다.

#13. 오드리의 회상. 어느 주택(낮)

자막 "22년 전"

낡은 주택 거실. 바닥에 원피스, 화장품, 스타킹 등이
 어지럽게 뒹개쳐진 중앙에, 짧은 머리에 남자 교복을 입은
 소년 오드리(17세)가 털썩 앉아 울고 있다.

성일(E, 26세) 이게 다 뭐야, 뭐냐고 이 미친놈아!

방에서 계속 치마, 립스틱 등이 오드리를 맞추듯 날아온다.

머리에 탁 떨어진 브래지어를 끌어내리는 오드리.
립스틱과 눈화장이 번졌고,
어지럽게 내던져진 여자 물건에 둘러싸인 오드리다.

성일 (방문간에 서서) 봐, 봐 이 변태새끼야. 내가 한 번만 더 지랄하면 안 봐준댔지? 나가.

오드리 집에서만 해보는 거야. 한 번도 안 나갔어. 진짜야.

성일 그러니까 미친 짓거리를 왜 해보냐고 이...

오드리 (O.L.)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교복 떡살 쥐어 보이며) 이게 미친 짓이고 (원피스 들어 보이며) 이게 진짜 같다고...

성일, 오드리 뒷덜미 잡아서 현관으로 우악스레 끌고 가며

성일 내가 쌍고생 하면서 이런 걸 키웠다고? 필요 없어 나가.

오드리 (버둥대며 끌려가는) 형! 잘못했어, 형!

#14. 카페(낮)

한숨 쉬는 오드리. 준호를 쳐다보는데,
얼굴 여기저기 거즈와 반창고가 붙었고 성한 데가 없다.

오드리 넌 몇 살이니?

준호 열일곱이요.

오드리 (성일의 빈자리 보며) 오성일 씨는 열일곱짜리 내쫓는 게 전통이라도 된다니?

준호 (가방 메며) 가보겠습니다.

오드리 어딜?

준호 아빠 안 와요.

오드리 응? (화장실 쪽 한번 돌아보는데)

준호 괜히 거절 못 해서 잠깐 맡아준다 해봤자 (손가방 들고) 며칠 지나면 후회하실 거 뻔하고, 그때 서로 불편하게 눈치 주고받느니. (일어선다)

오드리 얼렐레?

준호 지금 파투내는 게 나아요. (인사도 없이 가면)

오드리 어머, 난리.

오드리, 팔짱 딱 끼고 어이없어하다가 책 뒤돌아보면,
커다란 가방을 멘 준호. 커다란 손가방 하나 더 들었고,
반김스를 한 발로 절뚝이며 가고 있다.

오드리 에이씨... 야!

준호 (돌아보면)

오드리 밥은 먹고 가.

심드렁한 준호의 손가방을 탁 채잡아 가는 오드리를
준호, 잠깐 망설이다 따라간다.

#15. 아파트 단지 주차장(낮)

대형 아파트 단지.

고급 세단에서 지금 막 내린 오드리와 준호,
초밥 봉지를 든 오드리, 빼빅 문을 잠그며 성큼성큼 가면
준호, 번쩍번쩍한 자동차를 한번 돌아본다.
큰 가방을 고쳐 메고 절뚝이며 오드리를 따라가는.

#16. 오드리 아파트 동 앞(낮)

동 입구에서 나오는 아줌마·2와 그 옆의 어린아이.
아줌마 둘, 오드리를 보자 멈춰 서서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수군대는 것이 준호에겐 보이는데, 오드리에게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오드리와 좀 거리를 벌리고 따라가는 준호.
아줌마2, 오드리가 가까이 오자 아이를 제 뒤로 숨긴다.
오드리,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동으로 들어가고.

#17. 오드리하우스/거실(낮)

고급 아파트.

거실에 요가매트를 깔고 다운도그 자세로 있는 나비.
딱 붙는 요가복을 입고 있다. 나비의 거꾸로 된 시선, 도어록
소리와 함께 오드리 들어오는 것 보인다.

나비 (다운도그 자세 그대로) 왔어?

뒤따라 들어온 준호. 하늘로 치켜든 나비의 엉덩이가 보이고,
“왔어?” 하는 목소리를 보니 이 사람도 트랜스젠더다.

나비 (한쪽 다리 들어 올리며) 애가 개야?

오드리 (부엌으로 가며) 애가 개란다.

준호 (뭔가 두렵지만, 태연한 척 거실로 들어서는)

나비 (일어나서) 애,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준호 (고개 까딱)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굴려 집을 둘러보니, 좀 위축되는 준호다.

#18. 오드리하우스/주방(낮)

초밥 도시락 차려진 식탁에 앉은 오드리와 나비.

맞은편에 준호. 말이 없다.

나비는 회만 쓱쓱 집어 먹으며 준호를 유심히 보고

오드리는 핸드폰 보며 초밥을 오물오물 먹는데

준호, 두 손을 식탁 밑에 내린 채 안 먹고 있다.

나비 왜 안 먹니? 편하게 먹어.

준호 진짜 편하게 먹어도 돼요?

나비 당연하지~ 맞지 언니?

오드리 먹어. 풀값 떨어지고.

준호, 젓가락을 들고 일어나더니 싱크대에서 물에 헹구고 오는.

나비와 오드리, ‘뭐지?’ 하며 쳐다보는데

준호, 씻어 온 젓가락으로 초밥 두 개를 한꺼번에 집어 먹는다.

준호 (뻘뻘 보는 둘에게) 에이즈 걸릴까 봐요.

나비, 오드리 병찜다가

나비 (빵 터져 깔깔대며) 깔끔하게 무식해서 맘에 든다 너. 언니, 난
음흉하고 여우 같고 그럴까 봐 걱정했거든. 애, 너 아주 올곧게
명칭해서 귀엽다!

오드리 (심드렁. 툭툭하며) 저 방 써. 병 옮으니까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고. (일어나 거실로 가는)

준호 (오드리 뒤통수에 대고) 오늘만 자고 내일 나갈 거예요.

오드리 (관심 없는 듯) 그래 잘 가라야.

나비 (오드리가 남긴 초밥 밀며) 야야, 먹고 때깔 곱게 가라.

#19. 오드리하우스/준호 방(밤)

한쪽에는 요구르트 제조기, 오쿠 등 한때 유행했던 가전제품이
쌓인 방. 별거 안 꽃힌 책장에 오드리, 나비, 장미가 화려한
의상으로 ‘오드리 라이브’에서 찍은 사진액자도 있다. 셋 다
활짝 웃는 모습인데. 그걸 보고 진저리를 치며, 핸드폰 확인하는
준호. ‘아빠 어디야?’ 메시지에 안 읽음 표시 있고.
준호, 침대의 이불을 집게손가락 끝으로 겨우 잡고 들춰보는.
누우면서도 영 찻찻하다.

#20. 오드리 라이브/홀(밤)

영업 끝난 지 한참 지난 시간. 테이블에 오드리,

나비, 장미가 앉았다. 빈 술병 가득하고 다들 취기 올랐는데.

오드리 그니까 있잖아, 어렸을 땐 막 기지배 같다고 애들이 놀리고
그러잖아. 그때 형이 다 때려주고 그랬다니깐? 근데 크면서 이제
나를 때리는 거야. 미친놈이라고.
나비 말해 뭐해. 우리 오빠도 그랬어. 크면서 멍청해지는 약을 먹은 건지
오백 번 말해도 이해를 못 해. 맞지?
장미 (새침) 아닌데~ 우리 오빠는 벌써 내 웨딩드레스 골라놨는데~
오드리 (니 잘났다 보는데)
나비 그래도 오드리 언니는 오빠가 입히고 먹이고 학교도 다
보내줬다며, 열일곱까지. 생각해보면 오빠도 어렸잖아. 나름
고생했네 혼자서.
장미 히! 기즈배야, 여기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딴어.
오드리 해봐서 알잖아. 사람이, 그럴 때 마음 의지할 데 한 군데는 있어야
사는 건데. 형이랑 난 둘 다 없었던 것 같애. (술병 만지작거리며)
개도 그렇고….

#21. 오드리하우스/거실(새벽)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현관 쪽에 커다란 손가방 놓인.

오드리(E) 애가 뭐 죄졌어.

교복 차려입고 가방도 멘 준호,
일어난 사람 있나 절뚝이며 이리저리 기웃댄다.
조용하다.
활짝 열린 방문들. 안에 아무도 없다.
준호, 현관의 손가방 들다가 내려놓고.

준호 아… 교통카드 충전.

지갑 보면 텅 비었다. 머리 굽으며 나가려는데

도어록 소리와 함께, 술 취해 비틀대며 들어오는 오드리.
호리멍텅한 눈으로 준호 보면
준호, 주춤 물러선다.

오드리 어디 가니?
준호 학교요.
오드리 (시계 보고) 새벽에?
준호 학교가 서울이에요.

오드리,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면

준호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고개 까딱) 안녕히 계세요.

신발 신는 준호. 준호가 멘 가방이 엄청 크고 뭐가 가득 차
무거워 보인다. 커다란 손가방도 마저 드는 준호인데.
한쪽 발은 반깁스까지 했고.

오드리 야.
준호 (보면)
오드리 따라와봐. (안방 쪽으로 가는)

#22. 오드리하우스/안방(새벽)

캐노피 침대에 레이스 커튼이 화려하고 벽 한쪽에 커다란
오드리 험번 사진이 걸렸다. 준호, 문간에서 뜨악하며 레이스
둘러보는데. 화장대에 앉은 오드리, 준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준호, 주춤주춤 다가온다.
오드리, 서랍 하나 열면 각종 새 화장품만 들었고.
하나 더 열면 온갖 귀금속.
마지막 서랍을 열면, 5만 원권이 두툼하게 쌓여 있다.
한 장 집어서 내미는 오드리.

오드리 올 때 당근 줘 사와.
 준호 예?
 오드리 퇴근할, 아니 뭐야, 퇴학... 아니, 뭐니?
 준호 하교요?
 오드리 몰라 이씨. 올 때 사오라고. (더 내밀면)

준호, 얼떨떨하게 받는.
 피곤한 오드리, 블라우스 단추 끄르며 나가려는 손짓한다.

#23. 고등학교 앞(낮)

교문에서 학생들 쏟아져 나온다. 재잘대고 장난치며 걷는 학생들 사이, 유독 느릿느릿 혼자 걷는 준호도 있다.

#24. 옥탑방 앞(낮)

옥상 계단참의 준호.
 문 닫힌 옥탑방 쓸쓸히 보다가 내려가려는데,
 창문이 드르륵 열린다.
 화색이 돌며 돌아보는 준호!

#25. 옥탑방(낮)

준호, 문을 벌컥 열며

준호 (반가운) 아빠!

자욱한 담배연기. 한쪽에 대용량쓰레기봉투에 짐 마구 담겨 있는데. 화투판이 두 개나 깔렸고. 성일, 어깨1, 어깨2, 도박남1·2, 도박녀1·2가 이리저리 앉아 한창 게임 중이다. 모두 신발을 신은 채고...

성일 준, 준호야... (당황해서 나가보려는데. 그 와중에도 패는 꼭 권)
 어깨1 (성일 바로 옆에 앉은. 성일 어깨 누르며) 어허이. 장난하나.
 성일 (도로 앉아, 패 펼쳐보며) 아니, 준호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하며 화투 치는 성일. 그 꼴을 보는 준호는 기가 막히고...

#26. 옥탑방 앞(낮)

준호, 분노한 얼굴로 절뚝이며 계단 쪽으로 가는데.
 성일이 급히 따라 나온다.

준호 잡지 마세요. 안 잡히니까.
 성일 (준호 잡아 세우는)
 준호 뭐! 미안해? 말만 하지 말고 쫓 그만 줘 하란 말야!!
 성일 너, 돈 좀 있냐?
 준호 ...
 성일 (준호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는. 5만 원짜리 빼들고 밝아지는데)
 준호 (빼앗으려) 내놔 아빠 돈 아니니까.
 성일 (옥탑방으로 가며) 잠깐 기다려 봐봐.
 준호 아빠 돈 아니라고!!

준호, 성일 어깨 확 돌려세우고, 지폐 낚아챈다.
 그 바람에 성일 바닥에 넘어지고.
 성일을 내려다보는 준호, 처량한데.

#27. 오드리하우스/거실(밤)

깜깜한 베란다 밖. 빗소리 들리고.
 오드리, 밖을 한번 내다보더니 베란다 문을 닫는다.
 편하게 소파에 기대 누운 나비, TV 리모컨을 돌리는데.
 오드리, 불안하게 시계를 훑어보며 옆에 앉는다.
 시계는 10시가 넘었고.

TV에서는 남자 아이돌 무대 한창이다.

나비 재! 내가 말한 애 재야! 나 예비군 갔다가 진짜 똑같이 생긴 애 봤다니깐! 애가 막 어쩔 줄을 몰라서 그늘에 앉아계시라고... (오드리 보면)

오드리 (안 들린다. 다리를 이리 꼬았다 저리 꼬았다 안절부절못하는데)

나비 그러다 나까지 돌겠어. (TV 끄고) 전화라도 해봐.

오드리 (핸드폰 집었다가) 에이씨, 번호도 몰라. (소파에 툭 던지는)

그때 초인종 소리. 오드리, 현관 발탁 쳐다보면
나비, 현관으로 느릿느릿 가는.

나비(E) 어우 애! 서울엔 우산도 안 파니?

곧 나비를 따라 들어오는 쫄딱 젖은 준호.
다리는 절뚝이고 표정은 어색한데.
오드리, 짐짓 편하게 기대 앉아 탄정이고.

나비 현관번호 1111, 우린 심플해. (다시 제자리로 가 핸드폰 보는)

오드리, 관심 없는 척 손톱의 각질 툭 뜯어내고 호호 부는데
눈앞에 비닐봉지 툭 들어온다. 비닐에서 물이 뚝뚝 흐르고.

오드리 뭐야?

준호 당근이요.

오드리 (짜증) 어우 그걸 왜 이리 가져와. 냉장고에 갖다 넣어.

준호 (주머니에서 거스름돈 꺼내 내밀면)

오드리 (본체만체 손톱정리 하며) 우산이나 사.

나비 오드리 언니가 얼굴 뺨에 오드린 줄 아니? 박.애. 오드리 험번.

꾸벅 인사하고 고분고분 부엌으로 가는 준호.
부엌 쪽 보며 빼죽대는 오드리, 이제야 TV를 켜고.

오드리 누구, 저 근육쟁이 봤다고? 재?

나비 (피식 웃는)

#28. 오드리하우스/준호 방(낮)

자고 있는 준호.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는데.

스윙 드리우는 그림자.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은 장미. 머리는 산발에 노티나는
원피스를 입고, 얼굴은 거의 남자인데. 조폭인가 싶은 꺾별
포즈로 앉아 준호를 내려다보는.

준호, 눈을 뜨면. 장미의 짧은 목소리.

장미 너냐? 궁금해서 왔다.

준호 ...

장미 공부는 잘하냐.

#29. 오드리 아파트 전경(낮)

(E) 공포에 질린 준호의 비명.

#30. 오드리 하우스/거실(낮)

준호 앞에 모여 선 오드리, 장미, 나비. 경청한다.

준호 규칙을 정하죠.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장미 보며)
함부로 쳐다보지 말고. (욕실 처억 가리키며) 화장실 안 잠기는
것도 고치고!

진지하게 들던 셋. 곧 별소리 아니라는 듯 산만해지며

나비 (소파에 앉으며) 수요일엔 요가하고.

오드리 (욕실로 가며) 주말엔 쇼핑. 준비들 해~

나비, 장미 끼악- (눈 마주치며 귀엽게 박수치는)

#31. 백화점/여성복 매장(낮)

아메리카노 쪽쪽 빨며 나란히 서서 이 옷 저 옷 보는 오드리와 장미. 그 뒤에 선 준호. 쇼핑백을 어깨, 팔, 손목, 손가락까지 있는 대로 걸고 섰고. 나비, 다가와서 준호에게 쇼핑백 하나 더 없으면 휘청하는 준호.
나비도 음료를 빨며 오드리 옆에서 같이 옷을 본다.

준호 저는 왜 같이 다녀요... (깁스한 발 보며) 먼저 가면 안 돼요?
오드리 (안 듣는. 준호에게 음료까지 턱 맡기고) 아우 행복해. 나는 우리 가게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사는 게 너무 좋아. (옷 하나 꺼내들고) 아기랑, (하나 더 들고) 자기랑.
준호 (준호 표정 씩는데)
나비 (뒤의 것 잡고) 자기가 낫다. 내가 하나 해줄게. (계산대로 가는)
오드리 (눈 흘기며) 밋지 않은 년. (나비 따라 계산대로 가면)
장미 (흡사 교관의 호령) 나는!

지나다니는 사람 몇, 장미를 흘끔거린다.
준호, 제가 괜히 창피하고.

준호 왜 그렇게 괴상하게 하고 다녀요?
장미 왜, 안 이쁘면 치마 못 입나.
준호 치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평범하게 다닐 수 없어요?
장미 너 화장실 앞에서 똥 참아봤나? 확실하게 안 해주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양쪽에서 낭패야. 무섭게 쳐다보고 소리지르고... 어후. (머리 고쳐 만지며) 나도 꾸미는 거 귀찮아 죽겠어.
준호 남 타하기 전에 거울을 보시지.
장미 새끼. 마! (준호 깜짝) 놀라긴~ 너 아주 나 시집가면 기절하겠다. (걸걸 웃는)

#32. 백화점/1층(낮)

주얼리 매장이 늘어선 1층을 걷는 오드리. 옆에 쇼핑백 잔뜩 든 준호가 똥씹은 표정으로 따르고. 뒤쪽 어딘가에 나비와 장미도 보인다.

오드리, 갑자기 멈춰 서는.
어딘가에 고정된 시선이 떨리는데. 준호가 같이 보면, 반지를 고르는 다정한 남녀커플이다.
둘 중 기홍(42세, 남)을 바라보는 오드리,
심경 복잡하고. 곧 아무렇지 않게 가는 오드리인데.

#33. 오드리하우스/거실(아침)

교복 차려입은 준호. 반창고도 깁스도 말끔하다.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드레스룸에서 소란 떠는 나비 목소리에 멈춰 섰다.

나비(E) 어디 갔어 진짜야! (크게) 언니! 내 귀걸이 못 봤어?
오드리 (안방에서 나오며, 크게) 니 귀걸이가 한두 개니.
나비 (드레스룸에서 나오며, 울상) 다이아! 언니가 준 거. 왜 없지? 요가학원에 두고 왔나 내 새끼를...? 화장실에서 본 사람 없어? (준호 보며)

준호 ...
오드리 ...그거 내가 갖다 버렸어. (소파에 앉는)
나비 말이 돼?
오드리 응 말이 돼. 버렸어, 하나 더 사줄게.

그때 현관문 쿵 닫히는 소리. 나비와 오드리가 보면, 준호가 없다.
오드리,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지 현관 쪽을 오래 보고.

#34. 학교 건물 뒤(낮)

인적 없고. 준호, 열이 잔뜩 받아서 벽을 발로 퐁,
한번 후려친다.

나비(E) 다이야! 언니가 준 거. 왜 없지? (#33)

벽에 털썩 기대는 준호인데.

성택 (학생1과 다가오는) 벽이랑 싸워서 뭐하게. 또 자해하냐? 너
일부러 처맞고 합의금 뜯는 거라며?

준호 (보면)

성택 (준호 앞에 서서 잔뜩 웅크리며) 왜...왜 그래 준호야.
아, 때리지 마.

준호 미쳤어? 뭐하냐.

성택 정의구현. (학생1에게 끄덕하면)

학생1 (성택 얼굴에 세게 주먹 날리는)

준호 (긴장한) 뭐...

학생1, 본격적으로 성택 마구 때리고.
준호, 학생1 뜯어말리는데.

#35. 웨딩드레스숍(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드리, 나비, 장미남친.
커튼 확 열리면. 장미, 웨딩드레스 입고 수줍게 섰고.
장미남친, 눈에 하트 뿜!

나비 (장미에게 달려가서) 언니네 오빠 센스 장난없다~ 잘 골랐네!

나비, 핸드폰카메라 들이대면.

장미, 수줍어하다가도 도발적인 포즈 확확 취하는.

오드리 진짜 가나 보네. (장미남친에게) 진짜 데려가요?

장미남친 내가 끌려가요.

오드리 어우, 난리. (전화 오고) 여보세요?

전화 받는 오드리, 놀란 손이 절로 가슴으로 간다.

#36. 지구대(밤)

소파 테이블에 모여 앉은 준호, 성택, 학생1, 성택 모, 성택 부,
순경, 담임. 성택, 심하게 다치진 않았지만 불이 부어올랐고
옷이 너저분하다. 그 양옆에 앉은 성택 모, 성택 부가 준호를
쏘아본다. 준호는 다친 데 없는데.

준호 (옆에 앉은 담임에게) 선생님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순경에게) 제가 어떻게 저 덩치를 패겠냐고요!

성택 부 (준호에게) 니가 복수하겠다고 덤뵈다면서!

학생1 제가 다 봤어요, 준호가 패는 거.

성택 (불 잡고 엄살이다) 아야아. 아 엄마 병원 다시 가지아-

순경 (성택 부모에게) 일단 이 학생 보호자 오시면 얘기 시작하시죠?

준호 지랑 얘기해요 아빠 못 와요. 진짜 재네가 지네끼리 때리고 받고 한
거라니까요.

담임 준호 가만있어봐.

준호 (미치고 팔짝 뛴다) 아니 CCTV 없(어요?)...

말을 끝까지 못 하고 그대로 멈추는 준호.

지구대로 급히 뛰어 들어온 한 남자.

흰철한 키에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턱시도를 입은 오드리다. 그냥 남자 같고.

준호, 오드리를 보고 그대로 굳었는데.

준호를 보며 뚜벅뚜벅 다가오는 오드리. 뭔가 어색한 듯

상의 끝을 자꾸 내려 당긴다. 준호 옆에 딱 서서

오드리 (남자 목소리) 준호 삼촌입니다.
 담임 (일어나서) 준호 담임입니다.
 오드리 (목레한다)
 성택 모 일단 애 얼굴 좀 보세요.
 오드리 어떻게 된 거죠?
 순경 준호 학생이 지난번에 성택 학생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준호가 양값음으로 성택 학생을 찾아와서 마구 때렸다는...

준호의 귀에 점차 순경의 말소리가 안 들리고 자기 옆에 서서 순경의 얘기를 경청하는 오드리의 모습만 보인다.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셔츠와 판판한 가슴, 남자 바지. 손가락을 자꾸 불편하게 꼼지락거리며 말아 쥐는 손.
 미처 신경 못 쓴 붉고 긴 손톱이 잠깐 빠져나왔다가 얼른 주먹 속으로 들어간다.

담임 저, 준호 숙부님. 잠시 저랑 말씀 좀 나누시겠어요?

담임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오드리,
 가면서 잠시 준호를 돌아본다.

#37. 지구대 앞(밤)

지구대를 나와 주차장 쪽으로 가는 오드리와 준호.
 오드리, 화난 얼굴로 성큼성큼 앞서 걷는데 어딘가 과도하게 여성스러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그 뒤를 준호가 따라오며

준호 삼촌이 뭘데 합의를 해줘요?
 오드리 그럼 감옥 갈래? (여자 목소리다)

#38. 오드리 자동차 안(밤)

운전석에 앉은 나비. 오드리와 준호가 씩씩대며 오는 것 보이고.

#39. 지구대 주차장(밤)

오드리와 준호, 오드리 차 쪽으로 가며

준호 (앞선 오드리 등에 대고) 그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요? 내가 안 때렸더니 왜 맘대로 인정을 해요?!

오드리 (확 뒤돌아) 애! 너 자해공갈 치고 다니니?

#40. 오드리 자동차 안(밤)

이들 보며, 한숨과 함께 팔짱 끼는 나비.

#41. 지구대 주차장(밤)

준호 ...돈 필요해서 그랬어요! 물 먹는 것도 흠치는 거 같고, 오줌 싸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남의 집 한 구멍이 차지하는 민폐라고요. 딱 오백만 모아서 아빠랑 살려고 했는데...

오드리 그래서 쪼끄만 놈의 시키가 시비 걸고 돈 뜯었어? 몇 번씩이나?

준호 뭐라도 해야지 그럼 평생 빌붙어 살아요? 내가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기분을 알기나 해요? 내 편 아무도 없고 비빌 데도 없는 게 얼마나 똥 같은지!

오드리 (가발을 헝 벗으며) 내가 왜 몰라! (산발 된 머리가 흘러내린다)

준호 ...

그때, 클랙슨 소리와 함께

나비 (차창 밖으로 머리 내밀고) 아우, 자기들 싸울 거면 집에 가서 싸워. 언제까지 기다려?

#42. 오드리 자동차 안(밤)

조수석에 오드리가, 뒷좌석에 준호가 올라탄다.

오드리 (가슴에서 압박붕대 주욱 뽑으며) 아오 답답해. (가슴 더듬으며)
내 물방울 괜찮나? 터진 건 아니겠지?
나비 (출발한다) 말해 뭐해 까딱없지. 놀러서 비벼도 돼. (깔깔 웃는)
오드리 (긴 머리 털며) 기지배야 니가 민증 까야 된대서 괜히 쟁쌌잖아.
준호 …진즉에 동네에서나 그러고 다니시지. 다들 수군거릴 때는 눈
깜짝도 안 하더니 갑자기 왜.
나비 (O.L)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준호, 입을 꼭 다문다.

나비, 음악 재생버튼 누르면

#43. 도로(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오드리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다.

#44. 아파트 단지 공원(밤)

벤치에 앉은 준호와 택시도 차림의 오드리.

오드리 아침에 왜 말도 없이 나갔니?
준호 …익숙한 전개라서요. 뭐 없어질 때 됐지.
뒷부분은 안 봐도 알아요.
오드리 그 귀걸이 내가 갖다 버렸어. 엑스가 준 거거든. 약혼자.

#45. 12년 전 오드리의 회상. 법원 앞(낮)

단정한 원피스에 다이아 귀걸이를 찬 오드리(27세), 법원
앞에서 통화 중이다. 옆에 흰철한 기홍(30세)도 있고.

오드리 (전화에, 매우 간절한) 형, 나한테 맨날 미친놈이랬잖아. 얼마나
미친놈이었는데 한 장만 써달라니까?
성일(F) 그거 써주면.
오드리 자꾸 안 되잖아… 어려서부터 여자 같았다는 진술이 필요하다는데,
형밖에 없어. 형이 진술서 써줘라… 주민번호가 몇 번째 안 바뀌어.
계속 1로 시작해.
성일(F) (한숨) 그걸 바꾸면 어떻게 살려고… 미친놈.
오드리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까!?

핸드폰 떨구고 흐느끼는 오드리를 기홍이 함께 슬퍼하며
끌어안는다.

#46. 아파트 단지 공원(밤)

오드리 일 년도 안 돼서 떠나더라고, 결혼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랑.
준호 …죄송해요.
오드리 니가 왜? 너처럼 귀뿔도 없을수록 함부로 사과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없으면 도망가지도 말고.
준호 …약혼자한테 까여서 슬펐어요?
오드리 많이.

#47. 오드리 라이브(낮)

영업 전. 유홍조명 없이 밝은.
홀 가운데 오드리, 나비, 장미, 종업원1(남), 종업원2(남)가
모였다. 준호, 좀 떨어진 바 의자에 앉아 이들을 바라본다.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메뉴판 펼쳐 가격 보고는 허걱 놀라기도.

오드리, 5만 원 다발을 손에 들고 네 장씩 찹찹 빼서 차례차례
나눠주며,

오드리 (장미에게) 엄마 수술비 다 댔다며. 쪼들리면 다시 집에 들어와.
 장미 (돈 받으며 고개 예쁘게 까딱) 아닌데 결혼할 건데~
 오드리 (종업원1·2에게 주며) 테이블 빠지면 뒷손님 없어도 빨리빨리 치워. (나비에게 주며) 넌 요가학원 차려줬더니 팔아먹었니? 맨날 출근이야.
 나비 말해 뭐해. 내 팬들이 찾는데 어떻게 안 와. (안 받고 밀어내면)
 오드리 (다시 장미에게 내밀며) 어제 공연팁은 이거고, (장미, 받고 '앗싸') (준호 돌아보며) 재는 주방머슴이니까 흠에 못 나오게 해. (종업원1에게) 게이 아니니까 관심 끄고. (준호 돌아보며, 문득) 아, 맞나?
 준호 (눈만 꿈뻑)
 종업원1 (얼굴에 손 빙빙대며) 나 저렇게 조류 같은 스타일 딱 싫어하거든요?
 준호 (어이없으면서도, 괜히 자기 얼굴 만져 생김새 확인한다)

#48. 오드리 라이브/주방(밤)

홀에서 나비가 부르는 걸그룹 노래 흘러들어오는데.
 앞치마에 고무장갑을 낀 준호. 싱크대를 바라보며 빙뚫다.
 싱크대에 한가득, 조리대에도 한가득, 바닥의 바구니에도 한가득 산처럼 쌓인 컵, 접시, 그릇, 쟁반 등등. 그 위에

오드리(E) 우리 가게에서 두 시간씩만 설거지해. 월급 줄게. 대신 홀에 나오면 안 돼. 그쪽으로 숨만 쉬어도 아웃. 연락 없이 핑크내면 아예 오드리하우스에서 아웃.
 준호 두 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드리 (주방에서 홀 쪽으로 통하는 치렁치렁한 발 가르고 고개 숙) 야, 그거 글라스 한 개에 팔만 원짜리다. 깨면 월급에서 까. (사라지는)
 한숨 푹 쉬는 준호.

#49. 몽타주

- ○○고등학교(수원) 교문. 이전과 다른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준호.
 - 오드리 라이브 주방에서 정신없이 설거지하는 준호. 시선은 싱크대 위 수납장에 붙인 영어단어 메모에 고정된.
 - 오드리 라이브 조리대에서 사과 깎는 준호. 과일안주 접시에 내려놓으면 사과모양 개판이고. 오드리, 접시 들고 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준호, 기분 나쁜 티 내며 칼 탁 내려놓는.
 - ○○고등학교(수원) 운동장. 친구들과 축구하는 준호. 준호, 골 넣으면 친구들 달려와 준호 머리 비비고 난리다.
 - 오드리 라이브 조리대에서 사과 깎는 준호. 과일안주 접시에 내려놓으면 기막힌 토끼 모양이고. 오드리, 애써 세팅한 토끼 쪽 집어 먹으면. 준호, 도끼눈으로 오드리 썰어보고.

#50. 오드리하우스/세탁실(낮)

준호, 세탁기 앞에 앉아 바구니의 세탁물을 넣으려는데 온통 요사스러운 속옷이 한가득이다.
 끔찍한 것을 잡듯 손끝으로 들어보는 준호,
 진저리치며 세탁기에 던져 넣는.

통장(E, 중년남) 요즘 우리 단지에서 자율방범대 모집하거든요.

준호, 무슨 일인가 싶어 문 쪽으로 목을 뺀다.

#51. 오드리하우스/거실(낮)

현관에 선 통장과 거실 안쪽의 오드리.

오드리 죄송해요. 저희는 밤에 시간이 어려워요.

통장 (묘하게 훑어보고, 점잖은) '아가씨'라서 방범대가 좀 그렇긴

하겠네요.

오드리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로 끝내려는데)

통장 근데, 여기 1200세대에 애들 청소년도 있고 여자들도 많은 거 아시죠? 주거구역이에요.

오드리 (대충 끄덕) 아아~

짧은 바지 입은 나비, 손부채질하며
현관 앞 가로질러 소파로 가는데
현관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통장 (나비 마뜩잖게 보고, 그러나 쨌튼한) 불안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개인적인 취향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단지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드리 (대충) 예 알겠습니다~ (배웅하는 손짓)

통장 (안 가고) 그렇게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고.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음란하게 다니시고 그러면 애들도 있는데.

준호(E) (O.L) 듣자듣자 하니까.

오드리, 돌아보면 준호가 성큼성큼 오고 있다.
소파에 파묻혀 앉았던 나비도 이제 궁금해서 현관 쪽을 쳐다보고.

준호 아저씨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오드리에게) 왜 가만히 있어요.

오드리 (귀찮은. 준호에게 그냥 가라는 손짓 하는데)

준호 음란? 아저씨,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막말해도 돼요?

통장 (훑어보고) 어린놈이... 너도 뻘냐? 니 부모한테 내가 다 죄송하다!

준호 (당황한) 뭐, 뭐...

오드리 (눈 세계 감았다 뜨면. 살벌하다) 야 이 %&^새끼야, 이 %^\$한 %^\$놈아. 뻘나 안 뻘나가 왜 궁금해. (준호 가리키며) 애가 너랑 잘 것도 아닌데 이 \$@#야.

준호 (더 당황한, 딸꾹)

오드리 (가슴 한껏 내밀고 벽으로 몰며) 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니 개인

취향은 \$@#@\$#나, 이 #%%\$%#야?

통장 (겁먹은) 상종을 말아야지 별 드러운... (하며 나가면)

나비 (여유 넘치는) 언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주름지게.

준호 와... 삼촌 찌시네요.

오드리 (준호 뒤통수 탁 때리며) 고모야 이새끼.

준호 (아프다) 아 그니까 관중이에요?! 생긴 대로 살지 왜 유난을 떨어서 쪽을 당해요!

나비 (핸드폰 보며) 생긴 대로 사는 거야~

할 말 없는 준호. 좀 민망한데.

오드리(E) (노래) 광막한 광야를...

#52. 오드리 라이브/주방(낮)

밖에서 오드리가 부르는 <사의 찬미>가 처량하다.

오드리(E)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텅 빈 싱크대. 그 옆 건조대에
설거지 끝난 그릇이 물을 푹푹 떨군다.
준호, 고무장갑 벗어놓고 앞치마도 벗으려 하는데
홀 쪽으로 통하는 발을 가르고 나비가 머리 내민다.

나비 애, 잠깐 나와봐.

준호 (의아한) 홀예요?

나비 (벌써 나갔다)

#53. 오드리 라이브 이곳저곳(밤)

준호, 바 옆쪽 주방에서 나와 보면
취한 오드리, 무대에서 드레스 입고

<사의 찬미>를 비틀대며 부르고,
그 앞 테이블에 다리 꼬고 앉은 장미, 오드리를 보며 감상한다.
노래하는 오드리의 구겨진 눈썹과 감은 눈. 애환이 가득한데.

나비, 바에 턱 괴고 앉아 오드리를 보다가
준호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한다.
바에 족발과 소주가 놓였고.

나비 (오드리 계속 보며) 먹어. 오늘 영업 안 해.
준호 (옆에 와서) 왜요?
나비 오드리 언니 기분이 안 좋거든.
준호 (족발 입에 넣으며) 뭐 일 있어요?
나비 무슨 일이 지금 있겠어? 말해 뭐해. 언니 살아온 거 말하자면 끝도
없지. (소주 한 모금 마시고) 가끔 저렇게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야,
별 이유도 없이. 무슨 노인네 얘기 같다, 맞지?

구슬프게 노래하던 오드리,
마이크 떨구면 MR만 쓸쓸히 흐른다.

나비 너도 오드리패밀리니까 누구 한 명 마음 아픈 날에는 같이 있어줘.
우린 그래. (턱 괴고 오드리 보는)

준호도 오드리 보면,
화려한 조명을 얼굴로 맞으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오드리다.
그러다가,

오드리 (마이크에 대고) 나비야. 너 신나는 춤 좀 춰봐라.
나비 나? 오케이 완전 난리나지. 거 앞에 딱 앉아 있어.

하며 홀을 가로질러 무대로 향하는 나비.
준호, 족발을 앞에 놓고 그들을 그저 보는데.

#54. 도시야경 (밤)

하늘에서 본 유흥가. 알록달록한 네온사인이 즐지어 빛난다.
신나는 음악이 서서히 높아진다.

#55. 오드리 라이브/무대 (밤)

#54의 노래에 맞춘 나비의 립싱크 공연.
풍부한 표정과 수준급 춤 솜씨,
립싱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고.
무대 아래서 같이 몸을 흔드는 오드리와 장미.
오드리에게 손목을 잡힌 준호도 어정쩡하게 끌려다니다가
에라 모르겠다 막춤을 춰댄다.
화려하게 치장한 오드리, 나비, 장미와 함께
무대에서 미친듯이 춤추는 준호.
준호도 멋진 슈트를 차려입었고.
숨을 헐떡대며 뒤집어지게 웃다가
다 같이 조명 아래 모여 준호가 지켜든 핸드폰을 보면
(E) 찰칵.

#56. 오드리하우스/준호 방(밤)

열은 미소를 지으며 꿀잠 자는 준호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바닥에 푹 떨어지고.

#57. 인력사무실(밤)

책상 위, 핸드폰 대여섯 개 담긴 바구니 사이에서
액정을 빛내는 핸드폰, 준호 문자다.
누군가의 손, 핸드폰 집어들어 문자 보면
#55의 화려한 셀카와 함께

준호(E) 삼촌 덕분에 나는 잘 지내요. 알바해서 보증금도 모으고. 고마우면
진술서 한 장 써주시죠? 동생이 필요하다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 사장 자리에 앉은 어깨1이다.
소파 쪽을 보며 씩 웃는 어깨1.

소파 테이블. 남루한 복장의 성일, 도박남1·2, 도박녀1·2이
침울하게 둘러앉아 민증을 일제히 들고 있다. 어깨2,
민증 걷으며

어깨2 일해서 얼른들 갔고 새 출발 하시면 되니까. 자자 힘내시고.

#58. 오드리 라이브/홀(낮)

영업 전. 조명이 밝다.
오드리, 아직 화장도 안 하고 트레이닝복 입은 채
테이블에서 장부 보고 있다.
문 벌럭 열리고, 뛰어 들어오는 준호.

오드리 아이씨, 아무리 그래도 교복을 입고 오면 어떡해?

준호 (주방으로 후다닥 가며) 저 진짜 오픈 전에 딱 한 시간 만에 다
끝내고 갈게요. 화장실도 안 가.

오드리 (주방에 대고) 바로 온 거지? 밥은!

준호(E) 집에 가세요.

그때 문 또 열리고, 어깨1·2 들어온다.

오드리 어머, 오픈은 일곱 십니당~

어깨1 거기가 오두일 사장님?

#59. 유흥가(낮)

한산한 대낮의 유흥가. 네온사인은 모두 꺼져 있고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맥없이 날아간다.

어깨1(E) 오성일 형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60. 오드리 라이브/주방(낮)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른 준호. 고무장갑을 빼들고
홀 쪽으로 통하는 발 앞에 서서 밖의 소리를 듣고 있다.

어깨1(E) 성일 형님 아들 오준호. 여기서 알바한다던데.

준호, 반감게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다가.

어깨1(E)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고용하면 영업허가 취소되는 거 아시죠.

듣고는 멈춘다. 심각해지는 준호.
입은 옷 보면 교복이고.
무슨 일인지 더 귀를 기울이는데.

#61. 오드리 라이브/테이블(낮)

팔짱 낀 오드리, 맞은편에 앉은 어깨1·2 차분히 보는.
막 들어선 나비. (무슨 일이지?) 하며 오드리 옆으로 가 선다.

어깨1 형님.

오드리 누구, 나?

어깨1 성일이 형님 동생분이면 당연히 형님으로 모셔야죠.
(테이블 아래로 보며) 아닌가 누님인가?

오드리 히!

나비 미개해 죽겠네.
 어깨2 (나비 한번 노력하고, 핸드폰 들이밀며) 여기 써 있죠? 청소년이 삼촌네서 알바한다고.
 어깨1 신고해서 포상금 받을까 하다가 이리로 온 건데, 오성일 형님이 남의 돈을 많이 썼어요. 가족끼리 좀 갚아주시죠, 형님.

어깨1이 말하는 동안, 내민 사진이 잘 안 보인다는 듯 가늘게 눈을 뜨고 보던 오드리. 가까이 쥐보라고 손짓하면.
 어깨2, 오드리 앞에 더 들이민다.
 오드리, 받아서 잘 보는 것 같더니,
 바닥에 꽉 집어던지는.
 어깨1·2, 험상궂어지고.
 오드리, 일어나서 발로 핸드폰을 쿵쿵 밟는데
 운동화로는 안 깨진다.

오드리 (나비한테) 해봐라.

나비, 어깨들을 무심히 보며 킬킬로 콧콧 뚫으면
 액정 부서져나가고,
 자리에서 스욱 일어나는 어깨1·2.

오드리 내가 느이 같은 애들한테 쫓겨 것 같으면 여까지 왔겠니?

어깨1·2, 장식품 집어 던지고 테이블 몇 개 엎고는

어깨1 거기는 가만있어도 꽤고 싶어. (다가가며) 애매한 새끼가 어딜 진상까지 부러이씨.

나비 (뒷걸음질치며 오드리도 살짝 잡아끄는데)
 오드리 (오히려 한발 나가서) 오드리바에서 그런 말 하면 혀 찰리는데. (뭉은 머리 꼭 풀러 흔들고) 넌 내 남성호르몬 시절에 만났으면 벌써 죽었어.
 어깨1 그럼 남자 대 남자로 붙어보든가. 볼수록 기분 나쁘게…

하며 어깨1, 오드리에게 살벌하게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끝에 목이 돌아가게 맞은 건, 어느새 끼어든 준호다.
 나비가 비명을 지르는 동시에,

오드리 준호야…!

준호, 오드리와 나비를 보호하듯 등 뒤에 놓고 어깨들과 대치하며

준호 아빠 돈을 왜 여기서 찾아요, 삼촌은 아무 상관도(없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어깨1.
 오드리와 나비, 비명을 지르고.

준호 (입가의 피 닦고) 내가 또 맞는 건 잘 하(거든요)…

또 주먹을 날린 어깨1.
 어깨1, 이번엔 준호를 발로 차려 하자
 오드리가 튀어나와 어깨1을 꼭 끌어안는다.
 못 움직이는 어깨1이고.

오드리 준호, 나비. 빨리 나가!
 어깨1 (풀려나려 애쓰며) 징그러운 새끼가…

어깨2, 오드리를 옆에서 마구 때리고
 이번엔 준호가 “나를 때리라고” 하며 어깨2를 끌어내 싸우는데.
 나비가 오드리를 도우려는 순간,
 어깨1이 오드리의 팔을 풀러 던지다시피 밀어버린다.

오드리, 봉 날아가
 바닥에 머리가 쿵 부딪혔다가 튀어올라 다시 쿵. 떨어지는 위에

준호(E) 삼초온!!!

#62. 수술실 앞(낮)

‘수술 중’ 표시에 불이 들어온 수술실 문에,
의료기구의 (E) 뽀뽀뽀 소리.

#63. 오드리 라이브(낮)

(E) 뽀뽀뽀 소리 이어지는데. 불 꺼진 오드리 라이브,
난투의 흔적으로 난장판이다.

오드리(E) 나는 우리 가게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사는 게 너무 좋아. (#31)

#64. 오드리 라이브 앞(낮)

계속되는 (E) 뽀뽀뽀 소리 위에. 노란색 영업정지 공고 붙은
오드리 라이브 출입문에서, 암전.

#65. 오드리하우스/안방(밤)

깜깜한 화면에서, 열린 문틈으로 좁게 빛이 들어오면
사람 없는 캐노피 침대에 레이스 커튼만 처렁처렁하고,
그 위에 걸린 오드리 헵번 사진이 내려다보는 곳,
문을 열고 선 준호다.
끼익 달히는 문을 따라 오드리 헵번 사진도 어둠에 잠긴다.

#66. 오드리하우스/준호 방(낮)

나비 준호야.

하며 들어서면, 방이 어쩐지 말끔하고.

나비 어디 갔어…?

전화를 걸며 방을 서성이다가.
책장에서 무언가 보고 전화기를 스텝 내린다.
오드리, 나비, 장미의 사진액자 옆에 세워진 봉투.
‘오드리 삼촌께’
나비가 집어보면, 이어 작게 적힌 글씨.

준호(E)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67. 병실(낮)

얼굴을 거의 가리다시피 머리 전체에 붕대를 두른 오드리.
침대에 누워 준호의 편지를 꺼내 펼치면
‘진술서’ 크게 적혔다. 그 아래 이어지는,

준호(E) 삼촌 오두일 씨가 여자라고 누구에게 진술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아니면 변호사님.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드리,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가린다.

#68. 수원역 앞(낮)

복적이든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가방을 멘 준호가 있다.
얼굴에 상처가 많고,
괜히 뒤를 한번 돌아보는 준호 위에,

준호(E) 삼촌이 여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리를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준호, 쓸쓸히 역으로 발길을 돌린다.

#69. 회상 인서트

- 선글라스를 착 벗고 카페를 둘러보는 오드리.
준호, 신기한 동물 보듯 오드리 훑어보는. (#12)

준호(E) 가녀리지도 않고요.

- 오드리, 핸드폰 바닥에 집어던지는. (#61)

준호(E) 깡패가 위협해도 겁먹지 않습니다.

- 오드리, 통장 몰아붙이며 쌍욕하는. (#51)

준호(E) 우리 삼촌은 대장부입니다.

- 지구대로 급히 뛰어 들어온 한 남자. 흰철한 키에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턱시도를 입은 오드리다. (#36)

준호(E) 그렇지만 삼촌이 남자처럼 나타났을 때, 저는 삼촌이 변장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오드리 (남자 목소리) 준호 삼촌입니다.

준호(E) 남장을 하고 연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70. 병실(낮)

진술서에 푹 떨어지는 눈물.
진술서를 잡고 있는 오드리의 손이 떨리는데.
침대에 앉아 진술서를 읽는 오드리.
그 옆엔 오드리의 어깨를 쓰다듬는 나비다.

준호(E) 우리 삼촌은 고모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고모는
여자라고 진술합니다.

애가 타는 오드리, 당장 일어나 나가려 하는데

나비 안 돼 언니, 내가 찾아올게. 내가 데려올게.

#71. 수원역/매포기계 앞(낮)

준호, 지갑을 열면. 만 원짜리 몇 장 들었다.

오드리(E) 올 때 당근 줌 사와. (#22) 우산이나 사. (#27)

전화가 온다. 꺼내보면, 액정에 빛나는 ‘오드리 삼촌’이고.
잠시 보다가, 핸드폰 주머니에 넣는 준호.
지폐를 꺼내 매포기계에 넣는다.

#72. 옥탑방 앞(낮, 밤)

평상에 가방을 끌어안고 앉은 준호.
마주한 옥탑방을 담담하게 보고 있다.

창문과 현관문을 모두 떼어내 뒹간 집. 외벽 밑에 스티로폼
화분들은 바삭 말라 죽어 있고. 목재와 장판 등도 기대 서
있는데. 그 모습에서 해가 지고.

밤. 여전히 같은 자리의 준호,
끌어안은 가방에 이마를 기대고 있는데.
나비, 험뻑이며 계단 올라온다. 준호 발견하고.

나비 야! 오준호!

준호, 고개 들면. 지친 기색으로 준호를 흘겨보며
다가오는 나비.

나비 (옥탑방 보고서는) 뭐야, 이 창고 믿고 가출했니?
 준호, 가방을 들고 일어나 계단을 향한다.

나비 어디 가!
 준호 저는 그냥… 갈게요.
 나비 어디를. 니가 갈 데가 어딤어.
 준호 그래도 갈게요. 삼촌한테 폐만(‘되고’가 울음에 묻히는데)…
 나비 (준호 돌려세우고) 멍청아 왜 가니? 우린 심플해. 한번 오드리 패밀리면 다 오케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방식이야.
 준호 (흐어어어영. 눈물콧물 쏟는다)

#73. 1인 병실(낮)

열린 문 안으로 보이는 병실.
 오드리 침대 옆에 나비, 장미가 서 있다.
 얼굴 여기저기에 거즈와 반창고 붙인 준호, 들어가지 못하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는데, 오드리와 눈이 마주친다.
 얼굴 전체를 가리다시피 붕대를 감은 오드리.
 준호, 눈물이 차오른다.
 오드리, 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오드리 들어와.

오드리 앞에 선 준호.

준호 얼마나 다친 거예요 고모…(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오드리, 말없이 양팔 벌리면.
 준호, 오드리에게 안긴다. 어깨를 들썩이는 준호를 오드리가 더 꼭 감싸 안는다.

장미 (눈물 찍으며) 어우. 나 감동이잖아.
 나비 내 말이… (눈가에 손부채질하며) 이게 상해로 다 돼?
 오드리 (안긴 준호 머리 쓰다듬으며) 당연히 보험으로 원상복구 돼야지. 이 얼굴에 들인 돈이 얼마데.
 장미 (거울 보며) 나도 웨딩사진 찍기 전에 확 어디 바닥에 갈아버릴까.
 나비 어디 봐봐. (장미 얼굴 뜯어보며) 언닌 여기, 여기 턱 쪽으로 갈면 되겠다.
 준호 (? 하며 고개 들면)
 오드리 입원한 김에 싹 리모델링했어. (쓱다) 원래는 뒤통수에 흑만 좀 낫는데, 너 누가 물어보면 앞으로 넘어졌다 해라. 앞쪽으로. 에이씨…

오드리, 나비, 장미 다 같이 준호 머리 장난스레 비비고.
 짜증내면서도 환히 웃는 준호 얼굴에서

끝.

겁나 세고 멋있고 사랑스러운, 즐겁고 재미난 일상을 살아가는 오드리를 그리고 싶었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로서 겪는 문제를 없는 척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하므로 트랜스젠더 역시 성격, 말투, 직업, 외모, 가족이나 사회와의 관계, 전환수술의 정도 등이 저마다 다르다. 내가 그런 인물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드라마의 갈등보다 나의 갈등이 더 스펙터클했다. 이 짧은 드라마에 세상 모든 트랜스젠더를 담을 수는 없지만, 오드리하우스의 사람들을 통해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막연한 편견이나 증오보다 위에 있음을 말하려던 마음만은 전해졌으면 좋겠다.

여러 번 새로 쓰다시피 수정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보는 사람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사이를 조율해보는 값진 시간이었다. 도움을 주신 오픈 동료분들, 관계자분들, 멘토작가님, 감독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의

묵묵히 듣고 있던 사람에서 물어보는 사람, 멈춰 있던 사람에서 움직이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서 기꺼이 믿어보는 사람,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에서 찾아 떠나는 사람, 그리하여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여정을 그린다.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이다.

등장인물

황금주(23세)

뚜렷한 경제관념으로 한 달 동안 받는 돈과 나가는 돈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지출한다. 칼 같은 계산 능력과 악착같은 절약이 습관 되어 매달 한 치의 오차 없는, 계획적인 생활 중이다. 5년 전, 금주의 엄마가 그녀를 혼자 두고 새아빠, 이복동생과 함께 야반도주했다. 돌아올 거라는 엄마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금주 혼자 남아 쌓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또랑또랑한 눈을 가지고 있다. 늘 돈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다 보니 로봇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말수가 적고 무표정하지만 가만히 보면 다정한 구석이 있어 사랑스럽다.

차현식(26세)

금주가 다니는 은행에서 계약직 청원경찰로 일한다. 오지랖이 넓고 친화력 좋은 청년. 매일같이 은행에 오는 금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우연히 7만 원 찾는 일을 돕게 된다.

이수환(20세)

금주의 이복동생. 철없고, 개념 없고, 부끄러움 없다. 빌붙기의 달인.

김 기사(20대 후반)

YES택시 소속 기사. 택시 일로는 부족하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 회사에서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는 범죄조직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신성진(30대 중반)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늘 계획을 세운다. 동생 성미와 함께 활동한다. 능글거리는 말과 행동으로 위압적인 태도와 분노를 숨긴다.

신성미(30대 초반)

빠른 두뇌회전과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역할. 오빠 성진과 달리 침착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한다.

그 외

매니저, 직원1·2, 형사1·2, 상근, 김 대리, 아주머니, 박 기사 등.

줄거리

금주는 오전 7시에 일어나 마트로 출근한다. 오후 6시 퇴근 후에는 목욕탕 청소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겸하고 있다. 목욕탕 청소를 끝내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접은 리본핀으로 단돈 만 원을 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 간 금주는 충격적인 사실과 맞닥뜨린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있는 것. 한 달 예산안대로 철저히 지켰을 때, 통장에는 정확히 7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통장 내역에는 어떤 이름도, 표시도 없이 누군가가 7만 원을 출금해 간 흔적만 남아 있다.

은행을 찾아가면 모를 일이라며 거절당하고, 경찰을 찾아가면 자꾸만 기다려달라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끔찍거리던 어느 날, 은행을 찾아갔다가 ‘그냥’ 7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는다. 그나마 7만 원은 작은 돈이라 다행이라는 위로와 함께. 순간 금주는 곳곳이 견뎌왔던 시간과 노력으로부터 거부당한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잘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결국 근무 중에 쓰러진다. 한여름에 왕복 3시간을 걸어서 출퇴근한 탓에 일사병에 걸린 것.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금주는 용납하지 않겠노라, 행방불명인 7만 원을 되찾겠노라 다짐한다. 금주는 병가를 내고 7만 원을 찾아 떠난다. 7만 원을 굳이, 꼭 함께 찾아야겠다는 청원경찰 현식과 함께.

처음에는 7만 원이 인출된 편의점 ATM을 찾아간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금주와 현식을 필요 이상으로 경계하는 점장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그 와중에 금주는 동생 수환이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자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간다. 그때 술에 취한 수환의 지갑에서 7만 원이 인출된 금주의 카드가 발견된다. 분노하는 금주. 수환은 다른 것 없이 택시를 탈 때 딱 한 번 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 금주는 며칠 전 술에 취한 수환을 데리러 갔던 날, 그를 부축하면서 보았던 택시 한 대가 떠오른다. 아무래도 그 택시기사가 의심스럽다.

두 사람은 택시가 소속된 ‘YES택시’에서 잠복한다. 고생 끝에 김 기사를 마주하게 되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미처 컨디션을 다 회복되지 못한 금주는 기절하고 눈앞에서 김 기사를 놓치고 마는데. 다음날, 다시 택시회사를 찾은 금주와 현식은 김 기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곧 김 기사의 친구, 박 기사로부터 그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증거들이 있다는 곳을 전해듣는데.

갑자기 사라진 김 기사와 금주와 현식을 쫓는 범죄 일당. 금주와 현식은 무사히 7만 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

#1. 대형 마트(오전)

오픈 전인 마트 안. 계산대에 서 있는 금주, 작업복 조끼 입고 명찰을 꽂으려는데 매니저가 금주 앞으로 다가온다.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

매니저 어제 금주 씨 퇴근하고 고객님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할인 상품이 잘못 계산됐다고.

금주 (아무 말 없이 보는) ...

매니저 (길게 뿔혀 나온 영수증 내미는) 85,250원 나와서 5만 원 두 장으로 결제하셨고, 14,750원 거슬러 받으셔야 하는데 4,750원밖에 못 받으셨대요.

금주 (영수증을 받아 확인한다) ...

매니저 상품 스캔 잘못하셨으니까 만 원 채워 넣으세요. 아님 급여에서 빼겠습니다.

금주 (영수증을 뚫어져라 보는) ...

매니저 (다른 직원들을 보며, 다 들으라는 듯) 종종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캐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달리 좋은 방법이 생각나신 분들은 말해주세요.

매니저, 돌아서는데. 금주, 무덤덤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금주 맞게 계산했어요.

매니저, 돌아서서 금주를 본다. 어딘가 심기가 불편한.

금주 (영수증을 내밀며) 삼푸 중에 '순수한'은 원가 15,400원인데 5시까지 특별 할인 행사로 만 원을 할인했잖아요. 근데 손님이 정확히 오후 5시 2분에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원가 그대로 15,400원에 계산했고, 거스름돈은 4,750원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영수증을 가로채듯 다시 확인해보는 매니저, 말문이 막힌다. 무어라 더 말하려다 캐셔와 직원들의 시선을 느끼고. 분한 얼굴을 하고 그만 돌아선다. 금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저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다. '황금주'라는 이름이 보인다.

#2. 급식소(오후)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차례로 밥과 반찬, 국을 받아 간다. 금주,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반찬으로는 단무지와 김치가 전부다. 줄을 선 사람들 금주를 보고 수군거린다.

직원1 저분은 왜 저렇게 드신대요?

매니저 몰랐어? 매일 저렇게 밥만 받아서 가.

직원1 왜요?

매니저 (기가 찬) 밥이랑 김치, 단무지는 공짜잖아. 식비 몇천 원 아껴서 급여에 넣어달라고 하더라.

매니저, 질린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금주, 킁킁이 단무지와 김치로 밥을 먹는다.

#3. 재고 창고(오후)

상자들로 복잡한 창고 구석.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금주, 커다란 상자를 의자 삼아 혼자 앉아 있다. 무릎 위에 색깔 끈이 가득 담긴 검은 봉지를 올려놓았다. 색깔 끈을 능숙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접어 리본으로 만든다.
무표정한 금주의 얼굴 클로즈업.

#4. 은행(오후)

뽐비는 은행 안. 금주가 들어온다. 청원경찰의 인사를 들으며
번호표를 뽑는다. 160번이다. 한참을 기다리는 금주.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번호판에 '160번'이 뜬다.

#5. 은행 창구(오후)

40대 초반의 직원1과 금주, 마주 앉아 있다.
직원1, 금주를 아는 듯 친근하게.

직원1 (통장을 내밀며) 오늘 주신 돈은 다 입금되었구요.
(계산기를 두드린 후) 상환까지 4320만 원 남으셨습니다.
이대로만 꾸준히 갚아가시면 앞으로 4년 2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금주, 일어서서 꾸벅, 인사를 하고 간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2, 슬쩍 다가와 직원1에게 말을 건다.

직원2 (속닥이는)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네요.

직원1 (보며) 열아홉 살 때부터 왔어.

직원2 (놀라) 열아홉 살이요?

직원1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채워 넣어.

직원2 (안타까운) 보면 지금 제 동생이랑 또랜데... (호기심) 근데 뭐
때문이래요?

직원1 뭐가?

직원2 뭐 때문에 열아홉 살부터 지금까지 빚을 갚아요?

직원1 (주위를 살피며) 나도 그냥 동네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속닥속닥) 원래는 엄마랑 둘이 살다가 재혼을 해서 꽤 잘사는
집에 살았는데, 집이 망하면서 빚이 꽤 쌓였나 봐. 그래서 저 혼자

두고 친모랑 새아빠, 이복동생 이렇게 셋이서 야반도주했다지
뭐야.

직원2 (놀라며) 친엄마도?

직원1 (끄덕) 들어보면 도망간 거 아니고 지방에 돈 벌러 갔다는데,
어딴지도 모르고 혼자 갚고 있는 거 보면 야반도주지 뭐야.

직원2 (놀라며) 아니 그럼 그 빚을 재 혼자 다 갚아요?

#6. 은행 앞(오후)

직원2(E) (더 놀라) 아니 이걸 그냥 버리고 간 거잖아요.

직원1(E) 진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금주, 은행 앞에 서서 '가계부'라고 적힌 수첩을 넘겨보고 있다.
빹빹한 내역. '수입'이라고 적힌 돈이 대부분이고, '지출'은 거의
없다. 금주, 펼쳐 있는 펜으로 방금 입금한 돈을 적고 남은 돈
4320만 원을 기입한다.

타이틀. "금주의 가계부"

#7. 목욕탕(밤)

한적한 목욕탕 안. 조용하다. 금주가 눈을 감고 탕에 안에 앉아
쉬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8. 목욕탕 안(밤)

텅 빈 목욕탕. 청소를 시작하는 금주. 물이 다 빠진 탕 안을
밀대로 밀고 비누칠한 후, 물질로 헹궈낸다. 성실하게 목욕탕
곳곳을 청소하는 금주. 이마에 땀이 맺힌다.

#9. 목욕탕 마루(밤)

나무색 마루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금주. 무작위로 쌓인 찜질복들을 각에 맞춰 개고 있다. 능숙한 손놀림. 벽에 걸린 시계의 바늘이 11시를 넘어가고 있다.

#10. 목욕탕 카운터(자정)

금주, 이마를 닦으며 문을 밀고 나온다. 앞머리를 노란 고무줄로 고정한 주인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다. 아주머니, 금주를 발견하고.

아주머니 (부르는) 금주!

금주,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보고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아주머니 다 끝난 거야?
금주 (고개 끄덕) 네.

금주, 다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아주머니, 다시 금주를 부른다.

아주머니 잠시만!

금주 (돌아보는) ?

아주머니 (와보라고 손짓하는) 내일 월급날이지?

금주 (고개를 끄덕이는) 네.

아주머니 (주변을 살피다) 시급 조금 올렸어. 돈 더 들어와도 놀라지 말라고.

금주 (어리둥절한) 네?

아주머니 (속삭이듯)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응? 그 있잖아. 매점 아줌마나, 세신해주는...

금주 (정말 모르겠다는 듯) 시간을 더 늘리는 건가요?

아주머니 (웃는) 일은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주, 아주머니를 가만히 바라본다. 주머니를 뒤져서 열쇠를 내어주는 작은 바구니에 무언가를 올려놓는다. 꾸벅 인사한 후 재빨리 사라진다. 아주머니, 가는 금주의 뒷모습을 보다가 바구니를 내려다본다. 이게 뭔가 싶어 집어보면 금주가 부업으로 만들던 리본핀이 있다. 묶고 있던 노란 고무줄을 만져보는 아주머니.

#11. 금주의 동네/부업 업체(새벽)

부업 업체 앞, 불투명한 유리문이 닫혀 있다. 금주, 전당포처럼 작게 난 미닫이문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면 금주, 사이로 검은 봉지를 밀어넣는다. 업주, 문 너머에서 빠른 속도로 핀들을 확인한다. 곧 문 사이로 만 원 한 장을 건네주는. 잘 접어 주머니에 넣는 금주, '가계부' 수첩을 꺼낸다. 꽂혀 있는 펜을 뽑아 '+10,000원'이라 적는다.

#12. 반지하방(새벽)

좁고 어두운 반지하방. 금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조금 지친 기색. 벽을 더듬어 불을 켜다. 어질러진 방 안, 누군가 들어갔다가 나간 흔적이다. 시리얼 봉지가 눅눅해지도록 열려 있고, 서랍과 이불들이 어질러져 있다. 놀란 금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린다. 액정에 '수환' 뜬다. 짐작이 되는 듯, 점차 덤덤해지는 표정.

금주 (받으며) 여보세요?

택시기사(E) 누나 되는 분이시죠?

#13. 골목길(새벽)

금주의 집 앞, 골목길. 택시 한 대가 세워져 있다. 택시 안에 축 늘어져 있는 수환. 금주, 택시기사와 함께 수환을 부축하듯

어깨동무를 하여 일으킨다. 수환의 무게가 버거운 금주,
힘겹게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택시기사 (불러 세우는) 저기!
금주 (돌아보는)
택시기사 택시비는 주고 가야죠.
금주 (수환을 깨우려) 너 돈 냈어?
택시기사 안 냈다니까. 저 지정인데 어떻게 돈을 내요.
금주 (짹짹한, 사이) 얼마데요?
택시기사 (리더기를 가리키며) 만 원.

리더기에 만 원이 찍혀 있다. 금주, 가만히 보다가 주머니에서
만 원을 꺼내 건넨다. 택시기사, 뺏어가듯 챙겨 가져버린다.
허탈한 금주, 가는 택시의 번호판을 찍어두는.

#14. 반지하방(새벽)

작은 스탠드로 불이 밝혀진 금주의 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구석에서 수환이 자고 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심야방송과 수환의 코골이 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심야라디오에서는 ‘날이 갈수록 카드복제 수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금주, 작은 상에
앉아 가계부를 보고 있다. 수첩에 ‘수입 10,000원(부업 완성)’과
‘지출 -10,000원(택시비)’을 적는다. 바로 옆 장에는 내일의
지출과 수입 예정인 돈이 기록되어 있으며 ‘공과금, 부업 완성,
월급날’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마지막으로 ‘D-1530, 남은
돈=7만 원’을 작게 쓰고 수첩을 덮는다. 대자로 벌러덩 눕는
금주. 가만히 천장을 본다. 열대야로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냉장고에서 물을 얼린 페트병을 꺼내서 품에 안는다.
지쳐 보이는 금주, 눈을 감는다.

#15. 과거(5년 전). 가정집(밤)

깜깜한 밤. 집 안 곳곳, 가전제품과 가구들에 빨간 딱지들이
붙어 있다. 거실에는 온갖 살림들이 흩어져 있고 큰 가방과
캐리어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잠에서 막 깬 금주가 방에서
나와 집 안을 살피본다.

#16. 과거(5년 전). 가정집 현관(밤)

집을 짊어진 금주 모와 금주 부와 수환, 재빨리 현관으로
나가려다가 방에서 나온 금주와 마주친다.
들킨 사람처럼 놀라는 세 사람. 금주, 세 사람을 뺑뺑 본다.

금주 모 (당황하지 않고) 어, 금주 일어났구나? 시끄러웠지?
금주 (사이) 어디 가세요?
금주 부 잠시 지방에 다녀오려고. 매일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수환 (뿔가 어색한) 그래. 나도 따라가서 일도 배우고, 돕고 하려고.

금주 모는 아무 말 없고. 금주 부와 수환, 문을 열고 나간다.
가지 않고 남아 있던 금주 모, 금주에게 와서.

금주 모 (울 것 같은)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꼭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응?
금주 (사이) 언제 오는데?
금주 모 금방. 정말 금방 올 거야. 혼자 괜찮지?

금주, 어지러운 거실과 캐리어 가방, 금주 모와 금주 부,
동생의 불안한 눈과 어색한 입을 차례대로 살핀다.
어딘가 슬픈 금주의 표정.

금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괜찮아요.
금주 모 (안심시키려는 듯) 그래. 다녀올게.

금주 (애절한) 엄마, 엄마는 꼭 와야 해.

금주 모, 가면서 뒤돌아본다. 고개를 끄덕이고. 끝까지 금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금주, 뭐라 더 말하려는데 문이 세계 닫힌다. 혼자 남은 금주, 덩그러니 서 있다.

#17. 반지하방(오전)

벌떡 몸을 일으키는 금주. 잠에서 깬다. 식은땀이 흐른다. 주변을 살펴보면 팔자 좋게 자고 있는 수환이 보인다. 금주, 다가가서 수환을 깨운다. 반응 없는 수환.

금주 (깨우는) 일어나봐. 어? 무슨 일 있는 거지. (흔들어보지만 반응이 없고) 어제 택시비 안 낸 거 맞아? 낸 거면 찾아가서 받아오게.

귀찮은 듯, 몸부림치는 수환. 그때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금주 누구세요?

밖은 대답이 없다. 현관으로 가는 금주 안전장치를 걸고 문을 조금 연다.

#18. 반지하방 앞(오전)

조금 열린 문 사이로 금주가 밖을 내다보면 사채업자 상근이 문에 기대서 있다.

상근 이진성이 계신가?

금주 누구시죠?

상근 (좁게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을 살펴보며) 진성이 딸래미 되는 분?

금주 (경계하는) 무슨 일이시죠?

상근 (명함을 꺼내며)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데, 그죠? 꿈무니 빠져라 도망치는 거 말고.

금주 (명함을 받은 후, 보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수환(E) (뿔도 모르고) 누구 왔어? 아빠야?

방 안에 수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상근, 소리를 들은 눈치다.

상근 (문을 더 열어보려고 하는) 이러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를...

금주 (말을 끊으며, 문을 닫으려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금주, 상근을 밀어내고 재빨리 문을 닫아버린다.

#19. 반지하방(오전)

현관문을 닫은 금주.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온다.

수환, 여전히 눈치 없이 크게 말하려 하면

금주, '쉿!' 하는 자세로 수환 앞에 앉는다.

금주 (작게) 아빠 어땠어.

수환 (작게) 방금 아빠 아냐?

금주 (답답) 아빠 어땠냐고.

수환 (급적이는) 나도 몰라.

금주 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수환 (억울하다는 듯) 진짜 모르는 걸 어떡해.

금주, 머리가 아픈 듯 눈을 감으며 받은 명함을 꺼내놓는다.

금주 이제 사채야?

수환 (놀라 입을 틀어막으며) 뭐야.

금주 사채 썼냐고.

수환 (소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금주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이거 때문이지.
수환 (괜히 말을 돌리는) 4년 만인가? 누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다.

금주 지금 사채 때문에 쫓기는 거잖아.
수환 (벌러덩 누워버리는) 아빠가 좀 잠잠해지면 누나 집에서 만나자고 했어.

금주 돈 벌러 간다며.
수환 돈 벌려고 했지. 근데 하루에 고작 몇 시간씩 일한다고 돈이 금방 벌려? 근데 마침 아빠 아는 사람 중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업은 또 그냥 하나? 자본이 필요하지. 그래서…

금주 (말을 끊는 듯 한숨, 머리 아프다)
수환 (뭘 모른다는 듯) 누나가 뭘 몰라서 그렇지, 초반엔 진짜 괜찮았다? 돈도 벌리고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그랬어.

금주 일만데.
수환 (사이, 빙빙 돌려 말하는) 사실 처음치고는 얼마 되지도 않아. 원래 사업이라는 게 한 방에 성공할 수 없잖아. 주변에서 이 정도면 잃은 것도 아니…

금주 (말 끊는, 단호) 얼마냐고.
수환 …천만 원 정도?
금주 (귀를 의심하는) 뭐?
수환 딱 천만 원은 아니고 좀 더 되긴 한데…
금주 (도저히 믿기 힘든) 아니, 어떻게 그래.
수환 (너스레) 일단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망연한 금주. 한참 망설이다가 수환에게 묻는다.

금주 (사이) 엄마는.
수환 (지겨운 듯, 흘려 답하는) 말했잖아.
금주 지나가면서 들은 것도 없어? 아빠도 모른대?
수환 (마냥 귀찮다) 몇 번을 말해. 연락 안 된 지 오래라고.

#20. ○○대교(오전)

햇빛 강한 여름 아침. 차가 빠르게 지나다니는 대교 옆으로 좁게 난 인도 사이. 금주가 빠르게 걸어간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다.

#21. 마트 탈의실(오후)

금주, 캐비닛을 열어 가방을 뒤진다. 공과금 용지를 꺼낸다. 용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을 챙겨 넣는다.

#22. 미소은행 창구(오후)

금주와 마주 앉은 직원2.

직원2 (통장을 건네는) 공과금은 다 처리해드렸고요, 말씀해주신 통장 정리도 같이 해드렸어요.

통장을 건네받는 금주. 아무렇지 않게 통장을 확인하는데. 순간 충격받은 표정이다. 직원2, 무슨 문제가 있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 소란스러운 은행의 소음이 금주에게서 멀어진다. 통장을 보면 '-70,000원'과 함께 잔액 '0원'이 찍혀 있다. 이외에 어떤 표시도 남아 있지 않다. 멍해진 금주,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

#23. 미소은행(오전)

은행 창구의 뒤편, 금주와 김 대리가 마주 보고 앉아 있다. 김 대리, 금주의 통장을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 대리 (보며) 출금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지, 그 이상을 저희 쪽에서 알 순 없습니다.

금주 (초조)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나요?

김 대리 보통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돈을

출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또 비밀번호가 유출 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야 하고, 카드를 지인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도 증명이 되어야 하구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니 조사 기간도 길어질 겁니다.

금주 (억울) 저는 분명 출금한 적이 없거든요.
김 대리 사실 저희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금주. 통장을 내려다보다. '잔액 0원'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24. △△지방경찰청(밤)

한산한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앞. 형사1과 금주가 마주 앉아 있다. 형사1, 금주의 통장을 보고 있다.

형사1 은행이 문제가 많네요.
보안 문제도 허술하고 책임지려는 제스처도 없고.
금주 출금 사실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형사1 사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긴 해요.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출금 됐는데 누가 빼갔는지 알 수 없는 거. 근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금주 (놀라) 알 수 없다고요?
형사1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알 수 있는 건 출금해 간 ATM기 위치 추적 정도.
금주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1 범인 잡는 건 둘째 치고 돈 받을 생각까지 하면 몇 년은 기다리셔야 해요.
금주 (말이 안 되는) 몇 년이요?
형사1 (달래듯) 못 찾을 가능성이 크죠. 가능한 한 계속 수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힐끔 눈치를 보다) 그래도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맘 편하죠.

굳은 금주의 표정. 뭐라 더 말하려는데 형사1, 자리에서 일어난다.

형사1 (위로해주듯) 그래도 황금주 씨는 덜한 편이에요. 고작 7만 원이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몇백, 몇천씩 나가고 그래요.

가는 형사1. 금주, 멍하니 앉아 있다.
통장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간다.

#25. 목욕탕 마루(오후)

찜질복들을 개키고 있는 금주.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은행에서 온 문자.

'어제 얘기하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 문자 드립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방문해주시면... - 미소은행 김수현 대리'
금주, 문자를 확인하고 그래도 뭔가를 알 수 있진 않을까, 표정이 한결 나아진다.

#26. 미소은행(오전)

업무가 시작되기 전, 한적한 은행. 금주와 김 대리가 마주 앉아 있다.

김 대리 잘 생각해봤을 때, 물론 저희 쪽에서도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고객님께서 입은 피해와 무관하지 않고, 고객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셨을 테니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금주 (조금 어리둥절한) 아, 네.
김 대리 (미소 짓고 있지만 위압적인)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뒤에서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에 올린다) 손해 입으신 금액이예요.
금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김 대리 책임감을 느낀 만큼, 저희 쪽에서 보상해드리는 게 옳은 거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세요.

김 대리, 봉투를 숙 내민다. 금주,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다 가져다 열어보는. 꺼내어 세어보면 만 원 여섯 장이 있다. 지켜보던 김 대리, 아차, 하더니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내어 만 원 한 장을 더 꺼낸다. 그리고 금주의 손에 쥐여준다.

김 대리 (괜히 멋쩍어) 7만 원이라고 하셨죠?
(능청스럽게) 여섯 장에서 이거 한 장까지 하면 일곱 장이네요.

금주, 6만 원이 든 봉투와 김 대리가 쥐여준 만 원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어딘가 굳은 표정. 가만히 봉투와 돈을 내려놓는다.

금주 (차분한 목소리) 이건 대리님이 주시는 돈인가요?
김 대리 (뿌듯하게) 그냥 드린다고보다 본사와 직영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자, 고객님의 담당자인 제가 대표해서...
금주 (말을 끊는) 그러니까 이걸 제 돈이 아니라 대리님이 그냥 주시는 돈이라는 거죠?
김 대리 (이해시키려는) 도의적 책임인 거죠. 인간적으로 외면해선 안 되는 일에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저희 미소은행의 모토거든요.
(미소)
금주 (김 대리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제 돈이 아닌 거잖아요.
김 대리 물론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7만 원이 고객님의 앞에 있다는 거니까.

금주, 봉투로 손을 뻗는다. 김 대리,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내심 안심하며.

김 대리 (부탁하듯 웃으며) 그럼 잘 해결되었다고 서에 한번 연락해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저희 지점에 작은 소란이 있었거든요.

금주, 김 대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봉투를 김 대리 쪽으로 밀어낸다. 당황하는 김 대리. 금주, 자리에서 일어난다.

김 대리 (따라 엉거주춤 일어나며) 이거 챙겨 가져야죠.

금주,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을 밀고 나온다. 당황한 김 대리, 금주를 따라 나간다.

#27. 미소은행(오전)

금주, 복도와 로비를 거쳐 빠르게 밖으로 나간다. 뭔가를 다짐한 듯, 오히려 냉정해진 표정이다. 단단해 보이는 얼굴과 걸음걸이.

#28. 마트(오전)

길게 줄을 선 손님들. 금주, 평소처럼 계산을 하고 있는데 문득.

수환(E) 돈 벌려고 했지. 근데 하루 고작 몇 시간 일한다고 돈이 금방 벌려?
금주(E) 왜.
형사(E) 그래도 황금주 씨는 덜한 편이네요. 고작 7만 원이면.
금주(E) 왜.
김 대리(E) 잘 해결되었다고 서에 한번 연락해주시겠어요?
금주(E) 왜.

금주의 손이 점점 더 빨라진다. 머릿속에 계속 '왜'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계속 빨라지고, 순간, '빠-' 하는 소리와 함께 과부하가 일어난 듯 쓰러지는 금주. 사람들이 몰려오고, 멀리서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29. 병원(밤)

침대에서 눈을 뜬 금주. 하얀 천장이 보이고, 머리 위에

얼음주머니가 올려져 있다.

의사 (차트를 보며) 일어나셨어요?

금주 (몸을 일으키는) …

의사 일사병입니다. 영양실조 조금 있고요. 들어보니까 매일 두 시간씩 걸어서 출퇴근하신다던데 요즘 날씨에 그러시면 큰일나요. 삼시세끼 무조건 잘 챙겨 드셔야 하고, 체력적으로 무리 가는 일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주 (듣고 있다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의사 (잘못 들었나 싶은) 네?

금주 이제 가봐도 될까요?

의사 (얼떨떨한) 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원무과에서 처방전 받아주세요.

금주, 의사에게 꾸벅 인사하고 가는. 뭔가 걱정되는 표정이다.

#30. 병원 원무과(밤)

창구가 나누어진 원무과, 가로로 길게 직원들이 앉아 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금주, 초조하다. 고민하다 휴대폰을 꺼내 수환에게 전화 걸어보지만 받지 않아 전화를 끊는다. 불안하다. 세 번째 창구에 앉아 있던 원무과 직원이 금주를 부르고.

원무과 직원 514번님.

금주, 원무과 직원 앞으로 가서 앉는다.

원무과 직원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금주 (망설이며) 저, 수납하러 왔는데요.

원무과 직원 네. 성함이?

금주 황금주요.

원무과 직원 잠시만요.

금주 (망설이다)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혹시…

원무과 직원 이미 수납하셨네요.

금주 네?

원무과 직원 한 시간 전에 보호자님께서 수납하셨어요. (처방전을 건네는) 가시는 길에 약국 들러서 처방 받고 가시면 돼요. (땡땡- 소리와 함께 다음 번호를 부르는) 518번님.

금주, 돌아선다. 얼떨떨한 표정.

#31. 병원 앞(밤)

금주, 터덜터덜 병원을 나가려는데, 누군가 2L짜리 페트병 이온음료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온다. 청원경찰 현식이다. 금주를 발견한 현식.

현식 어? 벌써 일어나도 괜찮아요?

금주 (멈춰 서서 가만히 현식을 보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다)

현식 쓰러졌잖아요. 일사병으로.

금주 누구…

금주, 가만히 현식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빠진다. 많이 들어본 목소리다.

#32 회상. 은행(오후)

늘 아래를 향한 금주의 시선. 은행에 들어서면 ‘안녕하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슬쩍 돌아보는 금주의 시선. 얼굴은 보지 않고 (현식이 입고 있던) 청원경찰 제복을 본다.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선다.

#33. 병원 앞(밤)

금주 (현식이 청원경찰임을 깨닫고) 아!
현식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래요.
금주 (가만히 보다) 혹시 보호자가…
현식 (머쓱해하며) 아, 정산 관련해서 잠시 마트에 심부름을 갔는데
금주 씨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급한 대로 제가…
금주 (불쑥,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현식 (쑥스러워하며 괜히) 아니에요.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제가
보기보다 힘이…
금주 (면목이 없는) 병원비를 바로 갚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식 (손사래 치며) 천천히 주세요. 주실 수 있을 때, 그때 주시면 되죠.
금주 (다급) 며칠 안 걸릴 거예요.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은행에
찾아갈게요. 못 미더우시면 마트로 찾아오셔도 돼요.
현식 (페트병을 주며) 정말 괜찮아요.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땀을 들이다) 그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금주, 페트병을 받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34. 반지하방(밤)

라디오를 들으며 가게부를 적고 있는 금주. '병원비 41,000원'을
기록한다. 이어 가방을 쏘다. 가게부를 넣고, 작은 돼지저금통,
물통 등을 차곡차곡 챙긴다. 다부진 표정.

#35. A역 2번 출구 앞(오전)

복적이는 지하철 역 앞. 현식,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데
멀리 금주가 보인다. 금주,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들
다가가서 받는다. 그녀를 잠시 지켜보는 현식.

#36. 회상. 미소은행(오전)

금주, 김 대리가 준 7만 원을 거절하고 일어난 상황이다. 금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김 대리, 급하게 7만 원을 챙겨 따라나선다.

김 대리 (되려 받아달라는 듯 다급하게) 이거 안 들고 가세요?
금주 (가는, 냉정한 표정) …
김 대리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그냥 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금주 (차분한) 그냥은 필요 없어요.
김 대리 (당장 필요하시잖아요. 이걸로…
금주 (잠시 멈춰 서서) 왜 7만 원이 사라졌는지, 관심 없으시잖아요.

김 대리, 금주를 가만히 보면 금주, 꾸벅 인사하고 돌아선다.
멀리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현식. 사라지는 금주의
뒷모습을 멍하니, 관심 있게 바라본다.

#37. A역 2번 출구 앞(오전)

현식, 금주에게 달려간다.

현식 (가며) 금주 씨!

금주, 뒤돌아보면 막대사탕을 물고 있다. 현식을 뻔히 본다.
금주, 전단지에 붙은 막대사탕 하나를 마저 떼서 건넨다.

현식 (받으며, 궁금) 왜 그렇게 봐요?
금주 출근 안 해도 돼요?
현식 연차 냈어요. 안 쓴 거 붙여서.
금주 진짜 따라오는 거예요?
현식 (당연) 같이 가기로 그날 약속했잖아요.
금주 (계속 가만히 보면) …
현식 저도 같이 제 돈을 찾는 거예요. 병원비 41,000원.

금주 그건 그냥 제가 찾아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같이 가는 건데요?

현식 (진심) 저는 관심 많거든요. 7만 원이 왜 사라졌는지.

금주 (가만히 보다 뭐라 말하려 하면)

현식 (말을 돌리는) 얼른 감시다! 저 보기보다 도움 될 걸요?

조잘거리는 현식. 금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앞장선다. 현식, “참!” 하더니 가방에서 양산을 꺼내 펼친다. “같이 가요!” 하며 앞서가는 금주와 함께 양산을 쓰러 쫓아가는.

#38. 편의점 앞(정오)

금주와 현식, 편의점 ATM 앞에 나란히 서서 양산을 쓰고 있다. 작은 쪽지 한 장을 함께 보고 있다. 쪽지에는 ‘YU편의점 A역 진달래점’이라고 메모되어 있다.

형사1(E) A역 근처에 있는 편의점 ATM에서 출금된 기록이 확인됐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선 알기가 쉽지 않아요.

두 사람, ATM을 본다.

의문의 형체가 돈을 인출해 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현식 (보며) 여기서 뽑아 간 거네요.

금주 고개를 끄덕인다. 금주, 다가가서 ATM을 살핀다.

위에 설치된 CCTV를 슬쩍 확인하고.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면, 현식이 그 뒤를 따라간다.

#39. 편의점 안(정오)

한가한 편의점 안, 카운터에 앉아 있는 점장, 휴대폰을 보고 있다. 쳐다보지도 않고 “어서 오세요” 한다. 금주와 현식,

편의점 안을 살피다 카운터로 가는.

현식 저기, 사장님.

점장 (폰을 보며 일어서는) 뭐 드릴까.

현식 혹시 편의점 밖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점장 (미심쩍은) 안에는 매장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밖은… 근데 왜 그러는데요?

금주 밖에 있는 ATM기 위에 설치된 건 없나요?

점장 (경계하는) ATM기는 왜요.

현식, 금주를 쳐다보면 금주가 먼저 입을 연다.

금주 며칠 전에, 여기 ATM기로 돈이 빠져나갔어요.

점장 (다 듣지도 않고) 밖에 설치된 CCTV는 없어요.

금주 방금 보니까 ATM기 위에 CCTV가 따로 있던데. 그건 확인할 수 없나요?

점장 (단호) 네. 없어요.

현식 (보태는) 저희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점장 가짜예요, 그거. 뻘쪄?

금주 (가지 않고 버티며 가만히 보는) …

점장 (못마땅) 뭐요?

금주 CCTV 보여주시면 갈게요.

점장 (답답한) 말했잖아요. 고장났다고.

금주 아까는 가짜라고 하셨잖아요.

점장 (잠시 당황하다 뻘뻘하게) 아까도 고장이라고 했어요.

현식 그럼 언제 고장났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점장 (귀찮은 듯) 어제 고장났어요, 어제. 뻘어요?

금주 (말을 끊는) 그럼 고장나기 전에 녹화된 영상은 볼 수 있는 거죠?

현식 (금주에게) 돈이 빠져나간 건 일주일 전이니까 볼 수 있겠다, 그죠?

점장 (당황) 고장나서 다 날아갔어요.

현식 이상하다. 원래 다 남아 있던데.

금주 그냥 경찰 부를까요?

현식 (휴대폰을 들고) 확인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현식, 전화 거는 시늉을 하면 점장, 현식과 금주를 문밖으로 밀어낸다. 당황한 금주와 현식, 버티려고 하지만 금방 밖으로 밀린다.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점장, 문을 잠가버린다. 당황한 금주와 현식, 문을 세게 두드린다.

현식 (같이 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문은 열리지 않고, 아예 불이 꺼지는 편의점. 금주와 현식, 몇 번 더 문을 두드리고 점장을 불러보지만 소용없다. 편의점 앞 계단에 나란히 앉는 두 사람. 시간이 흐르고 주변이 점점 어두워진다.

금주 (미심쩍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현식 그냥 확 신고해버릴까요?

금주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신고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때 금주의 휴대폰이 울리고 금주, 전화를 받는다.

금주 여보세요.

경찰(E) 이수환 씨, 보호자 되세요?

굳어지는 금주의 얼굴.

#40. 파출소 앞(밤)

수환, 파출소 의자에 누워 세상모르고 잠들어 있다. 금주와 현식, 함께 파출소에 들어오고. 금주, 누워 있는 수환을 발견한다. 경찰,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다.

경찰 이수환 씨 보호자 되세요?

금주 (조금 지친) 네.

경찰 길에서 주무시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시고, 택으로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금주가 꾸벅 인사하면 돌아서는 경찰. 금주, 수환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면 현식, 묵묵히 옆으로 와서 금주를 도와 수환을 부축한다. 현식, 어깨동무해서 수환을 일으켜 세우면 금주, 따라서 수환의 소지품을 챙겨서 나간다.

#41. 거리(밤)

현식, 수환을 부축하며 걷는다. 그 옆을 따라가는 금주.

금주 병원비도 값고, 지금 도와주시는 것도 다 값울게요.

현식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뭐.

금주 진짜예요.

현식 (피식 웃으며) 알겠어요.

금주, 현식을 가만히 보다 주머니에서 가계부를 꺼내서 보여준다. '병원비 41,000원, 편의점 포카리 1,200원' 등 현식에게 값아야 하는 일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금주 (진지) 정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안 넘어가요.

현식 (당황)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금주 (당부하듯) 그러니까 전부 기억했다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금주, 진지하다. 현식,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축스러운지 멀리 고개를 돌리며 말을 돌린다.

현식 (괜히) 혹시 사라진 건 없나 확인해봐요. 동생분, 쓰러져 있는 동안 누가 뭐라도 들고 갔으면 어떡해요.

금주, 들고 있던 수환의 윗옷 주머니를 뒤진다. 지갑을 발견하고 열어본다. 표정이 굳는 금주, 슬며시 카드 한 장을 꺼낸다. 금주의 카드다.

현식 (멈춰 서서) 왜 그래요?

금주, 말없이 카드를 내려다본다.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의 현식. 금주, 멈춰 선다. 축 처져 있는 수환을 깨우기 시작한다.

금주 (다급한) 야, 일어나. 어?

현식, 수환을 근처 계단에 내려놓는다. 금주, 수환을 세계 흔들며 깨운다. 수환이 잠에서 깬다. 잠에서 덜 깨 눈을 다 뜨지 못한다.

수환 (눈을 반쯤 뜨며) 응?

금주 (카드를 들이밀며) 내 카드가 왜 여기 있어.

수환 (얼굴을 찌푸리며, 금주를 발견하고) 뭐야. 누나네?

금주 (분노를 꼭 참고) 네가 왜 내 카드를 들고 있냐고.

수환 (점점 정신이 드는지 카드를 가까이 보는) 카드?

금주 언제 들고 갔어.

수환 (쫄리며 정신 못 차리고) 카드 안에 돈도 없던데?

수환, 금주의 굳은 표정을 보고 서서히 잠에서 깬다.

#42. 회상. 금주의 집(오후)

텅 빈 금주의 방. 수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

수환 (방 안을 찬찬히 살피며) 좁다, 좁아.

수환, 멧대로 그릇을 꺼내 시리얼을 부어먹기도 하고, 이리저리

살펴본다고 방 안을 어지른다. 그때, 서랍 안에서 통장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카드를 발견한다. 수환,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으로 나간다.

#43. 거리(밤)

수환, 머리만 굽적이고 있다. 금주, 차갑게 굳은 표정이다. 현식, 한 걸음 뒤에서 어쩔 줄 몰라 지켜만 보고 있는.

금주 7만 원 들고 간 게 너야?

수환 (가물가물한) 카드 들고 간 건 기억하는데, 돈 뽑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금주 확실하게 말해.

수환 (기억날 것 같다, 쩡그린 얼굴) 그계...

#44. 회상. 택시 안(밤)

술에 취한 수환이 뒷좌석에 누워 있다.

택시기사 도착했습니다. (수환을 깨우려) 손님, 일어나셔야죠.

수환 (뒤척이는) 으...

택시기사 이제 계산하고 내리셔야지.

비몽사몽인 수환, 뒤척거리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금주의 카드를 꺼내서 건넨다.

#45. 현재. 거리(밤)

수환 (끄덕) 인출한 적 없고, 그날 택시 타는 데만 썼어.

금주 확실해?

수환 (억울) 그날 빼고 없어. 나중엔 쓰려고 해도 잔액이 없다는데 어떡해.

금주 돈 뽑아 간 적 없어?
수환 (믿어달라는 듯) 카드가 있으면 그냥 긁지 왜 굳이 뽑아 쓰겠냐.
(되레) 그리고 택시비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러냐?

금주, 생각에 빠진 듯 진지한 얼굴이다.

인서트. 골목길.
#13에서 본 택시기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만 원을 달라고 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금주 (현식에게) 은행에서 일하면 그런 거 알아요?
현식 어떤 거요?
금주 카드 없이 돈을 인출하는 거. (자신의 카드를 쥐어주며) 그러니까 내 카드는 지금 그쪽이 들고 있는데, 내가 ATM에 가서 그 카드 안에 있는 돈을 뽑아 갈 수 있냐고요.
현식 (고민하다,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만들어둔 카드가 두 장 있거나, 통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금주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통장은 집에 있고요.
현식 그럼 누가 카드를 두 장으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금주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보면) ...
현식 누가 금주 씨 카드를 복제한 거죠.

#46. 택시 안(밤)

#13에 등장했던 택시기사, '김 기사'가 운전 중이다. 손님1, 택시의 뒷자리에서 창밖을 보며 통화 중이다. 택시가 멈추면 손님1, 김 기사에게 카드를 건넨다. 손목에 꽤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다. 김 기사, 시계를 슬쩍 보고 카드를 건네받는다. 손님1, 통화에 정신이 팔린 상태. 김 기사, 카드를 결제기에 꽂는다.

현식(E) 복제기만 있으면 카드 복제는 너무 쉬워요.

기기에 '승인 중' 메시지가 뜨고. 김 기사, 그사이에 카드를 뽑는다. 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뒷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카드를 복제기에 긁는다.

현식(E) 긁기만 하면 명의자 이름, 유효기간, CVC번호처럼 카드 안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손님1 (전화기를 잠시 떼고) 결제됐어요?
김 기사 (얼른 카드를 건네며) 결제되었습니다.

손님1, 카드를 받고 택시에서 내린다. 출발하는 택시.

현식(E) 빼낸 정보로는 쌍둥이 카드라는 가짜 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체크카드면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고요.

#47. 거리(밤)

현식 물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지만.
금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는테요?
현식 다양한데, 따로 개개인에게 알아낸 게 아니라면 은행에서 유출됐거나 위조단이 전산망에 침입해서 빼냈을 가능성이 커요.
금주 (생각하다가) 가요.
현식 (당황) 어디로요?
금주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리둥절한 현식. 금주, 휴대폰을 꺼내서 갤러리를 연다. 일주일 전, 술에 취한 수환을 부축하며 찍어두었던 택시의 번호판 사진을 보여준다. 확신하는 표정의 금주.

금주 이 사람이예요. 돈 들고 간 사람.

금주, 먼저 앞장서서 간다. 여전히 축 늘어져 있는 수환, 가버리는 금주의 뒤에 대고.

수환 (당연하다는 듯) 누나! 차비는 주고 가야지. 나 집 못 가.
금주, 그냥 가버리고. 현식, 금주를 따라가려는데 수환이 잡는다.

수환 (넉살 좋게) 형. 저 집까지 걸어가지는 못하겠는데. 차비 좀 빌려주세요.

현식 (아, 하더니 주머니를 뒤지는) 현금이...

수환 (해해) 감사합니다. 형.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으시네.

현식 조심히 가세요. (꾸벅 인사하고 가면)

수환 (뒤에 대고) 돈은 누나한테 받으세요!

#48. 지하 주차장(밤)

김 기사의 택시가 미끄러져 들어온다. 주차하고 내리는 김 기사.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위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린다. 문이 열리면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간다.

#49. 5층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앞(밤)

어두운 복도. 김 기사, 'YES택시 분실물 센터'라는 조악한 명패가 걸린 문 앞에 서 있다. 가볍게 두 번 문을 두드리면 도어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50.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안(밤)

7평 남짓의 사무소 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성미, 데스크톱 앞에 앉아 있다. 복제 장치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고 카드 정보를 하나하나 옮겨 저장한다. 능숙한 마우스 질. 그 뒤로 김 기사와 성진, 낮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성진, 복제된 카드들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김 기사는 사무실 곳곳을 살피고 있다.

성진 (사람 좋게 웃으며) 오늘은 좀 부족하네요.

김 기사 (석연치 않은 표정) 할당은 채웠으니까.

성진 (은근하게) 딱 맞추실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요령껏.

김 기사 (똑바로 앉으며) 10프로는 너무 작은 거 같아요. 20프로, 하다못해 15프로라도 채워주면 할 맛이 날 것 같은데.

성진 (웃어넘기는, 괜히 너스레) 전에 기사님 회사랑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이것도 사업인데 저희도 남는 게 있어야죠.

김 기사 우리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 건 우린데. 그 자리에서 신고 당하면 바로 끌려가요.

성진 (능글) 그러니까 언제나 눈보다 빠르게. 기사님 잡혀가시면 저희도 똑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진,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김 기사, 그런 성진을 가만히 보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김 기사 (한발 물러서는) 그냥 한번 말해봤어요. 진지한 거 아니고.

김 기사, 성진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사무실 곳곳을 눈에 익힌다.

#51. 5층 복도(밤)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앞. 성진, 김 기사를 배웅한다.

성진 다음 주에 뵙게요.

김 기사, 들어 가보라는 듯 손짓하고 돌아서서 간다. 코너를 돌아 사라지고.

성진 (혼잣말) 정가시네.

성진, 도어록을 열어 번호를 누르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간다. 김 기사, 코너 뒤에 몸을 숨겨 성진이 도어록을 누르는 모습을

지켜본다. 곧 돌아서서 가는.

#52. 택시회사 YES택시 앞(밤)

금주와 현식, 문 닫힌 택시회사 앞이다. 택시 몇 대만 주차되어 있고, 불이 전부 꺼져 어둡다. 인적도 없어 으슬으슬한 분위기. 금주의 뒤에 숨어 서 있는 현식.

현식 (겁먹은, 조잘조잘) 아무래도 금주 씨 돈이 사라진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되게 어둡다. 그쵸?

금주 (고개만 끄덕)

현식 …날 밝으면 다시 올까요?

금주, 택시들이 주차된 곳으로 먼저 걸어 들어간다. 현식, “같이 가요!” 하며 금주 뒤로 따라붙는다. 금주, 휴대폰을 꺼내 택시 번호판 사진을 확인한다. 흐릿하지만 뒤창에 ‘YES택시’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번호판 부분을 확대해보는 금주.

금주 (중얼거리는) 8105…

금주,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차된 택시들의 번호판을 확인하지만, 8105번 택시는 없다.

현식 아직 운행 중인가 봐요.

금주,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물 구석에 쭈그려 앉는다.

현식, 금주의 옆에 앉는다.

현식 기다리는 거죠?

금주 (끄덕)

현식 우리 꼭 잠복수사, 그런 것 같다. 그쵸? (금주를 보며) 피곤하진

않아요?

금주 괜찮아요.

현식 아님 좀 자요. 내가 볼 테니까.

금주 (뻘히 보다) 아까는 겁먹어서 그냥 돌아가자고…

현식 (말을 끊으며 화제를 돌리는) 한 대 들어온다!

주차장으로 택시가 들어온다. 금주, 손전등을 비춰 확인하지만 찾던 택시가 아니다.

현식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금방 찾지 않을까요?

#53. 편의점 오피스 안(새벽)

점장과 성진이 마주 보고 서 있다. 성미, 데스크톱 앞에서 CCTV 자료들을 보고 있다.

점장 갑자기 막무가내로 찾아왔습니다.

성진 그래서 누구라고요?

성미, 컴퓨터 화면으로 고갯짓하는. 오전에 편의점을 찾아왔던 금주와 현식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성진. 눈빛이 매섭다.

성진 (화면을 보며) CCTV 영상들은 이미 다 지워두신 거죠?

점장 (고개 끄덕) 네.

성진 (성미에게) 뭐하는 놈들인지 찾아봐.

#54. YES택시(새벽)

금주, 혼자 쭈그려 앉아 들어오는 차들의 번호판을 불빛에 비추어 확인하고 있다. ‘810’에서 표정이 밝아지지만 마지막 숫자가 ‘6’인 걸 보고 실망한다. 그때 현식, 살금살금 다가와서

금주의 어깨를 콕콕 찌른다. 금주, 뒤돌아보면서 손전등을 자신의 턱 밑에 댄다. 기겁하며 주저앉은 현식.

현식 (울먹) 놀랐잖아요.
금주 누군지 잘 안 보였어요.
현식 (빵이 잔뜩 담긴 봉지를 금주에게 건네는) 이거요.
금주 화장실 간다면서요.
현식 다녀오는 길에 보여서요. 여기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금주, “잠시만요” 하고 가방에서 가게부를 꺼낸다. 펜으로 ‘빵’이라고 쓴다.

금주 이거 다 얼마예요?
현식 (힐끔 금주의 가게부를 보며) 하나에 2,000원이에요. 왜요?

금주, 바로 옆에 ‘2,000원’이라고 쓴다.

현식 (보다) 이번엔 안 적으면 안 돼요?
금주 왜요?
현식 이건 그냥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싶어서요.
금주 그냥요?
현식 (당연) 네. 그냥.
금주 그냥은 없어요.
현식 (곰곰이 생각하다) 음... 그냥은 없지만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금주 (현식을 본다) ...
현식 아님 금주 씨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죠.

금주, 가만히 생각하다 ‘2,000원’ 옆에 ‘or 맛있는 거’라고 쓰고 가게부를 가방에 넣는다. 크림빵을 꺼내 한입 크게 베어 무는 금주.

현식 어때요?
금주 (먹으며) 괜찮네요.

현식도 따라 빵을 먹는다. 입가 가득 크림이 묻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다, 그쵸?” 한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아주 살짝 웃음이 터지는 금주.
현식, 아무것도 모르고 “금주 씨도 맛있죠?” 하는. 시간이 흐른다. 밤은 더욱 어두워지고. 고요한 새벽. 건물 구석에 금주와 현식이 여전히 쭈그려 앉아 있다. 금주는 말뚱말뚱하고, 현식은 금주에게 기대어 꾸벅꾸벅 존다. 그때 택시 한 대가 들어온다. 금주, 번호판을 살핀다. 금주가 찾던 8105번 택시다.

금주 (중얼거리는) 34바... 8105.

현식, 금주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일어난다.

현식 (잠에 덜 깨서, 두리번거리는) 어디예요? 어디.
금주 (목소리를 낮춰서) 저기요.

8105번 택시, 주차장 가운데에 주차한다. 긴장하는 두 사람, 8105번 택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 뒤로 살금살금 숨는다. 잠시 후, 차문이 열리고 박 기사가 내린다.

금주 (보며, 소곤소곤) 아니예요.

현식과 금주, 긴장을 푸는 순간 멀리서 김 기사가 걸어온다. 현식이 금주를 보면 금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김 기사, 박 기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금주, 현식의 손을 잡는다. 작게 놀라는 현식.
금주, 현식을 끌고 8105번 택시 뒤로 간다. 박 기사와 김 기사가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몰래 뒷좌석에 올라탄다.

도어록 번호를 누른다. 몇 번 실패하다 성공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김 기사.

#55. 8105번 택시 안(새벽)

달리는 택시 안. 운전석에 김 기사가 앉아 있다.
뒷좌석에 몸을 잔뜩 구겨 숨어 있는 금주와 현식.
힘겨워 보인다.

#56. 택시 외경(새벽)

택시 달리다가 방지턱을 넘는다.

#57. 8105번 택시 안(새벽)

차가 크게 들썩인다. 강아지 모양 방향제가 뒷좌석에 떨어진다.
김 기사, 차를 잠시 세운다. 뒤로 손을 뻗어 좌석과 바닥을
더듬거린다. 현식의 발끝까지 온 손. 현식, 입을 틀어막는다.
그를 따라 긴장하는 금주. 현식의 발에 닿기 직전에 경적 소리가
울린다. 뒤차에서 울린 소리다. 김 기사, 다시 핸들에 손을
올리고 운전하는.

#58. 5층 복도(새벽)

어두운 복도. 벽 뒤에 숨어 있는 금주와 현식. 금주, 고개를
빼꼼 내어 복도 끝에 서 있는 김 기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겁에 질려 그녀의 등 뒤에 숨어 있는 현식.
복도 끝,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앞에 서 있는 김 기사. 문에 귀를
대고 있다. 한동안 가만히 멈추어 있다 조심스레 도어록을 연다.

인서트. 5층 복도.

#51에서 성진이 도어록을 여는 모습을 숨어 지켜보는 김 기사.

#59.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안(새벽)

김 기사, 책장과 서랍장을 열어 뒤지기 시작한다.
맘처럼 잘 보이지는 않고.

인서트. YES택시 분실물 센터 안.
데스크톱에 앉아 카드 정보를 정리하는 성미.

데스크톱으로 간다.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데 발밑에 무언가가
걸린다. 작은 금고다. 김 기사, 손으로 들어본다. 꽤 묵직하다.

#60. YES택시 분실물 센터 밖(새벽)

문 뒤로 숨어서 김 기사의 모습을 살피는 금주와 현식.

현식 (두려운) 뭐하는 걸까요?

금주, 가만히 보다가 현식이 들고 있는 폰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현식, 어리둥절한 표정.

#61. 지하 사무실 안(새벽)

김 기사, 데스크톱이 켜지면 본체에 usb를 꽂는다. 바탕화면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복사해서 옮긴다. 로딩 시간이 뜬다.
둘러보다 구석에 있는 캐비닛을 발견하고, 자물쇠로 잠겨
있지만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끊어낸다. 안에는 복제 카드와
각종 서류들이 가득하고, 전부 가방 안으로 담는다. 쓸어 담다
선반 밑에 뭔가 닿는다. 고개를 낮추어 보면 열쇠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

#62. 지하 주차장(새벽)

김 기사, 차 트렁크에 작은 금고와 복제 카드, usb, 서류들이 담긴 가방을 싣는다.
기둥 뒤에 숨어 김 기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현식.
금주가 고개를 끄덕이면 현식,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조용한 지하에 종료 효과음이 울린다. 현식, 놀라 굳어버리고, 금주, 재빨리 현식을 끌어 뒤로 숨는다.
김 기사, 움직임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다.
금주와 현식, 벽 뒤에 숨어서 숨을 참고 있다. 김 기사,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는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김 기사. 한 걸음 더 가면 벽 뒤로 숨은 금주와 현식이 보이는데, 그대로 뒤돌아선다.
금주와 현식, 소리 없이 안심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두 사람 앞에 휴대폰을 든 김 기사가 나타난다. 김 기사와 금주, 현식. 대치하듯 마주 서게 되고, 침묵이 흐른다. 김 기사, 먼저 택시 쪽으로 재빠르게 달린다. 현식, 달려서 김 기사의 뒤를 덮친다. 우당탕 넘어지는 김 기사와 현식. 현식, 김 기사의 등 뒤로 바닥에 누르듯이 포박하고, 금주, 김 기사가 넘어지면서 떨어진 폰을 재빨리 줍는다.

김 기사 원하는 게 뭐야.

금주, 김 기사의 앞에 앉는다.
아까 전부터 촬영한 영상을 들이미는.

금주 7만 원.

김 기사 (잠자코 보는) …

금주 (진지) 7만 원. 돌려주세요. 그때 받아간 만 원이랑.

김 기사 (예상치 못한) 7만 원?

금주 8월 2일 새벽 4시 54분. 제 돈 7만 원 인출해 갔잖아요.

김 기사 (금주를 가만히 보다가 그제야 기억난 듯) 그때?

금주 아님, 경찰서에 바로 영상 보낼 거예요.

김 기사 (상황을 파악하는 듯, 가만히 보다가) 알겠어요. 좋게요.

김 기사, 놀린 팔을 움직여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지갑 대신 차키 버튼을 누른다. ‘삐빅’ 소리와 함께 깜박이를 번쩍이는 택시. 금주와 현식의 시선이 택시로 향하면 김 기사, 몸을 일으켜 현식을 밀어내고, 재빨리 금주에게 몸을 던진다. 현식, 김 기사를 잡으려 하지만 놓치고. 금주, 넘어지면서 휴대폰 떨어뜨린다. 사라진 휴대폰. 당황한 금주와 현식.
김 기사, 재빠르게 차에 올라탄다. 금주, 차를 막아서고.
김 기사, 거침없이 차를 출발시킨다.
현식, 재빨리 달려 금주를 안고 반대편으로 넘어진다.
김 기사, 백미러로 지하주차장 바닥을 본다. 현식의 폰이 보인다. 후진을 하며 폰을 박살내버리고.
금주, 쓰러지자마자 일어서서 달린다. 하지만 곧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데.
김 기사,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창문을 좁게 열어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일곱 장을 던져버린다. 지폐 몇 장은 하수구 비슷한 구멍 사이로 빠진다.

김 기사 (가며) 내가 가진 건 그게 전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끝까지 쫓아가는 금주.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고 중심을 잃고 쓰러진다. 현식, 놀라 금주에게 달려간다. “금주 씨!” 하는 현식의 목소리가 울린다.

#63. 병원 대기실(밤)

병원 의자에 누워 있는 금주. 만신창이다. 눈을 뜨면 걱정스러워하는 현식이 보인다.

현식 (보며) 일어났어요?

금주 (일어나며) 다 잡았는데.
 현식 (걱정)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몸은 좀 어때요? 지금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료 받으려면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금주 그럼 돌아가요. 그 정도 아니니까.
 현식 아니에요. 가뜰이나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금주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얼른 나가요.
 현식 (단호)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야 해요.
 금주 진짜 괜찮아요.
 현식 (속상, 진지한) 아니, 괜찮은 거 말고 좋아야 한다고요. 괜찮은 건 그만하고 금주 씨가 지금 좋은지, 좋지 않은지가 중요해요.
 금주 (보는) …
 현식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링거라도 맞고 가요, 우리.
 금주 그렇게 또 신세를 지면.
 현식 (말을 끊으며, 금주에게 가방을 주는) 한 푼도 안 빼고 다 받을 테니까 빨리 수첩에 적어요.
 금주 (가만히 현식을 보다가 주섬주섬 가계부를 꺼낸다) …
 현식 빨리 적어요. 현식 병원비.
 금주 (받아 적고 현식을 보는) …
 현식 다음은 더 중요해요.

금주, '현식 병원비'라고 적는다.

현식 몇 배로 맛있는 걸로 갚기.
 금주 (적으려다 말고) 몇 배로 갚을까요?
 현식 (당황하다 단호한 척) 그… 열 배, 아니 백 배로 갚아요. 백 배.

금주, 폰이폰대로 '백 배 맛있는 거'라고 쓴다.

금주 근데 백 배는 너무 심한 거 같은데.
 현식 (말을 끊으며 괜히 성내듯)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말이!

#64. 병원 앞(밤)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 금주와 현식. 현식, “아!” 하고 멈춰 선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금주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식을 보면, 주머니에서 뺏뺏하게 편 지폐를 꺼낸다.

현식 (조심스레) 이거…

금주, 말없이 받는다. 검은 철이 묻은 현식의 손과 소매가 보인다.

현식 (눈치를 살피는) 조금 더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닦으니깐 좀 나아졌어요.

금주 (덤덤, 세어보고) 7천 원이랑 만 원… 가요.

현식 어디로 갈까요?

금주, 보다 씩씩해진 걸음으로 앞서간다.

금주 나머지 63,000원 찾으러 가야죠.

#65. 지하 사무실(오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사무실 안. 굳은 표정의 성진. 성미, 침착한 표정으로 책장으로 간다. 책 사이에 빨간불이 깜박거린다. 소형 몰래카메라를 꺼내는.

#66. YES택시/사무실 안(오전)

택시회사 사장과 마주 보고 있는 금주, 현식.

사장 (가웃) 그리고 보니 김 기사, 그 청년이 아직 출근을 안 했네.

금주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을까요?

사장 글썸. 이런 적이 없는데.

그때 사무실로 #54에 등장했던 박 기사가 들어온다. 사무실 안에 있는 종이컵을 꺼내 인스턴트커피를 탄다.

사장 (마침 잘 왔다는 듯) 저, 박 기사. 출근이 늦었네. 여기 김 기사 만나러 왔다는 분들인데 아침부터 김 기사가 안 보이네.

박 기사, 고개를 돌려 금주와 현식을 본다.

인서트. YES택시.

#54에서 박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김 기사의 모습.

금주,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금주 저기, 기사님.

#67. 건물 앞 벤치(오전)

박 기사와 현식, 금주, 대화를 하고 있다.

박 기사 김 기사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요?

금주 (끄덕) 전달받기로 한 물건이 있는데, 약속 장소에 안 나오셨어요.

현식 (보태는) 무슨 일 있는 것 같으면 기사님을 찾아가라고 했거든요.

박 기사, 생각에 빠진 듯 심각한 표정. 김 기사에게 전화 걸어보지만 받지 않고.

금주 (알고 있다는 듯) 전화 안 되죠?

현식 어젯밤부터 쪽 연락이 안 돼요.

박 기사 (고민하다) 말할 순 없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망설이다) 연락이 안 되거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여기로

가달라고 했어요.

박 기사,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준다. 주변을 살피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포스트잇과 펜을 꺼내고, 'A시 ○○구 □□동 100-5 영일상가 뒤편'이라고 쓴다.

박 기사 상가 뒤편에 주차된 차가 많아요. 수리해야 하거나, 오래 비는 차들 사이에, 같은 번호판 8105번이에요.

#68. 버스 터미널(오전)

금주, 터미널 대기 의자에 앉아 있다. 가게부에 '버스비 -9600원, 계란 4개 -3000원'을 적는다. 현식, 옆에서 계란을 까고 있다. 현식, 다 깠 계란을 금주에게 준다.

현식 (먹으며) 차에 뭐가 있을까요.

금주 (먹으며) 빨리 가 봐야죠.

현식 (시계를 보고) 곧 출발이에요.

금주 (문득) 시외버스는 처음이에요.

현식 그럼 A시도 처음이에요?

금주 (끄덕이는) 네.

현식 다음에는 놀러 가요. 거긴 바다가 멋져요.

금주가 가만히 현식을 바라보면 현식, 미소 짓는다.

금주 (먼저 일어서는) 다녀올게요.

현식 (무슨 말인지 모르는) 네?

금주 A시는 저 혼자 다녀올게요.

현식 (당황) 왜요? 제가 계속 귀찮게 해서요?

금주 (고개를 짓는) 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휴대폰까지 망가졌잖아요.

현식 아니에요. 저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금주 더 이상은 미안해서 안 돼요. 그게 절 도와주는 거예요.
현식 (기죽은) 아직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금주 (단호) 혼자서 할 수 있어요. 늘 그랬고요.

현식, 걱정스럽게 금주를 본다.

금주 금방 돌아올게요.

순간 금주, 금주의 모가 떠오른다.

인서트. 가정집.
#16에서 금주 모,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금주를 바라보며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

#69. 버스 터미널(오전)

금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현식을 보며 어릴 적 자신이 떠오른다.

금주 (진지) 저는.
현식 (계속 바라보는) ...
금주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지겹도록 해봤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아서,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키지 못하는 약속 같은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면 꼭, 멀쩡하게 돌아올 거예요.

금주, 진솔한 말투와 표정. 현식,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70. YES택시 분실물 센터(오전)

사무실 구석에 손발 묶여 포박되어 있는 김 기사.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성진, 그 앞에 앉아 있다. 성미, 데스크톱 앞에 앉아 녹화된

CCTV를 보는. 화면 속에는 김 기사가 사무실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성진 어디 댔어요?

김 기사, 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다. 고개를 저으며 점점 굳어지는 성진의 표정. 김 기사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다.

성진 어디 댔냐고요.

김 기사 (입이 얼얼한 듯 찡그리다가 애써 미소 지으며) 이미 신고했어요.

성진 (화가 나지만 참으며) 정말 그랬을까요?

김 기사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 항상 말해줬잖아요. 눈보다 빠르게.

성진 (이름 봐라, 꼭 참으며) 말했을 텐데요. 신고하면 우리 둘뿐만 아니라 기사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김 기사 상관없어요.

성진 장난 같아요? 내가 기사님도 공범이라고 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김 기사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비웃듯이 웃는)

팽팽한 분위기의 사무실 안.

성미 (건조한) 다치는 사람이 더 나오는 건 기사님도 싫으시잖아요.

성진, 김 기사 (동시에) ?

성미 (김 기사 휴대폰을 보여주며) 마지막 통화를 박 기사님이랑 하셨네요.

김 기사 !!

성미, 씩 웃으며 휴대폰 꺼내는.

#71. 영일상가 뒤편1(오후)

넓은 주차장. 수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그 사이로 양산을

쓴 금주가 서 있다.

#72. 영일상가 뒤편2(오후)

큰 봉고차가 상가 앞에 멈춘다. 성진이 먼저 차에서 내리면, 따라서 뒷문을 열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차를 찾기 시작하는.

#73. 영일상가 뒤편1(오후)

차들의 번호판을 확인하는 금주.

금주 (중얼거리는) 8105...

#74. 영일상가 뒤편2(오후)

빠르게 흩어져 차들을 살피는 검은 옷들.

#75. 영일상가 뒤편1(오후)

금주, 번호판을 빠르게 읽어 내려간다. 이마에 땀이 맺힌다.

#76. 영일상가 뒤편2(오후)

흩어져서 번호를 찾던 검은 옷 중 하나가 손을 들며 소리친다.

검은 옷1 여기 있습니다!

모여드는 사람들. 성진, 가장 먼저 달려가서 8105번 차 앞에 선다. 성진, 뒤에 있는 무리 중 한 명에게 고갯짓하면 검은 옷2, 능숙하게 트렁크를 연다. 천천히 열리는 트렁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심하게 구겨지는 성진의 표정. 성진, 전화기를 꺼낸다.

성진 벌써 들고있어.

#77. YES택시 분실물 센터(오후)

성진(E) 박 기사 쪽으로 더 알아봐.

성미 (전화를 들고) 그쪽 아냐.

성미, 데스크톱 화면을 보고 있다. 정지되어 있는 CCTV 화면. 지하 주차장에서 금주와 현식이 김 기사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미, 이놈들 봐라 하는 표정이다. 성미, 전화를 끊는다. 컴퓨터에서 금주의 카드 정보를 찾아내고, 손쉽게 금주의 개인정보를 찾아낸다.

#78. 버스 안(오후)

달리는 버스 안. 금주, 좌석 밑에 작은 금고와 큰 가방을 두고 있다. 금주, 몸을 숙여 가방을 열어보면 증거자료와 usb들이 정리되어 있다. 금주, 가방에서 발견한 열쇠로 금고를 열어본다.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다. 놀라는 금주.

#79. 금주의 집(오후)

수환, 한가롭게 누워, 폰으로 고스톱 게임을 하고 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택배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수환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느릿느릿 일어나는) 네. 나가요.

수환, 문을 열면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보인다. 빈손의 남자.

남자 황금주 님 택배 맞나요?

수환 네. 맞는데...

문을 더 넓게 여는 순간, 검은 봉지가 수환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80. △△지방경찰청(오후)

가방과 금고를 힘겹게 짊어진 금주. 경찰청을 가만히 올려다보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때 금주 폰이 울리고, 액정에 '수환'이라는 이름이 뜬다.

금주 (전화를 받는) 여보세요?
수환(E) (울먹이는) 누나 지금 어디야? 빨리 와서 좀 어떻게 해봐.
금주 (당황)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환(E)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지금 여기... (외마디 비명)
금주 (동요하는, 크게 부른다) 이수환!
성미(E) 황금주 씨.
금주 (잠자코) ...
성미(E) 지금 들고 있는 거 전부 챙겨서 영일상가 주차장으로 열 시까지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동생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끊어버리는 전화. 금주, 이를 악문다.
경찰청을 앞에 두고 돌아서는.

#81. 휴대폰 대리점 앞(오후)

현식, 폰을 새로 구입하고 나오는 길이다. 폰을 켜자마자 금주에게 여러 번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다. 현식,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어딘가로 달리는.

#82. 공터(밤)

가방과 금고를 짊어진 금주. 주변을 살핀다. 아무것도 없는

공터. 무언가 발밑으로 다가온다. 내려다보면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다. 금주, 눈높이에 맞춰 앉는데 순간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진다. 바로 일어서려는데 순식간에 검은 봉지가 금주의 머리에 썩워진다. 저항하려는 순간, 누군가 등 뒤로 날카로운 나이프를 가져다 댄다.

#83. 금주의 집(밤)

현식, 금주의 집 앞에 서 있다. 초인종을 누른다.

현식 (중얼거리는) 아무도 없나... (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금주 씨, 저예요!

현식, 가웃거리며 뒤로 돌아가려는 순간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 돌아보는 현식. 심각한 표정이다. 심장이 빠르게 뚝뚝 뛰었다. 순간, 떠오르는 금주의 목소리.

금주(E)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면 꼭, 멀쩡하게 돌아올 거예요.

현식, 불안하다.

현식 (문을 세게 두드리며) 계세요!

더 세게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문이 저절로 열린다. 굳은 현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84. 공터(밤)

검은 옷1·2가 검은 봉지에 얼굴이 묶인 금주를 포박하고 있다. 지켜보는 성미와 성진. 포박이 끝나자 성진, 검은 옷들을 손짓으로 보내고.

성진 (피곤) 얼른 옮기고 마무리하자. 근데 이 여자는 도대체 뭐야.
 성미 그때 7만 원, 그 사람이야.
 성진 (놀라) 뭐? 그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와.
 성미 일단 빨리 치워.

그사이 금주, 뒤로 묶인 팔을 움직인다.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소매에 숨기는.

#85. 금주의 집(밤)

현식, 벽면을 더듬어 불을 켜자 포박되어 멍투성이가 된 수환이 보인다. 주변에는 쓰러진 물건들이 툇갈고 있다. 놀라 달려가는 현식. 수환을 반만 일으켜 세운다.

현식 (놀라) 괜찮아요?
 수환 (현식을 알아보고, 매달리는) 살려주세요.
 현식 (다급) 어떻게 된 거예요?
 수환 저도 몰라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누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현식 (급히 말을 끊는, 불안) 금주 씨가 왜요.
 수환 (살려달라는 듯) 어떤 상가로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 진짜 죽겠어요. 빨리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현식 (커지는 불안, 중얼거리는) 상가...

현식, 뭔가 떠올랐는지 밖으로 뛰쳐나간다.

#86. 공터(밤)

금주, 구석에 포박되어 누워 있고. 성진과 성미, 금고와 가방을 확인한다. 성미, 열쇠로 금고를 열어 돈을 확인한다.
 성진, 가방을 열어 뒤진다.
 쓰러져 있는 금주. 손목에 묶인 끈은 이미 풀어져 있고, 소매에

숨겼던 나이프를 이용하여 발목에 묶인 끈을 끊고 있다.
 성진, 계속 가방을 뒤져보지만 복제된 카드와 종이 뭉치들만 보일 뿐 usb나 서류들은 보이지 않는다. 성진, 가방을 멀리 던져버린다. 던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린다. 성진과 성미, 다시 가방을 주워 더듬어본다. 뭔가가 잡힌다. 가방의 천 사이를 찢어서 usb를 발견하는. 성미, 증거를 챙기려는 순간 금주, 증거로 달려든다. 놀란 성진이 금주를 잡으려 하지만 금주, 피하고. 순간 usb가 공중에 튄다. 금주, usb를 잡기 위해 높이 뛰지만 손끝에 맞고 떨어진다.
 흙바닥을 구르는 usb. 성진, 가서 밟아버리려 하지만.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usb를 잡은 금주. 성진, 금주의 손등을 세계 밟는다.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성미, 금주가 높이 뛰면서 떨어뜨린 나이프가 구석에서 빛나는 것을 발견한다. 금주, 다른 한 손으로 usb를 들고 달리려는 순간. 금주 목에 칼을 가져다 대는 성미.

성미 그대로 내려놔.

금주, 양손을 항복하듯 올린 상태로 멈춰 있다.

금주 내 동생은.
 성미 (단호) usb부터 내려놔.
 금주 먼저 놓으면 그때 내려둘게.
 성진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금주 (이 악물고) 이거 너희 목숨 값이잖아. 아니야?
 성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금주 니들이잖아. 7만 원 들고 간 거.
 성진 (어이없는) 지금 고작 7만 원 때문에 이런다고? 목숨 걸고?
 금주 (놀라울 만큼 냉정하게) 고작이 아니라면.
 성진 (발밑에 있던 금고를 발로 툇툇 치며) 그거 내려놓으면 이것도 줄 수 있어. 봤잖아.
 금주 필요 없어.

성미 정말 7만 원만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금주 (고개만 끄덕)
 성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 7만 원을 뿌린다) 이거면 이제 됐지?
 그거 두고 꺼져. (금주를 넘어지도록 미는)
 성진 (피식) 동생은 집 가서 찾아봐.

천천히 쭈그러 앉아 돈을 한 장 한 장 줍는 금주. 비웃듯 금주를 내려다보는 성미와 성진. 금주, 조심스럽게 usb를 내려놓는다. 성진, usb를 줍기 위해 손을 뻗는다. 금주, 마지막 지폐까지 다 주운 듯 일어나는 척하며 손에 가득 쥐고 있던 휴을 성진과 성미에게 뿌린다. 두 사람, 괴로운 듯 눈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면 틈을 타서 다시 usb를 들고 뛰는 금주. 성미, 괴로워하며 아무렇게나 칼을 휘두른다. 칼이 금주의 옆구리를 찌른다. 그대로 쓰러지는 금주, 아득해진다. 순간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87. 공터/구급차 안(밤)

검은 화면. 누군가 “금주 씨!” 하고 여러 차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온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흐릿한 시야. 눈을 뜨는 금주, 현식이 보인다.

현식 (다급, 걱정) 괜찮아요? 내 목소리 들려요?
 금주 (고개를 끄덕이는) ...
 현식 다 기억나요? 스친 거라 가서 봉합하고 치료받으면 된대요.
 금주 (거의 기어 들어가는) 잡은 거예요?
 현식 (끄덕이는) 금주 씨가 잡은 거예요.
 금주 여긴 어딘대요?
 현식 구급차. 곧 출발할 거예요.
 금주 (약하게 끄덕거리는) 다행이네요.
 현식 (속상한) 이게 뭐가 다행이에요! 피나고 까지고 성한 곳이 없는데.
 금주 (몸을 일으키는) 저 잠시...
 현식 (놀라) 괜찮아요? 지금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금주, 고통을 참으며 느린 속도로 몸을 일으켜 나간다.

#88. 공터/경찰차 앞(밤)

금주, 성진과 성미를 태운 경찰차 앞까지 간다. 나란히 경찰차 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열린 창문 틈으로 쥐고 있던 7천 원을 던져 넣는다.

금주 계산은 똑바로.
 돌아서는 금주. 다시 구급차로 가는데 어느새 따라온 현식이 금주를 부축한다.

현식 (걱정하며 금주의 팔을 잡으며) 조심해야 해요.
 금주 (힘겹게, 걱정 말라는 듯) 걸을 수 있어요.
 현식 정말 괜찮아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금주 (잡은 현식의 팔에 살짝 기대며) 좋아요.
 현식 네?
 금주 괜찮은 거 말고, 좋다고요. 지금.

현식, 멍하니 금주를 본다. 힘겨워 보이는 금주, 열게 미소 짓는다.

#89. 상근의 차 안(오전)

상근, 금주의 원룸 빌라 앞에 차를 대고 있다. 팔짱을 끼고 빌라를 주시하는 상근.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다. 놀라 창문을 슬쩍 열면 팔에 깁스를 한 금주가 보인다. 금주를 알아보는 상근. 창문을 더 연다.

금주 안 올 거예요.
 상근 진성이 딸?

금주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려봤는데 결국엔 안 오더라고요.
상근 (여전히 어리둥절)?
금주 그렇다고 제가 갚아드릴 수도 없구요.

상근, 뭐라 말하려 하면 금주, 돌아선다. 금주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린다. 액정에 '수환'이 뜨지만 금주, 받지 않고 끊는다. 뒤돌아보면 그녀를 기다리던 현식이 있다. 현식과 미소, 서로 마주 보고 미소 짓는.

#90. 현식의 차(오전)

현식 퇴원 기념으로 제가 쓸게요.
금주 (가계부를 보여주며) 제가 사주기로 했잖아요.
현식 (금주 손을 보고) 여기 다 나오면 그때요.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금주, 고개를 끄덕이면 현식, 라디오를 켜다.

현식 (고개를 끄덕이고 멀리 보며) 내일부터는 또 출근이네요.
금주 (미소) 오랜만에 가려니까 가기 싫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가계부를 보며) 7만 원 찾으려고 쓴 돈이 7만 원보다 많아요.

함께 웃는 두 사람. 그러다 현식, 문득 금주의 눈치를 살핀다.

현식 (괜히 부끄러워 기어 들어가는 소리) 근데... 그때 물어봤잖아요.
역에서 만났을 때. 저한테 왜 따라오는 거냐고. 그거 사실...
금주 (먹다가 못 듣고) 네? 뭐라고요?
현식 (머뭇) 아니 그게... 그때 물어본 게 사실은 전부터 금주 씨...
금주 (말을 자르며) 어? 잠시만요.

마침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통장이나 카드를 훔쳐 돈을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약 7억 원을 탈취한 혐의로 구속된

신 모 일당과 택시기사 김 씨 등이 해외 불법 도박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범인 검거에 있어 난항을 겪었던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신 모 일당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시민 황금주 씨에게 현상금 육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주와 현식, 서로를 바라본다. 금주,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황금주?" 하고 묻는다. 현식, 얼떨떨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금주가 "육천만 원?" 하면 현식, 더 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병병한 금주의 얼굴이 서서히 미소로 바뀌며 엔딩.

끝.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7천 원이 빠져나가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찾아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고는 주인공 금주가 7만 원을 찾는 과정에서 평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 둘 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퇴고할 땐 금주가 7만 원을 찾으려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에 보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으나, 고민과 선택을 거쳐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금주의 가계부>가 작품집에 실리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글 쓰는 것이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보겠습니다.

2019 오픈 드라마 작품집 하권

초판 발행. 2019년 12월 05일

글. 한유림, 배이화, 박정아, 정희선, 박바라
김민주, 이정주, 백인아, 박정민, 박은정, 새봄
이희수, 진하영, 채우, 손호영, 김주후, 윤인영
박은하, 심보영, 오주영

제작. 오픈
디자인.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박은경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 씨제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979-11-965931-7-9 (하)
ISBN 979-11-965931-5-5 (세트)

© 2019 CJ EN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